

水 原 學 研 究 2 0 1 0

水原學研究

第7號



水原文化院 附設 水原學研究所





간행사



| 은 수 길 |
수원학연구소장

경인년의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더듬어봅니다. 수원 문화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 새롭고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숨어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기 위해 수원학연구를 발간한지 일곱 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원전통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자료인 수원학 연구 7호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해 동안 자료수집, 논문발표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위원장 김동욱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수원문화원 유병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원학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부설로서 지역문화예술분야의 자료수집, 분석 및 정책의 발전방안을 발굴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한 수원의 전통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 토양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여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문화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료총서 및 연구총서의 발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원학연구소에서는 지역학의 발전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매년 사료총서, 정기학술세미나, 수원학연구 논문집 발간 등의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수원학연구 7호는 정기학술세미나와 지역문화발전방안 논문등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특히 수원의 역사를 전제로 한 지역콘텐츠의 활용방안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수원학연구는 열매가 익어가는 작은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널리 보급하는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수원학연구 7호의 발간으로 아름다운 수원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수원학연구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원학연구에 매진하여 수원지역 전통문화의 기반을 굳게 다짐으로써 후세에 진정한 아름다움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학연구 7호를 발간하기까지 원고작성과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원학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 유 병 현 |
수원문화원장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의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하여 앞으로 수원시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수원지역 전통문화의 조사, 개발, 전승을 위한 전통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전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학연구소에서는 사료총서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지역 근대교육자료총서 사진으로 보는 수원지역 근대교육 조사사업과, 해방이후 수원지역 태권도인 조사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기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정기학술세미나는 수원 시민들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지역 내의 가치 있는 유적을 재조명 하여 지역 콘텐츠 개발을 모색하고자 “숨어있는 수원유적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전에 수원학연구소에서는 정조시대의 기록유산들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들이 현대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정조시대 기록유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수원의 특색을 나타내는 숨어있는 수원유적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수원학연구 7호는 수원학연구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 4편과 수원지역 관련 일반논문 5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역사를 전제로 한 문화콘텐츠를 자원화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들을 담아내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로 7호를 맞이하는 『수원학연구』가 비록 작은 결실이지만 이 작업들이 바탕이 되어 더욱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결과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원학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여 수원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수원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제언 부탁드립니다.



간행사 • 은수길 (수원학연구소장) 5

격려사 • 유병헌 (수원문화원장) 7

특집 : 숨어있는 수원유적 재발견

수원 화성의 천주교 사적지 재조명 -형옥(刑獄)을 중심으로- • 원재연 11

산자수명(山紫水明), 수원 지방의 산맥을 찾아서 • 김충영 47

수원의 물길, 물에 대한 사회적 상상을 위한 시론 • 최춘일 75

수원 장시의 어제와 오늘 -8세기 후반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수원 장시의 변화상- • 주 혁 113

일반논문

정조의 군제개혁과 관무재(觀武才) • 김영호 131

수원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손호기·김은자 159

영동시장과 수원 -수원지역 토박이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 최자운·김상범 181

수원지역 음악사 연구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 김은혜 195

수원 역사·문화 창조도시 제안 • 최호운 243

<회 보>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307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312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315

특집 : 숨어있는 수원유적 재발견

수원 화성의 천주교 사적지 재조명

— 형옥(刑獄)을 중심으로 —

원재연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머리말 - 화성 건설과 천주교
1. 형옥의 설치와 천주교 박해

2. 형옥과 유관 기관
맺음말 - 화성 형옥의 사적지의

머리말 - 화성 건설과 천주교

조선후기 계몽군주 정조(正祖)가 1789년(정조13년) 7월 그의 생부 사도세자의 현릉원(顯隆園)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도호부의 용복면(龍伏面) 화산(花山) 일대에 위치한 구읍치로 이전하면서, 수원은 미증유의 큰 변혁을 맞게 된다. 이른바 화성(華城) 경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790년 7월 팔달산(八達山) 자락으로 읍민과 관아의 이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행궁(行宮)을 비롯한 군영, 향교 및 각종 관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1790년 2월경에는 신읍치가 대강 이루어졌다.¹⁾ 이와 같은 1단계 화성 경영의 결과로 이

1) 《수원시사 1》pp.591-669(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6) ; 이에 의하면, 정조의 화성 경영은 그의 생부 사도세자의 신원, 복원을 통한 그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학 및 서학의 수용을 통한 유교적 개혁정치의 실현을 위한 왕권강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정치사적 고찰은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 즉, 정조의 화성 경영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야기된 수원 지역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음을 밝혀둔다.

고을에서 1795년경부터 1800년 6월 정조가 서거하기 전까지 정조의 밀지(密旨)에 따라 수원 고을은 물론이고 경기도내 이웃 고을과 충청도 내포지방까지도 파견되어 은밀하게 천주교 신자들을 수색하고 추포하던 장용외영(壯勇外營) 군사들의 거처인 남북군영(南·北軍營, 합62칸)이 행궁 내에 건립되었다.²⁾ 한편 행궁 밖에는 병인박해기 유수부내 천주교 신자들을 수색, 체포하던 토포군관청(討捕軍官廳 9칸)과 신자들의 수감처인 형옥(刑獄 6칸)이 건립되었고³⁾, 토포청과 함께 화성의 군사 및 치안담당자 중군(中軍, 정3품직)의 치소인 중영(中營, 19세기에는 摠理中營)에 통합되는 방영군관청(防營軍官廳, 12칸) 및 중군 막료들의 거소인 별효사청(別驍士廳, 6칸) 등도 건립되었는데, 이 중영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을 고백하거나 심문에 굴복하여 배교했다.

1792년 정조는 행궁 등 공해시설을 보호할 화성 축조를 계획하고 정약용에게 성을 쌓는 방법을 조목별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⁴⁾, 이에 정약용은 당시 부친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성의 규제(規制)뿐만 아니라 성을 쌓는데 효율적인 기구인 거중기(舉重機)의 원리와 제도를 설명한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까지 작성해서 정조에게 올렸다.⁵⁾ 1793년 정조는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개칭하면서, 동시에 고을의 품격을 종3품 아문인 도호부(都護府)에서 정2품의 유수부(留守府)로 3단계나 격상시키는 제도상의 대변혁을 단행하고 초대 수원유수로 재상을 지낸 바 있는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임명하여 본격적인 2단계 화성 경영에 나섰다.⁶⁾ 초대 수원유수 채제공은 정조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1794년 1월 터를 닦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후 계속해서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승진하면서, 총리대신(摠理大臣)의 직함을 갖고 화성 축조와 관련된 총찰(摠察)의 임무를 수행했다.⁷⁾ 채제공에 이어서 1794년 2월 수원유수가 된 조심태(趙心泰)는 그의 종사관에 해당되는 정동협(鄭東協), 홍원섭(洪元燮) 등 수원판관(水原府判官)의 도움을 받아 1796년 8월에 실질적인 축조사업을 완성하고 10월에 낙성연을 열었다.⁸⁾ 약 2년

2) 위 책 p.674 : 이 남군영과 북군영은 순조초 장용외영이 폐지된 후 총리영의 군사들이 주둔했다.
 3) 《辛亥正月日新邑營建公廡間數成冊》(奎9919) p.69.
 4) 김정자, <正祖代 華城城役 研究의 動向과 課題>《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24(한신대출판부, 2003).
 5) 정규영, 《俟菴先生年譜》(1921년 서술, 1984년 正文社에서 간행) pp.33-34.
 6) 원재연, <수원유수부내 천주교 박해의 전개과정>《교회사학》제2집(2005.12, 수원교회사연구소) pp.50-64.
 7) 《華城城役儀軌》(규14586) 중 <城役所座目>.
 8) 위와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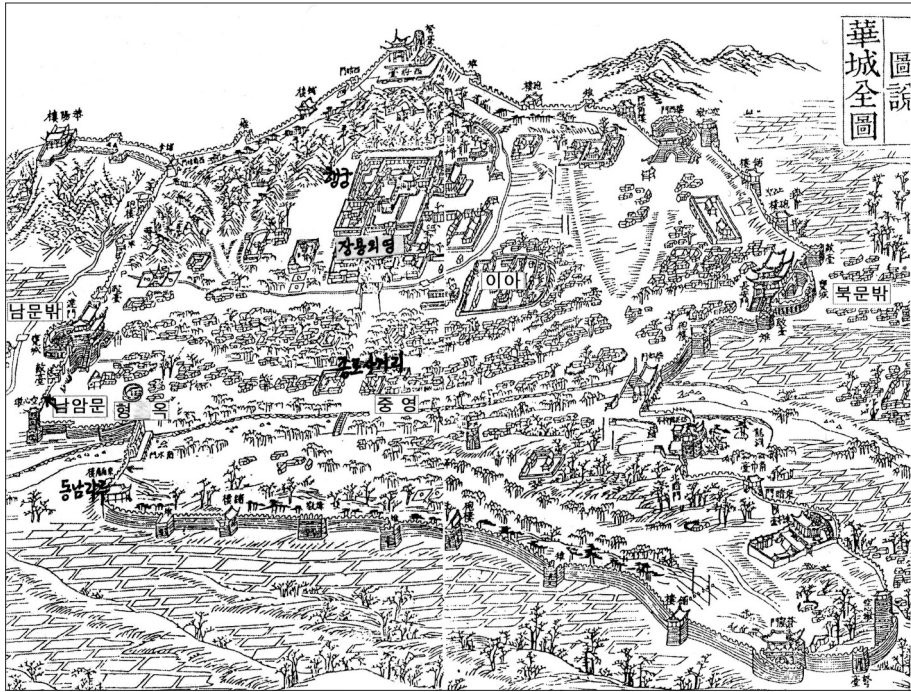
8개월에 걸친 이와 같은 화성축조는 정조의 2단계 화성경영의 성과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동 기간에 수원 고을에서 훗날 천주교 박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남암문(南暗門, 1795년 2월)과 동남각루(東南角樓, 1796년 7월) 등이 건설되었다. 이들은 각각 병인 박해기 화성에 끌려온 천주교 신자들이 공개처형인 참수형을 당하거나(동남각루), 처형당한 신자들의 잘려진 수급(首級)이 내걸리는 곳이자 형옥이나 중영에서 처형된 순교자의 시신이 성밖으로 버려지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남암문)이 되었다. 한편 이들 남암문과 동남각루의 건설에 앞서 1793년 1월 수원고을이 유수부로 승격된 후 유수의 종사관으로 부임한 화성 판관(判官, 종5품직)의 집무처인 이아(貳衙)가 1793년 12월에 건립되었는데, 이 이아에서 판관은 천주교 신자들의 동향을 감시하여 정기적으로 유수에게 보고하면서, 체포되어온 천주교 신자들의 1차 심문 및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집행했으며, 배교를 거부하는 신자들을 중영(中營, 誚捕廳)으로 보냈다.⁹⁾ 중영은 1798년에 비로소 건립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790년부터 1796년까지 수원에 행궁을 비롯한 각종 공해(公廡)가 먼저 들어서고, 이어서 성곽(=화성) 및 그 부대시설이 건설되면서,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각종 관아와 장소들도 함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조 당대(18세기 후반)에는 행궁 내 장용영이 위치했던 남북군영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기관들은 천주교와 무관한 고유의 행정 내지 군사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비록 당시에 천주교가 이미 서울, 경기도 물론이고 충청, 호남과 영남 일부 까지도 전파되고 있었지만 본격적이고 공개적인 천주교 탄압을 자제해왔던 국왕 정조의 독특한 천주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⁰⁾

9) 원재연 앞의 논문 같은 곳.

10) 정조대의 천주교 전파 및 이와 관련된 국지적 박해에 대해서는 원재연, <正祖代 西學과 天主教 普及>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8).

〈그림 1〉 《화성성역의례》내의 〈도설화성전도〉를 활용한 화성 내 천주교 관련 사적지 표시¹¹⁾



수원 고을에 화성이 축조되던 전후시기부터 병인박해기까지 천주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적지들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2005년 북수동 성당(=수원성지)에서 개최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한 논문¹²⁾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논문에서는 미진한 바가 많았는데, 곧 정조대 국지적 천주교 박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용영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언급했던 이아, 중영, 감옥 등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위치와 박해기관으로서의 수행기능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수원유수부 내 천주교 박해의 책임자로 드러난 유수, 판관 등에 대해서는 역대 명단을 읍지에서 찾아서 정리했지만,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박해 집행의 실무자이자 순교자 처형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중군에 대해서는 그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11)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p.88의 그림에서 몇 군데 천주교 사적지를 추가로 기입한 것임.

12)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무엇보다도 현재 수원 성지에서 현양하는 78위 순교자의 태반이 순교했을 것¹³⁾으로 추정되는 화성 내의 순교성역(殉敎聖域, 殉敎聖址, 순교터)에 해당되는 감옥(형옥)에 대한 공간적 고찰이 부족했기에, 본고를 통하여 이같은 한계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새롭게 발굴한 자료는 별로 없으므로, 이전의 발표에서 기왕 알려진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지 못한 때문에 야기된 부정확하거나 잘못 기술된 내용들을 수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동시에 수원 화성의 천주교회사적인 의미를 좀더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화성에서 가장 중요한 순교터인 감옥에 대한 논의를 중점 소재로 삼아 감옥의 구조 등 물리적인 실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왕에 언급된 박해기관, 또는 장소들도 입체적으로 살펴본 후 감옥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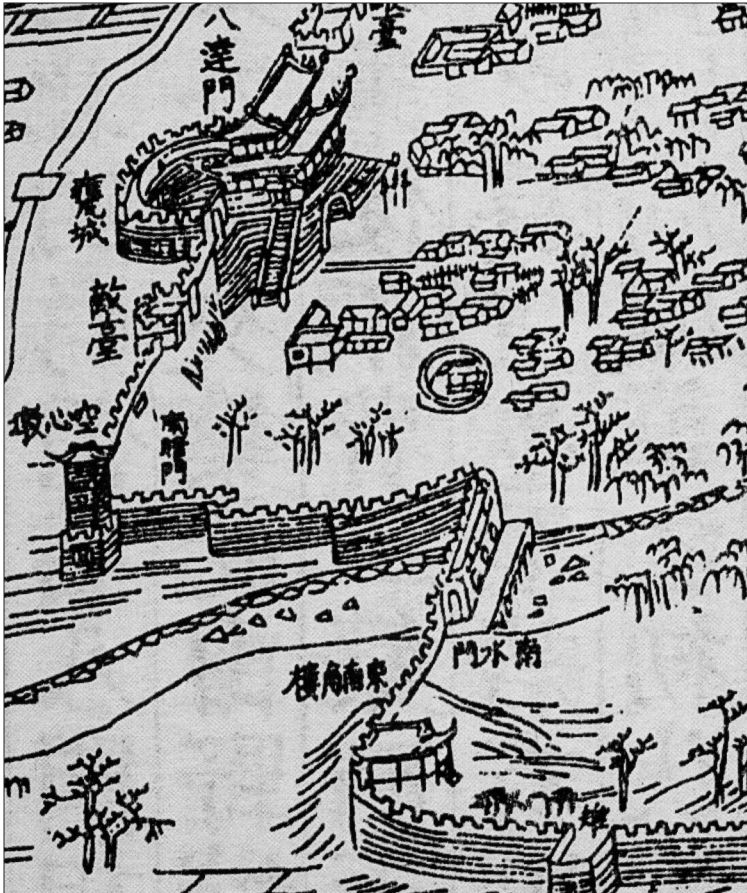
1. 형옥의 설치와 천주교 박해

앞에서 제시한 <그림1 : 화성성역의궤를 활용한 화성내 천주교 사적지>에서 형옥은 남암문, 동남각루 등과 함께 도면의 왼쪽 중간쯤에 보인다.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하여 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13) 수원 화성에서 순교한 순교자의 인원과 명단 및 순교장소, 순교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재연, 앞의 논문 (2005.12) pp.71-87참고.

14) 사실 필자의 논문 외에도 수원 화성의 천주교 사적지에 대한 다른 전문적인 학술논문이 더러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묵한 탓인지 아직 관련 논저를 찾지 못했는데, 이점 또한 본고의 큰 한계점이다.

〈그림 2-1〉 화성성역의궤를 통해본 화성 내 형옥과 그 주변



위 〈그림 2-1〉은 화성 축성(築城)이 완공된 1796년(정조20년) 11월에 편찬된 《화성성역의궤》내에 포함된 〈도설화성전도(圖說華城全圖)〉¹⁵⁾의 왼쪽 가운데 (팔달문 바로 아래 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낸 것이다. 이 그림(2-3)의 한 가운데 동그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이 바로 화성유수부의 형옥(刑獄)이다. 그런데, 이 형옥을 적어도 담장(=옥담) 부분에서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당대의 그림이 있으니, 현재 호암미술관에 보관된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槩圖)〉이다. 이 〈서장대성조도〉에서는 아래 〈그림 2-3〉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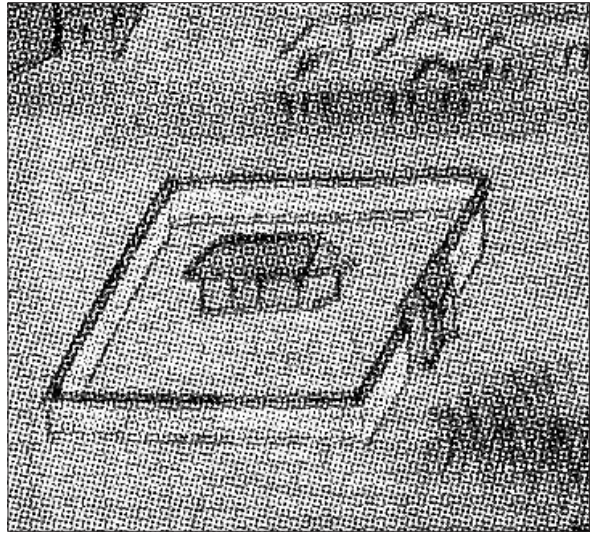
15) 앞의 《華城城役儀軌》(1796) 중 首卷 圖說.

림 2-4)를 보듯이, 동그랗게 둘러싼 원형(圓形)의 옥담은 보이지 않고 네모반듯한 방형(方形)의 옥담 속에 옥사(獄舍)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3〉 서장대성조도



〈그림 2-4〉 서장대성조도에 나타난 화성 형옥



그렇다면 이같이 동일한 형옥의 그림이 달리 묘사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혹 이 그림들을 그린 시점이 달라서, 그간에 모습 자체가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필자가 형옥의 위치를 잘못 본 때문일까? 그런데 후자는 아닌 것 같다. 앞서 원형의 옥담이 그려진 〈도설화성전도〉는 1796년 9월부터 당시 화성유수 조심태의 주도하에 편찬이 진행되어 동년 11월에 일단 초고가 완성되었지만¹⁶⁾, 간행은 미루어져 정조 사후인 1801년 9월에야 간행되었다.¹⁷⁾ 그러므로 이 그림은 1796년 9월 이후에 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옥담이 방형으로 나타난 위 그림(그림2-3, 2-4)은 언제 그린 것일까? 사실적인 화법으로 그려진 이 그림(서장대성조도)은 정조가 화성의 서장대에 올라 성내 군사들이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훈련(=성조훈련)을 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1795년(을묘년, 정조19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정조가 친모 혜경궁 홍씨의 주강을 맞아 화성에 거둥하여 회갑연을 베풀었던 이른바 ‘을묘원행’ 때의 일이다. 보다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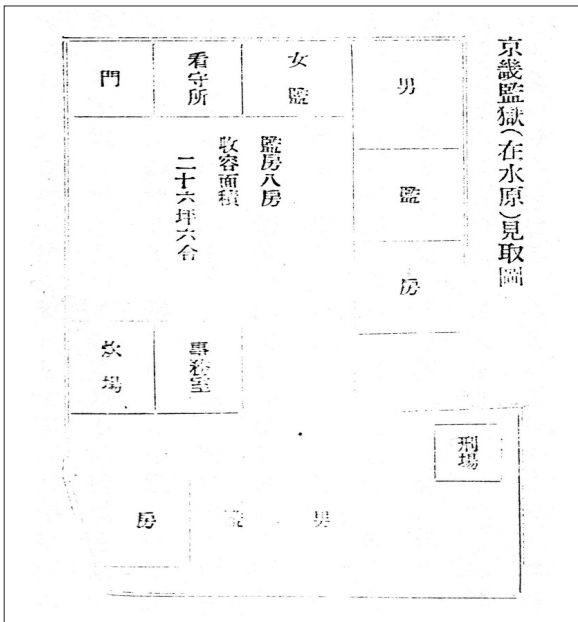
16) 《日省錄》 正祖 20년 11월 9일.

17) 《純祖實錄》 권3, 純祖 1년 9월 壬辰(18일).

한 일자는 윤2월 12일 현릉원을 전배한 다음의 일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위 그림(화성 성역의궤)보다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앞서서 그린 그림이다. 그러므로 <그림 2-1>과 <그림 2-3>이 모두 당시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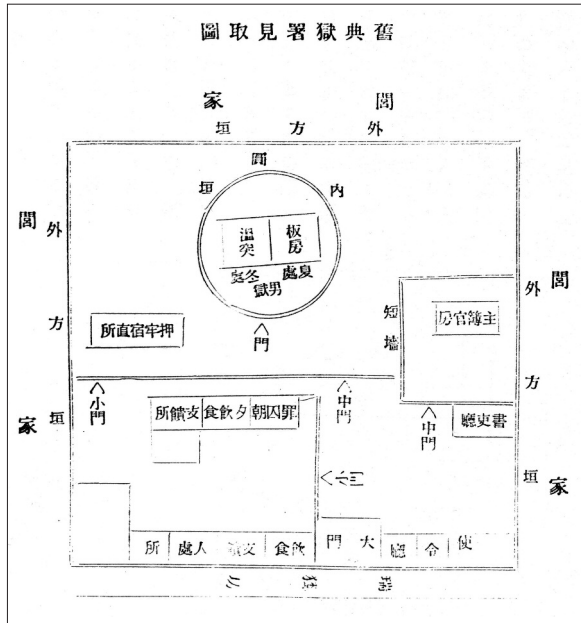
첫 번째 추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90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수원의 형옥이 1795년 을묘원행(서장대 성조) 때까지는 방형의 옥담을 쌓았다가 이듬해인 1796년 9월 이후부터 1801년 9월 사이에 기존의 방형 담을 허물고 원형으로 옥담을 개축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화성관련 자료에서도 이같은 옥담의 변화를 언급한 기록이 없으며, 또 아래에서 언급할 구한말의 수원 '경기감옥'이 1790년대에 축조된 화성유수부 시절의 형옥을 그대로 물려받은 감옥으로서, 이 또한 방형의 외부 담장을 둘러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추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필자는 오히려 방형의 담장은 남고 원형의 담장이 19세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본다.

<그림 2-10> 구한말 수원의 경기감옥¹⁸⁾



두 번째 추론은 비록 서로 다른 옥담을 그린 두 종의 사실적인 그림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또는 그림을 그려 넣을 지면(여백)이 부족할 경우 때로 실제 눈앞에 보이는 전경의 일부를 생략하고 화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형태만 화폭에 표현하게 될 가능성을 상정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의 경우 실제 형옥의 모습은 비록 일정 기간만이라도 원으로 된 옥담과 방형의 옥담이 모두 동시에 병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서울의 종로에 있었던 형조(刑曹)의 옥(=典獄署)의 경우 다음 <그림 2-7>과 같이 동근 담장(內垣) 밖에 다시 방형의 담장이 둘러쳐진(外垣) 이중적(二重的) 형태의 옥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림 2-7> 전옥서(=형조 감옥)¹⁹⁾



위 <그림 2-7>에서 보면 안쪽의 동근 담(=內圓垣)과 바깥쪽의 네모진 담(=外方垣)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때 안쪽의 동근 담은 남자 죄수들의 옥사(=男獄)

18) 中橋政吉 著,《朝鮮舊時の 刑政》(1936, 治刑協會) p.126 : 원래 제목은 <京畿監獄(在水原) 見取圖>.

19) 中橋政吉 앞의 책 114쪽.

를 나타내며, 동근 담의 바깥쪽에는 위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은 여자 죄수들의 옥사(=女獄)를 비롯하여, 위 그림에 분명히 나타난 옥리(=獄吏, 옥쇄장이, 간수)들의 숙소인 압뢰숙직소(狎牢宿直所)와 형벌을 가하며 신문을 담당하던 사령들이 거처하는 사령청(使令廳), 감옥에 드나드는 수인(囚人, 죄수)들의 명단과 죄명 등을 기록하는 서리들의 거처인 서리청(書吏廳), 또한 죄수의 가족, 친지들이 죄수에게 옥 외부의 사식(私食)을 제공해주기 위해 대기하던 음식지공인처소(飲食支供人處所) 및 옥안에서 죄수들의 조식끼니를 만들어주던 죄수조식음식지궤소(罪囚朝夕飲食支饋所) 등이 보인다. 1793년 1월, 행궁(行宮)을 보유한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된 일종의 ‘작은 서울’인 화성(수원)의 경우에도 그 최초 아직 도호부(都護府) 상태였던 1790년 설치 당시와는 달리, 이 무렵에는 서울 형조감옥(전옥서)의 설계구조나 운영방식을 점차 닮아갔을 가능성이 추론된다. 1790년 하반기 당시 수원도호부의 읍치를 화산에서 팔달산 아래로 이전해올 때 영건(營建)된 관아(官衙) 건물들의 간수(間數)와 그 건축자재(建築資材)의 종류 및량을 일일이 기록한 《辛亥正月日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奎9919)에 의하면, 당시 신읍치인 팔달산 아래에 만들어진 형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곳의 기록이 보인다.

㉑ 獄六間 舊材椽取用, 墻垣四十間, 椽木 浮楷木 推移, 瓦子 七千一百八十張²⁰⁾
 옥은 6칸인데 예전에 사용된 재료와 서까래를 취하여 사용했다. 담장은 40칸이다.
 서까래와 부해목²¹⁾은 추쇄(推刷)하여 사용했다. 기와는 7,180장이다.

㉒ 刑獄六間 草家²²⁾
 형옥은 6칸인데 초가(草家) 지붕이다.

위 기록 ㉑, ㉒에서는 앞서 논란이 된 옥담의 형태가 원형인가 방형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다만 ㉑, ㉒에서 언급된 옥의 구조와 재료를 감안해볼 때, 우선 앞서 언급한 형옥에 관한 그림 중에 1790년 영건된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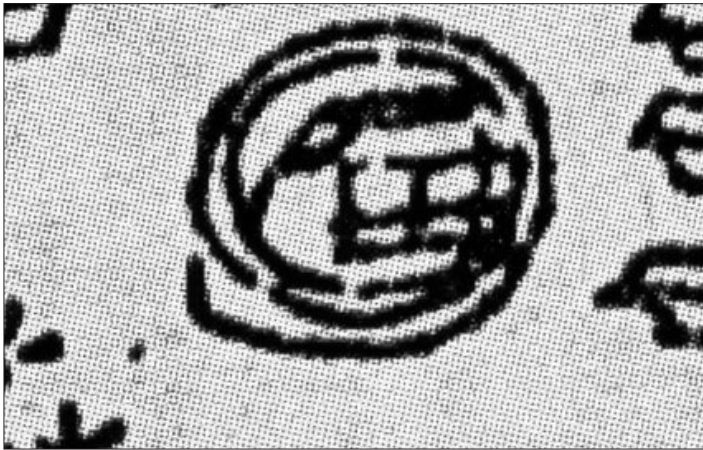
20) 서울대 규장각 보관(奎9919) 59쪽.

21) 해목(楷木)은 공자묘에 심는 나무로 유명인데, 황련목(黃連木)으로도 불리며, 무늬가 아름답기 때문에 가구 등에 쓰인다. 본문의 ‘부해목’은 황련목 중에서도 가벼운 또는 얇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규장각 앞의 책 《辛亥正月日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奎9919) 69쪽.

기인 1795년 윤2월 을묘원행 때 그려진 <서장대성조도>에 나오는 방형(方形)의 옥담으로 둘러쳐진 옥(*앞의 <그림 2-3>)과 비교가 된다. 즉 <그림 2-3>에서도 ㉠, ㉡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옥의 넓이를 나타내는 간수는 가로 3칸 곱하기 세로 2칸으로 도합 6칸짜리 옥사로 보이지만, 그 지붕은 초가가 아니라 기와로 되어 있다. 또한 옥사를 둘러싼 방형의 담장도 또한 기와로 덮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원 고을의 형옥은 영건된 지 약 5년 이내에 도호부 당시에 건립된 초가 옥사가 유수부로 승격된 이후 곧바로 기와 옥사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추정은 <그림 2-3>의 형옥보다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이후인 1796년 9월 화성이 완공된 시점에 그려지기 시작한 <그림 2-1>의 형옥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 즉 비록 옥의 담장은 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어 묘사되었지만, 옥담 안의 옥사 건물은 아래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하게 6칸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지붕 또한 타원형의 초가가 아니라 분명하게 각이 진 기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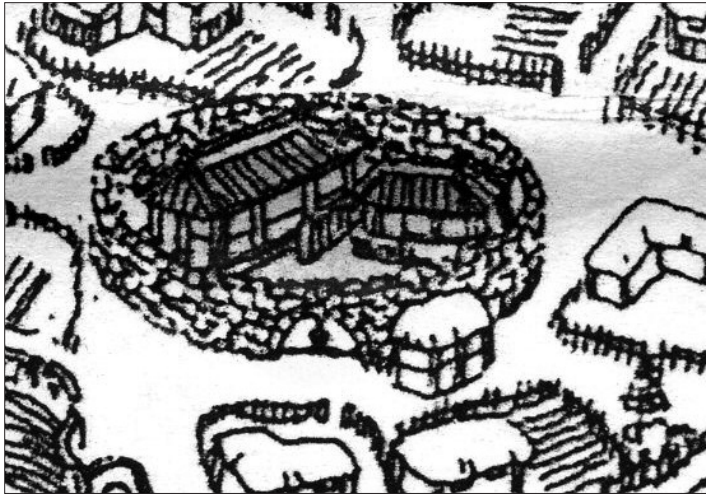
<그림 2-2>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감옥



한편 이같은 화성성역의궤의 그림을 기준으로 하여, 1796년 화성축조 당시 화성 내에 위치했던 형옥을 현대적 기법으로 재구성한 아래 <그림 2-5>에는 정조 치세 20년 (=1796년) 이후에 그려진 위 <그림 2-2>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필자는 오히려 <그림 2-5>의 모습이야말로 19세기 중반 수원과 이웃 고을의 수많은 신자들을 이 옥안

으로 잡아들였던 병인박해기까지 변화된 수원 형옥의 실상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그림 2-5〉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2000.12)에 묘사된 수원 형옥



다만 위 그림에서 동근 옥담 밖에 또 다른 방향의 옥담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위 책자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의 편찬자들이 1795년 을묘원행 시에 그려진 〈서장대성조도〉상의 형옥 그림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단순한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정해본다. 한편 1894~1895년의 갑오, 을미개혁과 잇따른 1896년의 지방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수원 유수부가 폐지되고 수원군(水原郡)이 되면서, 경기도의 관찰부가 한시적(1896~1910년)이긴 하지만, 서울의 서대문 밖에서 이곳 수원 화성으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성 내 형옥은 ‘경기감옥(京畿監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의 감옥 구조가 1936년 일본인 中橋政吉이 저술한 《朝鮮舊時의 刑政》²³⁾ 126쪽에 도면(*본문 앞의 〈그림2-10〉)으로 소개되어 있다. 中橋政吉의 그림에 의하면, 구한말(=대한제국기) 수원 형옥은 이미 원형의 담장이 보이지 않고, 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2곳의 분리된 남자 옥사와 이와 별도로 설치된 여자 옥사 및 옥리(=간수)들이 근무하는 간수소 및 취사장,

23) 앞의 책 中橋政吉 著, 《朝鮮舊時의 刑政》(1936, 治刑協會) p.126.

형장(=사형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위 <그림 2-5>의 상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놓으면, 앞서 본 <그림 2-10>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점이다. 다만 위 <그림 2-5>에서는 <그림 2-10>에 있는 외부에서 형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가까이에 위치한 간수소, 여옥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위 옥사 건물로 가려진 뒤쪽(=옥담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위치한 사형장 등도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이 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격적 박해시기(=19세기)부터 구한말 신앙자유의 여명기 수원 화성에 위치했던 형옥을 외부에서 바라본 조감도의 모습은 다음 <그림 2-13>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림 2-13> 구한말 감옥의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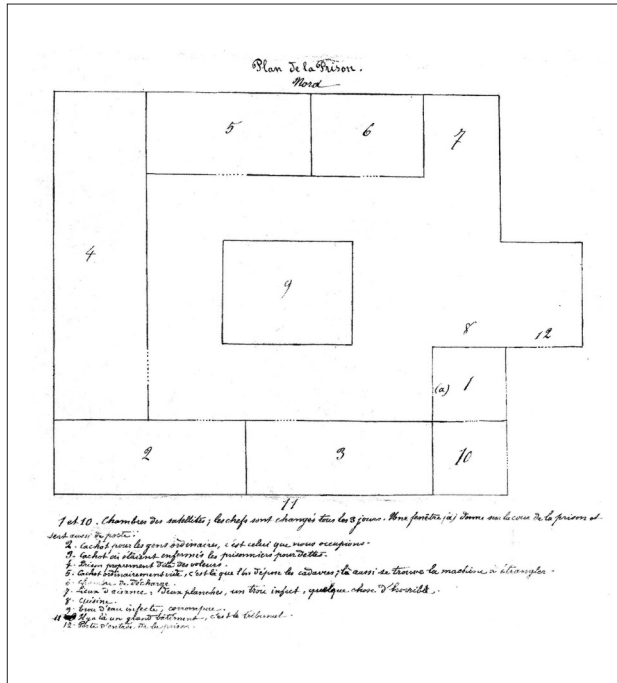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가 형옥에 주목한 것은 이곳이 병인박해를 포함한 조선후기(19세기)에 수원유수부 관아로 끌려와 순교하신 78위 순교자 중의 거의 태반 정도가 순교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그림 2-10>과 <그림 2-5> 등을 토대로 이곳 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일부는 일반 감방(*위 그림 2-10의 경우 남감방, 여감방 등으로 표시된 곳)에서 질병이나 고문 후유증(상처)의 악화 및 굶주림 등으로 옥사(순교)했겠지만,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대부분의 신자들은 형장(*위 그림 2-10의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표시된 형옥 내외부 출입문의 반대편 구석지고

밀폐된 곳에 위치한 장소에서 교수형(絞首刑)이나 백지사형(白紙死刑)으로 1~2명씩 개별적으로(교수형의 경우) 또는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백지사형의 경우) 처형(순교)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이러한 형옥 내 순교 장소에 대한 추정은 병인박해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인 1877년 9월 조선에 잠입했다가 4개월 만인 1878년 1월에 체포되어 그해 6월 석방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서울의 포도청(우포도청과 좌포도청에서 차례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제6대 조선대목주장 리델(Felix Clair Ridel, 李福明, 1830~1884) 주교의 수기와 비교해 보아도 어느 정도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그림 2-11〉 리델이 그린 좌포도청 감옥 구조도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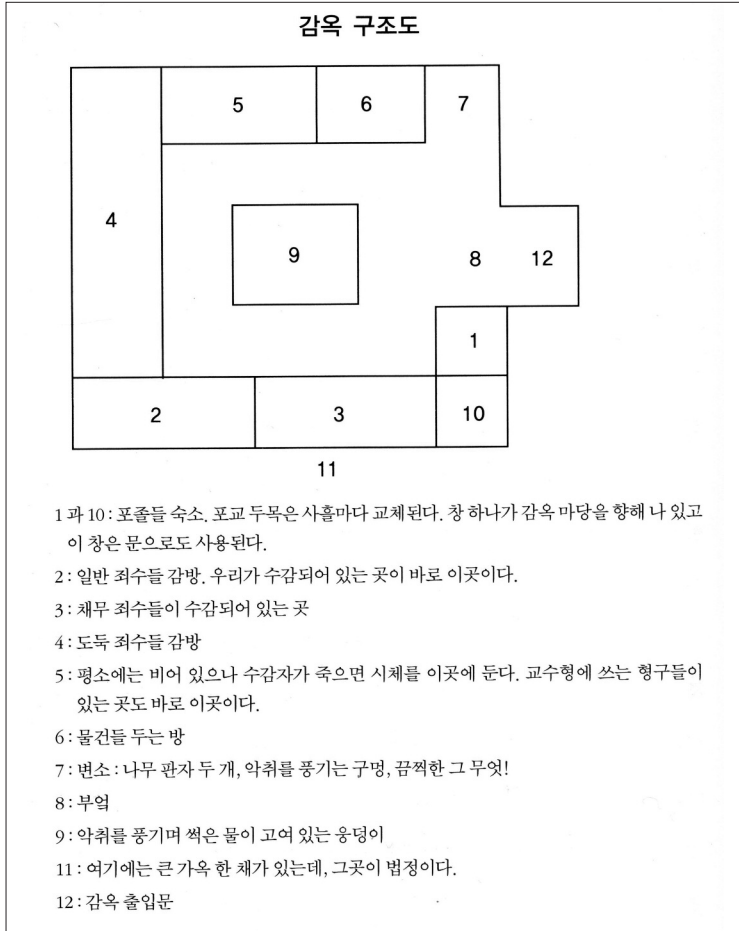


24)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pp.86-87.

25) 펠릭스 클레어 리델 지음, 유소연 옮김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 -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살림출판사, 2008.12) p.10.

위 <그림 2-11>의 프랑스어 표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다음 <그림 2-12>이다.

<그림 2-12> 유소연이 재구성한 좌포도청옥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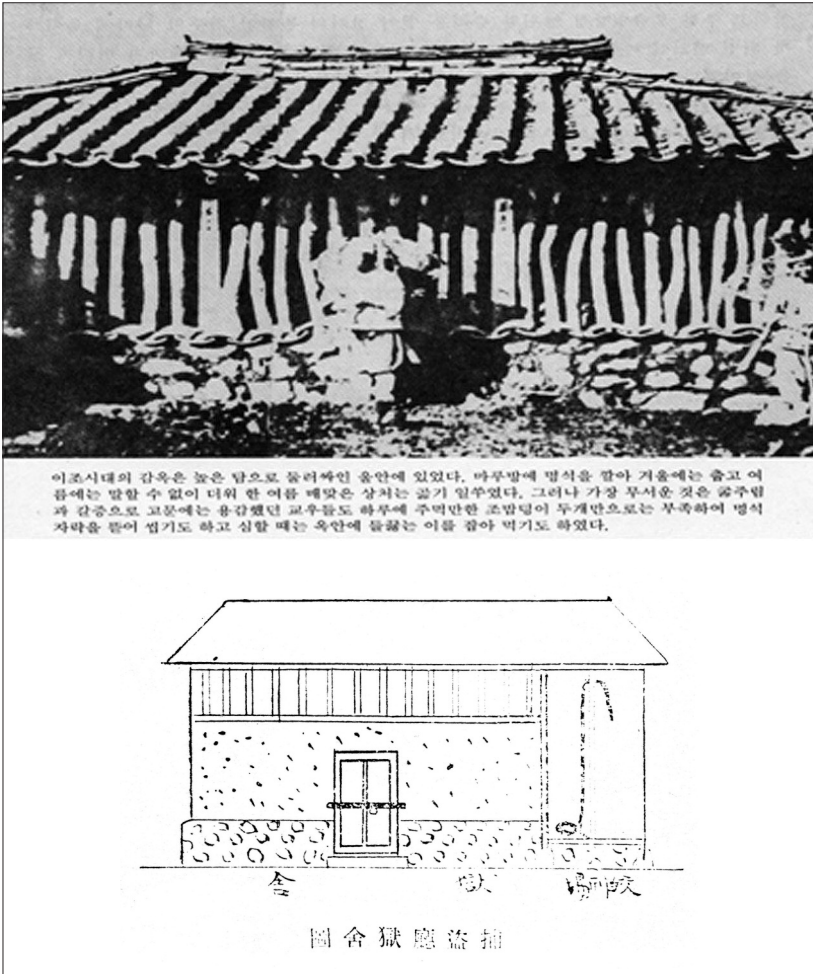


위 <그림 2-12>에서 5번의 장소가 바로 앞서 언급한 <그림 2-10>의 아래 오른쪽에 위치한 형장과 마찬가지로 대개 교수형을 집행하던 감옥 내 감방에 해당된다. 교수형은 감옥 내외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몇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알려진 방법이 감

26) 펠릭스 클래어 리텔 지음, 유소연 옮김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 - 프랑스 선교사 리텔의 19세기 조선 체험기->(살림출판사, 2008.12) p.114.

방 밖에서 감방 벽으로 사용된 엉성한 나무 기둥이나 기타 벽 사이의 틈으로 올라가미를 넣어 감옥에 있는 죄수의 목에 걸고 이를 감방 밖 옥마당에서 대기하던 옥리들이 사정없이 잡아당겨서 목 졸라 죽이는 것인데, 다음 <그림 2-14>는 이와 같은 올라가미형(교수형)의 상황을 연상해주기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2-14> 구한말 옥 감방의 정면도



올가미형(=교수형)은 박해기(19세기) 한국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처형방식이

었다. 조선시대 수원 유수부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 모두 78명의 순교자 가운데 32명(41%)이 교수형(올가미형)으로 처형당하여, 그 순교형태(=처형방법)를 모르는 34명(43.6%)에 뒤이어 가장 많이 등장한다. 또한 순교형태가 알려진 순교자 44명 중에서는 그 절반이 넘는 56.4%가 <그림 2-14>, <그림 2-16>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감방에서 바로 이런 올가미 형벌을 당하여 순교했던 것이다.²⁷⁾ 한편 기록상 드러난 실행 진수는 적지만 수원 감옥에 갇혔던 신자들을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은밀하게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백지사형인데, 이 백지사형이 처형 감방 인근의 후미진 옥마당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²⁸⁾ 그러므로 수원 형옥의 처형 감방과 그 바로 앞 폐쇄된 옥마당은 조선시대 수원 고을 천주교 신자들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순교터이자 신앙고백의 장소로서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2. 형옥과 유관 기관

수원 화성의 감옥은 수원 유수부 및 그 소속 이웃 고을에서 중죄를 범한 죄인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감옥의 운영을 비롯하여 범죄인의 탐문, 수색, 체포, 이송, 심문, 처벌 및 조정으로 보고[啓聞]하는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원 고을 총책임자는 수원(화성) 유수(留守)였다.²⁹⁾ 그러나 수원 유수는 정2품의 경관직(京官職)으로 때로 조정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유수부 내의 중요한 사건만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실제로는 행정(行政)을 비롯한 유수부 내의 모든 업무는 그의 종사관(從事官)인 중5품직의 판관(判官)이 일차적으로 대리하였는데, 특히 치안 업무 및 형사재판과 관련된 일까지도 판관이 그 실무를 1차적으로 관장하였다. 그러나 판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일반 행정에 그 비중이 두어졌고,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중요 치안사범의 심문 및 처형과 관련된 업무는 유수의 군사업무 대리자로서 무관(武官) 정3품직 중군(中軍)이 그 실무를 담당하고 집행하

27) 원재연 앞의 글(2005.12) pp.75-77.

28) 같은 논문 pp.86-87.

29) 《大典會通》吏典 京官職 水原府【補】掌治華城【原】都護府 正宗朝 癸丑 置留守 今移錄 留守二員 正二品一 京畿觀察使兼 判官一員 從五品 檢律一員 從九品.

는 총 책임자였다.

따라서 19세기 수원유수부의 행정, 군사, 치안, 사법적 관할 지역 내에서, 사학죄인(邪學罪人)으로 규정된 천주교 신자들을 비롯하여 여타의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수색, 체포, 심문, 재판 및 처벌과 관련된 모든 실무의 결정과 집행은 1차적으로 수원 판관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는 판관의 위임에 따라 중군이 담당하였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든 사형(死刑)에 처할 중죄인의 경우에는 법전상으로 국왕의 재결(裁決)에 달려있었지만³⁰⁾, 병인박해기의 경우 이른바 ‘선참후계(先斬後啓)하라’는 국왕의 지시에 의거하여³¹⁾, 수원유수부 관할 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 및 집행은 유수의 책임 하에 중군이 실행하였다.³²⁾ 그러므로 수원 화성의 감옥에 천주교 신자들을 구금하거나, 구금된 신자들을 불러서 심문하는 일 등은 1차적으로 판관의 권한(결정)에 달려있었고, 중군은 옥중의 중죄인을 불러 심문한 후 그를 처형(處刑)해야 할 경우 유수의 허가를 얻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관장했던 것이다. 이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병인박해기 수원 유수부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³³⁾

| ① 현장신문 | ② 체포 | ③ 1차 재판 (貳衛, 화청관) | ④ 2차 재판 (中營, 토포청) | ⑤ 대기 (투옥, 결재대기) | ⑥ 처형 / 이송 |
|-----------------------|-------------------------|--|---|--|--|
| 포졸들이 현지에서 신자 확인 | 종종 구타 재산 몰수 신자 체포 | 판관이 신자를 재 확인, 배교를 유도 한 후 석방하거나, 가벼운 형신(刑訊) 을 가한 후 토포청 이나 감옥으로 보 냄. | 討捕兵房과 중군 (討捕營將)이 차 례로 추열(推閱)하 여 배교를 강요하 며 주리틀기, 주장 질 등 본격적 형신 (刑訊)을 가함. | 투옥 후 다시 형신 하거나, 유수에게 사형 집행을 건의 하고 기다림 | 유수가 처형을 허 락하거나, 서울 포 청, 형조 등으로 이송할 것을 결정 하면, 이에 따라 중군이 집행함. |

30) 《大典會通》卷之五 刑典 推斷 死罪三覆啓

31) 원재연, <조선 후기 天主教徒에게 적용된 刑律 - 賊盜律과 先斬後啓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제23호 (2001, 한국법사학회)

32) 이상 수원 유수부 내의 유수, 판관, 중군의 역할 분담과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은 원재연 앞의 논문 (2005.12) pp.53-64 참고.

33)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p.58의 도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수원유수는 수원 고을뿐만 아니라 군사적, 치안적으로 수원유수부에 직속된 용인(龍仁), 진위(振威), 과천(果川), 안산(安山), 시흥(始興) 등 고을과³⁴⁾ 충청도나 경기도 남부의 고을 등에서 수원유수부로 이송(移送)된 범죄 혐의자들에 대하여, 판관 또는 중군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형조)에 보고(계문)하였는데, 이때 천주교 신자들의 동향이나 주요 신자들에 대한 체포 심문 및 처벌 결과 등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했다. 현전하는 기록 중에 이와 같은 수원 유수의 보고서[狀啓]를 묶어놓은 책자가 바로 《水原府留營狀啓謄錄》으로 일명 《華營啓錄》이라고도 한다.³⁵⁾

그런데 이 책자에는 ㉓ 수원이 아직 도호부(都護府)였던 정조 13년(=1789년) 7월부터 동양 15년(=1791년) 1월까지 사도세자의 현릉원과 수원의 읍치를 이전하고 새로운 관아를 건설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위주로 하는 부분(《水原下旨抄錄》)과, ㉔ 현종11년(=1845년)부터 고종14년(=1877년) 1월까지 유수가 정기적으로 비변사에 보고하는 농사 현황이나 군사훈련의 실상을 비롯하여 판관, 중군 등 관리의 교체, 정조의 위폐를 모신 화령전(華寧典)에 대한 제사(祭祀) 및 건릉과 현릉원 등 능원(陵園)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 해마다 또는 달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업무에 대한 것들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 책자에는 두 곳이나 대규모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 첫 부분은 철종5년(=1854년) 1월부터 고종2년(=1866년) 10월까지로 12년 10개월 정도의 보고 내용이, 두 번째는 고종6년(=1869년) 3월부터 동양 11년(=1874년) 10월까지 5년 7개월 정도의 분량이 각각 한꺼번에 누락되었다.³⁶⁾ 또한 앞서 언급한 ㉔ 부분에 매년 연말 관할 내 천주교 신자들의 동향과 관련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판관의 첩정(牒呈)을 인용하거나, 때로 판관겸중군(判官兼中軍)의 보고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수원에서 최소한 수백 명의 신자들이 체포, 구금되었던 병인박해기의 경우에도 거의 해마다 인용되는 첩정의 내용은 관내에 천주교 신자들의 특이한 동정이 없다든가 또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천주교 신자의 체포, 구금,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34)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pp.63-64.

35) 1845년(현종11년) 무렵부터 개항 직후인 1877년(고종14년)까지 수원유수의 장계를 실은 《水原府留營狀啓謄錄》(일명 《華營啓錄》) 제1~3책(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各司謄錄》제5권 pp. 235~480)과, 1789년(=정조13년)부터 1791년(=정조15년)까지의 내용을 담은 《水原府旨令謄錄》(일명 《水原下旨抄錄》)(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各司謄錄》제5권 pp.481~531)이 있다.

36) 위의 책《各司謄錄》제5권 p.373, 428.

사항은 거의 없다. 오직 한 번 천주교도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은 1868년 이른바 덕산 굴총사건의 범인들을 효수경중(梟首警衆)하는 것뿐이며³⁷⁾, 병인박해기 전후에 수시로 출현하는 서해안 도서나 해안의 이양선(異樣船) 관련 동태감시 또는 문정(問情) 보고 기록이 나올 뿐이다. 따라서 이 책자의 보고 내용을 통해서는 수원유수의 지시를 받거나, 중군 또는 판관이 자의적으로 처결하여 집행한 천주교 신자의 수색, 구금, 체포, 처벌, 처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앞서 언급한 덕산 굴총사건 관여자 외에는 전무(全無)하기에, 수원 고을 천주교 박해의 실상이나 신자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파악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주로 교회 측 증언기록들을 인용하면서, 간간히 포도청등록 등 중앙의 관찬기록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교회활동 내용을 규명할 수밖에 없었다.³⁸⁾

수원 유수가 천주교 신자들을 직접 심문하거나 처벌한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68년 6월 3일(음력) 및 6월 11일자 보고에서 나오는 덕산굴총사건 관여자 손경로(孫京老), 김양길(金良吉), 이영중(李永中) 등을 충청 수영(水營)으로 끌고 가서 백성을 크게 모은 자리에서 효수경중했다는 기사가 나올 뿐이다. 그런데, 병인박해기인 1866년부터 1873년 사이에 무려 77명의 신자들이 수원 고을에서 순교했다는 교회측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이 모두 동기간 수원에 부임했던 이경하(李景夏) 등 6명의 유수 중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사형판결을 재가(裁可) 받았을 것이고, 또 사대부(士大夫) 가문의 극히 일부 신자의 경우에는 유수의 일상적 집무처인 행궁 안 봉수당(奉壽堂) 앞에서 직접 유수로부터 거둬진 심문[考覆]을 받고 다짐을 한 후에 사형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 사죄수(死罪囚) 재판의 경우에는 대전회통 등 법전에 규정된 절차³⁹⁾에 따라서, 수원 유수가 범죄인의 출신 고을 관장을 비롯하여 이웃 고을 관장과 수원 판관 등 3~4명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고 이들과 함께 범죄인을 심문[同推]한 후에 다시 2명의 차사에게 범죄인의 죄상을 거둬진 확인[考覆]하도록 한 후에, 다

37) 같은 책 pp.416-417. 덕산굴총사건(일명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재연, <1868년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묘 굴총사건과 해미의 순교자들>(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도교) (2003, 한들출판사) 제3부2장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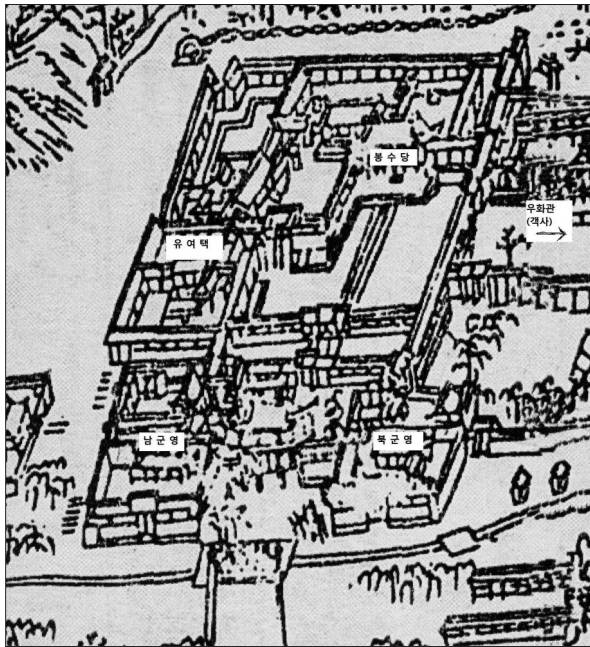
38) 원재연 앞의 책(2005.12).

39) 《大典會通》卷之五 刑典 推斷 [原]; … ○死罪三覆啓 外則觀察使 定差使員 同其邑首領推問 又定差使二員 考覆 又親問乃啓 …

40) 《水原府留營狀啓曆錄》제1책 함풍3년(=1853년) 10월2일(*위의 책 《各司曆錄》제5권 pp.362-363).

시 한번 유수가 직접 죄인을 심문(親問)하여 그 결과를 형조에 보고[啓聞]하였다.⁴⁰⁾ 이와 달리 병인박해기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 에는 국왕의 선참후계령(先斬後啓令)에 따라서 대개 수원 유수가 판관과 중군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단독으로 사형 대상자를 판결하고, 중군으로 하여금 형을 집행하도록 했겠지만, 가끔 일반 형사사건의 심리나 판결 때의 형식을 원용하여 유수부 직속의 고을 수령들을 불러 놓고 한자리에서 심리와 재판을 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림 5-1〉 화성 행궁의 봉수당과 남북군영



또한 수원 유수는 형조의 지시에 따라서 매년 4차례씩 정기적으로 살육죄인(殺獄罪人,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의 시수년월일(始囚年月日, 처음 수감된 날짜), 죄목(罪目), 수형차수(受刑次數) 등을 개록(開錄)하여 형조에 보고하였는데⁴¹⁾, 어찌된 일인지 병인박해기 수원 고을에서 사형을 당한 77명 사형죄수에 대한 수감 기록 등은 한 번도 나오

41) 앞의 책 《各司臚錄》제5권 p.332, 338, 344.

지 않는다. 또한 국가에 경사(慶事)가 있거나 가뭄이 심할 경우, 국왕이 전국 각 고을에 체옥(滯獄)된 죄수들을 한꺼번에 석방하도록 하는 지시를 수원유수도 의정부나 비변사로부터 문서[下關]로 하달 받아 이를 집행한 일이 있었지만, 만약 당시 수원 형옥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면 대부분 이때 일반 죄수들과 함께 석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존하는 수원유수의 장계에는 당시 석방한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이 한 명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편 1852년 4월 15일자 “수원부계록(화영등록)”에는 철종이 조정 대신의 건의에 따라 사형 죄수를 비롯하여 감옥에 오래 유폐된 죄수들을 동정하여, 각 고을 옥에 갇힌 죄수들의 범죄 경중을 구분하고 일일이 그 죄상과 수감 현황을 계문하도록 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 유수는 수원 형옥에 수감되어 있어야 할 살옥죄인(殺獄罪人) 공천하(孔千河), 홍부억쇠(洪夫億僞), 김각수(金覺秀) 등 3명이 이전에 이미 도주하였으므로 감옥에는 단 한 명의 죄수[時囚]도 없다고 보고하였다.⁴²⁾

병인박해기 수원유수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단연 이경하(李景夏, 1811~1891)이다.⁴³⁾

그는 고종의 왕위 책봉에 기여한 신정왕후 조대비(趙大妃)의 인척으로, 대원군의 깊은 신임을 받아서 대원군 집권 이후 훈련대장 겸 좌포도대장, 금위대장, 형조판서, 한성부 판윤, 수원유수, 강화유수, 어영대장 등 여러 요직(要職)을 두루 맡으며 군사, 치안의 방면에서 적지않은 공적을 남겼는데, 특히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한강으로 정찰탐험차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순무사(巡撫使)로 발탁되어 도성방비의 책임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이경하는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병인년 서울의 포도대장으로써 천주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그의 집인 낙동(駱洞)에서 신자들을 잡아서 문초했으므로 별명이 ‘낙동의 염라대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과격한 천주교 탄압과 무장의 경력을 가진 그가 1866년 10월 수원유수로 부임하여 1869년 2월 이 임하기까지 약 2년 4개월간 수원유수부 관할 지역 내의 천주교 탄압에 앞장섰는데, 특히 1868년 4월 덕산에서 오페르트 일당이 일으킨 남연군도 모굴미수사건 때는 그와 관련된 천주교 신자들을 모두 잡아서 공충 수영으로 보내 효수경중하는 등 서울의 포도대

42) 같은 책 p.333

43) 원재연 앞의 논문(2005. 12) pp.60-62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장 시절에 발휘한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기에 대원군의 신임을 깊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명성과는 달리 실제 교회 기록(증언록) 등에 나타난 수원유수부 관내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과 관련된 통계(*뒤의 표2 참고) 등을 살펴보면, 기록의 누락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1866년 수원에서 최대 6명의 신자들을 공개 처형한 것 외에는 그 다음해부터 유수로서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개 처형은 거의 하지 않고, 대다수 신자들을 비공개적으로 처형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그가 조정의 선참후계령에 의거하여 수원유수부 관할 내의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에 비하여 수원 고을 내에서 병인박해기 초반 3년을 보내면서도 부임 첫해인 1866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2년 정도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게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1866년에 서울에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과격한 처형으로 '염라대왕'이라는 호칭까지 얻을 정도로 악명을 높인 것에 비한다면 수원 유수 재직 시 적어도 1867년 이후 그의 천주교 대책은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판판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경하가 이와 같은 천주교 박해의 방법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던지는 기록상 나타난 바가 없으나, 적어도 수원유수 재임 기간 중에는 최대한 공개처형을 삼감으로써 천주교 신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이같은 성격과 자세로 보아 그는 가끔 사대부 집안의 명망있는 신자가 잡혀오면, 그의 집무처인 행궁 내 봉수당(동헌)에서 그의 종사관인 판관과 중군 등을 동석시키고 직접 끌려온 신자에 대해서 심문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가 수원유수로 재임하던 기간 중에 대다수의 사형 죄수들은 화성 형옥에 수감된 채로 유폐되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감옥의 후미진 옥마당이나 감방 등에서 교수형, 백지사 등의 방법으로 처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 중군은 수원 유수의 군사적, 치안적 책임을 보좌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막료로서 유수 다음으로 관할 지역 내에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처형의 권한을 크게 휘두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대개의 경우 판관의 위임을 받아, 판관의 집무 처소인 화청관(華淸館)으로부터 토포청(討捕廳, 華城中營, 摠理中營)으로 이송된 천주교 신자들의 2차 심문을 담당하면서 천주교 신앙을 고집하여, 당(黨, 연루자)을 대라, 서책(천주교 서적)을 바치라는 지시에 불응하는 신자들에게는 자주 엄중한 형신(刑訊)을 가하였기에, 그 악명이 신자들 간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기록상 77명의 신자들이 등장하는 병인박해기(1866~1873년)의 경우에 수원 중영(총리 중영)의 책임자인 중군(中軍) 겸

토포영장(討捕營長)으로 재직한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⁴⁴⁾

<표 2> 병인박해기 수원 중군(=토포영장)으로 재직한 사람들

| 이름 | 활동시기(음력) | 수행 직책 兼華寧殿衛將 | 당시 판관 兼華寧殿令 | 당시 유수 | 비고 |
|----------------------------------|-----------------------|-----------------|-------------------|-------------------|---|
| 李承駿 | 1867년 1월 | 판관겸임중군 | 柳承根 | 李景夏 | 관찬기록에 의하면, 윤희수는 고종 4년 (=1867년) 3월 23일 수 |
| 元世火貞 | 1867년 2, 3월 | 중군, 판관겸임중군 | (1865.3 ~1867.12) | (1866.10 ~1869.2) | |
| 尹喜秀 | 1867년 4월 ~1869년 1월 | 중군, 판관겸임중군 | 鄭基命 | 李載元 | 원중군에 임명되었다. |
| **1869.2~1873.12 관련 기록 부재(또는 누락) | | | (1867.12 ~1871.7) | (1869.2 ~1871.1) | 《승정원일기》고종4년 3월23일조 |

수원 중군(中軍)의 명단은 현존하는 수원 관련 11종의 읍지(邑誌)들에서는 나오지 않는다.⁴⁵⁾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관찬 연대기를 참조할 수 있었던 윤희수를 제외하면, 수원유수가 조정에 보고한 ‘수원부계록’의 보고서에 언급된 기록만을 토대로 위 <표2>를 만들었다. 따라서 조정(병조)의 인사발령에 의한 정식 재임기간을 잘 알 수 없고, 다만 관련기록이 나오는 일시를 보고 그 활동시기만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병인박해기 77명의 천주교 신자들의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로 수원 유수부의 중군 겸 토포영장에는 이승준, 원세정, 윤희수 등 3인의 명단이 나오지만 그중에서 윤희수가 가장 오래도록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분위기를 추측해보건대 윤희수는 기록이 누락된 1869년 2월 이후에도 한 동안 계속해서 수원 중군의 직책에 부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66년부터 1873년 사이 수원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 77명 중 39명이 1867년부터 1869년 사이에 순교하여 그 비율이 무려 50.6%로 나타나는데, 이 기간이 바로 윤희수가 수원 중군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기록에 등장하는 수원 순교자의 과반수가 윤희수의 실무책임 하에 처형을 당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44) 같은 책 pp.373-428.

45)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pp.52-64 참고.

〈표 3〉 병인박해기(1866~1873년) 수원 순교자의 연도별, 처형방법별 통계⁴⁶⁾

|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 1871 | 1872 | 1873 | 미상 | 소 계 |
|-------|------|------|------|------|------|------|------|------|----|------------|
| 참수형 | 2 | | | | | | | | | 2 (2.6%) |
| 장살형 | 4 | 1 | | 1 | | | | | | 6 (7.8%) |
| 교수형 | 4 | 6 | 6 | 1 | 1 | 1 | | | 13 | 32 (41.6%) |
| 백지사형 | | | 1 | | | | | | | 1 (1.3%) |
| 옥사 | | | 3 | | | | | | | 2 (2.6%) |
| 不知(*) | 7 | 10 | 10 | | | 2 | | 2 | 2 | 33 (42.9%) |
| 소 계 | 17 | 17 | 20 | 2 | 1 | 3 | | 2 | 15 | 77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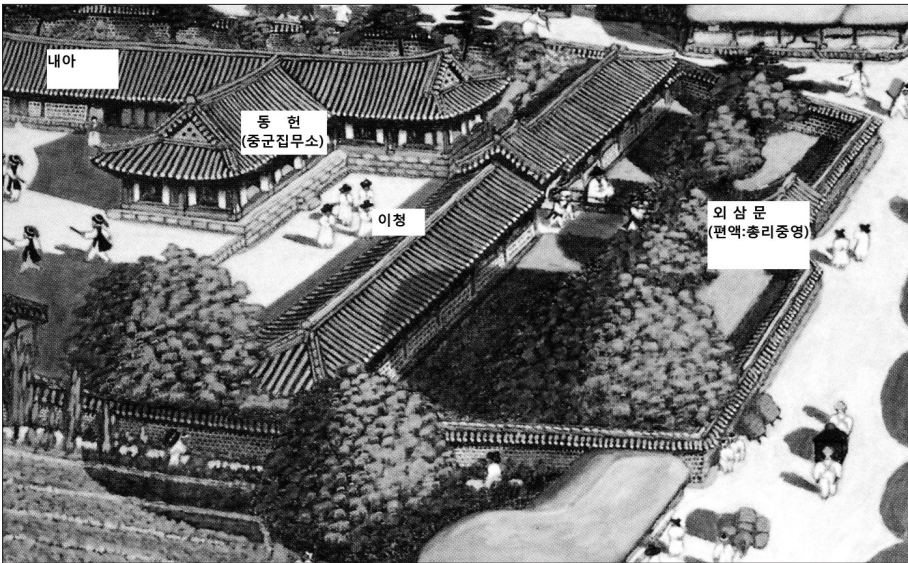
위 〈표3〉은 조선시대 수원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1817년 샘골의 순교자 이용빈을 제외한 77명의 병인박해 순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순교연대와 순교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다. 이 표를 통해서 볼 때 수원 중군 윤희수가 1867~1869 년간에 유수 이경하의 위임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한 천주교 신자들 39명 중에서 군중을 불러놓고 시장이나 한길에서 종종 공개처형하는 형식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장살형(杖殺刑) 2명의 경우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37명의 경우에는 모두 비공개적인 처형방식인 교수형과 백지사 및 소극적 처형방식에 속하는 옥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처형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不知로 표현)도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공개적인 방식보다는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1866년 전국적인 천주교 박해령이 대원군에 의해 하달되던 그 당해 연도에 만 수원유수부에서는 관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공개처형의 방식인 참수형을 2명 정도 집행하였으며, 공개처형의 가능성이 짙은 장살형을 4명 정도 집행하는 등 기록상 최대6명의 공개처형이 윤희수 이전의 전임 중군들에 의해서 집행되었을 뿐, 그 다음 해인 1867년부터는 대부분 비공개 처형 위주로 천주교 박해를 단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군 윤희수가 부임한 1867년 3월부터 1869년 1월(또는 6월 이전)까지 대략 2년 전후의 재임기간 중에, 그는 직속상관인 이경하의 의향을 따르고 주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을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처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옥사(獄死)의 경우에는 신자들이 굶어 죽거나 고문(刑訊)으로 인한 상처의 후유증

46)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p.75의 표6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는 전염병 등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867~1868년 간에 순교한 무려 20여명에 달하는 처형방식이 알려지지 않는 순교자들의 다수가 이같은 옥사의 형태로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로 후미진 옥 마당이나 옥 감방에서 실시되던 교수형, 백지사형 등과 함께 옥사나 부지(不知)로 분류된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동기간 절대 다수의 순교자가 수원 형옥에서 순교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4-2〉 화성성역의궤와 구한말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된 화성 중영



수원유수부로 끌려와 처형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 이같이 다소 조용하고 약삭빠른 방법으로 박해를 단행한 중군 윤희수(尹禧秀)에 대한 개인적인 가전기록이나 문집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에 관한 100여 건의 인사 기록들과 여러 건의 처벌기록 등이 관찬연대기인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에 나오고 있어서,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윤희수는 1843년(=현종9년) 5월 선전관(宣傳官)으로 처음 관직에 나아갔다. 당시 선전관은 무과 출신들이 선호하는 관직으로 왕명(王命)의 출납(出納)과 시위(侍衛) 등을 담당할 일종의 무반 승지(承旨)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록 9품직부터 출발하지만 출세의 길이 보장된 직책이었다. 이후 윤희수는 철산부사(鐵山府使), 숙천부사(肅川府使), 경흥부사(慶興府使) 등 외관직을 거쳤는데 특히 경흥부사 재직시에 이읍(移邑)으로 인한 공

해(公廨)를 영건하는 일에 힘쓴 결과 당시 관찰사의 추천을 받아 조정으로부터 방어사(防禦使) 경력을 인정받기도 했다.⁴⁷⁾ 이후 그는 훈련도감 천총(千摠, 1864년 10월), 공충수사(公忠水使, 1864년 12월), 금위영 기사별장(騎士別將, 1866년 3월) 등을 거쳐 마침내 1867년 3월 23일 수원 중군에 임명되었고, 매사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여 동료 군관들과 직속 상관인 유수 이경하의 신임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국왕이) 수원중군 윤희수 …등에게 명하기를, “현직의 기한이 한번 만료되었지만 그대로 영임(仍任, 이어서 근무)하라”고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계언(啓言)하기를, “수원유수 이경하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그 장계에서) ‘중군 윤희수가 절도(竊盜)를 막자 도둑이 없어지고, 천주교도[邪類]를 다스리자 천주교 신자의 자취가 거의 사라졌으므로 임기[瓜限]가 다 되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윤희하다.⁴⁸⁾

이상의 기사와 앞서 살펴본 통계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윤희수는 그가 수원 중군으로 재임하던 2년 정도의 기간 중에 천주교 신자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주요한 신자들 수십 명을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처형하는 등 천주교 신자들을 효과적으로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불과 몇 달 동안만 근무했던 전임 중군들과는 달리 2년 전후의 기간을 수원 중군 즉 총리영의 토포영장으로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윤희수는 황해도 봉산군수를 역임했는데, 이때 공금을 무려 2만1천량이나 횡령하여 당시 황해도 암행어사 김윤식의 보고를 접한 고종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⁴⁹⁾. 이같은 그의 행적으로 보아 그가 수원 중군으로 있을 때도 신자들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약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은 당시 수원 판관 정기명이 1869년 5월에 순교한 안중의 부호 지다두가 소유했던 사방 10여리의 전장(田莊)을 모두 몰수하여 착복한 사건으로 대대리 그 순교자 후손들의 원성을 산 일이 있음을 미루어 보아서도⁵⁰⁾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 《일성록》철종12년(=1861년) 3월 10일조.

48) 《일성록》고종5년(=1868년) 12월 4일조.

49) 《緡郡會哨史》附錄 海西緡郡 書啓 하589 및 別單.

50) 원재연 앞의 논문(2005.12) p.62.

정기명(鄭基命)은 병인박해기 화성(수원) 판관에 부임한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사람으로서, 그의 재임 기간은 1867년 12월부터 1871년 7월까지 무려 3년 7개월에 이른다.⁵¹⁾ 그는 문과 출신으로 1838년(=헌종4년) 희정당(熙政堂)에서 치러진 과거에서 賦居首를 하는 등 여러 번 대소의 과거에서 합격했지만 오랫동안 진사(進士)를 면치 못하다가, 1852년(=철종3년) 상호도감(上號都監)의 감조관(監造官)으로 사환을 시작한 듯하다.⁵²⁾ 그후 강서현령(江西縣令, 1856년), 홍천현감(洪川縣監, 1860년), 배천군수(白川郡守, 1861년), 서흥부사(瑞興府使, 1864년 2월), 안성군수(安城郡守, 1865년 3월), 광주판관(廣州判官, 1865년 9월) 등을 거쳐서 1867년(=고종4년) 12월 12일 당시 화성판관(華城判官)이던 유승근(柳承根)과 직위를 서로 바꿈으로써 수원 판관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또한 상당한 행정적 자질을 발휘했던 것 같다. 1870년 1월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인 수원유수 이재원(李載元)이 이조(吏曹)에 장계를 올려 화성판관 정기명이 비록 임기가 짧지만, 삼정이정(三政釐整) 작업에 상당히 능숙한 재질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이 일을 갑자기 중도에 그만두게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영임(仍任)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이조에서 국왕에게 유수의 청원을 상신하여 재가를 받음으로써⁵³⁾ 정기명은 개항이전 역대 수원의 판관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3년 7개월간을 재임하게 된 것이다. 그는 대한제국기에 가서 중추원 의관(議官)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경력을 따져볼 때, 그가 수원판관 재직 시에 기본적으로는 유수 이경하의 의중에 충실히 따르면서, 천주교 신자에 대한 1차 심문의 책임자라는 자신의 직분을 십분 활용하여 지다두를 비롯한 상당수 신자들을 수감하고 그들의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강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문관이며,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할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앞서 언급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처형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중군 윤희수나 수원 고을 천주교 박해의 총책임자 이경하 유수보다는 순교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원성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명은 지다두 후손의 경우에서 보듯이 천주교 신자들과 그 가족 친지들로부터 상당수의 재물을 약탈함으로써 신자들에게 원성을 샀고, 다수의 신자들을 형옥에 수감시켜 옥고를 치르게 했을 것이다.

51) 같은 논문 p.61.

52) 《일성록》철종3년(=1852년) 11월 20일조.

53) 《일성록》고종7년(=1870년) 1월 15일조.

〈그림 3-1〉 화성성역의례를 활용한 판관의 집무처 '이아(貳衙)'의 재구성



필자의 소견으로는, 신중하지만 박해의 명분을 앞세우고, 대원군의 의중에 따라 주도 면밀하게 수원유수로서 수원 지역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정책을 밀고 나간 이경하 유수의 업호 하에, 그의 막료이자 박해의 실질적 집행 책임자였던 판관 정기명과 중군 윤희수는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가능한 은밀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당시 비공개 적 천주교도 사형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화성 형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수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옥고(獄苦)를 치르게 하는 동시에, 신자들의 사식(私食)과 치료 등 옥바라지에 나섰던 친지들을 위협하거나 설득하여 상당한 량의 재물을 굶어모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병인박해기 수원 형옥은 천주교 신자들의 원성과 고통, 신음과 탄식으로 가득찬 죽음의 장소, 다산 정약용이 말한 “현세에 존재하는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⁵⁴⁾

54) 《牧民心書》제10권 刑典六條 恤囚 : “감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옥이다. … 옥중의 온갖 고통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그중의 큰 것을 들면 모두 다섯 가지 고통이 있다. 첫째가 갈·수갑[枷械]의 고통이요, 둘째가 토색질 당하는 고통이요, 셋째가 병들어 아픈 고통이요, 넷째가 추위와 주린 고통이요, 다섯째가 오래 머무는 고통인데, 다섯 가지가 즐거가 되어, 천 가지 만 앞의 고통이 여기서 갈려 나오는 것이

그러나 이같은 온갖 옥고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자들 못지않은 열성으로 매일 조만과를 바치며 서로서로 신앙을 권면하고, 작은 물건이라도 함께 나눔으로써, 관원들과 옥리들과 비신자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 중 옥에 갇힌 다수의 신자들은 순교(殉敎)의 화관(花冠)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1868년 7월 18일 교수형으로 수원 형옥에서 순교한 윤자호 바오로 회장이나, 1871년 3월 25일 역시 같은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한 원 프란치스코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신의 먹을 꺼리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감옥에서 함께 갇힌 신자들 및 비신자 도둑들과도 나누어 먹고, 자신을 밀고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한 원수까지도 불쌍하게 여기고 자선을 베푸는 행위 등을 통해서, 비신자 수감자 중 상당수를 천주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감화력(感化力)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는 실로 세상에 존재하는 지옥인 감옥을 천주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소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⁵⁾ 그러므로 교회사적 관점에서 볼 때, 병인박해기 수원 형옥은 이곳에 갇힌 열심한 신자들이 함께 갇힌 수많은 비신자들과 옥리들과 형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교 공동체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맺음말 – 화성 형옥의 사적 의의

19세기 수원 고을을 비롯한 수원유수부의 군사적, 치안적 관할에 속하는 용인, 안산, 시흥, 과천, 진위 등 수원의 인근 고을과 충청도 내포 및 경기도 남부 지방, 그리고 일부는 남양도호부 등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천주교 신자로 적발되어 수원 관아가 위치한 화성으로 끌려왔다. 이때 화성에 압송된 신자들은 1차적으로 화성 판관이 집무하던 ‘이아’의 동헌인 화청관 앞 마당에서 판관으로부터 심문을 당하거나, 때로 판관의 위임에 의

다. 사형수는 장차 죽을 것인데 먼저 이 고통을 당하여야 하니, 그 정상이 슬픈 것이요, 경범죄는 그 죄가 중하지 않은 데도 같이 이 고통을 받고, 원통한 죄수는 잘못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당하여야 하니, 세 가지가 모두 슬픈 일인데 백성의 목민관이 된 사람으로서 어찌 살펴보지 않을 것인가? ...

55) 남재연 앞의 논문《교회사학》2집(2005.12, 수원교회사연구소) pp.71-87 및 같은 책 pp.255-293dp tiffis 하성래, 이석원 역주 <한글고문자료 “병인치명사적” 중 수원순교자 행적 8위> 등을 참고.

해 2차 심문기관인 ‘중영’의 동헌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배교를 하여 심문 초기에 석방된 경우를 제외하면, 천주교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던 대다수 신자들이 이아와 중영 사이에 있는 종로사거리에서 남암문 쪽으로 약간 내려가 있는 곳에 위치했던 형옥에 수감되어야 했다.

이곳 형옥은 약 7년여에 걸친 병인박해기(1866~1873년) 동안 수원에서 순교한 교회 기록상에 등장하는 최대 77명의 순교자들 중 약 39명 정도가 이곳에서 순교함으로써 현존하는 수원 화성의 천주교 사적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성역이 되었다. 곧 형옥에 갇힌 신자들은 수감 중에 굶주림과 질병, 고문의 상처 등으로 감옥 속에서 유폐되어 죽거나 후미진 옥 마당이나 감방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교수형, 또는 백지사형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적인 사형을 당했던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수원지역 천주교 순교사의 생생한 현상이었던 수원 형옥은 1790년경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아직 도호부였던 때이라 초가로 된 6칸 정도의 건물이었지만, 수원이 도호부에서 유수부로 승격된 1793년 이후 거듭 변신하여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 국왕이 거동했던 이른바 을묘원행 시에는 초가가 아닌 기와지붕으로 바뀌었고 옥 둘레에는 네모난 형태의 담장이 둘러친 상태로 변했다. 이어 1896년 8월 이후 화성의 축조가 실질적으로 완공된 이후부터 1801년 9월 사이에 화성 형옥은 더욱 정비되어 바깥의 네모난 담장 외에도 안쪽에 별도로 동글게 둘러쳐진 원형의 옥담이 세워지고, 옥쇄장이(간수)의 거처라든가 취사장, 교수형 집행실 및 옥구의 복판 장소 등이 따로 분리되는 등의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여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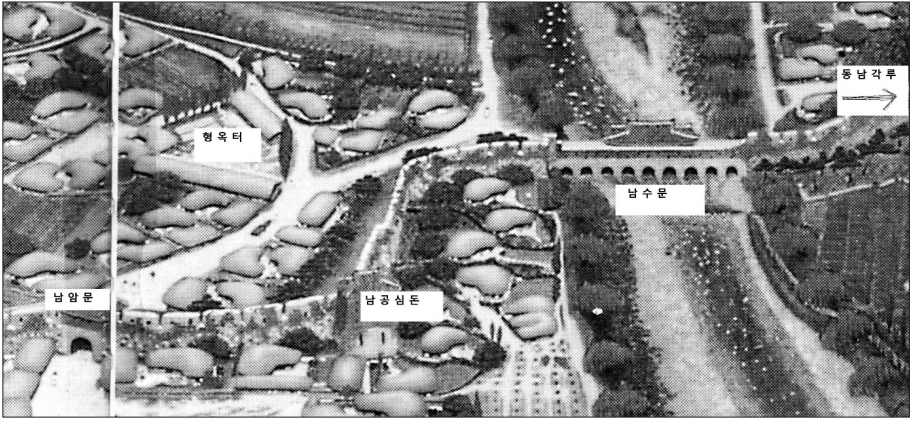
이러한 감옥에는 병인박해기 수원고을 내 박해의 총책임자였던 유수와 그의 명을 받들어 신자들을 수색, 체포, 압송, 심문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박해 집행의 1단계 실무책임자 판관 과 판관의 위임으로 배교를 거부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주리틀기나 주장질 등 각종 가혹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형문(刑問)하였을 박해 집행의 2단계 실무책임자 중군 등의 지시에 의해 수많은 신자들이 수감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에 수감된 신자들은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말한 다섯가지 옥고를 겪게 되었다. 그들은 목에 쓰는 무거운 칼과 발에 채우는 족쇄 등이 주는 신체의 부자유와 마찰에 의한 상처를 겪게 되었고, 사나운 옥리와 먼저 수감된 도적 등이 가하는 온갖 악습과 횡포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재산적 수탈을 동시에 당하는 고통도 받게 되었으며, 옥중의 불결한 환경에서 오는 각종 전염병과 고문의 상처가 악화되어 생긴 고문 후유증 등으로 병들어 앓게 되었으며, 하루 2끼식 조석간에 주게 되어 있는 최소한의 식사마저 때때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약탈

을 당함으로써 겪게 되는 굶주림, 여름의 지독한 더위와 겨울의 지독한 추위가 그대로 옥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환경의 고통 등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옥고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었던 장기간 옥에 유폐됨으로써 겪게 되는 체옥(滯獄)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로 인해 수감된 신자들은 외관상 이른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도 아닌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한 존재로 변해갔다. 때문에 교회사가 달레 신부는 온갖 고문과 매질에는 그렇게도 용감하던 조선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면 배교자가 속출하게 된다고 탄식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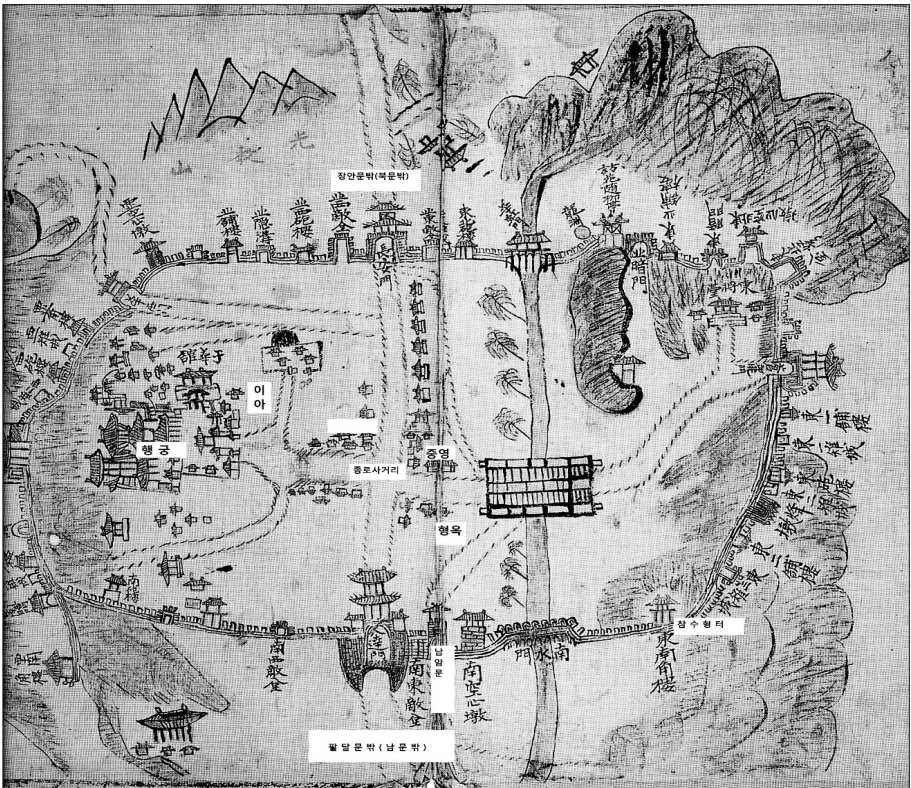
그러나 수원 고을에서 병인박해기에 순교한 이들로 기록상 최대 77명에 달하는 순교자들은 감옥의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 중에서도 결코 배교하거나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조석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신앙을 권면하였으며, 먹을 것이 생기면 굶주림 속에서도 작은 몫이라도 일일이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행실의 귀감을 보여줌으로써, 함께 수감되어 신자들을 자주 괴롭히던 흉악한 도둑들까지도 감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른바 현세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지옥이란 별명을 가진 감옥이 고통을 통해 신자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신앙공동체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병인박해기 수원 화성의 감옥은 박해시대 신앙선조들의 열심한 순교정신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실제로도 과반이 넘는 순교자가 순교를 한 장소로서, 한국 천주교회사와 수원지역 교회사에서 순교성지(殉敎聖地)로서 또 성역(聖域)으로서 차지하는 위상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신앙의 후손들이 박해시기 수원 고을 순교자들의 신앙심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장소로는 행궁, 이아, 중영, 종로4거리, 팔달문 밖, 장안문의 밖, 동남각루와 남암문 등 수원 화성 내의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순교자들이 보편적으로 거쳐 가면서 죽음으로써 굳센 신앙을 고백한 감옥이야말로 가장 적절하고 훌륭한 배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화성 형옥은 이상에서 설명한 교회사적 의미 외에도 19세기 수원 고을과 인근 지역 주민들 중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소외계층의 적나라한 빈곤의 참상과 고통 및 죽음의 실상, 인권이 극도로 박탈된 비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관리들의 온갖 부패상을 여실히 고발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조건들 속에서도 작은 나눔을 통해서 훈훈한 인간의 정을 맘껏 발산했던 참된 인격적 만남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사, 법제사, 문화사, 풍속사적 의미 또한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림 7〉 구한말~일제초 거주자의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한 화성 형옥터와 그 일대



〈그림 8〉 18세기 후반의 “화성도” 위에 표시한 화성 내외의 주요 천주교 사적지



참고문헌

1. 지도 및 사진첩

- 《水原의 옛 地圖》(수원시, 2000.12)
- 《水原市 都市計劃 200年史》(수원시, 2000.12)
- 《되살아난 수원의 옛 모습》(수원미술전시관 개관기념 윤한흠 작품집 : 1999.12, 수원시)
- 《사진으로 보는 근대 화성의 옛 모습》(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 2005.12)

2. 관찬기록

- 《承政院日記》
- 《日省錄》
- 《朝鮮王朝實錄》
- 《水原府留營狀啓謄錄》(일명 《華營啓錄》) 제1~3책(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各司謄錄》제5권)
- 《辛亥正月日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奎9919)
- 《華城城役儀軌》(규14586)
- 《高宗時代史》
- 《大典會通》
- 《水原市史 上 -歷史속의 水原-》(1996, 수원시사 편찬위원회)

3. 조선시대 읍지류

- 《華城誌》(古奎915.12)
- 《水原府邑誌》(奎10702)
- 《水原郡邑誌》(장서각 소장)
- 《畿甸營誌》규장각(奎12187)

4. 천주교회측 자료

- 《邪學懲義》(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977년)
- 《병인치명사적》,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치명일기》
- 《한국천주교회사 1》(달레 원저, 최석우, 안응렬 역주,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9)

《가톨릭청년》1935년 9월호에도 〈血淚의 體驗談〉

〈한글고문자료 “병인치명사적” 중 수원순교자 행적 8위〉《교회사학》2집(2005.12, 수원교회사연구소, 하성래, 이석원 역주)

5. 기타 문집류

《牧民心書》

《緗陰晴史》

《俟菴先生年譜》(1921년 정규영 서술, 1984년 正文社에서 간행)

6. 증언(녹취)기록

[사전기록] 지석봉 가브리엘(*2001년 9월 평택시 비전동 856-2번지 거주, A4용지 80쪽)

[증언록] 김동휘 박사(1918.7.1생, 화성 서문안 신평리 거주)의 증언(2005. 7. 21 녹취)

[증언록] 윤한흠 선생(1924.9.24생, 수원시 남창동 태생)의 증언(2005. 7. 11 녹취)

[증언록] 황백규 회장(1930.3.30생, 수원 관거리 출신)의 증언(2005. 2. 23 녹취)

7. 저서, 논문류

펠릭스 클래어 리델 지음, 유소연 옮김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 -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살림출판사, 2008.12)

최홍규, 〈경기지역의 향토사연구 현황과 방향〉《경기사론》2(경기대 사학회, 1998)

최홍규, 〈수원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경기사학》3(경기사학회, 1999)

유봉학, 〈화성성역의 역사적 의의와 화성의 문화유산〉《경기향토사연구》1(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1997)

유봉학, 〈화성성역과 화성의 문화유산〉《근대를 향한 꿈》(경기도박물관, 1998)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효형출판, 1998)

정옥자, 〈정조의 학예사상 - 홍계전서 일득록문학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11(일지사, 1978)

이태진, 〈正祖-儒學的 계몽 절대군주-〉《한국사시민강좌》13집(일조각, 1993)

박광용,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한국사》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상권, 〈영조, 정조의 새로운 상업관과 서울상업정책〉《서울상업사연구》(서울학연구총서 7).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1998.
- 김문식, 《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정조와 경기학인을 중심으로-》(일조각, 1996)
- 김정자, 〈正祖代 華城城役 研究의 動向과 課題〉《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24(한신대출판부, 2003)
- 이제실, 〈화성의 수성체제에 대하여〉《수원문화사연구》창간호, 수원문화사연구회, 1998.
-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여유당, 2008.1)
- 원재연, 〈수원유수부내 천주교 박해의 전개과정〉《교회사학》제2집(2005.12, 수원교회사연구소)
- 원재연, 〈正祖代 西學과 天主教 普及〉(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8)
- 원재연, 〈조선후기 天主教徒에게 적용된 刑律 - 賊盜律과 先斬後啓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제23호(2001, 한국법사학회)
- 원재연, 〈1868년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묘 굴충사건과 해미의 순교자들〉《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도교》(2003, 한들출판사)
- 中橋政吉, 《朝鮮舊時の 刑政》(1936, 治刑協會)

특집 : 숨어있는 수원유적 재발견

산자수명(山紫水明), 수원지방의 산맥을 찾아서

김 충 영 (팔달구청장)

| | |
|------------------------|------------------------|
| 머리말 | 3. 수원지방 산맥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
| 1. 우리나라 산맥의 정의와 산줄기 체계 | 맺음말 |
| 2. 수원지방의 산맥체계 | |

머리말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은둔의 시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시대를 맞으면서 40여 년 동안 국토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소홀히 다루며 많은 산맥들을 훼손시켜왔다.

최근 들어 건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의 올레길, 서울의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전통의 옛길과 산길들이 건강, 문화, 체육, 여가 활동의 공간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차원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해안, 산악, 옛길 등을 따라 녹색길을 조성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길이란 연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많은 구간이 단절되어 주변의 활용 가능한 자연 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의 경우도 구 수원읍치(지금의 화성시 안녕리 일원)가 조선의 최대 명당으로 인정받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고장이나 도시화로 인하여 산맥이 잘려나가 원형을 잃어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수원지방의 산맥체계 연구를 통해 역사적 자원

자원의 보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66% 가량이 산지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과 강에 대한 인식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환경은 국토의 이해 차원에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으로 많은 산맥들이 훼손되었다.

최근 들어 ‘하천의 수계’를 중심으로 산줄기를 백두대간, 장백정간, 13정맥의 산줄기 체계를 제시한 조선시대 산경표(山經表)-조선광문화가 1913년에 발간-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산 인식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된 산맥체계는 일본인 지질학자 고토분지로(小藤文二郎)가 1903년에 발표한 조선산악론(朝鮮山嶽論)에 기초를 두고 정립된 산맥체계가 수정이나 검토의 작업 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는 땅 밑의 지질구조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땅위의 산맥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만 있었을 뿐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토연구원」이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산맥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2004)’에서는 산맥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에 대해 지형바탕의 수치표고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DEM), 지질현황도, 위성영상, 산봉우리와 고개(嶺)를 모아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질현황을 분석하고 지형모델링을 실시하여 현행 교과서의 산맥체계, 산경표의 백두대간체계 등을 중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맥체계는 전통산맥 체계의 지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밝히고,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체계와 매우 흡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산맥을 가장 고도가 높고 긴 주산맥(main mountain range)을 1차 산맥으로 분류하고, 1차 산맥과의 연결성에 의해 2, 3차 산맥을 구분하였다. 1, 2, 3차 산맥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50Km 이상의 연속된 산맥이 나타나면 독립된 산맥으로 구분하여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한반도 주산맥을 비롯하여 22개의 2차 산맥, 24개의 3차 산맥, 3개의 독립 산맥을 제시하였다.

전통산맥 체계와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2004)’ 제시된 산맥 체계를 분석한 결과 수원지방의 산맥체계는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하여, 속리산에서 분기되는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을 따라 북으로 안성의 칠장산까

지 올라와 다시 분기하여 북쪽으로 김포의 문수산까지 한남정맥이 이어진다. 한남정맥 중간의 대표격 주봉인 광고산으로 부터 서남쪽으로 형성되어있다. 그러나 수원지방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맥이라고 여기지 않아 그동안 산맥 관리에 소홀함으로 써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원지방 산맥의 정확한 정립을 통하여 도시개발로부터 더 이상 역사적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산맥체계 관련된 연구 및 고문헌등에서 나타난 한남정맥체계에서의 수원지방에 형성된 지맥을 살펴보고 수원지방의 옛 지도에 나타난 산맥과 하천의 수계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수원지방의 산맥을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산맥 훼손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을 분석하여 향후 역사적 자연자원의 보존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산맥의 정의와 산줄기 체계

1) 우리나라 산맥의 정의

우리나라의 산맥체계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산맥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산맥의 정의 또는 개념을 정리해보면 두산 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 ‘산맥(山脈, mountain range)이란 산지에서 산봉우리가 선상(線狀)이나 대상(帶狀)으로 길게 연속되어 있는 지형’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산맥이란 산악들이 선상이나 대상으로 줄지어 솟아있는 형태의 산지지형을 말하는데, 보통 산지지형은 산계(山系)·산휘(山彙)·산괴(山塊)·산맥(山脈)·산령(山嶺)·산릉(山稜)·산봉(山峰)·산정(山頂) 등으로 구별되기도 하나, 산맥은 산정·산령·산봉이 계곡과 나란히 배열되어 거의 선상 또는 맥상일 때를 총칭’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브리태니커(Britannica)백과사전에는 ‘산맥(mountain range)이란 산지(mountains)가 좁고 길게 연속되어 있는 지형으로, 한 개의 능선이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고 여러 개의 산맥이 같은 방향으로 중첩되어 대지형을 형성하는 것은 산대 또는 조산대(造山帶)라 칭하며 연속적으로 산맥을 형성하는 것은 특별히 연쇄산맥이라 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 옥스퍼드(Oxford) 영어사전에는 '산맥(mountainrange)을 선상으로 배열된 일련의 산으로 융기된 지표에 의해 연결된 지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평범사에서 발간한 세계대백과사전(1980)에는 '산맥이란 맥의 상태를 이루고 이어져 있는 산군(山群)'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산 백과사전(Canadian Mountain Encyclopedia)에는 '산맥이란 저지대나 길에 의해 경계가 구분되는 산지의 집합으로, 면적과 경계선을 가지므로 단순히 산봉우리의 목록만이 아니며, 그렇다고 반드시 같은 지질학적 특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지리학사전에는 '산맥이란 산정(山頂)이 거의 연속해서 길게 선상으로 연속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반도 산맥체계 정립연구(2004)」는 여러 백과사전과 지형학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맥의 개념을 토대로 산맥(山脈, Mountain Range)이란 '산지에서 산봉우리가 선상(線狀)이나 대상(帶狀)으로 길게 연속되어 있는 지형'으로 정의하였다.

2) 전통지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

우리나라 산맥은 선조들의 전통적 산 인식 체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산줄기 체계, 산경표의 백두대간 체계, 개화기 지리서의 산줄기 체계 등 전통지리에서 산줄기를 찾아볼 수 있다.

(1) 전통적 산 인식 체계

전통적 산 인식 체계는 조선시대 이전의 산 인식체계와 조선시대의 산 인식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이전의 산 인식체계로 살펴볼 때 우리민족은 자연조화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 생활환경에 큰 배경이 되고 있는 산에 대한 조화와 산에 대한 인식체계는 산과 관련된 문학, 풍류, 종교 등에 반영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대표적인 산에 대한 인식체계는 통일신라후기 도선(道詵, 827~898)의 옥룡기(玉龍記)에서 볼 수 있다. 도선은 '우리나라의 지맥은 백두산에서 일어나 지리산에서 그치는데, 그 산세는 뿌리에 물을 품은 나무줄기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我國始于白頭終于智異 其勢水根木幹之地)'며, 우리 국토를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였다.

둘째, 조선시대의 산 인식체계를 보자면 조선시대에 와서는 백두산을 국토의 조종(祖

宗)으로 보고 도읍지를 국토의 중심(中心)으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표 1> 참조) 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이 특히 조선 중기부터는 국토산천의 핵심적 인식체계로 정착하였다. 이 시기의 각종 지도를 보면 백두산을 크게 그리고 흰 색이나 황금색으로 강조하여 돋보이도록 하거나, 지도 제작과정에서 방위를 나타낼 때 한양을 중심으로 방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국토를 인식하는 체계가 산 중심 체계와 강 중심 체계로 이원화되기도 하였다. 산을 중심으로 한 체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산경표이고, 강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체계가 정약용의 대동수경(大同水經)이다. 또한 신경준(申景濬)의 백두산기(白頭山記)에서는 ‘우리나라 백두산이 주변 세 나라 모든 산들의 으뜸(朝鮮人名以白頭山及三國衆山之祖)’이라고 하였다.

<표 1> 조선시대의 山 인식체계

| 중심지 | | 특징 | | | | |
|-----|-----|-----|-------|-----|-----|-----|
| 1 | 백두산 | 자연적 | 민간적 | 원형적 | 뿌리 | 절대적 |
| | 한양 | 인문적 | 국가적 | 현실적 | 중심 | 상대적 |
| 2 | 산 | 신성화 | 脈勢중심 | 이념적 | 초월적 | 분리적 |
| | 강 | 인간화 | 생활권중심 | 현실적 | 조화적 | 통합적 |

자료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

(2) 전통지리에서 나타난 산줄기 체계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는 조선시대의 산줄기 체계, 산경표의 백두대간 체계, 개화기 지리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의 산줄기 체계는 여러 학자들의 문서에도 나타난다.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僊說) 권지일하(卷之一下) 천지편하(天地篇下) 지리문(地理門)의 제목 중 하나를 백두정간이라 하였고 내용 중에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종환(1690~?)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조선 산맥, 백두대맥, 백두남맥, 대간 등의 표현이 있다. 또한 申景濬(1712~1781)의 산수고(山水考)는 우리나라의 산천을 대관소찰(大觀小察)한 전통지리서로 삼각산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12산과 한강을 중심으로 한 12수를 거시적으로 파악하였다. 산수고에서는 우리나라 산 천을 산경(山經)과 산위(山緯), 수경(水經)과 수위(水緯)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산줄기와 강줄기의 전체

적인 구조를 날줄(經)로, 각 지역별 산천의 상세하고 개별적인 내용을 씨줄(緯)로 엮어 국토의 지형적 환경과 그에 따라 형성된 단위지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신경준은 우리나라 산천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뉘고, 여러 물은 합해져 12수를 이룬다. 보고,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산과 강을 분합원리(分合原理), 음양구조(陰陽構造), 수도중심(首都中心)으로 체계화하였다.

조선후기 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에는 산의 줄기와 갈래 그리고 산의 위치를 족보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백두대간, 정간, 정맥 등으로 산줄기에 위계를 부여하였다. 광여도(廣輿圖)는 조선후기의 지도첩으로 대간, 내맥, 낙맥 등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 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살펴본 조선시대 산 인식체계의 공통점은 백두대간 산줄기의 흐름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산맥체계와 달리 백두산에서 금강산, 태백산, 소백산의 죽령을 지나 지리산에 이르는 산줄기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산경표(山經表)의 백두대간 체계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그 분포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백두대간(白頭大幹), 장백정간(長白正幹), 낙남정맥(洛南正脈), 청북정맥(淸北正脈), 청남정맥(淸南正脈), 해서정맥(海西正脈), 임진북예성남정맥(臨津北禮成南正脈), 한북정맥(漢北正脈), 낙동정맥(洛東正脈),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 한남정맥(漢南正脈), 금북정맥(錦北正脈),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 금남정맥(錦南正脈), 호남정맥(湖南正脈) 등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하였다. 산경표 산맥체계의 특징은 대간과 정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의 수계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분류했다는 점이다. 또 산줄기의 맥락과 명칭을 체계화하여 대간, 정간, 정맥으로 산줄기에 위계를 부여하였고, 산과 산의 분포, 위치를 줄기 또는 맥으로 파악하여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무엇보다 백두산을 국토의 중심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림1>

셋째, 개화기 지리서의 산줄기 체계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한 지리 교과서인 대한지지(1899, 현 채)에서 백두산은 전국 산의 조종(祖宗)으로 산줄기가 지리산에서 끝나며, 그 산줄기를 정간으로 표현하였다.

지로가 우리나라 산맥에 관해 발표한 세 논문 「조선남부지세」, 「조선북부의 지세」, 「조선 산악론」에서 제시했던 한반도 산맥체계를 정리한 표이다.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14개 산맥의 이름 중 함경산맥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고토분지로가 지은 이름이 지금까지 골격을 이루고 있다.

〈표 2〉 고토분지로의 산맥분류

| 출처 | 조선남부의 지세 | 조선북부의 지세 | 조선 산악론 | |
|----------|--|---|---|--|
| 연도 | 1901 | 1902 | 1903 | |
| 산맥 이름 | 묘향산맥 백운산맥 금산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연맥 태백연맥 남안연맥 |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두개령맥 마항령맥 언진산맥 자비령맥 멸악산맥 구월산맥 자모산맥 육장산맥 송학산맥 맹주령맥 마식령맥 마천령맥 장백산맥 | A. 한토 〈지나계〉 노령산맥 차령산맥 〈조선계〉 태백연맥 중앙맥 해안맥 내방맥 소백연맥 황치맥 팔랑치맥 육십령맥 78비홍치맥 〈한산산맥〉 밤치맥 능주맥 병영맥 B. 개마지역 〈요동산맥〉 묘향맥 적유령맥 갈을령맥 장백맥 무산령맥 장지봉맥 | 〈조선계〉 낭림맥 함관령맥 마천령맥 C. 고조선 지방 〈동서방향〉 수양맥 멸악맥 조일령맥 황룡맥 말목맥 천선맥 두개고개맥 맹주령맥 〈남북방향〉 구월맥 자모맥 육장맥 말머리맥 진현맥 아호비령맥 마식령맥 |

자료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

1970년대 초에 지질학자 김옥준은 우리나라 산맥을 14개로 분류했고, 지리학자였던 박노식은 40개로 분류했다. 김옥준의 경우, 산맥수는 14개로 현행 교과서와 동일하나, 소백과 노령을 하나의 산맥으로 묶고 덕유산맥을 추가했다. 박노식은 국내에서 산맥을 가장 세밀하게 분류한 학자인데, 40개 중 27개 산맥의 이름이 고토분지호가 붙인 이름과 일치한다. 80년대 중반 강석오는 언진과 멸악을 제외하고 부전령산맥을 추가했고, 90년대 초반 임덕순은 용문산맥을 추가해 15개의 산맥을 제시했다. 국내 지리 및 지질 학계 학자들의 산맥분류 변천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지난 30년간 국내 지리 및 지질 학계의 산맥분류 변천

| 구분 | 김옥준 (1970) | 박노식 (1971) | 강석오 (1985) | 임덕순 (1992) | 권혁재 (2000) | |
|-------|---|---|---|---|--|---|
| 출처 | 남한중부 지역의 지질과 지구조 | 한국지형연구 | 신한국지리 | 우리국토전체와 각 지역(I) | 한국의 산맥 | |
| 산맥 이름 |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노령산맥 덕유산맥 (14 산맥) | 마천령산맥 백두화산맥 낭림산맥 와갈봉산맥 구월산맥 자모산맥 육장산맥 니한산맥 아호비령산맥 연화산맥 부전령산맥 두운봉산맥 함경산맥 비래봉산맥 강남산맥 적유산맥 묘향산맥 장백산맥 장지봉산맥 무산산맥 청암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 수양산맥 조일산맥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울치산맥 능주산맥 병영산맥 (태백산맥군) 해안산맥 중앙산맥 영서산맥 (소백산맥군) 소백산맥 황치산맥 팔형치산맥 육십령산맥 비룡치산맥 (40 산맥) |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부전령산맥 마식령산맥 낭림산맥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언진산맥 묘향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용문산맥 태백산맥 차령산맥 (13 산맥) |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용문산맥 태백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 (15 산맥) |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5 산맥) |

자료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

4) 지형과 지질 분석을 통한 산맥 체계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에서는 산맥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수치표고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DEM), 지질현황도, 위성영상, 산봉우리와 고개(嶺)를 모아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IS기법을 활용하여 지질현황의 분석과 지형모델링을 실시하여 현행 교과서의 산맥체계, 산경표의 백두대간체계, 북한의 산맥체계와 중첩 분석함으로써 각 산맥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현행산맥체계가 지질학적 근거에 의해 정립되었다는 학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산맥의 정의와 설정기준에 따라 수치표고 자료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한반도 산맥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을 산맥 설정기준으로 삼아, 산의 규모는 지역별로 상대고도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판단하고, 산지의 연속성은 산 능선의 분포와 산봉우리 연속 경향면 분석을 통해 추출했다. 또한, <표 4>와 같이 산맥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한반도에서 가장 고도가 높고 긴 주산맥(main mountain range)을 1차 산맥으로 분류하고, 1차 산맥과의 연결성에 의해 2, 3차 산맥을 구분하였다. 1, 2, 3차 산맥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50Km 이상의 연속된 산맥이 나타나면 독립된 산맥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산맥체계 분류기준

| 산맥체계 | 분류기준 | 특성 |
|-----------|-------------------------------------|---|
| 1차 산맥(M1) | 한반도 산맥 중 가장규모가 크고 길이(연속성)가 긴 산맥 |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 주산맥 |
| 2차 산맥(M2) | 1차산맥과 직접 연결되는 산맥 | 1차 산맥과 직접 연결된 산맥은 지형 발달측면이나 접근 방법에 있어 가지는 의미가 큼 |
| 3차 산맥(M3) | 1차산맥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2차 산맥과 직접 연결되는 산맥 | 산맥의 규모와 길이는 작지만 2차 산맥을 통해 1차산맥과 간접적으로 연결됨 |
| 독립 산맥 | 1,2,3차 산맥과 연결되지 않는 산맥 | 1차산맥과 연결성이 없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연속된 산지가 나타나면 독립된 산맥으로 간주 |

자료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

이 연구에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한반도 주산맥을 비롯하여 22개의 2차 산

맥, 24개의 3차 산맥, 3개의 독립 산맥을 제시하였다.〈표 5〉 한반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산맥은 규모나 연속성 면에서 한반도의 지형을 대표하는 산맥이다. 주산맥은 가장 높은 고도의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두류산, 금강산, 태백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총 연장 1,587.3Km의 연속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2차 산맥에 대해서는 아직 산맥의 이름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름 대신 2차 산맥마다 각각 북쪽에서부터 주산맥에 연결된 순서대로 고유번호 즉 1번(M2-1)에서 22번(M2-22)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2차 산맥과 연결된 3차 산맥에는 1번(M3-1)에서 24번(M3-24)까지의 고유번호를 이름 대신에 부여하였다. 한반도에서 독립 산맥으로 인정할 만한 산맥으로는 황해북도 묘각산 주변의 독립 산맥-1,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걸친 삼각산(북한산) 주변의 독립 산맥-2, 남해안에 걸쳐 있는 독립 산맥-3의 새로운 산맥체계를 제시하였다.〈그림 2, 3, 4, 5〉

새롭게 제시된 산맥지도와 기존의 산맥체계인 산경표의 백두대간 체계를 비교한 분석한 결과 일치하는 점도 많으면서 차이점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일치하거나 유사한 점은 첫째, 산경표의 백두대간과 새 산맥체계의 M1산맥은 그 방향선이 거의 비슷하다. 둘째, 장백정맥과 M2-1산맥, 청북정맥과 M2-8산맥, 청남정맥과 M2-9산맥, 해서정맥과 독립산맥1, 임진북예성남정맥과 M2-12산맥, 호남정맥과 M2-22산맥, 낙동정맥과 M2-17산맥 등은 산맥 방향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양자간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첫째, 산경표에는 15개의 산맥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새 산맥체계는 50개의 산맥을 제시했다. 둘째, 새 산맥체계에서는 개마고원지역의 산맥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데 비해 산경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새 산맥체계에서는 해서정맥, 삼각산(북한산) 지역, 낙남정맥을 독립산맥으로 판단했다. 넷째, 산경표와 달리 새 산맥체계는 경상남북도 내륙지방에 있는 여러 개의 새로운 산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산맥지도와 대동여지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산줄기는 물론, 개마고원지역과 평안북도지역의 산줄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역의 산줄기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특히 지리산 주변 고흥지역의 산줄기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체계와 매우 흡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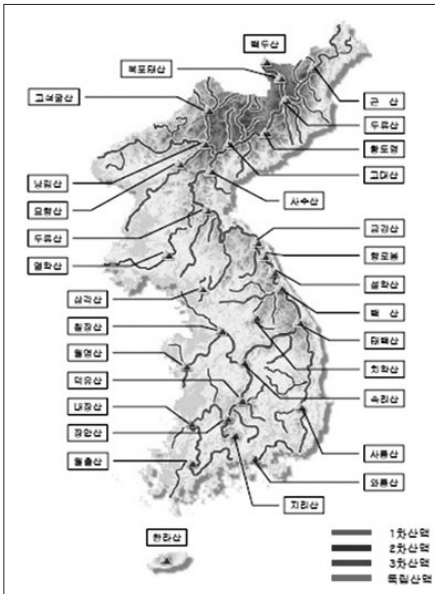
〈표 5〉 산맥 체계

| 구분 | 산맥이름 | 길이(km) | 평균높이(m) | 시점 | 종점 | 주요산 |
|-----------------|-------|--------|---------|--------|--------|----------------|
| 1차 산맥 (주 산맥) | M1 | 1587.3 | 1248 | 백두산 | 지리산 | 금강산, 설악산, 속리산 |
| 2차산맥 | M2-1 | 357.9 | 1308 | 대각봉 | 마유산 | 설령산, 무릉산, 소백산령 |
| | M2-2 | 113.5 | 1283 | 두류산 | 시루봉 | 덕만산, 용연산, 원산덕산 |
| | M2-3 | 103.3 | 1262 | 화동령 | 운주산 | 검덕산, 산봉산, 연화산 |
| | M2-4 | 101.1 | 899 | 1914고지 | 솔개봉 | 태백령, 차유령, 장기봉 |
| | M2-5 | 162.2 | 1712 | 1820고지 | 205고지 | 옥련산, 차일봉, 대방산 |
| | M2-6 | 101.0 | 1882 | 고대산 | 1748고지 | 수침산, 대남산, 연화산 |
| | M2-7 | 252.5 | 1620 | 1786고지 | 중지봉 | 소백산, 맹부산, 오가산 |
| | M2-8 | 395.1 | 1061 | 1786고지 | 246고지 | 소백산, 두첩산, 오봉산 |
| | M2-9 | 381.0 | 860 | 1786고지 | 우산 | 동백산, 대마산, 오석산 |
| | M2-10 | 80.4 | 698 | 시수산 | 락가산 | 배마우산, 만풍산, 상봉산 |
| | M2-11 | 66.2 | 886 | 1203고지 | 고천덕산 | 박대산, 기추봉, 시루봉 |
| | M2-12 | 211.7 | 782 | 두류산 | 오공산 | 덕곡산, 수용산, 공약산 |
| | M2-13 | 70.0 | 1018 | 백암산 | 감투봉 | 배덕산, 봉황산, 양암산 |
| | M2-14 | 188.7 | 826 | 백산 | 개미산 | 장암산, 청계산, 수원산 |
| | M2-15 | 106.7 | 924 | 매자봉 | 수리봉 | 도솔산, 사명산, 오봉산 |
| | M2-16 | 157.4 | 948 | 두로봉 | 노적봉 | 오대산, 대학산, 용문산 |
| | M2-17 | 386.7 | 795 | 1068고지 | 봉화산 | 대둔산, 소현산, 금정산 |
| | M2-18 | 103.1 | 661 | 옥돌봉 | 라부산 | 문수산, 용두산, 검무산 |
| | M2-19 | 345.4 | 472 | 속리산 | 오석산 | 철보산, 무이산, 월명산 |
| | M2-20 | 97.2 | 952 | 대덕산 | 성산 | 수도산, 남 산, 구무산 |
| | M2-21 | 136.6 | 749 | 남덕유산 | 골용산 | 황매산, 철마산, 집현산 |
| | M2-22 | 496.8 | 627 | 영취산 | 가야산 | 장안산, 장군봉, 문유산 |
| 3차산맥 | M3-1 | 83.5 | 588 | 933고지 | 백동산 | 발덕기산, 마태령, 송진산 |
| | M3-2 | 54.9 | 1441 | 요령 | 북고지봉 | 곤산, 곤장덕산, 독소령 |
| | M3-3 | 61.5 | 1326 | 귀산봉 | 삼춘봉 | 관모봉, 백사봉, 연대봉 |
| | M3-4 | 85.3 | 1253 | 설령산 | 고사덕산 | 유장령, 원서골산 |
| | M3-5 | 97.5 | 1257 | 무산 | 치마바위산 | 만탑산, 기운봉, 향로봉 |
| | M3-6 | 62.7 | 1734 | 백산 | 삼봉산 | 큰덕산, 응덕산, 삼봉령 |
| | M3-7 | 76.7 | 1481 | 2226고지 | 동동봉 | 신도령, 삼수령, 시수봉 |
| | M3-8 | 69.3 | 1681 | 1727고지 | 충천산 | 희새봉, 남사산, 마전령 |
| | M3-9 | 95.0 | 1093 | 사랑봉 | 수류봉 | 백삼봉, 사덕산, 흥대덕산 |
| | M3-10 | 102.3 | 1305 | 1604고지 | 백암산 | 삼봉산, 송적산, 시루봉 |
| | M3-11 | 80.9 | 907 | 1604고지 | 지천산 | 봉황산, 각고봉, 걸상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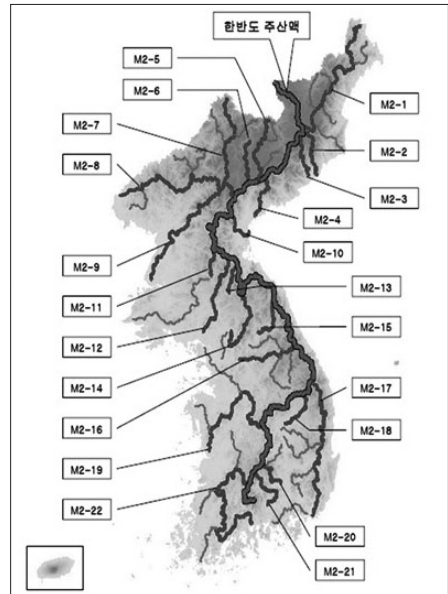
| | | | | | | |
|------|-------|-------|------|-------|-------|---------------|
| | M3-12 | 98.2 | 650 | 960고지 | 512고지 | 천마산, 청룡산, 문수산 |
| | M3-13 | 116.4 | 828 | 청량봉 | 깃대봉 | 응봉산, 대룡산, 봉화산 |
| | M3-14 | 125.6 | 951 | 삼계봉 | 태화산 | 태기산, 치악산, 용두산 |
| | M3-15 | 79.4 | 1182 | 계방산 | 봉래산 | 백적산, 청옥산, 접산 |
| | M3-16 | 152.5 | 591 | 690고지 | 건지봉 | 보현산, 문봉산, 비봉산 |
| | M3-17 | 143.5 | 705 | 690고지 | 만경봉 | 면봉산, 팔공산, 비봉산 |
| | M3-18 | 135.0 | 654 | 사룡산 | 봉어등산 | 구룡산, 삼성산, 발봉산 |
| | M3-19 | 162.6 | 329 | 칠장산 | 문수산 | 도덕산, 수리산, 계양산 |
| | M3-20 | 82.5 | 409 | 백월산 | 팔봉산 | 오서산, 천주산, 보배산 |
| | M3-21 | 70.9 | 652 | 수도산 | 백마산 | 삼방산, 금오산, 국사봉 |
| | M3-22 | 94.7 | 624 | 조약봉 | 명덕산 | 연석산, 비랑산, 천마산 |
| | M3-23 | 77.7 | 536 | 509고지 | 고산봉 | 방장산, 고성산, 월암산 |
| | M3-24 | 111.3 | 485 | 425고지 | 윤도산 | 선왕산, 두륜산, 대둔산 |
| 독립산맥 | 1 | 322.8 | 572 | 묘각산 | 381고지 | 멸악산, 천봉산, 까치산 |
| | 2 | 68.6 | 486 | 옥녀봉 | 안산 | 도봉산, 삼각산, 인왕산 |
| | 3 | 119.3 | 603 | 와룡산 | 봉화산 | 무이산, 성지산, 굴암산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에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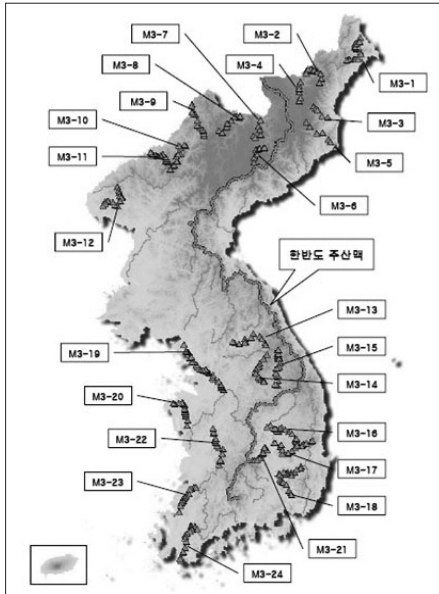
〈그림 2〉 새 산맥지도



〈그림 3〉 1, 2차 산맥지도



〈그림 4〉 3차 산맥지도



〈그림 5〉 독립 산맥지도



자료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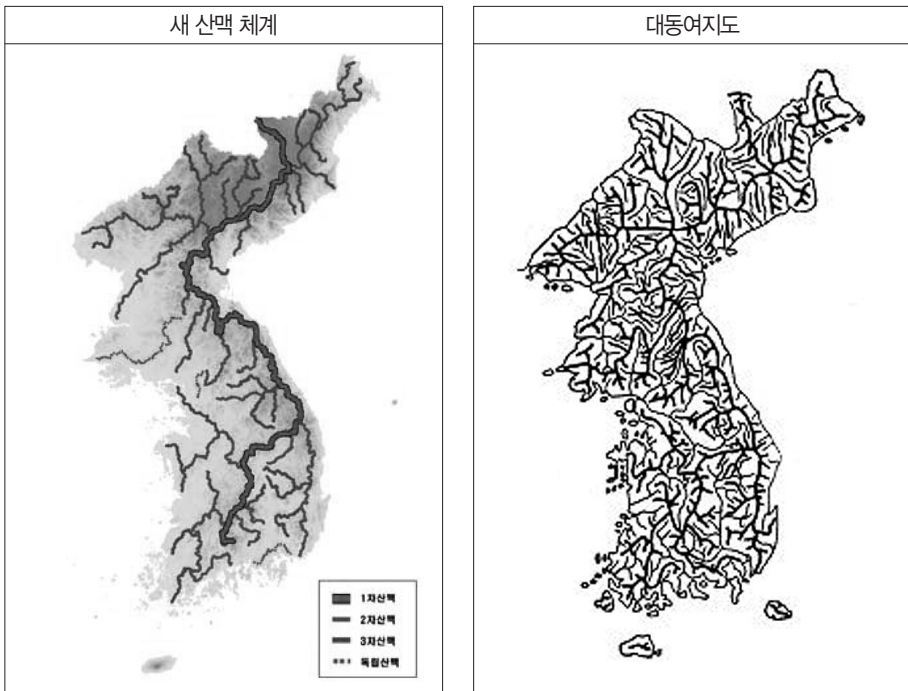
2. 수원지방의 산맥체계

우리나라의 산맥체계는 앞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의 전통 산맥체계와 고토분지론이 주장한 지질중심의 산맥체계로 양립되어 있으나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에서 GIS분석 기법을 적용 고토분지론의 한반도산맥 원본을 지질현황 및 단층선과 비교한 결과 일부지역에서 단층과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맥체계 전체를 볼 때는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산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GIS 공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산맥체계인 산경표의 백두대간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점도 많으면서 차이점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산맥지도와 대동여지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산줄기는 물론, 개마고원

지역과 평안북도지역의 산줄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의 산줄기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지리산 주변 고흥지역의 산줄기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체계와 매우 흡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림6> 따라서 본문에서는 수원지방의 옛 지도에서 나타난 산맥 지형과 하천의 수계를 분석을 통하여 6개의 수원지방의 산맥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6> 새 산맥지도와 대동여지도



자료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국토연구원, 2004)

1) 수원지방 산맥 지형 분석

수원지방의 산맥은 대체로 동북방향에서 서남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쪽에는 광교산 582m를 주봉으로 동쪽으로는 한남정맥을 따라 동남방향으로 향하다가 남쪽으로 신대저수지 방향으로 남진하여 청명산185m를 거쳐

동탄, 죽미령, 독성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형성한다. 서쪽으로는 백운산, 지지대고개, 이목동, 오봉산, 수리산 하단부를 돌아 칠보산 238.8m을 거쳐 고금산86.6m, 화산에서는 용건능을 휘돌아 다시 진하여 삼천병마골에서 안중방향으로, 조암방향으로, 남양 방향으로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수원지방의 지세와 산맥을 살펴보면 수원시 구역에서는 광고산을 정점으로 수원을 에워싸는 분지형 산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원의 주요 산 9개산의 평균 높이는 275.3m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고산 줄기만 높은 상태이며, 평야지에 위치한 팔달산, 숙지산, 여기산은 독립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표 6>

<표 6> 수원지역 주요 산 현황

| 산이름 | 높이(m) | 위치 | 산이름 | 높이(m) | 위치 |
|-----|-------|----------|------|-------|-----------|
| 광고산 | 582 | 수원 장안 광고 | 백운산 | 562.5 | 수원 장안 광고 |
| 형제봉 | 448 | 수원 장안 광고 | 팔달산 | 148 | 수원 팔달 남창 |
| 여기산 | 104 | 수원 권선 서둔 | 숙지산 | 123 | 수원 팔달 화서 |
| 칠보산 | 238.8 | 수원 권선 금곡 | 고금산 | 86.6 | 수원 권선 오목천 |
| 청명산 | 185 | 수원 영통 영통 | 평균높이 | 275.3 | |

화성시 지역의 산들은 칠보산 238.8m에서 시작되어 용건능이 있는 화산까지는 능선의 도로를 따라 화산까지 이어진다. 화산에서 서해안 지역인 안중방향과 조암방향, 남양 방향으로 산맥이 이어지는데 산의 높이는 서해안으로 뺏어가는 초입에 있는 태봉산 223.0m, 서봉산 249.0m와 삼봉산 268.2m와 태행산 292.8m, 건달산 336.0m로 형성되어 화성시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이곳을 지나 서해안지역으로 가면서는 대부분 100m내외 얇은 산과 구릉,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화성시의 산들의 평균 높이는 156.4m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표 7> 화성지역 주요 산 현황

| 산이름 | 높이(m) | 위치 | 산이름 | 높이(m) | 위치 |
|-----|-------|-----------|-----|-------|----------------|
| 칠보산 | 238.8 | 매송 원평리 | 고초봉 | 149.0 | 387.8신남동 |
| 무봉산 | 185.4 | 북양동 | 청명산 | 154.9 | 340.3서신 흥법리 |
| 화성산 | 171.4 | 동탄면 장지리 | 오봉산 | 140.0 | 311.4향남 화리, 현리 |
| 무봉산 | 255.8 | 동탄 목리, 신리 | 응봉산 | 108.5 | 364.3송산 삼존리 |

| | | | | | |
|--------|-------|---------|-----|-------|-------------|
| 왕배산 | 150.4 | 동탄 신척 | 천동산 | 146.0 | 296.4송산 천동리 |
| 동학산 | 122.6 | 동탄 석우리 | 이봉산 | 105.5 | 228.1송산 마산리 |
| 구봉산 | 102.3 | 태안 병점리 | 와룡산 | 108.7 | 211송산 지화리 |
| 성황산 | 139.0 | 태안 송산리 | 함경산 | 137.0 | 276서신 전곡리 |
| 화산 | 108.2 | 태안 송산리 | 봉화산 | 160.2 | 268.4서신 상안리 |
| 서봉산 | 249.0 | 정남 문학리 | 쌍봉산 | 117.4 | 366.4우정 조암 |
| 태봉산 | 223.0 | 정남 관항리 | 해운산 | 145.1 | 368.1서신 궁평리 |
| 건달산 | 336.0 | 봉담읍 세곡리 | 오두산 | 141.2 | 477.2팔탄 덕우리 |
| 꽃당산(뫼) | 105.1 | 팔탄 화당리 | 천덕산 | 133.0 | 238.1팔탄 월문리 |
| 철마산 | 164.1 | 팔탄 구장리 | 신술산 | 103.6 | 267.7팔탄 해창리 |
| 삼봉산 | 268.2 | 봉담 내리 | 보금산 | 60.2 | 328.4우정 이화리 |
| 태행산 | 292.0 | 비봉 쌍학리 | 봉화산 | 61.3 | 353.3우정 화산리 |
| 해망산 | 125.8 | 비봉 유포리 | 소남산 | 107.2 | 233장안 사랑리 |
| 평균높이 | 156.4 | | | | |

2) 수계에 의한 산맥분석

수원지방의 산맥은 평택호 수계, 남양호 수계, 화성호 수계, 시화호 등 4개의 수계(水系)로 구분된다. 이들의 수계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 분수령을 형성하면서 수원지방의 산맥을 이룬다.

첫째, 평택호(안성천) 수계이다. 평택호 수계는 수원시 전지역, 오산시 전지역, 의왕시, 군포시 일부지역, 화성시 동부지역, 용인시 서남부지역, 안성시 서부지역, 평택시 서부일부 제외한 전지역, 천안시 일부지역, 아산시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2개도, 10개시의 1,54,76km² 1)구역이 평택호 수계가 된다. 수계의 둘레는 분수령인 동시에 산맥이 된다. 평택호 수계의 동북부지역은 한남정맥구간으로 칠장산에서 광교산, 수리산까지 한남정맥구간 85.7km구간이 평택호 수계의 능선이 이어지며, 수리산에서 안중지역까지 63.1km의 산맥이 시화호 수계, 남양호수계와 수계를 달리하며 이어진다. 동쪽은 칠장산에서 시작하여 진천의 서운산, 천안의 성거산, 용와산, 아산의 영인산, 입암산까지 남서진하여 75.6km의 산맥이 이어져, 평택호수계의 산맥은 224.4km가 평택호제방을 둘러싸고 있으며, 1,654.7km² 유역을 이루고 있다.

1)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4.12. 안성천유역 저수지 비상대책계획 p2-1.

둘째, 남양호 수계이다. 남양호 수계는 평택호 수계와 시화호, 화성호 수계 일부분이 남양호 수계를 형성한다.

평택호, 남양호 수계가 되는 구간은 장안대학뒷산인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삼천병마골에서 시작하여 평택호 수계를 따라 봉담과 정남의 경계인 태봉산, 서봉산, 양감과 청북의 경계인 덕지산을 거쳐 안중읍 운정리에서 분기하여 포승면 원정리 봉화재로 이어진다. 또 한쪽은 남양호의 본류인 발안천의 상류 삼봉산에서 시작되어 평택호 수계까지는 시화호 수계 경계를 이루며 형성된다. 삼봉산에서 서남방향으로 이어지는 수계는 화성호 수계와 경계를 이루면서 화성시 팔탄의 오두산과 천덕산과 화성시 장안의 소남산, 우정의 봉화산을 경유하면서 화성시와 평택시를 유역으로 하여 남양호 수계를 이루며, 산맥을 이루는데 삼천병마골에서 원정리 봉화재까지 43.6km의 산맥이 이어진다. 평택호 반대편의 수계는 삼천병마골에서 태행산까지 구간은 시화호 수계와 함께 4.6km가 수계를 이루며, 28.7km는 화성호와 분수령을 경계로 남양호 수계를 이룬다. 남양호 수계의 둘레산맥은 76.9km이며, 212.95km² 유역을 이루고 있다.

셋째, 화성호 수계이다. 화성호 수계는 남양호 수계의 분수령과 시화호 수계의 분수령이 남양호 수계를 이룬다. 남양호 수계 구간은 태행산에서 시작한 남양호 수계 28.7km와 일치한다. 시화호 수계 구간은 태행산에서 남양의 염티고개, 마도의 다락고개, 청명산, 서신의 해운산으로 이어지는 37.8km가 시화호 수계와 함께 이어진다. 화성호의 수계는 전체 66.4km의 산맥이 형성되며, 화성호는 230.2 km² 유역을 이룬다.

넷째, 시화호 수계이다. 시화호 수계는 수리산과 칠보산, 삼봉산, 태행산을 경계로 산맥이 형성된다. 시화호의 발원은 수리산과 삼봉산으로 북쪽은 인천소래포구를 수계로 하고 있으며, 남동쪽은 평택호수계, 남양호수계, 화성호수계와 경계를 이루며 수계가 형성된다. 소래포구수계는 수리산을 기점으로 30.3km가 수계를 이루며, 평택호 수계 역시 수리산을 기점으로 22.5km가 남쪽의 경계로 하여 수계를 이룬다. 남양호 수계는 삼천병마골에서 태행산까지 4.6km구간이 경계를 이루며, 태행산에서는 화성호 수계와 함께 서진하다가 송산면까지 32.2km가 시화호 수계를 이룬다. 시화호 수계는 전체 둘레 93.6km의 수계가 산맥을 이루며, 338.17km² 유역을 이룬다.〈표 8〉

〈표 8〉 수계별 산맥현황

| 수계별 | 산맥길이(km) | 유역면적(km ²) |
|-------|----------|------------------------|
| 평택호수계 | 204.5 | 1,654.70 |
| 남양호수계 | 76.9 | 212.95 |
| 화성호수계 | 66.4 | 230.20 |
| 시호호수계 | 93.6 | 338.17 |

수원지방의 수계를 중심으로 유역을 확정하고 분수령을 분석한 결과 수원지방의 산맥은 4대 호수별로 수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시 수계별 산맥임이 증명되었다. 〈표 9〉

〈표 9〉 수원지방 산맥현황

| 순번 | 산맥명(가칭) | 길이(km) | 시 종점 | 경유지 주요산 |
|----|----------------|--------|---------------------------|--------------------|
| 1 | 한남정맥 (수원구간) | 23.4 | 수리산-상현동 | 백운산, 광교산, 형제봉 |
| 2 | 안중지맥 | 63.1 | 수리산-안중(평택호제방) | 수리산, 칠보산, 서봉산, 덕지산 |
| 3 | 남양지맥 | 42.3 | 삼천병마골(안중지맥) -서산(화성호제방) | 삼봉산, 태행산, 청명산 |
| 4 | 조암지맥 | 28.7 | 남양지맥-우정읍 보금산 | 오두산, 소남산, 보금산 |
| 5 | 화산지맥 | 7.3 | 안중지맥-용건능 | 화산, 성황산 |
| 6 | 독성산지맥 | 22.2 | 한남정맥-독성산 | 청명산, 반월봉, 독성산 |

〈그림 7〉 수계에 의한 산맥지도



3) 옛 지도에 나타난 수원지방 산맥체계

수원지방의 조선시대 옛 지도는 여러 종류가 전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옛 지도는 1735년에 작성된 수원부 해동여지도와 남양부지도가 있다. 조선후기 1872년에 작성된 수원부 지도는 수원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상세하게 제작된 지도인 반면,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된 지도라 할 수 있다.

1735년에 제작된 수원부 해동여지도는 약도의 방식으로 제작되어 축척이 반영되지 않은 지도이나 수원지방의 산맥과 간선도로가 비교적 누락되지 않고 상세하게 표기되었다. 이는 수계에 의한 산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남정맥에서 쌍부(우정, 장안) 괴태곳(안중) 방향의 산맥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구읍의 화산 둘레 산맥을 명당임을 과장되게 표기하고 있다.

또한, 동시기 1735년에 제작된 남양부 해동여지도는 남양부의 지도 중 가장 산맥의

표현이 잘된 지도이다. 그러나 남양 중심으로 표기함에 따라 수원과 연결되는 산맥의 표현이 미흡하게 표현되어있으나 남양지역의 산맥은 비교적 수계를 기본으로 상세하게 표현되었다. 1872년에 작성된 조선후기 수원부지도는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세밀하게 작성된 지도다. 거리의 개념은 없으나 비교적 균형 있게 작성된 지도이다. 이 지도 역시 쌍부와 남양 방향 산맥의 연결이 실제현황과 상이하게 작성됨이 확인된다.

1861년에 작성된 대동여지도는 전국의 지형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한 지도이다. 수원지방의 지리에 관한 정보가 이전 지도보다 명확하게 산맥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의 산맥을 전통지리서의 개념에 의해서 수계에 의한 산맥체계를 중심으로 제작된 지도다. 여암 신경준의 1대간, 1정간, 13정맥의 조선의 간선 산맥이 잘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3정맥에서 분기되는 각 고을의 지맥도 비교적 빠짐없이 표기된 지도라 할 수 있다.

수원지방의 산맥은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을 통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으로 맥을 뻗어 내리다가 태백산을 거쳐 남서쪽의 지리산에 이르는 국토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에서 속리산 천황봉에서 한남금북정맥으로 갈라져 말태재·선도산·상봉재·상당산성·칠보산·보광산·행태고개·보현산·소속리산·마이산·차현·황색골산·결미고개·칠장산 등으로 이어진다.

다시 수원지방으로 이어지는 산맥은 안성 칠장산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으로 갈라진다. 이 산줄기는 도덕산·국사봉·상봉·달기봉·무너미고개·함박산·학고개·부아산·메주고개·할미성·응봉·형제봉·광교산·백운산·수리산·소래산·성주산·철마산·계양산·가현봉·필봉산·학운산·갯고개·문수산까지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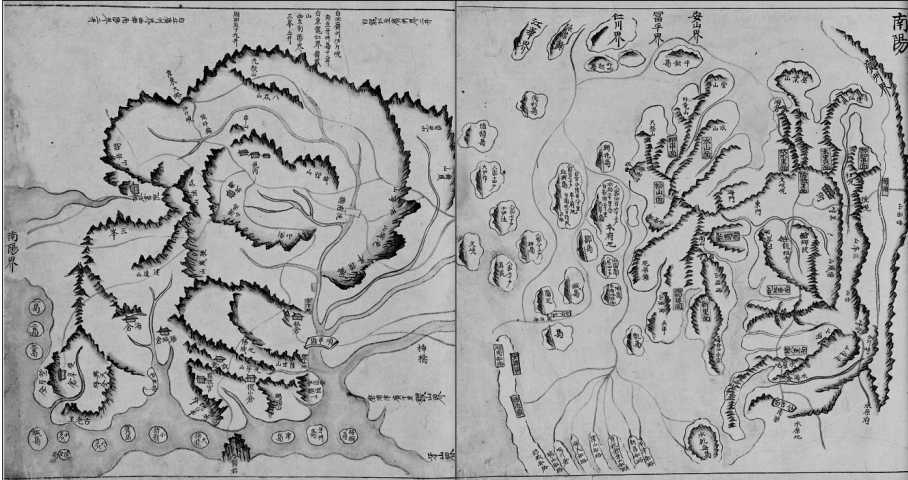
수원지방의 산맥은 수리산에서 분기해서 남쪽으로 칠보산·화산(용건능)을 휘감아돌아 다시 서쪽으로 이어진다. 서진하다가 봉담 분천리 삼천병마골에서 남진하면 괴태곳(안중)의 방향으로 산맥이 이어진다.

남양방면의 산맥은 화산(건능)에서 서쪽으로 향하면 남양 방면의 산맥이 나타나도 있으며, 쌍부방향은 남양방면의 산맥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건달산을 거쳐 서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김정호가 전국 방방곳곳을 직접 돌아보지 않은 듯하며, 건달산이 수원지방 중앙부의 대표적인 산임을 감안한 표현인 듯 하다.

옛 지도에서 수원지방의 산맥을 수계에 의하여 분석한 산맥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수계를 중심으로 지도를 작성하였으나 일부지역은 수계에서 벗어난 곳도 있으나 이

는 과학적이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림 8〉 수원지방 옛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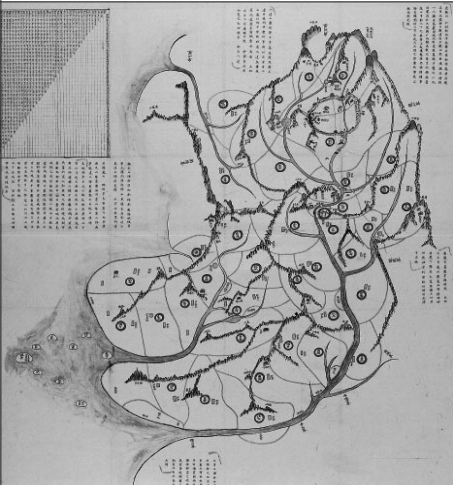


해동여지도(수원)1735년, 국립중앙도서관
수원지방의 산맥과 간선도로가 정확하게 표기됨.
구읍의 화산부분이 과장되게 표현됨. 구읍에서 쌍부,
안중방향의 산맥이 정확하게 표기

해동여지도(남양)1735년, 국립중앙도서관
산맥이 정확하게 표현됨, 수원과의 경계지점의 산맥
이 과장되게 표현됨



대동여지도(수원지방)1861년, 국립중앙도서관
칠보산-용건능으로 향하던 산맥 서쪽에 삼봉산이 홀
로 있으나 수계에 의한 산맥은 삼봉산을 경유 남양,
조암방향의 산맥이 연결됨



조선후기수원부지도, 1872년, 규장각
대동여지도와 같이 조암방향의 산맥이 삼봉산을 경
유하지 않고 있으며, 남양방향의 산맥이 잘못 표기됨.

3. 수원지방 산맥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수원지역의 지형은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 외곽의 산맥을 제외하면 평야지대에는 이렇다 할 산맥이 없으므로 그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맥의 훼손은 많지 않았으나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도로를 건설 하면서 산맥이 단절되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화성시 지역은 수원에서부터 낮은 구릉으로 이어지면서 산맥은 서해안 방향으로 방사 형태로 형성되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화에 따라 신도시가 조성되고 공단이 조성되면서 산맥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일부구간에서는 산맥이 대단위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에서는 공단조성과 석산개발로 인하여 주산맥이 실종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 국도, 고속철도, 지방도 등이 화성시 지역을 통과하면서 많은 구간의 산맥이 단절되는 훼손을 겪고 있다. 수원지역 산맥의 훼손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산길형성으로 산맥이 훼손된 경우이다. 수원의 서해안 지방은 표고차이가 크지 않은 구릉으로 형성되어서 평야지대의 마을 진입로는 우수로부터 안전한 정상부에 길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태초부터 산맥이 훼손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 산길이 지방도 또는 도시계획도로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산업화 시대를 맞으면서 인구의 증가와 물동량의 증가로 도로의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도로 개설로 산맥이 훼손되는 경우로 2차선도로인 경우 산맥의 훼손이 미약하다 할 수 있으나, 4차선이상의 지방도로로 확장된 경우 산맥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셋째, 고갯길의 경우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인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상의 능선으로 도로가 형성되는데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지방도,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산맥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넷째, 구릉지의 경우이다. 서해안지역의 표고가 낮은 지역의 산맥인 경우 산맥을 농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후 주택이나 공장을 건립하면서 산맥이 훼손됨으로써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섯째, 철도의 건설로 단절되는 경우이다. 의왕철도 기지 부근으로 한남정맥이 구릉으로 통과함에 따라 경부철도가 지나가면서 한남정맥이 단절되는 경우이다.

여섯째, 도로건설로 인하여 산맥이 단절되는 경우이다. 토목기술의 발달로 산맥 절취

가 쉬워지면서 높은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산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근래 들어서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의 도입으로 높은 산맥의 경우 터널시공이 대체적으로 산맥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이미 수많은 곳의 산맥이 잘리는 단절을 가져왔다.

일곱째, 택지개발에 의한 산맥의 훼손이다. 수원지방의 산맥은 고도가 그리 높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수원지역에 산맥의 존재를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도시나 공단 조성시 산맥을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산맥이 훼손되었다. 택지개발로 인하여 산맥이 훼손된 지역은 의왕시 부곡동 일대, 군포시 산본지구, 동탄 신도시, 세교지구, 흥덕지구 등에서 대규모로 산맥을 상실했으며, 화성시 장안의 금의 공단에서도 산맥을 훼손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바와 같이 수원지역의 산맥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도로의 확장과 신설로 인하여 많은 산맥이 단절되었으며, 또한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건설로 인하여도 많은 산맥의 구간을 파괴시켰다.

〈그림 9〉 수원지방 산맥 훼손 유형 사진

| | |
|---|---|
|  |  |
| <p>1. 산길형성(장안면 금의리)</p> | <p>2. 산길확장(오목천 수원대방향)</p> |
|  |  |
| <p>3. 고갯길확장(43번국도,삼천병마골)</p> | <p>4. 도로신설(서해안고속도로)</p> |
|  |  |
| <p>5. 철도건설(의왕 부곡)</p> | <p>6. 택지개발(의왕 부곡)</p> |
|  | |
| <p>7. 구릉지 훼손(오목천동)</p> | |

〈그림 10〉 수원지방 산맥 훼손 유형도



맺음말

최근 들어 건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의 옛길과 산길들이 건강, 문화, 체육, 여가 활동의 공간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차원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해안, 산악, 옛길을 따라 녹색길을 조성하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과거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소홀히 다루어 많은 산맥들이 훼손과 단절로 인하여 자연 자원의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의 66% 가량이 산지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과 강에 대한 인식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환경은 국토의 이해 차원에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으로 많은 산맥들이 훼손되었다.

수원지방의 경우도 구 수원읍치(지금의 화성시 안녕리 일원)가 조선의 최대 명당으로

인정받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고장이나 도시화로 인하여 산맥이 잘려나가 원형을 잃어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수원지방의 산맥체계 연구를 통해 역사적 자원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보전과 복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산맥 관련 선행연구 및 고 문헌을 통해 산맥체계를 재인식하고 수원지방의 옛지도와 위성사진, 지형도 등과 수계분석을 통해 주산인 한남정맥과 연결되는 5개의 산줄기(지맥) 존재를 새롭게 규명하였다. 또한, 산맥의 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원지방의 지형은 분지 형태로 외곽의 산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맥이 낮은 구릉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 과거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산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 많은 산맥이 훼손되고 단절되었다. 수원지방의 산맥 훼손은 여러 유형이 있으나 대부분이 도로 건설 등의 7가지 유형으로 산맥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지방의 산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잔존하는 산맥의 보전은 물론 훼손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려는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지방의 산맥 체계를 재정립하고 훼손된 구간의 전수조사를 통해 요소별, 유형별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본 고에서는 연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수원지방의 산맥 훼손의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도로에 의해서 단절된 구간은 사안에 따라서 에코브리지, 육교, 지하통로, 횡단 보도를 통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도시, 공단, 석산 등으로 광범위하게 산맥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도를 통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인접지에 보존되어 있는 산으로 대체 노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존하는 산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표고가 낮아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산맥은 공원 또는 녹도,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하여 보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수원지방의 산맥 중 화성시 지역은 단절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과 통행이 없어 접근이 불가능한 구간이 많으므로 산길의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지방의 산맥을 보존하는 일은 내 고장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여가선용의 공간이 됨은 물론 훌륭한 도시 브랜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2004.
2.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안성천유역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2004.

특집 : 숨어있는 수원유적 재발견

수원의 물길, 물에 대한 사회적 상상을 위한 시론

최 춘 일 (경기창작센터 행정지원팀장)

| | |
|--|--|
| <p>머리말</p> <p>1. 도시와 물길의 변화들</p> <p> 1) 지도에서 물길의 변화</p> <p> 2) 주요 물길별 변화</p> <p>2. 물의 수요와 도시의 확장</p> <p> 1) 인구의 변화</p> <p> 2) 도시계획의 변화</p> | <p>3) 상·하수도, 보이지 않는 물길</p> <p>3. 물길에 대한 사회적 상상</p> <p> 1) 자원으로서의 물과 물길</p> <p> 2) 도시에서 물길의 구조화</p> <p> 3) 물길과 행정체계</p> <p>맺음말</p> |
|--|--|

머리말

수원에는 4개의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광교산의 창성사지 인근에서 시작해 광교천과 합류하고 광교저수지를 지나 화성을 관통하며 흐르는 수원천이 있고, 신대저수지의 발원인 가산천, 광교산의 남동사면을 이루는 하광교동과 이의동 골짜기로부터 시작하여 여천 저수지의 수원을 형성하는 여천(속칭은 원천), 영덕천이 합류하여 수원의 동부지역을 흐르는 원천리천이 있다. 광교산의 서쪽 자락 파장동산에서 시작하여 파장저수지와 영화천을 거쳐 서호에 모였다가 황구지천과 합류하는 서호천이 있다. 정자동과 송죽동의 사이에 있는 일왕저수지의 물길은 서호천의 북쪽에서 서호천과 합류한다. 부곡에서 시작하여 왕송저수지를 거쳐 칠보산의 동부사면에 접한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수원의 서부지역의 중심하천을 형성하는 황구지천은 평동과 장지동 그리고 화성시의 기안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호천과 합류하여 큰 물줄기를 이룬다. 이외에도 북개된

도심의 관거를 통해서 흐르는 소하천들이 있는데 봉령사 일대에서 시작해 태장면 고개 동사면에 접한 인계동과 지금은 시청이 들어선 금덕산 서남사면에 접한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 하천은 수원천과 합류한다. 속칭 ‘건서니(권선리) 냇갈’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수원천보다 물 흐름과 자연 상태가 좋고 농지와 과수원 등을 끼고 평평한 들판과 제방, 그리고 둠벙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무리지어 수영이나 고기잡이,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러 갔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하천들은 장지동, 대항교동, 곡반정동을 지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를 이루는 황구지천의 본류와 합류하여 안성천의 중상류를 이루며 아산만과 서해에 이른다.¹⁾

수원의 물길은 시대별로 중요한 변화의 시점들이 있는데 대략은 정조의 화성 축성, 일제강점기의 신대와 여천 그리고 광교 저수지의 축조, 광교와 파장저수지의 상수원화와 광역상수도 사업, 도시와 인구의 팽창에 따른 소하천의 복개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수원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와 부분적이 복개·복원과 같은 사건들로 설명될 수 있다. 호매실동택지개발과 광교신도시 개발은 수원에서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도시의 변화에는 옳든 그르든 자연 지형과 물길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물이나 물길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이 반영되고 있다. 수원에서 자연은 이제 ‘인간이 만든 자연’이라는 조금은 어색한 수사로 밖에는 만나기 힘든 것이 되어가고 있다. 물길 역시 자연의 물길만이 아니라 도시화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물길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계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인간의 물길이 확장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도시가 숙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물과 관련한 지점들을 찬찬히 훑어봄으로서 물과 도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음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의 물길’을 살펴보는 이 글에서는 물길이 어떤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물이라는 물질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도시에 구조화되는가? 이어서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물과 관련한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변하는 지점을 짚어 보고 자원으로서의 물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하겠다.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변화하는 물의 모습과 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물이 사회와 도시에 어떠한 식으로 구

1) 우리가람길라잡이(2002.건설교통부, 한국 수자원공사), 경기도지도집성Ⅱ 경기도의 근현대지도(2004. 경기도), 한국 하천정보시스템 <http://river.kwater.or.kr/garam/>,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basin.kowaco.or.kr/garam> 등을 참고하여 정리.

조화되고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일은 수원시의 면적에 비해 빠르게 팽창하며 변화해온 수원에서 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대상 시기는 정조의 화성 축성을 기점으로 삼았으며 자료가 마련되는 한 가능하다면 최근 까지를 포함하려고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출한된 지도와 필자의 개인적 경험,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한 문서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자연의 물길은 지도에 가장 정확히 표기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도상의 물길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원문화원과 수원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발간한 지리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구와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자료는 『수원시정백서』와 『도시계획 200년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필자가 수원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건과 경험들이 반영되었음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도시와 물길의 변화들

1) 지도에서 물길의 변화

수원의 물길은 정조가 화성을 기획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화성의 유지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 축만제와 만석거와 같은 저수지를 화성 밖의 둔전지 인근에 축조하였다. 화성을 축성하면서 수원천의 물을 화성의 중심(팔달산과 행궁에서 바로볼 수 있는 위치)에 관류시킴으로서 화성을 물과 긴밀하게 연결하였다. 성내에 연못들과 남수문과 북수문, 용연과 방화수류정은 물과 화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화성에는 자원으로서의 물과 경관, 사색 또는 음미의 대상으로서의 물, 그리고 풍수와 같은 전통적인 지리학적인 관점의 물과 같이 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는 특별히 참고할 만한 것이 없고 이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비교적 정확한 지도들과 1960년대에 만들어지는 국내지도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중요한 지도별로 판독하면서 물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정 3년에 측도하고 동 8년에 제1회 수정 측도를 하고 대정 10년 4월 발행된 지도²⁾에는 수원 지역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1. 이미 소규모 이지 만 도심을 형성하고 있다. 팔달산 인근에 흐르던 실개천들이 지하화 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2. 수인선이나 수여선이 없다. 3. 왕송저수지, 신대저수지, 여천저수지, 파정저수 지, 광고저수지, 광고소류지가 없고 축만제(서호)와 만석거(일왕저수지) 그리고 용연이 표기되어 있다. 서호의 철길 건너 오른쪽에 비교적 커다란 저수지가 붙어 있다. 4. 수원 천이나 원천리천이 직강화 된 곳이 없고 구불구불한 자연하천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수 원 비행장 지역이 논과 습지로 표기되어 있다. 6. 1번 국도와 안녕리를 지나서 가로수가 표기되어 있다. 7. 장다리천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 대정 3년 측도 동 8년 수정 소화12년(1937년) 인쇄 및 발행된 남양과 수원지도³⁾에 는 1. 수여선이 표기되어 있다. 2. 하여천의 모습이 표기되어 있다.

• 대정 5년 측도 대정 6년 제판 대정 8년(1919)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인쇄·발행 한 지도에는 1. 수여선이 수원역까지 연결되어 있다. 2. 하여천 저수지가 표기되어 있다. 수여선이 1930년에 개통된 것으로 보아 발행 시기나 지도의 진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정 6년(1917)측도 일만 분의 일 수원지도⁴⁾에는 수원의 모습이 좀 더 상세하게 표 시되어 있는데 1. 수여선이 수원역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 2. 서호의 유역의 형태가 약 간 변했고 수원역 주변의 철로 양옆으로 작은 저수지의 모습들이 표기되어 있다. 3. 수 원에서 구천동을 지나 상류천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가로수가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 1937년 수원시 기본도라고 제시된 지도⁵⁾에는 하여천 저수지가 빠져 있고 수여선 철로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정 10년에 발행된 지도를 잘 못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

• 소화 18년(1943)도 신판 일 만분의 일 수원읍 지도⁶⁾는 당시의 수원부 만을 표기하였 으나 1. 축만제의 하천 유입부 우측면에 이전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수공간이 상당히 넓게

2) 근세한국5만분지1지형도 상권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도서출판 경인문화사 복간본.

3) 경기지도집성Ⅱ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2005.12. 경기도·경기문화재단.

4) 수원 대정 6년(1917).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5) 수원도시계획 200년사. 2000.12. 수원시.

6) 수원읍지도 소화18년 수원박물관소장.

형성되어 있다. 2. 광교저수지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3. 속지산과 우만동에 저수지와 우만동의 저수지가 표기되어 있고 인계동, 권선동, 서둔동에 정井이 표기되어 있다.

• 1969년 수원시 기본도⁷⁾는 수원이 도시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수원의 수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의 수계와 관련하여 가장 1. 왕송저수지, 일월저수지, 파장저수지, 광교저수지, 광교소류지, 아랫여수내 저수지(원천저수지), 윗여수내 저수지(신대저수지) 등 현재 지도에 표기 되어있는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표기되어 있다. 2. 수여선과 수인선이 표기되어 있다. 3. 비행장이 표기되어 있다. 장다리천의 세세한 물줄기가 잘 표현되어 있다. 4. 수원의 상류천이 직강화 되어 있다. 5. 서호의 상류와 원천천 주변에 산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 울전리 상류에 저수지가 있다. 6. 일왕저수지 상류가 논과 자연 상태로 남아있다. 우만동 상류에 저수지가 있고 그 물길은 산드래미를 거쳐 원천천과 합류한다. 7. 선경직물과 대한방직이 표기되어 있다.

• 1973년 수원시 기본도에는 1. 자연의 물길은 이전 지도와 특별한 변화가 없다. 연초제조창 서북방 농경지에 하천이 직선 정비되어 있다. 2. 서호천과 그 상류를 중심으로 선경직물, 연초제조창, 선경합섬, 금강스레트, 원천천에 삼성산요가 표기되어 있다. 3. 아주대학교가 표기되어 있다.

•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974년 편집 75년에 인쇄된 수원, 안양, 남양, 용인 지도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 1977년 수원시 기본도에는 1. 산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일합섬이 일왕저수지 상단에 표기되어 있다. 삼성전자지역의 구획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삼성전자의 입지와 함께 백년교 상단의 원천천의 일부가 직강화 되었다. 3. 일월저수지 상단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입지가 표기되어 있다.

• 1981년 수원시 기본도에는 1. 경기대학의 입지가 확인된다. 2. 도심을 우회하여 인계동과 권선동을 지나는 1번 국도가 장다리천과 평행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1986년 수원시 기본도에는 1. 도심의 팽창이 눈에 띈다. 북수원에 연초제조창, 한일합섬, 선경합섬 등의 시설이 완전히 표기되었으며 택지와 시가지가 확장되고 있다. 2. 서수원은 성균관 대학교가 모습을 갖추었다. 3. 동수원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 수원도시계획 200년사, 2000.12. 133p. 수원시.

8) 경기지도집성Ⅱ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2005.12.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수원시청, 구매탄, 신매탄 아파트 단지들이 표기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모습을 갖추었다. 4. 광교저수지 하단부에 풀장이 표기되어 있다. 5. 장다리천과 일대의 수계들이 통합되어 직선 정비되고 시가지를 관통하는 물길로 표기되어 있다. 6. 서호천 상류 하천이 직강화로 표기되어 있다.

• 1992 수원시 기본도 1. 구운동에 택지와 상가지역 등이 표기되어 있다 2. 종합운동장 북부, 일왕저수지 동북부 지역에 택지와 상가지역들이 확장되어 표기되어 있다. 3. 선경합섬 일대 지역이 택지와 상가지역으로 확장 표기되어 있다 4. 1986년 수원시 기본도에 유신고등학교 뒤의 소류지와 아주대 우측에서 발원한 물이 산드래미를 거쳐 원천천에 합류하던 지천이 있었으나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수관거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 1996 수원시 기본도 1. 장다리천 상류 수계가 복개되지 않았지만 동수원 사거리에서 1번국도 합류지점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택지와 상가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수원천 복개구간이 복개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측도기간과 제작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00 수원시 기본도 1. 장다리천 상류수계가 복개되어 표기되어 있다. 동수원이 개발되면서 이곳을 흐르던 주요 소하천과 이어져 있을 실개천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하수관거의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고색동과 구운동 일부 지역이 택지와 상가지역으로 표기되고 있다.

2) 주요 물길별 변화⁹⁾

『수원지명총람』은 1999년 이전까지 물과 관련한 명칭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주요 물길은 원천리천과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장다리천 상류지역은 수계의 길이와 물의 규모, 농토의 면적 등으로 볼 때 비중이 있는 하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물길의 성격이 급격하고 극단적으로 변형된 사례여서 4개의 주요 물길에 추가하여 언급하였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

9) 수원지명총람, 1999. 수원시·수원문화원 : 1. 산·천·저수지에서 천·저수지 부분 발췌 편집, 2. 도로 및 관린시설에서 교량부분 발췌 편집.

과 대체로 일치하는 지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7년대까지의 지도에 비교적 상세히 명기되어 있다. 이시기는 수원시의 물길이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팽창 이전의 수원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원천리천(머내, 원천, 원천)의 변화

원천리천은 9km의 준용하천이다. 신대저수지 상류에서 시작하여 원천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하천과 합류하여 흐르다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구간을 지나 합류한다. 합류한 물은 대항교동에서 황구지천과 합류하여 안성천의 제3지류 황구지천 수계의 상류를 이룬다.

이 하천에는 상류에는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저수지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1914년대의 지도에는 저수지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당시에는 상여천과 하여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 전이나 습지로 형성된 골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대저수지의 상류는 가산천(1.5km 용인시 수지읍-이의동-신대저수지)과 금광구석천(0.65km 팔달구 하동 구석 마을-서북쪽에서 남-신대저수지), 동녘쇠죽골천(0.65km 이의동 1043-1-이의동 975-1-쇠죽골)이 주 유입 한천을 이룬다.

신대 저수지(윗방죽)는 지명총람에는 1929년 에 축조되었고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으며 원천천과 인접해 있고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다. 총 저수량은 144.3만 톤이고 유역 면적은 647ha, 만수면적 34.0ha이다. 최근에는 광교신도시의 개발로 저수지의 기능이 바뀔 것으로 추정된다.

원천 저수지(수룡 저수지, 아래 방죽) 지명총람에는 1929년 축조로 되어 있으나 지도 상으로는 그 이전 시기에도 표기되고 있어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농경지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으며 저수량은 198.8만 톤, 유역면적은 333ha이고 만수면적 47ha이다.

원천 저수지(수룡 저수지, 아래 방죽)의 상단 유입부를 이루는 하천으로 여천이 있다. 여천은 3.0km. 준용하천으로 쇠죽골천(1.9km 이의동 1053-이의동 1095-9), 성죽천(1.25km 이의동 611-남쪽 이의동 760-1 여천 유입), 산의천(0.94km 이의동 925-5-동쪽 이의동 728-9 여천 유입), 산의실천(0.6km 이의동 1099-이의동 40 여천 유입) 등이 유입되어 형성된다. 상류지역은 광교산과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다. 이외에 산의실하

천(0.6km 헤령골이라는 마을 이름을 차용하여 헤령천이라고도 부름), 안골천(0.8km 이의동, 성죽천으로 유입), 절골천 (0.75km, 이의동 925-5-남쪽 이의동 725-1에서 성죽천 유입), 아래쇠죽골천(1.0km 이의동 산 90-1-동남쪽 이의동 775-7 쇠죽골 천에 유입)등의 지천들이 있다.

원천리천의 가장 하단지역에서 권선동 914일대에서 시작되는 우시장천(2.130km)은 원천리천과 합류한 뒤에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원천천의 교각은 년대별로 다음과 같이 세워졌다. 1980년대는 원천교(1984) / 이하교(1986) / 곡선교 (1987) / 삼성교(1989)가 세워졌다. 1990년대에는 곡선1교(1991) / 백년교(1992) / 원천1교(1993) / 원천2교(1993) / 산드래미교(1994) / 곡반정교(1997) / 이의교(1997)가 세워졌다.

이 물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삼성전자가 들어서고 매탄동 일대의 택지 개발, 권선지구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추진된 하천의 정비 사업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라 여천과 신대 저수지의 기능의 변화와 물이 발원하는 여러 지천들의 물길이 변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수원천에서의 변화

수원천은 총연장 14.45km로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윗광교, 아랫광교, 광교 저수지, 영화동, 북수동, 남수동, 팔달로 등 수원의 도심을 거치고 세류동을 지나 화성군 태안읍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화성의 축성에서도 성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하천으로 수원의 중심 하천이라 할 수 있다. 수원천에는 많은 지천들이 유입되는데 광교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창사천(0.8km 상광교동 5-상광교동 407-1 수원천 유입), 창사하천(0.85km, 상광교동 187-상광교동 205-3에서 수원천에 유입), 광교천(1.3km 광교산 계곡-광교 저수지), 복골천(0.66km 상광교동 301-1-상광교동 205-3 수원천 유입), 문암골천(0.6km 하광교동 산 53-광교 저수지, 문암文巖 최치원의 호를 차용 했다는 설)이 있다.

광교천과 관련해서는 『수원군읍지』에 ‘광교산에 망천이 있는데 그 위치는 수원부에서 동북 20리에 광교면이 있다’, ‘광교산에서 흘러내린 큰 내를 이루고 있다’, ‘앞에는 용못이 있고, 후면에는 문바위, 왼쪽에 신선 바위, 오른쪽에는 약암이 있다’, ‘한림학사 이고가 7학사와 더불어 늘 이곳에 와서 소요하며 냇물에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망천은 광고저수지 둑을 막기 전 윗광고와 아랫광고까지 흐르는 광고천으로 추정된다.

수원천의 물길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연결되어 있다. 상광고의 버스종점 상단의 등산로를 지나는 길에 작은 소류지가 만들어져 있으며 광고 윗방죽(소류지, 소름못)은 광고 저수지의 보조 저수지로 광고 저수지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고저수지는 1937.10-1940.12기간 동안 축조되었는데 총 44만원의 경비와 연인원 20만 명이 동원되어 만들어 졌다. 하천이 흐르는 뽕나무 밭이었던 이곳은 전체넓이 121,212평, 저수량 248만 톤, 유역면적 1,098ha, 만수면적 33.0ha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 까지 파장저수지와 더불어 수원 전역에 물 공급을 하였으나 현재는 비상급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용못은 용연, 용지라고도 불리는데 화성의 성제의 일부로 만들어진 큰 못이다. 방화소류정 밑에 있고 물은 수원천으로 흘러나온다.

수원천 중류부에는 매향교천이 있는데 『수원군읍지』에 “수원부 안에 있다. 근원은 광고산이며, 화홍문을 들어오면서 성을 횡단하고 남수문 돌다리로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수원천 중하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류천과 하류천이 있는데 상류천은 『수원군읍지』에 “부중의 남쪽에 있으니, 바로 매향교천의 하류”라고 적고 있고 하류천은 상류천이 황구지천과 합류하기 전까지를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지명 총람에서 수원천은 대략 상류를 광고저수지(창사천, 창사하천, 복골천이 지천으로 합류)까지를, 중류를 경기교에서 매향교(일부 복개 구간-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구간을, 하류를 매향교에서 황구지천 합류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지도에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너니 냇갈 이라는 하천이 있었다. 권선리와 인계동 일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주변의 논외의 관개수로와 연결되어 흐르던 이 하천은 봉령사 하단 일대에서 발원하여 장다리천과 이어지는 하천이었다. 권선 초등학교 옆 복개천 근처에 한림학사 이고가 낚시를 했다는 조대라는 곳이 있다. 장다리천(1.7km 권선동 388-4-권선동 241-1 일대에서 수원천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이 전체 하천 중의 하단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하천은 동수원을 개발하면서 직선으로 정비되었고 이후 2000여년 경의 지도에는 완전히 복개되어 장다리천의 남단만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흐른다. 하천의 거의 대부분이 도로로 포장되어 하수관거의 역할을 하면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출된 부분도 최근에는 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수원천에 놓인 교각은 1950년대 장다리천교(1959, 장다리천과 수원천 합류지점), 1960년대에는 매세교(1965) / 광수교(1966, 광교저수지 상단, 1977), 1970년대에는 옷말교 (1977, 수원시 자료 1960) / 유천교(1978) / 매향교(1979) / 영연교(1979)가 세워졌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은 교각이 세워졌는데 1980년대에는 방화교(1980) / 유천1교(1981) / 삼희교(1983) / 유천2교(1983) / 매교(1984, 1994 복개, 1795 매산교에서 매교로 개명 정조 거동길) / 새마을교(1986) / 세천교(1989)가 세워졌으며 1990년대에는 창훈교(1990) / 버드네교(1991) / 버들교(1990) / 여의교(1991, 일왕저수지, 1796 진목정교를 여의교로 개칭, 1998년 노송교를 여의교로 개칭) / 연화교(1991) / 노송교(1991) / 매향1교(1992) / 새터교(1993, 수원천 최남단) / 지동교(1994, 복개) / 수원교(1994, 복개 다리기능 상실) / 남수교(1997, 1796, 1931복원) / 세류대교(1997, 교통량 최대) / 경기교 (1998) / 효행교(1999, 괴곡정교라 불렸으나 효행교로 개명)가 세워졌다. 연도가 미상인 다리로는 연무교가 있다. 현재 백병원 근처에 남창교(팔달구 팔달동 109-95번지 앞 도로)라는 표석이 있다.¹⁰⁾

수원천의 변화는 용연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광교소류지와 광교저수지가 만들어 진 뒤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1970년대의 상류천 부분의 하천정비로 인한 직강화와 1994년 수원천의 영동시장부터 매교다리 구간까지 복개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보인다. 2009년 9월부터 복개된 구간을 다시 해체 복원하기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서호천의 변화

서호천은 11.52km 길이의 하천으로 황구지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교산 자락과 이어지는 파장동산(367m)에서 발원하여 옷과장천, 이목천, 송죽천을 거쳐서 매산천 등이 유입되고 장지동에서 황구지천과 합류하는 하천이다. 서호천의 상류와 중류에는 파장 저수지, 서호저수지가 있고, 영화천의 상류에는 일왕저수지가 있다. 발원하여 2.5km를 경과한 후에 이목동 좌측에서 이목천 (2.1km, 이목동 산 6번지-이목동 519-89일대에서 서호천 유입, 이목동 지명 차명)이 유입하고 정자동 지점에서 영화천 (1.32km, 준용하천, 일왕저수지-정자동 지점에서 서호천 합류)과 합류한 후에 서호에

10) 수원지명총람, 1999, 435p. 수원시·수원문화원 : 팔달산 영산 약수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셋뜨랑(남창 하천)과 팔달로가 만나는 지점에 남창교가 있었다. 원래 둘다리였던 연유로 남창교를 '셋뜨랑 둘다리'라고도 불렀다.

유입된다. 이목천과 영화천의 중간 지점에 선경 중앙연구소의 담을 타고 흐르는 내가 있는데 이내는 뒷내라고 부른다. 이후에 서호를 거쳐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서호천 수계의 가장 상단에 파장 저수지(미륵당 저수지)가 있다.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1970년 포사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제방을 설치했다고 한다. 1981년 제방을 증축하고 정수장을 설치한 후에 수원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1990년까지는 광고 저수지와 함께 수원 전역에 물을 공급했으나 현재는 제한된 구역 일부에만 공급하고 있다. 수량은 52만2천 9백 톤, 수위 16.3m, 저수량 3월 평균 79,110톤, 9월 288,600톤이며 미륵당과 미륵당 마을 그리고 동명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파장 저수지를 따라 윗파장천(0.95km, 파장동 97-1-파장동 507-1, 서호천 유입)이 흐른다.

일왕 저수지(만석거, 조기정 방죽, 교구정 방죽, 복지-일제때 붙여진 명칭, 화성의 복지와는 다른 것임)는 1795년에 축조(정조19년)되었으며 둔전을 경영하기위한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다. 『정조실록』 『화성성역의궤』 『홍재전서』 등에 상술되어 있다. 일왕 저수지의 위치는 『수원부읍지』 “북으로 5리 일용면에 있다. 정조 을묘 년에 쌓았다. 길이가 875척, 넓이 850척, 높이 12척 5촌, 두께 10척 5촌, 깊이 8척 7촌, 수문 2곳, 몽리담 66섬지기”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1936년 일왕면이 생기면서 지명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 추팔경 중의 하나인 석거황운石距黃雲을 감상하는 곳이다.

이 외에 서호천으로 유입하는 하천으로는 송죽천(1.1km 송죽동 4-송죽동 418-15 서호천 유입)과 조원천(0.8km, 조원동 722일대-조원동68에서 서호천 유입)이 있다.

서호(서호 저수지, 축만제)는 서둔동과 화서동에 걸쳐 있는 저수지로 정조 1799(정조 23년)정조 내탕금 3만 냥으로 축조하였으며 축만제둔祝萬堤屯의 관개시설로 사용되었다. 『화성지』, 『수원군읍지』 “축만제는 수원부 치소로부터 서 5리 북부에 있다, 정조 기미에 축조되었다. 감관 1인, 감고 1인, 길이 1,246척, 넓이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촌, 깊이 7척, 수문 2곳, 몽리담 232섬지기”라고 명기되어 있다. 현재는 상당 부분 매립과 심각한 오염으로부터 회복되어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저수량은 67.8만 톤, 유역면적은 2.107ha, 만수면적은 33.4ha이다.

서호에서 황구지천까지 이르는 물길에 매산천(1.17km 평동 177-8 평동-172-1)이 유입을 하여 흐른다.

서호천에 설치된 교각들은 1950년대에 평북교(1954), 1960년대에 평리교(1965) / 울목교(1969), 1970년대에 농대교(1976) / 괴목정교(1979, 영화천), 1980년대에는 화산교

(1984) / 천천교(1985) / 서둔교(1987) / 중보교(1988) / 일왕교(1989 일왕저수지), 1990년대에는 배다리(1991) / 동원교(1996) / 평고교(1996) 등이 건설되었다. 연도가 미상인 다리로는 이목교가 있다.

서호천의 변화는 서호천 수계의 상류에 선경합섬과 한일합섬, 연초제조창 등의 산업 시설과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구지천에 이르기 전 평동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선경직물과 수원역의 서측 편에 자리 잡은 금강스레트 역시 해방이후 수원의 대표적인 산업시설로 당시 철로와 서호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4) 황구지천의 변화

수원의 주요 하천 4개 중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하천으로 총연장 13.1km에 이르는 준용하천이다. 경기도 군포시 삼성산에서 발원하고 부곡저수지와 왕송저수지를 거쳐서 당수동(오룡골천, 당수천 유입, 일월천 유입), 금곡동(금곡천 유입), 호매실동(호매실천 합류), 권선구 장지동(서호천과 합류), 대황교동(수원천 및 원천천과 합류)에서 황구지천이라는 단일 물길을 형성하고 화성 태안읍(삼미천 합류), 화성군 정남면(보통리 갈천 합류), 양감면(천천과 합류), 평택 서탄면 황구지리(오산천, 진위천 합류하여 진위천으로 명칭이 바뀐)에서 안성군의 안성천과 합류하여 서해에 유입하는 중요한 하천이다.

황구지천의 수계에서 수원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왕송저수지(갯피방죽)는 1948년 12월에 축조되었으며 저수량은 187만 8천 톤, 최고 수심은 4.9m, 평균 수심은 2.7m이다. 일왕면 소재지에서 매송면으로 흐르는 저수지로 이름은 일왕과 매송에서 한자씩 차용하여 이름을 지었다. 제방만 소재지가 입북동이다.

왕송저수지에서 흐르는 물길 외에 일월저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계로는 울전천(0.95km, 일월저수지 북쪽 울전동11-2-울전동 102-2 일월천으로 유입)과 조가울(울전동 422 성균관 대학교 축구장 옆 현재의 삼성 아파트 부지에 있던 내로 일월저수지로 유입된다)등이 있다.

일월 저수지는 울전동의 남단으로 울전천이 유입되는 저수지로 일월천의 발원이며 황구지천으로 유입된다. 저수량은 29.9만 톤, 유역면적 277ha, 만수면적 18.0ha이다. 광주군 일왕면과 수원군 반월면 경계지로서 두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지명은 두곳의 지명을 차용하였다. 일월 저수지에서 발원하는 일월천(1.48km, 구운동 44-1번지 일대-구운동 420-2일대에서 황구지천 유입)외에 금곡천(2.65km 금곡동 791 일대-금

곡동801-6-황구지천 유입), 당수천(1.95km 당수동 727 일대-당수동 625-1-황구지천 유입), 오룡골천(0.9km 당수동 249-3 오룡골 일대-동쪽 당수동 625-1 황구지천 합류), 호매실천(2.85km, 호매실동 924일대-호매실동 301-44에서 황구지천 합류), 오목천(오목내, 『수원군읍지』“오목천은 남으로 20리 안영면에 있으니, 옛 이름은 오목梧木 인데 기유년에 이름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목천동 지역을 흐르는 황구지천의 지류인 당수천으로 추정된다.

황구지천에는 1980년대에 오목천교(1986) / 당수교(1987, 1998년 재가설) / 호매실교(1989)가 놓여 졌고 1990년대 들어 금곡교(1997)가 놓여졌다. 황구지천은 수원의 주요 하천 중에 다리가 가장 적게 가설되어있다.

황구지천은 물길에 커다란 변화가 없으나 근래에 이곳 인근에 호매실 택지 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비행장과 환경사업소 등이 위치해 물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하천 및 저수지의 변화와 또 다른 물길

수원시의 자료를 인용하여 수원시의 하천을 전체적으로 정리 해보면 2009년 12월 현재 수원시의 하천 현황은 지방 하천 7개소 56.57km, 소하천 24개소 30.93km이며 개수율(하천 보수율)은 지방 하천 92.33%, 소하천 74.48%이다.

〈표 1〉 수원시 주요 하천 현황¹¹⁾

| 하천명 | 하천지정 | 하천연장 (m) | 유로연장 (m) | 하폭 (m) | 유역면적 (km ²) | 위치 | |
|------|------------|-------------|-------------|-----------|----------------------------|-----------------------|--------------------------------|
| | | | | | | 시점 | 종점 |
| 계 | | 56,570 | 74,070 | | 222,110 | | |
| 황구지천 | 1965. 3. 1 | 13,040 | 18,750 | 31~120 | 85,070 | 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 | 수원시 권선구 대항교동 신대항교 황구지천합류점 |
| 서호천 | 1965. 3. 1 | 11,470 | 13,650 | 35~50 | 30,850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9-2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615 황구지천으로 합류 |
| 영화천 | 1965. 3. 1 | 1,310 | 4,250 | 16~28 | 5,070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09-23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897 서호천으로 합류 |
| 수원천 | 1965. 3. 1 | 13,410 | 15,630 | 25~40 | 25,430 |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5-2 | 수원시 권선구 대항교동 76-1 원천리천으로 합류 |

| | | | | | | | |
|------|------------|--------|--------|-------|--------|-------------------|---------------------------|
| 광교천 | 1965. 3. 1 | 1,270 | 2,890 | 10~19 | 1,930 |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1-2 |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7-2 수원천으로 합류 |
| 원천리천 | 1965. 3. 1 | 10,550 | 12,980 | 4~102 | 64,240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60-1 | 화성시 반정동 10-1 황구지천으로 합류 |
| 여천 | 1965. 3. 1 | 5,520 | 5,920 | 4~35 | 9,520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31 | 수원시 영통구 하동611-2 원천리천으로 합류 |

〈표 2〉 수원시 소하천 현황¹²⁾

| 하천명 | 하천연장(m) | 하천명 | 하천연장(m) | 하천명 | 하천연장(m) | 하천명 | 하천연장(m) |
|------|---------|------|---------|--------|---------|--------|---------|
| 웃파장천 | 950 | 창사천 | 800 | 호매실천 | 2,850 | 쇠죽골천 | 2,050 |
| 이목천 | 2,150 | 창사하천 | 850 | 금곡천 | 2,650 | 아래쇠죽골천 | 680 |
| 송죽천 | 1,100 | 복골천 | 660 | 일월천 | 1,480 | 동녘쇠죽골천 | 640 |
| 조원천 | 800 | 문암골천 | 600 | 울전천 | 950 | 성죽천 | 1,260 |
| 매산천 | 1,170 | 장다리천 | 1,780 | 당수천 | 1,950 | 절골천 | 920 |
| | | | | 오룡골천 | 900 | 산의천 | 950 |
| | | | | | | 산의실천 | 690 |
| | | | | | | 우시장천 | 2,100 |
| 전체합계 | | | | 30,930 | | | |

이제까지 지도와 지명, 수원시의 관련통계자료들과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려하여 살펴 보았다. 연대별 지도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의 패턴은 자연 하천으로 만 이루어져 있는 수원에 화성이 축성되면서 화성을 중심으로 인공적인 제언과 물길이 활용되다가 일제강점기를 맞아 수원 일대에서 관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저수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저수시설과 물길의 전반적인 흐름은 1970년대의 파장저수지 축조 이후에는 안정화되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도시의 팽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이나 저수시설의 추가적인 축조나 증설은 보이지 않는다. 1953년부터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의 원수로 정수하여 공급되던 상수공급이 광역상수도 3, 4, 5단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대체되고 정수기능이 강화 되었다.

11) 2010년 수원시정백서, 2009.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ne.kr/>

12) 상계서.

수원시의 주요 하천 4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자연 하천유지를 위한 유량(m^3/day)을 분석(평균 갈수량)해 보면 황구지천의 수원천 합류 지점까지 유역면적은 $85.63km^2$, 하루 유량은 18,835.2톤, 서호천의 황구지천 합류점까지 유역면적은 $30.50km^2$, 유량은 6,048톤, 수원천의 황구지천 합류점까지 유역면적은 $25.37km^2$, 유량은 3,110.4톤, 원천리천의 황구지천 합류점까지 유역면적은 $39.75km^2$, 유량은 7,776톤으로 주요 하천 4개의 전체 유역면적은 $181.25km^2$ 이며 최소한의 자연 환경 유지가 가능한 유량은 35,769.6톤이다.¹³⁾ 이 같은 유량은 상하수 시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물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표 3〉 저수지 유역 현황¹⁴⁾

| 구분 | 건설년도 | 유역면적 (km^2) | 저수지 시설 및 규모 | | | | | 비고 |
|-----|---------|--------------------|-------------|-------------|------------|--------------------|-------------------------------|---------|
| | | | 제방연장 (m) | 제방높이 (m) | 제방폭 (m) | 만수면적 (km^2) | 총저수량 ($1000 \times m^3$) | |
| 왕송 | 1948.12 | 16.16 | 640 | 8.2 | 5.0 | 0.960 | 1,878.0 | 의왕시 |
| 원천 | 1920.09 | 8.96 | 230 | 11.2 | 4.5 | 0.500 | 1,988.0 | 경기도시공사 |
| 광고 | 1942 | 10.98 | 300 | 18.5 | - | 0.330 | 2,480.0 | 수원시 |
| 일월 | 1941.06 | 2.37 | 364 | 6.7 | 3.6 | 0.180 | 299.0 | 한국농어촌공사 |
| 신대 | 1929.09 | 6.53 | - | - | - | - | 1,443.0 | 경기도시공사 |
| 서호 | 1799 | 20.66 | 640 | 15.0 | 5.0 | 0.334 | 678.4 | 농촌진흥청 |
| 일왕 | 1799 | 4.16 | 378 | 4.8 | 3.6 | 0.247 | 377.0 | 수원시 |
| 파장 | 1971.11 | 1.44 | 153 | 25.5 | 6.0 | 0.065 | 451.0 | 수원시 |
| 호매실 | 1945 | 0.45 | 120 | 2.6 | - | 0.500 | 6.0 | 소류지 |
| 오목천 | 1922 | 0.59 | 150 | 3.0 | - | 2.000 | 56.0 | 소류지 |
| 울전 | 1969 | 0.37 | 140 | 5.0 | - | 1.000 | 58.0 | 소류지 |

〈표3〉의 저수지 유역 현황 자료는 수원에 있는 저수지들의 축조시기와 저수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저수량은 9,714,400톤이다. 이 중에서 의왕시인 왕송저수지의 저수량을 제외하면 수원시에 소재하는 저수지의 저수량은 7,836,400톤이다. 저수지 중에서 광고와 파장저수지가 수원시의 상수원 역할을 했으나 〈표5〉에서 보듯이 1988년 광역상수

13)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표1-2-14〉 하천의 유량의 환산, 2003, 수원시.

14) 상계서, 〈표1-2-15〉 저수지 유역 현황.

도 3단계 시설되면서부터 광고와 파장저수지는 전체 상수공급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광역상수도를 중심으로 상수를 공급하게 된다. 수원 지역의 수원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계를 이용하면서 광역화하고 국가 또는 광역 수준의 물 관리 정책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광역 수준의 물 관리 정책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하수는 2009년 12월 현재 총 4,686개의 수공이 있는데 이중 허가시설이 238개 신고시설이 2,290개가 있으며 경미시설이 2,158개가 있다. 지하수에서 뽑아 스는 물의 총량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수원의 물길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천과 다르게 물이 샘솟는 곳이다. 약수터와 우물인데 약수터와 우물은 자연의 물길과 인간의 물길이 교차하는 곳이다. 특히 우물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나 지역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물길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우물에는 항상 이야기가 따라 다니는데 이 이야기들은 우물이 단순하게 물을 얻기 위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사람들의 삶이 얽혀서 최소한 동네 수준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내는 독특한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대부분의 우물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물이 마르면서 식수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물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아낙들의 수다와 정보 교환, 나그네들의 목추임, 빨래와 설거지, 돼지를 잡거나 음식재료를 씻거나 하는 일들은 제각각의 일의 특성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의 싱크대, 카페와 도축장으로 대체되고 윗밤밭의 큰 우물 주변에서 치렀던 우물제사는 우물이 사라지면서 맥이 끊겼다. 우물의 명칭으로는 공동 새암, 공동 우물(팔달동), 공동 우물(남창동, 한데 우물), 짬작 우물(고색동), 당집 우물(아주대 병원 뒤), 대동 우물(송죽동), 동지 우물(호매실동), 복이 우물(정자동), 샘물(연무동, 움물), 쌍우물(고등동, 행자우물), 여우 우물(영통 독침산), 오딧물(송죽동), 오리 우물(영통초등학교 근처), 오정(고색동), 옷우물(영통 독침산), 움물(연무동), 옷우물(지동), 중의 우물(청명산), 칠정(고색동), 큰 우물1(윗밤밭, 7월 초하루 우물제사), 큰 우물2(천천동, 천천 약수터), 큰우물 자리(호매실동, 느티나무), 큰우물 자리(원천동), 한데 우물(매산동), 한데 우물(남창동), 한우물(정자동, 한우물뜰), 한우물(인계동) 등이 있다. 이들 중에는 약수터로 바뀌어서 현재도 사용되는 곳도 있으나 도로나 주택가로 편입되어 흔적이 없는 곳도 많다.

약수터는 우물과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다리쉬를 하는 곳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곳이 꽤 있다. 물맛이 좋다는 이유로 집으로 물을 퍼 나르거나 산행이나 운

동을 한 뒤에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곳으로 애용되고 있기도 하다. 수원지명 총람에는 수원에 있었거나 남아있는 우물이나 약수터의 명칭이 상당히 많은데 우물은 대부분 평평한 곳으로 마을과 관련이 있고 약수터는 산록이나 야산, 둔덕을 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자료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수터가 37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석골(금곡동), 칠보산(탑동 당수동), 효원2호(조원동), 여우골(우만동), 숙지산(화서동), 화서(화서동), 신금암(파장동), 신금암2호(파장동), 신선(파장동), 삼익(파장동), 굴뚝골(파장동), 석수(송죽동), 금바위(송죽동), 한천(조원동), 효원2호(조원동), 절터(상광교동), 금암(파장동), 한철(파장동), 한철2호(파장동), 옷나무골(파장동), 계명(파장동), 웅달샘(상광교동), 샘터(상광교동), 한마음(조원동), 통소바위(연무동), 울전(울전동), 성대(울전동), 구기(송죽동), 금당골(조원동), 백년수(하광교동), 문암골(하광교동), 문암골2(하광교동), 구매탄(매탄동), 용화출(매탄동), 살구골(영통동), 반달(영통동), 중앙공원(영통동) 등이다.¹⁵⁾

2. 물의 수요와 도시의 확장

1) 인구의 변화¹⁶⁾

인구는 물의 수요를 결정할 때 1차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인구의 변화를 물 수요의 변화를 추정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해당년도 또는 추정되는 향후 인구수에 1인당 1일 물 수요량(예 : 수원 2009년 302ℓ)을 곱하면 상수 수요를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수원의 인구에 관한 기록은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조에 나오는데 경기도의 가구는 20,882호 인구는 50,352명이며 수원의 가구는 1,842호 인구는 4,92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조 13년의 호구총수에는 수원의 가구가 15,121호, 인구는 57,660명으로 되어 있어 인구증가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원군으

1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http://gihe.gg.go.kr/09_water/water_23.jsp. 2010.11.4.

16) 수원시사. 1996. 수원시.

로 불렸었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인구 5만 이상 도시에 포함이 된다. 1924년에는 가구가 25,646호, 인구는 142,501명(일본인 761호 3127명 중국인 46호 318명)이었고 그 중에 지금의 수원시에 해당하는 수원면의 경우는 가구 수 1,876호 인구는 10,070명(일본인 345호 1,387호, 중국인 16호 41명)이었다. 1930년대에는 상공업이 발달하는 도시의 특성을 갖게 되었으며 1930년의 『조선국세조사보고서』에는 수원면의 농업인구 19.2% 상업인구 31.5%, 공업 15.8%, 공무자유업 9.5%로 전체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형과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해방 직전인 1944년 수원군의 가구 수는 33,608호 인구는 189,967명(일본인 1,166호 3,993명)이었으며 수원읍의 가구는 7,572호 인구는 36,146명(일본인 936호 3091명)이었다.

1949에는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과 분리되었다. 1950년대에는 인구가 전쟁 기간 중에 10만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7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1960년대에는 1만6천 가구에서 3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인구는 16만까지 늘었다. 1962년과 1969년에는 전년도 인구대비 30.3%와 13.4%가 증가하였다. 주요 직업은 농업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상업과 서비스업 인구가 큰 비중으로 늘었다. 1970년대 역시 인구가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20만에서 30만에 가깝게 증가하였고 1974년과 1979년에는 9.7%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1980년대는 수원시의 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정도로 인구의 급격한 팽창이 진행되었는데 1960·197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토대로 근대화된 산업구조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직업의 분포에도 이 같은 현상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1980년 71,164 가구 310,757명에서 1989년 154,033가구 605,225명으로 급증하였으며 1985년 주요 직업 분포를 보면 농수산업은 축소되고 여성 취업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이 전체적인 직업분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¹⁷⁾

1990년대에는 70만을 넘어서 완만하게 인구증가가 진행되었으며 직업 분포의 변화는 농가인구와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1993년 제조업체가 832개소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는 53,489명으로 집계 되었다. 제조업 분야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132

17) 농수산업 : 3,989명, 제조업 : 50404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 498명, 건설업 : 11,969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25,914명, 운수창고통신업 : 8,694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6,033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24,297명.

개 사업체 32,817명, 생산액 5조 3,024억 원(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5%)으로 제조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4월 1일 현재 학생 수 198,824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후 인구는 1999년 297,479 세대에 910,045명으로 100만에 육박하고 2000년대 상반기에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가 되었다. 2001년에서 2002년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를 오가며 인구 증가의 지체 현상이 보인다. 2002년 1,019,711명에서 2009년 1,073,749명까지 7년간 약 6만 명 정도가 증가 했을 뿐이다.

2) 도시계획의 변화¹⁸⁾

수원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의 팽창이 진행되었다. 인구증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서울에 인구 유입을 중도에 차단하고 수도권 내 인구를 재배치하기위한 계획으로 1976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1977~1986)과 지역생활권 조성 및 성장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서울 중심의 광역도시권 체제를 정비하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1982~1991)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2000년대를 대비한 시정방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원 도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84년에는 2001년 계획인구 57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장기발전 구상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시행, 수원시의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라서 1933년에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에는 2016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하였다. 2001년에는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이후 2007년에는 광고 및 호매실택지개발, 공공기관이전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변경사항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수원시 도시전지역인 121,103km²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수원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은 ‘연접도시권과 연계한 기능도입 및 도시 공간구조

18) 수원시도시계획200년사. 2000.12. 수원시. 1914(대정3년), 1937, 1969, 1977, 1981, 1986, 1996, 2000년 지도.

개편을 통한 수도권 남부 중추도시’, ‘행정타운 이전을 통한 행정, 업무기능 통합 및 기능 수행을 극대화한 행정·업무 도시’, ‘문화적 가치의 구조물(화성 등)에 대한 복원과 개발, 원천유원지 정비 등을 통한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교통요충지로서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이 구축된 유통경제도시’, ‘풍부한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Green-Network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의 자연친화도시, 환경생태도시’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서수원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재한 공업 용지를 고색동 산업단지확장(3단지)예정부지에 재배치하는 것과 서수원권에 집중되어 있는 수원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12개 기관 323만㎡의 활용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 것이다.

〈표 4〉 수원시 택지개발지구 현황¹⁹⁾

| 구분 | 지구지정일 | 지구명 | 면적(㎡) | 준공일 | |
|---------------------|-------------|---------------------|---------|---------------|------------|
| 사업 완료 지구 | 80년대 상반기 | 81. 04. 11(건고 113호) | 신매탄지구 | 211,255 | 83. 12. 30 |
| | | 81. 06. 11(건고 202호) | 구운지구 | 531,459 | 87. 12. 21 |
| | | 83. 06. 28(건고 201호) | 매탄지구 | 245,621.2 | 88. 07. 30 |
| | | 84. 04. 11(건고 122호) | 매탄1지구 | 954,431.3 | 88. 09. 06 |
| | | 84. 04. 11(건고 122호) | 매탄2지구 | 767,000 | 89. 12. 31 |
| | | | | 2,709,766.5 | |
| | 80년대 하반기 | 88. 12. 21(건고 655호) | 우만지구 | 100,999 | 92. 12. 31 |
| | | 89. 04. 22(건고 173호) | 천천지구 | 245,889 | 98. 05. 06 |
| | | 89. 04. 24(건고 193호) | 원천지구 | 420,000 | 93. 06. 30 |
| | | 89. 06. 10(건고 306호) | 권선지구 | 622,921 | 96. 09. 30 |
| | | 89. 06. 10(건고 306호) | 화서지구 | 233,676 | 98. 06. 30 |
| | | 89. 10. 27(건고 621호) | 권선2지구 | 326,000 | 93. 06. 11 |
| | | 89. 10. 27(건고 621호) | 영통지구 | 3,260,534 | 97. 12. 30 |
| | | | | 5,109,120.999 | |
| | 90년대 상반기 | 93. 12. 28(건고 568호) | 정자지구 | 952,508 | 00. 06. 11 |
| 94. 03. 10(건고 174호) | | 정자2지구 | 370,569 | 01. 07. 31 | |
| 94. 03. 10(건고 174호) | | 천천2지구 | 828,644 | 01. 07. 31 | |
| 94. 06. 15(건고 208호) | | 권선3지구 | 485,474 | 99. 12. 30 | |
| 94. 06. 15(건고 208호) | | 매탄4지구 | 634,305 | 02. 06. 30 | |

19) 2010수원시정백서, 2010. 수원시.

| | | | | | |
|-----------|---------------|---------------------|-------|------------|------------|
| | | 94. 10. 05(건고 373호) | 원천2지구 | 171,452 | 00. 06. 30 |
| | | 94. 10. 05(건고 373호) | 조원지구 | 189,069 | 02. 03. 31 |
| | | | | 3,632,021 | |
| 사업 진행중 | 2000년대 상반기 | 04. 06. 30(건고 156호) | 광고지구 | 11,278,000 | - |
| | | 04. 12. 31(건고 465호) | 호매실지구 | 3,126,000 | - |
| | | | | 14,404,000 | |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 전체를 분석하거나 살펴보기 보다는 통계화 되어 있는 수원의 택지개발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가 어떻게 팽창되고 그에 따라서 지형과 자연 하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과 숲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형 하천보다는 소하천이나 소하천을 이루는 실개천들과 관계가 깊은 데 그동안 수원지역에서 이뤄진 택지 개발 사업은 산과 숲을 밀어내고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수원의 자연환경의 변형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산과 칠보산, 청명산 일부를 제외하면 숲이 비교적 잘 조성된 산을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전담으로 이루어진 녹색지대 조차도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수원의 택지개발은 80년대 상반기에 동수원 지역과 구운지구 약 2,709,766㎡, 80년대 하반기에 영통과 권선1,2지구, 화서와 천천지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총면적은 약 5,109,121㎡, 90년대 상반기 수원의 북쪽으로 정자, 천천, 조원지구와 동수원 지역의 권선3지구, 매탄4지구, 원천2지구의 총면적 3,632,021㎡가, 2000년대 상반기에는 광고지구와 호매실지구 두 곳 총면적 14,404,000㎡가 진행되었다. 약 30여년에 걸쳐서 진행된 택지 개발은 수원이라는 도시의 성격과 자연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동수원지역의 개발과 영통신도시는 수원이 팽창해 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야산과 숲이 사라지고 과수원과 담을 중심으로 한 경작지들이 사라짐으로써 일대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과거의 위치를 확인할 길이 없는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광고신도시와 호매실지구 택지 개발은 수원지역에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적인 환경을 마지막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물길에 있어서는 소하천들이 복개되어 도로화하거나 하천이 구간별로 정비되어 직강화한 것 이외에는 대형 공사가 진행 된 것이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나름대로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보통의 도시 개발은 단순하게 택지만 빼

곡하게 조성하기보다는 도심에 물을 끌어 들여 친수형의 쾌적한 여가환경이나 친수 경관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수원의 택지 개발에서는 상하수 시설 이외에는 물을 고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발의 와중에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몇 가지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하천이나 저수지와 같은 물길이나 자연환경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천변에 산책로나 조깅코스가 만들어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되면서 하천의 식생이 새롭게 구성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변화는 수원천이나 원천리천, 서호, 광고 등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하천이 유난히 많고 물이 많은 광고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시하는 사업방향과 개발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권 남부의 자족형 도시건설, 친환경적 Green-City개발 ... 유원지를 레저와 휴식공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라는 방향성과 ‘환경 친화적 주거도시로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도·농 복합형 지역 발전 도시로서 농촌과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도·농이 공생하며 젊은 부부가 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 ‘수도권 종합관광 휴양도시로서 수도권의 근린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미와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 있는 도시’, ‘삶의 질이 증시되는 문화·예술도시’를 개발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도·농 복합, 전원도시라는 개념에 녹아 있는 물 또는 물길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과 활용방안의 성격 변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3) 상·하수도, 보이지 않는 물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물은 이제 단순하게 음용수나 산업재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여가와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도시정책이나 여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물의 경관재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인간과 물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인식,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도시에서의 물의 지위는 때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구성요소에 반드시 물이나 물길이 포함되고 물 자체가 만들어내는 감정(감성)적 에너지가 도시의 성격과 느낌을 일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의 물

길이 갖는 경관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도시에서 물은 생명재나 생활재로서의 강조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같은 요소들 역시 자연의 감정(감성)적 에너지를 교감하는데 기여한다.

통계자료로 볼 때 물길에 대한 상식을 뛰어 넘는 혼란스러움과 부딪히게 되는데 수원의 지하에서 상수와 하수로 흐르는 물이 거의 80만 톤(상수 30만 톤, 하수 51만 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수원의 4개 하천을 흐르는 자연 하천의 물 유출량은 하루에 4천1백만 톤에 이른다.²⁰⁾ 그러나 하천의 환경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유량(평균 갈수량을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35,769.5톤이다. 홍수기를 포함하는 4천 1백만 톤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최소 유지량의 24배가 넘는 물이 지하를 흐르며 '사람의 물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태가 지적하고 있는 상하수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들 즉, 상수원으로부터의 거리화, 전문화, 독점화²¹⁾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재로서 물이 어떻게 수도꼭지까지 도달하는지 그리고 버려진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자연과 합류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꼭지나 호스를 통해서 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물의 모습은 이렇게 도시의 일상에서 수도꼭지에 의해서 신비화되고 그 반대로 손쉬운 것이어서 흔하고 친한 것이 되면서 생명재 또는 가치재로서의 아우라가 사라져 버린다.

〈표 5〉 정수생산 공급능력²²⁾

| 구분 | 시설년도 | 1일 공급량 | 비고 | |
|-----------|---------|----------|--------------------------|----|
| 총계 | | 620,000톤 | 원수100,000톤 정수520,000톤 | |
| 광고 정수장 | 제1정수장 | 1978.09 | 25,000톤 | 원수 |
| | 제2정수장 | 1984.12 | 25,000톤 | 원수 |
| 파장 정수장 | 1981.10 | 50,000톤 | 원수 | |
| 광역상수도 3단계 | 1988.12 | 120,000톤 | 정수 | |
| 광역상수도 4단계 | 1993.06 | 100,000톤 | 정수 | |
| 광역상수도 5단계 | 1998.12 | 300,000톤 | 정수 | |

20) 수원시,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10.10 수원시청 제공자료) 자료 환산.

21) 홍성태 엮음 『한국의 근대화와 물』 p.21 2006 한울아카데미.

22)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http:// water.suwon.ne.kr](http://water.suwon.ne.kr) 2010.10.26.

〈표 6〉 송배수관부설현황²³⁾

| 계 | 도·송수관 | 배수관 | 급수관 | 비고 |
|---------|-------|---------|-------|----|
| 1,616km | 33km | 1,055km | 528km | |

그러면 지하의 관로를 따라 흐르는 80만 톤의 물은 언제 어떻게 가능해 진 것일까. 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용수나 생활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을 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45년 광교저수지가 관개용수로 만들어지고 나서 1953년에 상수도 사업 인가(실시계획)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수도 시대가 열리는데 이 같은 상수도 일을 하기위해서 1955년에는 건설과에 수도계를 신설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게 된다. 이후 1968년에 수도사업소를 열고 1970년에서 1971년까지 파장저수지를 신설한다. 그리고 1974년 1월에 수원과 안양지역에 한강원수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공업용 수도가 통수되었다. 이후 많은 상수도 확장공사와 정수장, 배수지와 가압장들이 만들어지면서 물 공급을 위한 체계가 갖춰졌다.

1988년에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개청되면서 구청에 수도과가 신설되었으며 이어서 1993년에는 팔달구에 수도과가 개설되었다. 〈표5〉에서와 같이 1988년 광역상수도 3단계 준공에 이어 1993년에는 광역상수도 4단계 준공, 1998년 12월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가 준공되면서 광교와 파장저수지의 원수로 생산한 물 10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52만 톤의 물이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물 공급 체계가 완성되었다. 1996년 2월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시, 구, 수도사업소 수도업무가 통합되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1999년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수도·시설관리과를 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각각 맑은 물 정책·공급·생산과로 개칭하고 2003년에는 광교정수장 수도시설 중의 일부를 폐지하였다.

이 같은 상수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수원 확보방법의 변화와 상수도 행정체계의 안정화, 상수기술의 발전과 확장이다. 수원에 있는 수자원으로는 이제 매우 제한적으로 밖에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상수체계는 광역화되고 원수는 팔당에서 운반해 옴으로서 정수와 배수 가압시설 중심의 상수체계가 자리 잡게 된다. 〈표6〉은 상수사업에서 시설한 송배수관이 총연장 1,616km임을 보여준다. 이 길이는 하수관로의 총연장보다

23) 상세한 홈페이지.

약 200km가 더 긴 것이다.

〈표 7〉 상수도 수요공급 계획²⁴⁾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5년 |
|------------|-------|-------|-------|-------|-------|-------|
| 총인구(천명) | 1,082 | 1,086 | 1,090 | 1,098 | 1,150 | 1,250 |
| 급수인구(천명) | 1,078 | 1,085 | 1,088 | 1,097 | 1,147 | 1,248 |
| 보급율(%) | 99.6 | 99.8 | 99.7 | 99.9 | 99.7 | 99.8 |
| 급수량(ℓ) | 314 | 310 | 307 | 302 | 308 | 320 |
| 수요량(천 톤/일) | 338 | 336 | 334 | 332 | 361 | 404 |

이 같은 상수체계를 통해서 시중의 상점에서 사서 마시거나 지하수 등을 통해서 공급 되는 물을 제외하고 현재는 〈표7〉과 같이 1백 9만 8천명을 대상으로 1일 30만 2천 톤의 물을 급수하고 있으며 9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1,250만 명을 대상으로 1인 320ℓ 40만 4천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수공급 규모는 앞서도 살펴 본 것처럼 수원의 주요 자연 하천의 환경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로 하는 1일 유량의 8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위해서 공급되는 상수 물 길에 갖는 중요성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표 8〉 하수도시설 현황(단위 : km)²⁵⁾

| 구분 | 시설계획(km) | 설치 | 추진중 | 향후시설계획 | 비고 |
|-------|----------|----------|---------|---------|----|
| 계 | 1,503.03 | 1,466.29 | - | 36.74 | |
| 하수관거 | 1,418.84 | 1,386.12 | - | 32.72 | |
| 차집관거 | 84.19 | 80.17 | - | 4.02 | |
| 하수처리장 | 614천 톤/일 | 520천 톤/일 | 47천 톤/일 | 47천 톤/일 | |

그러면 이같이 상수로 사용한 물들이 사용되고 난 뒤의 처리의 규모와 과정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8〉에서 하수도 시설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데 하수관거는 1,466km의 연장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하루에 51만 톤의 하수

24) 2010수원시정백서, 2010. 수원시.

25) 상계서.

를 처리하고 있다. 상수로 공급된 물의 약 1.6배에 이르는 물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상수로 공급된 물외에 18만 8천 톤의 하수가 어디선가 추가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통계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하수처리 규모의 증가를 고려해 하수처리장은 황구지천과 서호천에 두 개의 시설이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9>에서는 하수관거의 지역 및 구역별 분포를 살펴 볼 수 있는데 도심화(개발)의 수준과 개발면적)와 개발규모에 비례해서 하수관거의 연장 길이와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하수관거현황(단위 : km)²⁶⁾

| 배수구역 | 합계 | 합류식 | 분류식 | | | 비고 |
|------|----------|--------|-------|-------|-------|----------|
| | | | 계 | 우수관 | 오수관 | |
| 계 | 1,466.29 | 984.29 | 482 | 276.5 | 205.5 | |
| 서부 | 189.5 | 98.7 | 90.8 | 48.4 | 42.4 | 황구지천 |
| 북부 | 249.5 | 156.6 | 92.9 | 57.0 | 35.9 | 서호천 |
| 남부 | 261.1 | 214.9 | 46.2 | 33.2 | 13 | 황구지, 서호천 |
| 중앙 | 372.7 | 342.2 | 30.5 | 24.3 | 6.2 | 수원천 |
| 동부 | 393.49 | 171.89 | 221.6 | 113.6 | 108 | 원천리천 |

<표10>의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통해서 1984년 이전의 하수 처리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984년 이전에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들이 특별한 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자연하천에 방류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수원천의 수질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고 악취에 절어 있거나 통학을 하면서 맞게 되는 서호를 비롯한 하천변의 악취들의 정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수처리가 된 뒤의 수질을 정확히 측정해서 하수 관리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수원천과 황구지천 그리고 서호나 원천천에서 잡았던 물고기들이나 수생 환경을 이제는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은 물이 갖는 민감성과 외부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처리가 끝나고 하천으로 돌려진 물들이 단순하게 화학적인 처리나 필요한 데이터에 의해서 완전하게 복원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것이다. 수많은 관로를 따라 흐르는 하수들을 왜 한곳의

26) 상계서.

하수처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해야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남는다.

〈표 10〉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²⁷⁾

| 시설명 | 수계 | 시설용량(톤/일) | 사업기간 | 총사업비(백만원) | 비고 |
|--------------|------|-----------|-----------|-----------|------|
| 합계 | | 614,450 | | 712,486 | |
| 수원하수처리장(1단계) | 황구지천 | 220,000 | 1984~1996 | 168,785 | 가동중 |
| 수원하수처리장(2단계) | 황구지천 | 300,000 | 2000~2005 | 219,076 | 가동중 |
| 서호천하수처리장 | 서호천 | 47,000 | 2003~2010 | 133,611 | 추진중 |
| 황구지천하수처리장 | 황구지천 | 47,000 | 2010~2016 | 163,000 | 향후추진 |
| 수원하수슬러지처리시설 | | 450 | 2006~2009 | 28,014 | 가동중 |

이와 같이 상하수관거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들은 일반적인 지도나 사람들의 육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 상수관의 안정화와 수질의 보전, 도시의 미관이나 위생환경을 고려해서 오픈된 형태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해 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물길이 역설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3. 물길에 대한 사회적 상상

앞서의 조사와 분석, 지도와 통계자료들을 통해 추론한 것들을 토대로 ‘사람의 물길’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요약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첫째, 3,000km에 이르는 상하수 관로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에 물이 하드웨어 형태로 구조화되면서 자리를 잡았다. 둘째, 자연하천의 최소한 환경 유지 유량의 24배에 달하는 물이 지하의 상하수 관로를 통해서 자연 하천과는 또 다른 도심의 물길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상수관로에서 공급된 물 이외에 18만 톤 정도의 물이 어디론가부터 유입되고 있다. 넷째, 상하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시의 유지관리) 별도의 행정체계가 수립되고 상수사업과 하수사업이라는 물관리가 이분화 되어 두 개의 시스템으로 분리 구축되어 있다. 다섯째, 모든 건축

27) 상계서.

물은 물에 관한 상수 공급과 하수 배출이라는 구조로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고정되었다. 여섯째, 행정단위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에 필요한 독자적 상수원을 적극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상수원에 의존하는 광역화된 형태의 물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다섯째, 생명재로서 물이 무제한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여섯째, 저수지와 같은 토목 구조물들이 본래의 기능 이외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일곱째, 도시개발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하고 여가나 감정과 같은 요소들이 도시환경의 중요한 테마들로 등장하고 있다. 여덟째, 생명재로서의 물이 상품화 되면서 공공 서비스재인 물이 평가절하 되고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수원과 관련한 지도와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사람의 물길’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사람의 물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부분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들면 “지하에 흐르는 ‘사람의 물길’은 3000km 이르는 상하수 관로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나 건축물과 연결되어 망상을 형성하는 형태로 도시 자체에 구조화 되어 있으며 그 망상을 통해서 하루에 80만 톤의 물이 흐르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사람의 사용을 매개로 상수 공급과 하수 배출이라는 구조로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의무 수준에서 생명재로서 물이 무제한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상수와 하수 체계를 관리하는 이원화된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수 공급과 하수 배출이라는 이원화된 시스템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물에 대한 인식이 양극화(소중한 것과 흔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등) 되는 경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체는 자체의 상수원이 없어도 인구수를 반영하는 상수 공급과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광역 상수체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물과 자연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증진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하고 여가나 감정과 같은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개발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수지나 하천과 같은 물 관련 시설에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물자체가 상품화 되면서 공공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상수가 평가 절하되고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물 상품 간에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고 정리 할 수 있는데 그 것은 다시 1. 자원으로서의 물길, 2. 도시에서 물길의 구조화, 3. 물 관리 행정체제와 물길의 교착이라는 주제로 압축 할 수 있다.

1) 자원으로서의 물과 물길

‘사람의 물길’은 물과 사람의 관계에서 물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물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물은 물이 가지는 물질적 속성에 의해서 자원화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그 물질적 속성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사용되는가에 따라 자원의 범주를 구성해 볼 수가 있다. 대체로 물의 일반적인 성격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의 성격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물이 인간의 생명의 유지와 사람들의 활동과 관계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생명재라는 범주를 제안할 수 있다. 역시 사람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위해서 물을 생활자원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생활재라는 범주를 구성 할 수 있다. 동시에 물의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속성 때문에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의 또 다른 측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종종 감정적인 작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에는 일종의 감정과 취향을 자극하고 정서를 형성하는 자원으로써 의미를 갖는데 예를 들면 광활한 바다나 호수, 강과 하천의 아름다운 경관으로부터 얻는 심미감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 그 자체가 산업재처럼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매질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그자체가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살펴 본 것처럼 물의 고유한 자기 성격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요의 범주에 따라서 대략 생명재, 생활재, 산업재, 경관재(심미재), 상품재라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은 이 다섯 가지 분류 범주에 따라서 성격별로 매우 다른 가치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물에 대한 다양한 감정적 스펙트럼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분류가 물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서부터 인간의 심미감이나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일과 물자체가 서비스의 대상이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분류체계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자원의 성격별로 설명을 더하자면 생명재로서 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생물들의 생명유지 활동과 절대적인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물의 생명유지 기능은 최소한의 것이자 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궁극성 때문에 생명재로서 물은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근원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물은 자연

과 인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상징으로 표상되며 생명체로서 물은 만물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체로서의 물은 물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대부분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 관념을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품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보조적이지만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활체로서 물이 가지는 사회적인 특성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계나 권위, 또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측면을 반영하는 데에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산업체는 일종의 경제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을 만들 때 물이 갖고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속성이 제품이나 공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은 어떤 물질을 용해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낮추거나 제품을 세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물이 가지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산업제품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범주는 공학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 물은 현대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중화학 공업에서 핵심적인 자원이었다. 농업용수 역시 일종의 산업체이지만 공업 분야의 산업체와는 다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심미체 또는 취향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경관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측면들과 정서, 감정 형성에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물의 또 다른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이나 생태와 같은 용어들과 함께 1990년대부터 주목을 받게 된 자원 영역으로서 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경향이다. 심미체는 산업이나 도시계획, 대형 토목사업들이 현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성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동시에 강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의 산업이 인간의 개인적인 감성과 사회적인 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단순하게 효율성과 기능성만을 강조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감동과 정서적인 이끌림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지향에 대한 반성적인 접근(물론 궁극적으로는 화폐 가치의 증식과 관계하지만)의 결과이자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체는 매우 미묘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제기하는 자원의 범주이다. 역사적으로 물이 자산이나 상품처럼 취급되었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현상이 특정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물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공공 서비스체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범주들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며 사람들의 감정을 고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상품체로서 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잠재하고 있다

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생명재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재가 상품화 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공공재로 서비스 대상이었던 물이 이제는 사기업의 잉여이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자원의 범주이다.

2) 도시에서 물길의 구조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든지 알고 있다. 수원 역시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물을 생명재나 산업재, 심미재로 사용해진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을 때 물은 나름대로 중요한 산업자원이었으며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는 생명재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개수로도 만들고 사람들이 필요한 곳 가까이에서 사용하기 위해 우물이나 수자원이 있는 곳 근처에 마을이 자리 잡았다. 화성 주변에 축만제와 만석거가 만들어지고 여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가 만들어진 것 역시 같은 이유다.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상수도가 도입되면서 물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형성되고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발전용 댐의 건설과 일본인이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공급된 상수도 정책²⁸⁾과 6.25이후 파괴된 상수도를 복구하고 상수시설을 신속하게 확장해 가던 정책은 우리나라 상하수 사업 성격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박정희는 수자원에 대해 강박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댐을 건설하면서 우리나라의 물이나 물길 관리 정책의 파행적인 노정을 예고했다.²⁹⁾ 1958년 청계천을 하수구로 만드는 복개사업³⁰⁾은 이 시대 국가권력의 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표현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수원에서는 1945년 광교저수지를 관개용수로 시설하고 1953년에 수도 사업이 시작하였으며 상수원의 확보와 시설의 공급을 진행하였다. 1954년 신평동 배수지를 건설하고 1958년~1962년에 광교수원지의 부대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같은 상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광교저수지의 수원지화와 1970년대 초 파장저수지의 축조는 산업재로서의 물과 생명재로서의 물 사이의 행정적인 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 또는 마을 단위

28) 홍성태 엮음, 『한국의 근대화와 물』 p.74, 2006, 한울아카데미.

29) 상계서, p.74.

30) 상계서, p.31.

에서 스스로 물을 공급하다가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상수관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어서 상수관 만큼의 하수관망 역시 시설되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분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연하천을 통해서 하수를 처리했다. 다시 말하면 하천이 하수관거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진행되고 하천이 하수관거화 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시설이 시급하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동수원 일대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장다리천의 상류부의 복개나 시가지 정비와 주차장의 필요에서 시작된 수원천의 복개에서 드러나는 물에 대한 편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역시 하천의 하수관거화의 또 다른 사례라 볼 수 있다.

도심에서 지하의 물길이 만들어지는 개략적인 과정을 통해서 관개용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물길’의 모습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상수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재이면서 동시에 생활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물의 성격에 따라 물의 수준에는 등급이 매겨지며 취수원과 취수 방법의 차이가 발생한다. 물의 이 같은 인공화 과정은 자연의 과정과 다르게 인간의 통제 가능성과 결합하여 물을 필요로 하는 영역과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을 변형 시킨다.

수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개인에게 필요한 일일 물 수요량이 측정되고 표준화되면서 인구수 대비 필요한 물의 양을 공급하기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를 참조 하자면 수원시에서 1,097,000명에게 1인 1일 평균 급수량 302ℓ로 잡고 있다. 그리고 물은 이제 단순하게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물을 적당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문제 - 광역상수도 - 로 확장된다. 1998년 12월에 시설된 광역 5단계에서 약 30만 톤의 물 공급이 가능해 지고 수원은 전체적으로 62만 톤의 물 공급이 가능한 정수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도시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가설된 송배수관(도·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은 총연장 1,616km에 이르는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다.³¹⁾ 상수관거와 동시에 하수관거가 필요한 것인데 <표8>에서 본바와 같이 합류식과 분류식(오수관거 /우수관거), 차집관거를 합해서 총연장 1,466km에 이른다. 하수관거를 통해서 배출된 물이나 오수들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을 통해서 최종 처리된 뒤에 자연 하천과 합류하는데 이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일 총 처리용량은 1일 52만 톤이며 실제 하루 처리량은 51만

31)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http:// water.suwon.ne.kr](http://water.suwon.ne.kr) 2010.10.26.

톤이다. 발생하는 슬러지는 2009년의 경우 1일 7만2천 톤 내외인데 이중 3,771톤은 김포에 매립하고 나머지는 해양배출을 통해서 처리한다.³²⁾

살펴본 바와 같이 상수와 하수 사업의 행정체계가 분리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와 사용하고 버린 물을 처리하는 하수의 개념적인 분리, 예를 들어 상수 생산과 하수 처리라는 이분법적인 분리는 지하에 흐르는 ‘사람의 물길’자체가 수도꼭지를 기점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수와 하수의 분리와 상하수 행정체계의 이원화 구조가 반복적인 행정 업무로 자리 잡고 사람들은 상수와 하수라는 물의 사용법에 따라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버리는 단순한 방식으로 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물과 나쁜 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의 관념이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관념은 깨끗한 물은 사용한 후에는 더러워진다는 간단한 과정적인 도식, 즉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전과 후에 대한 경과 과정을 물의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의 경계는 이렇게 매우 단순한 관념과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같은 과정은 상수관과 하수관이라는 시설물로 재구조화되면서 도시나 특정한 주거지나 산업과 같은 단위형태에 기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다. 상하수, 전기, 도로 등과 같은 것들은 사회 기반시설의 핵심을 이루는데 ‘사람의 물길’의 실체는 이처럼 구체적인 지역과 공간에 구조화되는 것이다.

이분법적인 물에 대한 인식의 고착화와 함께 도시구성에서 인구와 시설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물에 대한 인식이 사람과 시설을 통해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인구는 유동적이지만 기반시설들은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고정화되고 확장된다. 인구는 언제나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변수와 같은 것이지만 상하수도, 가스관망, 도로, 대형 운동장, 공공시설물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들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자기 유지의 속성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기위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작동원리(행동방식)를 갖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타의 상하수시설,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대형시설에서는 종종 발견되는 일이다. 자동적인 작동원리는 도시 전체의 수준에서 작동

32) 수원시 환경사업소 홈페이지 <http://env.suwon.ne.kr> 2010.10.26 : 2011년부터는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자체가 블랙홀처럼 끝없이 흡수하고 유인하는 독특한 경영 역학이 생기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성과에 대한 무의식적인 강박이나 반복이 만들어내는 도시와 행정체계의 통계 상승적 속력은 대중들 또는 시민들과 결합하면서 도시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 낸다.

3) 물길과 행정체계

물자체가 공급되는 단순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화, 구조화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과 시스템의 운영주체로서 지방자치체, 구조화와 동시에 발생하는 물에 대한 인식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공급하는 물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물의 물질적 특성에 기초해서 위생과 공중 보건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물은 생명체 수준에서 생산과 공급 관리의 대상이 된다. 대체로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전염병이나 특별한 질병의 매개요인으로서 물이라고 하는 관념이 지배적인 위치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일종의 물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물에 대한 의심의 담론이 만들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에 대한 소독과 정수가 행해지고 상수와 하수는 완벽하게 분리된다. 거기에 더하여 가능하면 손쉽고 편하게 물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가 증설되고 수도꼭지가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연과 직접 관계하던 물이 공공이 공급하는 물로 바뀌며 두 번째로 물이 개인들의 권리의 형태로 바뀌면서 서비스재로 바뀌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도시에서 서비스의 대상으로서 물 관리 정책은 사용전의 물과 사용 후에 버려지는 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셋째로 정부가 물의 수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두는 물의 공급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구축되면서 도시의 유지관리에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 잡는다. 넷째로 물이 이렇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행정체계 속에 자리 잡으면서 특정한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지역에서 물은 체계적으로 분류, 분화된다. 먹는 물, 버리는 물, 자연에서 흐르거나 가두어 두는 물로 분류 되고 관리 되며 각각의 물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으로 분화된다.

물의 분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광역 상수체계에 의존하고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물은 무한 리필이 가능한 대상으로 표상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상수원이 없으면서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와 동시에 상하수 체계가 은연중에 표현하는 물에 대한 이분법적인 관념은 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고, 급기야 물을 공공 서비스재나 상품의 대상으로 분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는 시점에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사기업의 상품으로서의 물을 신뢰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미묘한 전도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갈급한 감정들이 감성적 상품재로 바뀌는 것과 유사하게 천연 암반수라거나 심해의 심층수같이 근원적인 정결함을 갖고 있는 물을 갈구하게 되는 인식의 교착현상이 발생한다. 이즈음에서 앞서 이야기한 시설의 고정화하는 문제와 함께 물의 경제적 잠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물은 절대적인 안전성과 건강에 기여하는 물이라는 이미지와 생명재로서 목마를 때의 한 모금이라는, 이동 중에도 물을 마실 수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이 공급하는 물은 표준적인 정수의 기준과 최종 서비스지역과의 거리, 공급원가라고 하는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상품화된 물은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 또는 직접적인 필요에 호소해서 스스로 시장을 창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공의 서비스(일종의 공공적 책임의 영역)는 서비스 대상자들로 부터 민원과 이의 제기 대상(사적인 권리의 영역)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 점은 공공과 사적영역에서 교착되는 사회적, 제도적 책임과 권한 그리고 지방자치체 또는 공공 서비스의 주체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품으로서의 물은 이 같은 모순으로부터 자유롭다. 물의 상품가치는 공급과 소비, 그리고 시장의 형성과 일종의 시대적인 의식이나 감성, 편의와 적시성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흐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의 서비스는 물 상품과 품질을 경쟁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행정체계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물은 완전히 자원으로 통합되는데(5가지 범주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등급화 된 자원으로) 이때에 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분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사먹는 생수와 하천을 흐르는 물,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되고 심미적인 경관재와 산업재로서의

물은 더 엄격하게 구분된다. 상품재로서 물은 시장에서 물의 품질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해서 비싼 물, 좋은 물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분 과정 자체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상화되고 생활의 표준이나 윤리처럼 자리 잡게 된다. 인간에 의해서 진행된 물의 이런 기능이나 품질별 분화는 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저해하고 물을 인간이 사용하고 버린 뒤에 재처리되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물질로 전락시킨다. 동시에 물의 분화된 기능들과 나름대로의 위계는 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일상 공간에서 구조화 하는데 그 것이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물의 문화를 만들고 물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를 유도한다. 마시는 물과 씻는 물의 분리, 씻는 물중에서도 몸을 씻는 물과 그릇이나 옷가지를 세척하는 물, 청소를 하는데 사용하는 물들은 제각각 무의식적으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관리된다.

맺음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생명재로서의 물은 인간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극도의 공포, 자연환경의 오염과 자연수의 수질 기준치의 저하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자연에 대한 의식에 의해서 언제라도 상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과 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질적인 등급과 분류, 좋은 물과 나쁜 물의 담론을 통해서 물 자체가 상품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고, 좋은 물에 대한 욕구가 시장을 형성하면서 물 자체가 산업재나 경관재가 아니라 바로 상품 그자체로 바뀌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엄청난 양의 물은 특정한 지역이나 정수 처리기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다른 물들과 차별화되고, 마켓의 상품 진열대에서 휴대가 가능하고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또 다른 물길의 형태로 자리 잡는다. 공공은 바로 이 상품화된 물들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물의 수질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좋은 원수의 확보와 고도의 정수처리 시설의 증설, 공급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들을 만들어 가면서 시민들에게 물을 무한정 서비스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물이 편리함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의 손이 바로 닿는 곳까지 가까워지면서 물은 사회적인 것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바뀐다. 공공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체인 개인들의 권리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또는 지

방정부가 있는 한 물의 공급은 단순간도 멈출 수 없는 하나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가뭄이 들거나 음용수나 가정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비롯한 산업용수가 부족해지면 바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의 과제가 되거나 의회에서 질의 질책의 대상이 된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한 물통을 들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사진이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고 물을 구하고 절약하기 위한 캠페인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서 물이라고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위생과 안전에 있어서 수도에서 흙탕물이나 녹슨 물 나오다거나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적수 공급 문제는 바로 생활정치 차원에서 물이라고 하는 의제가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위생이나 건강이라는 이념, 그리고 산업과 경제활동이 물을 만들고 물을 연결하는데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이 집중화는 도시화가 되면서 매우 빠르고 밀도 높게 진행된다. 물의 문제는 도시의 기능과 도시의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면서 도시에서의 정책과 정치의 대상이 된다. 4대강과 같은 자연의 물길에 대한 전유와 해석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들이나 댐의 방류를 통한 수공 운운하면서 축조된 평화 댐 사건은 물이 생활정치 수준을 뛰어 넘어 물을 이데올로기 문제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폐놀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폐수와 유해물질의 방류, 홍수기의 도심의 침수나 강이나 하천의 범람, 하천에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한다는 뉴스들은 '사람의 물길'과 '자연의 물길'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물이 산업과 경제의 근간이 되며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치에서 핵심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의 정치 의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은 인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이 생활재이자 산업재이기 때문이며 경관재(심미재)와 상품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물에 대한 해석과 전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념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이념재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것처럼 물은 매우 단순한 속성을 갖는 물질이지만 그 속성이 인간의 취향과 감정 그리고 욕구와 결합하면서 도시에 구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풍부한 형태로 나타난다. 물이 자원으로서 그리고 도시에 구조화되는 하나의 물질로서, 상하수 정책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상품화되는 물과 상수행정체계 사이에서 모순이 발

생하고 동시에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던 공공 서비스의 확대와 상품화 과정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길과 도시, 행정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교착현상은 도시와 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은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생명을 규정하는 원초적인 물질들이다. 물은 생명재이자 동시에 생명을 영위하는 사람이 떨어질 수 없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한다. 물은 하나의 감정으로서는 또 인간의 상상력 자체를 생산하는 하나의 물질적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우리가람길라잡이』, 2002.
김종혁,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경기도, 2005.
수원시, 2010수원시정백서, 2010.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수원시, 1996.
수원시, 수원도시계획 200년사, 2000.
수원시·수원문화원, 『수원지명총람』, 1999.
수원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2003.
『水原邑地圖』, 1943.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근세한국5만분지1지형도, 도서출판 경인문화사 복간본.
홍성태, 『한국의 근대화와 물』, 한울아카데미, 2006.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http://gihe.gg.go.kr/09_water/water_23.jsp, 2010.11.4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http://water.suwon.ne.kr> 2010.10.26
수원시 환경사업소 홈페이지 <http://env.suwon.ne.kr> 2010.10.26
수원시홈페이지 <http://www.suwon.ne.kr/>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basin.kowaco.or.kr/garam>
한국하천정보시스템 <http://river.kwater.or.kr/garam/>

특집 : 숨어있는 수원유적 재발견

수원 장시의 어제와 오늘

— 18세기 후반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수원 장시의 변화상 —

주 혁 (한양대학교 강사)

-
- | | |
|-----------------------------|---------------------|
| 머리말 | 2. 정조대의 '신읍치 상업진흥책' |
| 1. 18세기 후반, 19세기 수원 장시의 변화상 | 3. 근대의 길목에 선 수원 장시 |
| 1) 장시의 의미와 연구 성과 검토 | 맺음말 |
| 2) 수원 장시의 분화와 南門外場의 등장 | |
-

머리말

2010년의 수원시의 외양은 매머드급 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드는 110만의 인구, 사통팔달의 도로망, 서울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경기도에서 문화, 예술, 행정, 사회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곳이다.

여기에 조선후기 정조대에 건설되었고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이 웅장한 옛 모습으로 복원되어 현대적인 외양 속에서 전통문화와 역사적인 발자취 또한 간직한 곳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글은 2000년대의 수원시를 있게 한 조그만 역사적 실마리를 찾는데 있다. 그 중 19세기부터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전국 장시 중 대장(大場)으로 명성을 떨친 수원장의 어제와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음에 소개한 《사례1》은 시민들 모두가 익숙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시 연혁 중 일부이고, 《사례2》는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 소개된 수원시 관련 내용이다.

《사례1》

“수원은 상업이 활발해져 개성, 평양과 아울러 전국의 3대 시장 중의 하나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의 영동 시장 자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참으로 영동시장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지요. 수많은 상인이 찾아와서 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중심으로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대유둔·서유둔과 같은 국영 농장을 만들어 농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수원에 농촌진흥청과 같은 국가의 큰 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 때문입니다.”(수원시청 홈페이지)

《사례2》

“영동시장(榮洞市場)은 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1917년(1919년의 오류:필자)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수원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수원성곽의 남문인 팔달문 근처에 있다. 하루 유동인구는 2만여 명이다. 영동시장하면 한복을 떠올릴 정도로 한복·포복 품목이 특화된 시장으로, 300여 개 상점 중 100여 개가 한복집이며 그밖에 의류·잡화·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다. 한때 수원뿐 아니라 평택·화성·오산에서도 장을 보러 왔던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 시장이었다.”(네이버 백과사전)

이제 거시적으로는 수원시의 뿌리 찾기 일환으로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미시적으로는 현대화된 영동시장의 어제와 오늘을 대비함으로써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조그만 향토사적 기원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조선후기, 특히 정조의 화성 건설 이후에서 일제강점기 시기로 국한하고자 한다. 공간적인 영역은 현재의 수원시에 초점을 두되,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 시기의 원 ‘수원 지역’이 현재의 수원시와 행정구역 상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사적인 변천과정에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수원시는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큰 변화를 겪었고, 더욱이 해방에서 전쟁기를 거치면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 매우 빠른 속도로 현대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보이듯이 그 역사적 태줄은 조선 후기 화성 건설과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까지 이어진 전국적인 명성을 떨친 장시의 활성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18세기 후반, 19세기 수원 장시의 변화상

1) 장시의 의미와 연구성과 검토

장시(場市)란 한성, 개성, 평양 등의 주요 도회에 개설되었던 시전(市廛)처럼 상설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향촌에서 주로 5일마다 열렸던 유통기구를 일컫는다. 여기서 주로 살펴보려는 전근대 시기, 즉 조선시대의 장시 현황과 그 의미를 알아보려면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원이 적지 않다.¹⁾

여기서는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개괄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장시의 발달이 저조하였다. 그러다가 1470년경부터 장문(場門)이라는 이름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장시는 1730~1740년대에 전국적인 시장망을 형성하였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²⁾ 단계에서는 그 수가 1,062기에 이르게 되었다. 1770년부터 1911년까지 전국의 장시수는 1,000~1,100기의 수준을 유지하였고, 일제강점기부터 다시 증가하여 1941년 1,593기까지 늘었다.³⁾

주지하듯이 조선후기의 장시는 지방의 대표적인 상품유통 기관이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전국의 장시수는 1,000여기를 넘어서 대체로 두 시간이면 어디서든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시망이 발달해 있었다. 이러한 상품경제의 진전은 생산력 증대에 따

1)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1830년대) 등의 총서류와 『동여도지(東輿圖志)』(1834), 『여도비지(輿圖備志)』(1849~1864), 『대동지지(大東地志)』(1864) 등의 전국지리지, 그리고 『경기지(京畿誌)』(1834), 『경기읍지(京畿邑誌)』(1871) 등의 도별읍지, 군현별로 작성된 읍지류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할 자료원이다. 이외에 지도류에서도 장시 현황이 파악되는데, 전국적으로 제작된 『군현도(郡縣圖)』(1872)가 장시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 전통적인 장시의 장기적인 변동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장시체계에 일대 변환을 맞이하는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1909, 탁지부 사무국)는 당시 전국의 장시 현황을 보여준다.

2) 『동국문헌비고』(1770년)는 장시의 개설 상황이 전국적으로 파악되는 최초의 자료이다. 군현별로 장시명과 개시일이 기재되어 있다. 장시수를 도별로 살펴보면 경상, 전라, 충청, 평안, 경기, 황해, 강원, 함경도 순이었고, 이 양상은 일제강점기 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3) 이러한 증가추세는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도시지역부터 소멸하기 시작한 장시는 1970년대 이후 급감하는 추세이다.

른 잉여생산물의 창출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그동안 인구, 토지, 농업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장시의 존립에는 교역물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수송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장시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데 교통조건은 생산조건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망의 실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구성요소를 장시의 입지, 장시 밀도, 그리고 존속·소멸·이설·분설 등으로 설명되는 장시의 변동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⁴⁾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큰 규모의 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수원장의 명성과는 달리 수원 장시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성과는 매우 드물다. 이 분야에 대한 필자의 전문성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화성 건설 이후 19세기 전반기까지 수원 장시의 변화상을 다루고 있는 이정일의 논문⁵⁾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수원 장시의 일단을 알 수 있는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경기도 장시의 변화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이외에 원 수원군 지역에서 발간된 향토지에서도 수원 장시를 다루고 있다.⁷⁾ 이러한 연구성과도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19세기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고, 근현대의 경우 다루고 있는 내용이 소략하거나 연표식 서술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18세기 후반에서 근현대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수원 장시의 전체 변화상을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⁸⁾

2) 수원 장시의 분화와 南門外場의 등장

-
- 4) 김종혁,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논문, 2001.12, 143쪽.
 - 5) 이정일,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변화-인구와 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5. 이 논문은 수원의 인구변동과 장시의 변화상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실록을 포함한 관찬사료는 물론 지지와 읍지류 등의 지방사료도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자의 조선후기 수원 장시에 대한 언급은 이 논문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 6) 경기도 전체의 장시를 언급하면서 수원 장시의 변화상을 언급하고 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대길, 「조선 후기 경기도의 장시」, 『박영석 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상, 1992.
고동환, 「경기지역 장시망의 확대」, 『김용섭 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2, 지식산업사, 1997.
이현창, 「경기지역의 시장변동」,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수원시의 경우 1996년 개정, 발간된 『수원시사』상권(255~259쪽)에 장시를 다루고 있으나 매우 소략하다.
 - 8) 수원 장시의 태동에서 근현대 변화상에 대한 연구는 이제 스타트라인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글은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 취합한 연구노트 수준임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언급하려는 수원 장시의 개막은 문헌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수원 지역이 삼남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대로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어류와 소금이 풍부한 남양만과 동쪽으로는 안성 등 곡창지대와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면 일찍부터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⁹⁾

수원의 장시가 최초로 확인되는 자료는 1770년대인 『동국문헌비고』이다. 이 문헌에 읍내장(邑內場, 1·6일), 오산장(鰲山場, 3·8일), 팔탄장(八呑場, 5·10일), 석현장(石峴場, 2·7일), 안중장(安中場, 1·6일), 사슬곶장(沙瑟串場, 4·9일), 오타장(五朶場, 1·6일), 신기장(新機場, 4·9일) 등 8개의 장시가 소개되어 있다. 8개 장시 모두는 현 수원시가 아니라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등에 해당한다.

18세기 후반 경 현 수원시에 위치한 장시를 문헌상에 찾을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장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장시 설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18세기 초까지 장시가 기능면에서는 개별, 분산적으로 존재 하면서 고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수원 지역의 장시는 1790년대 신읍치 설치와 화성 건설에 따른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19세기 초 수원군과 인근 지역에 설치된 장시 현황과 19세기 전반에 걸쳐 수원 지역에 설치된 장시 현황을 표로 살펴본 것이다.

19세기 초 수원군과 인근 지역 장시 현황¹⁰⁾

| 방면 | 場市名 | 開市日 | 郡縣 | 거래액 | 현 위치 | 비고 |
|----------|---------|-----|--------|-----|-----------|--------|
| 수원 관내 | 府內場 北門外 | 2·7 | 수원 | | 수원시 장안문 밖 | |
| | 府內場 南門外 | 4·9 | 수원 | | 수원시 팔달문 밖 | 현 영동시장 |
| 진위 평택 | 烏山場 | 1·6 | 수원 | | 오산시 | |
| | (振威)新場 | 1·6 | 진위 一炭面 | | | |
| 남양 | (南陽)府內場 | 2·7 | 남양 | | | |
| | 新基場 | 4·9 | 남양 | | | |
| | 春橋場 | 1·6 | 남양 樅八面 | | | |

9) 강만길, 「조선후기 화성지방의 상업」, 『기전문화예술』제7호, 경기문화재단, 1999, 29쪽.

10) 『林園十六志』의 해당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 | | | | | | |
|----|---------|------|--------|--|--------|--|
| 과천 | 軍浦場 | 1·6 | 과천 下西面 | | | |
| | 安養場 | 3·8 | 과천 下西面 | | | |
| 용인 | (龍仁)縣內場 | 2·7 | | | | |
| | 金良場 | 5·10 | | | 용인시 | |
| | 道村場 | 1·6 | 용인 道村面 | | 縣南 50里 | |

1830년대~1860년대 수원 지역 장시 현황

| 1830년 | | 1831년 | | 1849~1864년 | | 1864년 | |
|-------|------|-------|-------|------------|-------|-------|-------|
| 장시명 | 개시일 | 장시명 | 개시일 | 장시명 | 개시일 | 장시명 | 개시일 |
| 北門外場 | 2, 7 | | | | | | |
| 南門外場 | 4, 9 | 南門外場 | 4, 9 | 南門外場 | 4, 9 | 南門外場 | 4, 9 |
| 烏山場 | 1, 6 | 烏梅場 | 3, 8 | 烏梅場 | 3, 8 | 烏山場 | 3, 8 |
| | | 細籃場 | 1, 6 | 細籃場 | 1, 6 | 細籃場 | 1, 6 |
| | | 八灘場 | 5, 10 | 八灘場 | 5, 10 | 八灘場 | 5, 10 |
| | | 石峴場 | 1, 6 | 石峴場 | 1, 6 | 石峴場 | 1, 6 |
| | | 安仲場 | 2, 7 | 安仲場 | 2, 7 | 安仲場 | 2, 7 |
| | | 沙士串場 | 4, 9 | 沙士串場 | 4, 9 | 沙士串場 | 4, 9 |

비고 : 1830년은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1831년은 『화성지(華城志)』, 1849~1864년은 『여도비지(輿圖備志)』, 1864년은 『대동지지(大東地志)』의 발간 추정 연도를 의미함. 대체로 발간 연도 전후 시기의 장시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동국문헌비고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신읍치에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이 신설되었고,¹¹⁾ 세람장이 신설되었으며 신기장과 오타장이 폐지 혹은 흡수된 사실이 나타난다.¹²⁾

특히 신읍치(현 수원시)에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이 개설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성 건설과 함께 설치된 행궁을 비롯한 각종 관아시설, 장용외용의 유치 등으로 호수 및 구수가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새롭게 거주하게 된 이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계층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에 의존하는 소비자층에 해당하였다. 두 개의 장

11) 북문외장의 위치는 장안구 북수동으로 추정되며, 남문외장은 현 영동시장의 전신에 해당한다. 따라서 팔달구의 영동 혹은 중동지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

12) 물론 이외에 각 장시의 개시일, 위치에 대한 지리 비정, 장시 명칭의 변화까지 검토, 분석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 수원시 지역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다.

시가 새롭게 설치된 사실은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문외장은 임원십육지 이외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1830년 이후 흡수 또는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19세기 수원 지역에 개설, 운영된 장시의 규모와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화성지의 재용조’에는 각 장시의 세금에 해당하는 장세액(場稅額) 현황을 밝히고 있는데, 남문외장과 오매장이 각각 309냥 6전, 석현장이 157냥 8전, 팔탄장이 111냥 9전, 사사곶장이 55냥 8전, 안중장이 53냥 4전, 세람장이 33냥이었다. 여기서 남문외장과 오매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세람장이 가장 영세했음을 알 수 있다. 거래 품목 현황으로는 ‘임원십육지 예규지(倪圭志)’를 통해 확인되는데, 수원 장시에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으로는 미곡, 면포, 채소와 과일, 해산물, 소금, 다시마, 담배, 송아지 등이다. 특히 활발했던 물품으로 미곡을 꼽을 수 있는데, 조선 후기 조세의 급남화 조치로 미곡의 상품화는 전국적인 추세였던 까닭에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추세였다. 어엽과 다시마는 인근 해안 지역인 남양으로부터 유입되어 많이 거래되었다.

무엇보다도 활발했던 것 중 하나가 소의 거래였다. 임원십육지에는 어린 송아지가 주거래 품목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외와 성내 시장을 합하여 1년에 거래되는 소가 2만여 마리가 넘을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하였다.¹³⁾ ‘쇠전’이라고 불리는 우시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무엇보다도 주목하고자 하는 장시는 남문외장의 개설, 운영과정, 그리고 이후의 변화상이다. 그 이유는 화성 건설 이후 들어선 새로운 장시라는 점, 개설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수원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 후기 현수원시에 건설된 유일한 장시라는 현재성 때문이다.

앞서 연구사 정리에서 언급한 이정일은 남문외장의 설치 의미와 그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소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문외장은 한양의 물품을 받아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인근의 물품을 받아 한양에 공급하는 한양과 수원 이남 상권의 중계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 연간 노량진에서 수원까지의 도로가 확장·정비되었고 그로 인해 수원은 전국적 물자 유통의 중심지였던 한양의 상권과 밀접히 연결되었다. 순조 초년 노량진

13) 강만길, 앞의 논문, 34쪽.

에서 사근평(肆觀坪:현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 부근)까지의 도로가 정조 때 보다 다시 몇 파(把) 이상 그 폭이 확장되었고 시흥의 도로도 과천과 광주의 도로에 비해 확장되고 개수되어 한양-수원 길은 19세기 이후 10대로에 포함되는 간선도로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한양-수원간 물자 유통의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정비된 도로를 통해 수원으로 유입된 물화는 남문외장을 통해 팔탄장, 석현장, 오산장 등에 공급되었고 이들 장사에서 주변 지역으로 공급되었다. ……이처럼 남문외장은 부내 민인들의 식량 및 생필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한양 상권과 연계되어 유입된 물화를 주변 장사에 공급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었다.”¹⁴⁾

남문외장의 급속한 성장 배경에는 신읍치 설치 이후 이 지역의 호구수 증가 추세에 힘입은 바 크다. 1789년 신읍치 설치 직후에는 400여 호에 불과했으나 화성 건설을 시작하면서 1,000여 호로, 다시 1830년 전후에는 1,300여 호가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물론 1780년대에서 1830년대까지 수원군 전체의 인구수가 5만 5,000명에서 5만 9,000여 명 내외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화성 건설 이후 성내의 호구수는 물론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⁵⁾

2. 정조대의 ‘신읍치 상업진흥책’

주지하듯이 전근대시기에 수원은 정조의 화성 건설을 통해 크게 주목받는 역사의 중심 무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비운의 왕이 된 부친 사도세자의 원침을 1789년(정조 13)에 현재의 자리인 화성시로 이전하고 ‘대역사(大役事)이자 신도시 성격’을 갖춘 화성을 건설하였다. 1794년 1월부터 1796년 9월까지 새로운 신도시에 행궁을 비롯한 화성을 축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화성 건설은 한마디로 조선조 18세기 당시의 정치·사회·과학·문화·경제의 모든 측면을 망라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읍치로의 이전, 그리고 화성 건설 과정 전후 시기에 새로운 공간에 건설할 콘텐츠 정립과 보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방향은 다음의 각종 상업진흥책에서 그 일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4) 이정일, 앞의 논문, 42~43쪽.

15) 이정일, 앞의 논문, 20~27쪽 참조.

먼저 구읍치에 대한 정비와 신읍치의 확충을 위한 각종 조치가 단행되었다. 구읍치에서는 토지와 가사(家舍)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신읍치는 신읍치대로 백성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신읍치에 이주한 주민들에게도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구읍에서 이사 온 민인 469호에게는 모 2석씩을 원래 거주민(63호), 천사협호민인(遷徙夾戶民人/16호), 타이래민(他移來民/141호)에게는 모 1석씩 등 도합 719호에 모 1,188석을 나누어 지급하였다.¹⁶⁾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790년(정조 14) 강화도의 쌀 560석을 수원부에 붙이도록 조치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 신읍치의 상업 발전을 위해서 균역청에 명하여 6만 5,000냥을 수원부에 특별 대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수원부사였던 조심태(趙心泰)의 상소에서 잘 드러난다.

“……본부는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요로이기는 하나 물산이 본디 적어서…… 반드시 본고장 백성들 중 살림밑천이 있고 장사물정을 아는 사람을 골라 읍 부근에 자리잡고 살게 하면서 그 형편에 따라 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될 것……어떤 관청을 막론하고 이자가 없는 돈 6만 냥을 떼어 내 고을 안에서 부자라고 이름난 사람 중에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 해마다 그 이익 나는 것을 거두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본전과 함께 거두어들인다면 백성들을 모집하고 산업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¹⁷⁾

특히 화성 건설의 주역인 좌의정 채제공은 수원의 발전 방안으로 장시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매우 구체적인 상업진흥책을 제시하고 있다.

“……길거리를 정연하고 뾰뾰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방(塵房)들을 따로 짓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가 없습니다. ……고을의 근방에다가 한 달에 시장을 여섯 번 세우고 한 푼이라도 절대 세를 거두지 말고 단지 서로 장사하는 것만을 허락한다면, 사방의 장사치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떼처럼 모여들어서 전주(全州)나 안성(安城) 못지않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¹⁸⁾

16) 『수원부지령등록』, 庚戌 7월 15일.

17) 『正祖實錄』 권30, 14년 5월 17일 丁酉.

18) 『正祖實錄』 권29, 14년 2월 19일 庚午.

이러한 의견 제시에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신료들은 수원의 신읍치를 진흥시키기 위해 부역과 조세의 감면, 도회지 사람들의 이주, 장사 이익의 바탕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신읍치의 또다른 기반시설로 저수지와 둔전(屯田)도 건설되었다. 1794년 겨울부터 북성 바깥의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1795년 3월에는 만석거 둑을 쌓기 시작하였다. 규모는 길이 875척, 너비 850척, 높이 12척 5치, 두께 10척 5치, 깊이 8척 7치, 수문 2곳, 몽리담 66섬지기에 해당하였다. 이 공사로 고등동 북쪽 들판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뒤이어 1798년에 용주사 앞에 만년제(萬年堤)를, 1799년에는 화성에서 제일 큰 규모의 축만제(祝萬堤), 즉 서호(西湖)가 들어섰다.¹⁹⁾

이외에 정조대의 상업진흥책이 구체화된 결과물로 다양한 시전이 설치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791년의 『신해년 읍지』에는 비단을 파는 입색전(立色廩), 생선 등의 어물을 파는 어물전(魚物廩), 백목·저포·목화를 파는 목포전(木布廩), 소금을 파는 염전(鹽廩), 미곡전(米穀廩), 유기 등을 파는 유철전(鋤鐵廩), 관곽을 파는 관곽전(棺槨廩), 종이·비단신 등을 파는 지혜전(紙鞋廩) 등이 설치되었다. 이들 시전은 정조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관문 북쪽, 남쪽, 관문 밖 대로 등 곳곳에 들어섰던 것이다.²⁰⁾

이렇듯 화성 건설을 시작으로 신읍치는 성곽을 포함한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속속 갖추게 되었다. 각종 상업진흥책이 도모되고, 조정의 감세 및 특혜 조치, 저수지와 둔전 등의 농업 기반시설과 도시자족시설 등이 그것이다.

정조대의 이러한 상업진흥책이 수원 장시의 활성화로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조대를 거치면서 작은 장시는 큰 장시로 흡수, 폐지되고, 개시일 조정, 그리고 남문외장의 설치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1830년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중요한 상품유통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장사에서 향후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장(大場)으로서의 웅비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19)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2008, 혜안, 212~216쪽 참조.
20) 이들 시전은 정조 사후 후원이 단절됨으로써 크게 발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1) 그 사이 수원군 전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상, 즉 일제의 식민지배정책, 자본주의의 파급 정도, 관내 지역경제의 변동사상, 지주제와 자소작 현황, 임노동자의 형성 과정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2) 화성군사편찬위원회, 『華城郡史』(上), 1990, 452쪽에서 재인용하였으나 원 자료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23) 수원시, 『수원시사』상권, 1996, 257쪽.

현 수원시에 해당하는 신읍치 지역은 정조가 품었던 정치적인 함의는 차치하고 상공업적 기능이 추가되어 경제적으로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했던 점은 분명하다. 특히 남문외장의 변성은 지역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점, 수원에 대한 정조의 각종 조치는 도시화로 이어졌고 이때 형성된 도시부는 현 수원시의 모태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근대의 길목에 선 수원 장시

19세기 후반 외세의 의한 개항과 20세기 전반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원 지역의 장시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²¹⁾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된 시점인 1910년대 초에 수원군 지역의 장시로 성내장, 성외장, 오산장, 발안장, 안중장, 신기장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²²⁾

이는 앞서 언급한 1860년대 수원 장시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전통적인 장시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성내장과 성외장으로 다시 분화되며, 신기장과 같이 사라졌던 장시명이 다시 등장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도 보인다.

수원시장은 1922년경 규모가 3,373평, 성외시장이 2,965평 규모였고, 시장내에 사무소 2동과 가옥, 축우계류항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시장 개시일은 10일 간격으로 성내시장이 음력 9월 19일, 29일 성외시장이 4일, 14일, 24일에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일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²³⁾

다음은 1920년대 초 성내와 성외 시장의 매매고를 중심으로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수원 성내·성외 시장의 매매고(1922년)

| 시장명 | 소재지 | 경영자 | 개시 회수 | 1년간 매매고(圓) | | | | | | 개시일 |
|--------|---------|-----|-------|------------|-----|-------|---------|--------|---------|-----|
| | | | | 농산물 | 수산물 | 직물 | 가족류 | 기타 | 합계 | |
| 수원성내시장 | 수원면 북수리 | 수원면 | 36 | 47,485 | 915 | 3,529 | 310,970 | 43,422 | 406,321 | 9일 |
| 수원성외시장 | 수원면 산루리 | 수원면 | 37 | 50,011 | 800 | 3,549 | 313,829 | 41,855 | 410,075 | 4일 |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의市場』, 1924. 『수원시사』 상권, 1996, 257쪽에서 재인용)

수원군의 주요 시장과 매매고(1923년)²⁴⁾

| 시장명 | 소재지 | 개시 회수 | 1년간 매매고(圓) | | | | | 개시일 |
|-------|-------------|----------|------------|-------|--------|---------|--------|-----|
| | | | 농산물 | 수산물 | 織物 | 畜類 | 기타 | |
| 水原城內市 | 수원군 수원면 北水里 | 37 | 39,410 | 530 | 5,050 | 373,500 | 46,380 | 9 |
| 水原城外市 | 수원군 수원면 山樓里 | 37 | 41,100 | 510 | 5,210 | 270,890 | 45,980 | 4 |
| 烏山市 | 수원군 城湖面 오산리 | 72 | 23,300 | 3,850 | 17,110 | 148,520 | 19,870 | 3·8 |

성내와 성외 시장 모두 시장에서 매매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역시 가축류이다. 1922년의 경우 전체 성내시장은 총 40만 6,321원의 매매고에서 가축류만 31만 970원으로 76.5%이고, 성외시장도 총 41만 75원 중 31만 3,829원으로 76.3%이다. 그리고 농산물이 각각 11.6%와 12.2%로 다음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직물류는 각각 3,529원(0.8%), 3,549원(0.9%)으로 총매매고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수공업의 유기적 연관은 무척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통장시의 거래량은 1917~1926년 구간에서 크게 성장했으며, 성장의 주동력은 역시 수원 성내외시장과 오산장이었다. 1926~1931년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수원 성내 및 성외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다.²⁵⁾

다음은 1920년대 중반 시기의 수원군과 인근 지역의 장시 현황을 살펴 본 것이다.

수원과 인근 지역의 장시 현황(1926년 현재)²⁶⁾

| 방면 | 場市名 | 開市日 | 행정구역 | 郡名 | 현 위치 | 비고 |
|-----------|-------|------|---------|----|------|----|
| 수원 | 水原城內市 | 9 | 수원시 北水里 | 수원 | | |
| | 水原城外市 | 4 | 수원시 山樓里 | 수원 | | |
| 진위· 평택 | 烏山市 | 3·8 | 城湖面 烏山里 | 수원 | | |
| | 西井里市 | 2·7 | 松炭面 西井里 | 진위 | | |
| | 平澤市 | 5·10 | 丙南面 平澤里 | 진위 | | |

24) 朝鮮總督府, 『市街地の商圏』, 1926, 422쪽.

25) 김인호, 「근대 수원 경제의 특징과 진로」, 『근대 수원의 도시 발달』, 제2회 수원학연구소 추계세미나, 2005 참조.

26) 善生永助, 『朝鮮の市場經濟』, 1929, 112~113쪽.

| | | | | | | |
|----|-------|------|-----------|----|--|--|
| 남양 | 南陽市 | 3·8 | 陰德面 南陽里 | 수원 | | |
| | 新基市 | 2·7 | 松山面 沙江里 | 수원 | | |
| | 發安市 | 5·10 | 鄉南面 發安里 | 수원 | | |
| | 安仲市 | 1·6 | 梧城面 安仲里 | 진위 | | |
| 서울 | 永登浦市場 | 3·8 | 永登浦面 永登浦里 | 시흥 | | |
| | 三巨里市 | 5·10 | 秀岩面 陵谷里 | 시흥 | | |
| | 軍浦市 | 2·7 | 南面 | 시흥 | | |
| | 安養市場 | 5·10 | 西二面 | 시흥 | | |
| 용인 | 金良市 | 5·10 | 水餘面 金良場里 | 용인 | | |
| | 白岩市 | 1·6 | 外西面 白岩里 | 용인 | | |
| | 豊徳川市 | 1·6 | 水枝面 豊徳川里 | 용인 | | |
| 안산 | 半月市 | 1·6 | 반월면 入谷里 | 수원 | | |

1926년 당시 성외시장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50만 3,422원으로 수원군 전체 연간 거래액 131만 7,225원 중 38%이며, 성내시장의 거래액은 40만 8,171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수원 성외, 성내 시장의 연간 거래량이 군 전체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수원군 장시의 행사인 수는 총 1,698명이었는데 그 중 530명(31%)이 성외시장에, 515명(30%)이 성내시장에 모였다. 다음으로 328명이 오산시장에, 120명이 발안시장에, 남양시장과 신기시장에 각각 90명, 반월시장에 25명의 순이다. 한편 취급 상품 별로 나누어보면 잡화(雜貨)를 취급하는 상인이 555명으로 전체 33%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직물(織物) 및 사류(絲類) 238명, 곡물 237명, 해산물 149명, 가축 70명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잡화나 기타 품목을 취급하는 행사인이 모두 1,004명으로 전체 상인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용품수품의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⁷⁾

일제의 식민통치 방향이 크게 바뀌는 1930년대 들어 수원 성내의 시장의 역할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였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말까지 경기도 남부의 대장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1938년 당시 현 행정구역 상 수원시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인 용인시, 안산시, 과천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 위치한 장시 17개 장시의 거래 규모를 비교해 보면, 특히 성내 시장의 경우 여타 시장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27) 朝鮮總督府, 『水原郡生活狀態調査』, 1929, 63쪽. (『수원시사』, 1986, 950~951쪽에서 재인용)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²⁸⁾

맺음말

수원의 변화상을 역사적 안목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조의 화성 건설로 신도시로서의 자족기반을 갖추게 된 사실에 먼저 눈길이 간다. 다시 말해 화성 건설과 이후 진행된 일련의 농업기반시설, 도시자족시설의 확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 근현대의 행정구역 개편과 공업화, 산업화 물결 속에서 100만이 넘는 매머드급 대도시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 노트는 18세기 후반에서 일제강점기 시기 수원 지역의 장시 변화상을 중심으로 수원의 역사적 맥줄을 이어보자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 건설과 함께 속속 들어 선 각종 기반 시설로 인구와 물산이 집중되었고 그에 따른 장시문화의 활성화, 즉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헌상으로 1770년대부터 수원 지역의 장시가 확인되지만 정조의 화성 건설 이후 수원 장시가 크게 성장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수원시에 위치했던 남문외장 혹은 성내외 시장은 19세기 어느 시점(?)부터 적어도 1930년대 후반까지 수원군 전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대장으로서 그 위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출 규모, 거래 품목, 상인 수 등 여러 측면에서 대규모 장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이 각종 수치로 증명된다.

28) 『朝鮮의市場』, 文定昌, 1941 참조. 이 자료에 적시된 수원군과 인근 지역 장시의 장시일, 위치, 거래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城內 : 4·9일, 수원군 수원읍 北水町, 1,323,355
- 城外 : 4·9일, 수원군 수원읍 北水町, 329,859
- 鳥山 : 7·8일(?), 수원군 城湖面 鳥山里, 913,400
- 西井里 : 1·6일, 평택군 송탄면 서정리, 118,000
- 平澤 : 5·10일,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746,620
- 發安 : 5·10일,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 290,178
- 安仲 : 2·7일,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115,420
- 三槐 : 4·9일, 수원군 운정면 朝岩里, 278,678
- 南陽 : 3·8일, 수원군 陰德面 南陽里, 294,786
- 新荃(?):2·7일, 수원군 송산면 沙江里, 249,170
- 安養 : 5·10일, 시흥군 西二面 安養里, 48,180
- 軍浦 : 2·7일, 시흥군 南面 堂里, 44,580
- 三巨里 : 5·10일, 시흥군 秀岩面 陵谷里, 4,500
- 영등포 : 매일, 경성부 永登浦町, 115,772
- 金良場 : 5·10일, 용인군 용인면 금량장리, 513,276
- 白岩 : 1·6일, 용인군 外西面 백암리, 302,737
- 半月 : 1·6일, 수원군 반월면 乾水里, 30,980

셋째,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1770년대 수원 장시의 개막에서 이후 19세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장시의 설치, 통폐합, 구역 및 개시일 조정 등 큰 변화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통치 방향이나 일제식민통치 방향 등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수원 지역 내부의 사회경제적 변화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원의 경제 지표는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수원 장시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설치, 분화되는 양상은 또 다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원 수원군 전체 장시(특히 남문 장시)의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변화상을 다루었지만 원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시론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수원 장시의 변화상은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미답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기존 연구에서 자료 부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만큼 향토사(지역사, 지방사)가 현실 속에 연착륙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민속학적 연구나 구술자료를 통해서 언급된 수원 사람의 상징적인 품성 혹은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구 내지 문구에 주목해보자. 이러한 경구의 출현이 모두 수원의 오래된 장시문화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외길을 걸어왔던 향토사와 구술사의 자료원에 '역사적 상상력'을 조금 보탠다면, 상업문화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고 그 속에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인성이 배태되었다고 수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 ‘수원 사람은 발가벗고도 80리를 땀다.’

: 이 말은 수원 사람들의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운 면모를 형상화한 문구라고 할 수 있다. 그 유래는 ‘옛날 서울로 공부하러 갔던 수원 사람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 옷도 입지 않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80리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²⁹⁾

▶ ‘수원 사람 앉은 자리에는 3년 풀이 안난다’

29) 신정일, 『다시쓰는 택리지』경기·충청편, 휴머니스트, 2004, 75~76쪽.

: 이 문구를 현실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아마도 깍쟁이처럼 절약하고 깔끔하게 사는 모습을 지칭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회자되는 ‘최영의 무덤에 풀이 나지 않았다’는 말을 떠올려보자. ‘지독하다’는 뜻이 강하다. 그러나 수원 사람들이 고집도 세고 지독해서 과연 이러한 말이 생겼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³⁰⁾

▶ ‘우리 쇠전(=우시장)이 수원 아래 몇 번째면 서럽다’

: 이 경구에서 수원 우시장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엿볼 수 있다. 장안문 위쪽인 영화동에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우시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 말의 행간의 의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시장의 규모를 수원에 빗대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만큼 수원 우시장이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³¹⁾

2010년 현재 수원 관내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수원갈비의 명성이 수원 우시장에서 직접 비롯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식객의 입맛을 고려한 상인의 장인정신과 옛 명예를 지켜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몸짓을 더한 합작품이 아닐까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참고문헌

강만길, 「조선후기 화성지방의 상업」, 『기전문화예술』제7호, 경기문화재단, 199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역사와 문화』

고동환, 「경기지역 장시망의 확대」, 『김용섭 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2, 지식산업사, 1997.

김대길, 「조선후기 경기도의 장시」, 『박영석 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상, 1992.

김인호, 「근대 수원 경제의 특징과 진로」, 『근대 수원의 도시 발달』, 제2회 수원학연구소 추계세미나, 2005.

김중혁,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논문, 2001.12.

수원시, 『수원시사』상권, 1996.

3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역사와 문화』, 461쪽.
 31) 주영하·전성현·강재석, 『사라져가는 우리의 오일장을 찾아서』경기도·강원도·인천·서울 편, 민속원, 2003, 62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신정일, 『다시쓰는 택리지』경기·충청편, 휴머니스트, 2004.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2008.

이정일,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변화—인구와 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5.

이현창, 『경기지역의 시장변동』,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주영하·전성현·강재석, 『사라져가는 우리의 오일장을 찾아서』경기도·강원도·인천·서울 편, 민속원, 2003.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수원부지령등록

『東國文獻備考』, 1770.

正祖實錄 권29, 30.

朝鮮總督府, 『市街地の商圈』, 1926.

善生永助, 『朝鮮の市場經濟』, 1929.

朝鮮總督府, 『水原郡生活狀態調査』, 1929.

文定昌, 『朝鮮の市場』, 1941.

일반논문

정조의 군제개혁과 관무재(觀武才)

김영호 (한국병학연구소 소장)

| | |
|------------------------|---------------|
| 머리말 | 3. 관무재의 실재 내용 |
| 1. 관무재의 역사 | 맺음말 |
| 2. 정조2년(1778)에 실시한 관무재 | |

머리말

1778년(무술)은 정조에게 특별한 해였다.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이 해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발걸음이 유난히 잦았다. 『친림각양일자(親臨各樣日字)』라는 사료를 보면 이 한 해 동안에 펼쳐진 정조의 행보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¹⁾ 1778년 정월 초3일에 장헌세자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경모궁(景慕宮)을 전배하고, 21일에는 경모궁에서 작헌례를 거행하였으며, 2월 7일에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방문해 친제를 지냈다. 이어 5월 16일에는 친히 경모궁 하향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윤6월 3일에 다시 경모궁을 찾아 전배하였다. 10월 18일에도 경모궁을 찾아 작헌례를 거행하고, 12월 22일에도 경모궁을 전배하였다. 정조는 1778년 한 해 동안에 무려 6번이나 아버지를 추모하는 행사를 벌였던 것이다.

한편 이 해에 정조는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2일에 노량사장에서 대

1) 『친림각양일자親臨各樣日字』戊戌年, v1 편자미상, 간행년도 미상(1775~1829년 사이로 추측).

열(大閱)을 행하였으며, 3일에는 모화관 세마대에서 진법을 펼치고 군사들을 위로하는 호궤(稿饋)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금군을 시켜 총용청과 수어청을 공격하게 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을 벌였다. 같은 달 17일에는 춘당대 관무재를 열었는데, 이때는 대거문신의 시험을 함께 보았다.

정조는 왜 1778년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처럼 자주 찾고,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였던 것일까? 정조가 재위한 24년을 살펴보아도 1778년만큼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자주 열거나 군사훈련에 집중했던 해를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정조는 이후에도 꾸준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군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했다.

1778년에 시행한 관무재를 통해 정조는 용정(戎政, 군제개혁)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조는 즉위 초에 오군영이 병조판서의 통일된 지휘를 받지 않고 군영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군사교육의 기초라 할 무예의 명칭과 자세, 동작조차 통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다. 정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무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관무재를 준비하는 기간에 군영 대장들을 불러 무예의 명칭을 통일하도록 지시했다. 훗날 정조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것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관무재를 통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목적도 달성시켰다. 첫째, 『무예도보통지』가 『무예신보』를 계승하는 무예서임을 분명히 밝혀 사도세자의 공적을 드러냈다. 둘째,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이장한 1789년, 정조는 장용영 초관 백동수를 시켜 군영마다 차이나는 자세와 동작을 통일하여 무예를 표준화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을 『무예도보통지』에 담도록 하였다. 정리하자면, 정조는 관무재를 통해 사도세자의 명예회복과 지휘체계의 확립, 군제개혁의 방향제시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778년 9월에 시행한 관무재를 통해 정조의 용정[군제개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관무재의 역사를 거칠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1778년에 시행된 관무재의 진행과정을 도표로 상세히 정리해 보았다. 덧붙여 『금위영등록』에 실려 있는 관무재 시험결과를 도표로 정리하여 이 시대에 어떤 무예가 얼마나 익혀졌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관무재의 역사

1) 관무재의 기원과 발전 – 조선전기

널리 알려진 대로 조선왕조는 문(文)을 숭상하는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경험한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면 기록의 보고라 불리는 『조선왕조실록』에서조차 무예와 직접 관련된 기록은 찾기가 쉽지 않다.²⁾ 그랬기 때문일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국방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으나, 끝내 외세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는 비극을 당하였다. 이런 까닭에 조선은 우리에게 문약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 현재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속에 다루는 것도 권력 암투, 왕비, 궁녀, 내관 등 여성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 문약하기만 했었다면 어떻게 5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을까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조선시대 관무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조선전기를 분석한 논문이 한편이 있을 뿐이다.³⁾ 관무재는 조선의 국왕들이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제도였지만, 학계의 관심이 아직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조선시대 후기에 국왕이 관무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정조의 군제개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창검무예의 보급과 군영개혁을 관무재와 연결하여 정리해 보았다.

조선전기 중양에서 시행한 군사훈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강무(講武)와 대열(大閱)이다. 강무는 왕이 친히 사냥을 하며 진법을 익히고 군사를 지휘하는 것인데 학문을 숭상한 세종도 강무에 매우 열성을 보였다.⁴⁾ 대열은 국왕의 친림 하에 서울과 지방의 군사를 모아 시행하는 대규모 진법훈련으로서, 일명 친열이라고도 하였다. 대열이 끝나면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는 절차가 뒤따랐는데, 이것이 바로 관무재의 기원이다.

관무재는 금군이나 시위군사들의 활쓰기를 왕이 친히 관람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연산군 대에 ‘관사(觀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데 학계에서는 이것을 관무재의 시초

2)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전쟁이 끝난 1598년까지는 무예에 관한 내용이 실록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3) 심승구, 2005, 『조선 전기 관무재 연구』 『향토서울』 65. 조선후기의 관무재를 다룬 논문은 현재 한 편도 없다.

4) 박현모, 2010, 『세종학원론』, 한국학중앙연구원.

로 보고 있다.⁵⁾ 이후 중종 때부터 관무재가 자주 실행되었는데 이것은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관무재 등장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조 | 정종 | 태종 | 세종 | 문종 | 단종 | 세조 | 예종 | 성종 | 연산군 | 중종 | 인종 | 명종 | 선조 | 광해군 | 인조 | 효종 | 현종 | 숙종 | 경종 | 영종 | 정종 | 순종 | 헌종 | 철종 | 고종 | 순종 |
| 횟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20 | 0 | 18 | 3 | 16 | 6 | 18 | 17 | 28 | 3 | 36 | 17 | 0 | 0 | 0 | 0 | 0 |

관무재란 용어는 중종 3년(1508)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당시 관무재에 명나라 사신을 초청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⁶⁾ 군사와 관련된 행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밀의 영역인데 외국 사신을 초청한 것은 뜻밖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중종 10년(1515)에는 한성 근교 살곶이에서 열무하고 관무재를 시행하였다.⁷⁾ 중종은 기사(騎射)할 때 한량을 막론하고 무사 1백 명을 뽑아 좌우에 각각 50명씩 나누어, 서로를 향해 달리며 활을 쏘도록 하였는데, 쏘아서 맞힌 점수를 따로 계산하지 말고 양편의 것을 합계하여 승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행된 관무재의 시험과목은 삼갑사(三甲射)와 삼갑창(三甲槍), 격구 같은 무예들이다. 이러한 종목은 모두 상대와 서로 겨루는 것이라 부상의 위험이 많아 논란이 많았다. 결국 후대로 가면서 이러한 과목은 차츰 사라지고 정확도와 숙련도 중심의 기예가 중심을 이루게 된다.

모화관에서 친열하고 난 다음 관무재를 하였던 전통이 중종대에 세워졌다.⁸⁾ 이러한 전통은 정조대까지 이어졌다. 또한 중종은 때때로 경복궁 경희루에 나아가 관무재를 하기도 했는데 세자를 불러 참관하도록 하였다.⁹⁾

명종도 경희루에서 무신들에게 활쏘기를 시험하였고, 모화관에서 열무하고 이어 관무재하는 전통을 따랐다.¹⁰⁾ 명종은 전선·관무재를 시험한 뒤에 동교에서 농사짓는 것을

5) 『연산군일기』 연산 10년(1504 갑자) 8월 29일(병술).
 6) 『중종실록』 중종 6권, 3년(1508 무진) 5월 5일(임인) 상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천사(天使) 이진을 만나고 관무재를 보였는데, 부사 진효도 나주에서 돌아와 참석하였다.
 7) 『중종실록』 중종 23권, 10년(1515 을해) 9월 16일(기해).
 8) 『중종실록』 중종 55권, 20년(1525 을유) 9월 4일(경신).
 9) 『중종실록』 중종 79권, 30년(1535 을미) 2월 26일(정사).
 10) 『명종실록』 명종 18권, 10년(1555 을묘) 2월 28일(계사).

보거나 칠덕정에서 관무재하고 화포를 쏘는 것을 참관하기도 하였다. 칠덕정은 넓은 모래사장 가운데에 평평한 구렁이 있는 곳인데 종종도 이곳에서 무재를 자주 시험했던 곳이었다.¹¹⁾ 선조도 반송에 나아가 진법을 익힌 뒤에 화포를 쏘고 관무재를 하였다.¹²⁾ 임진왜란 이후 관무재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

2) 관무재 내용의 변화 -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모화관이나 창덕궁 후원 서충대에서 주로 관무재를 열었다. 이러한 전통은 광해군부터 시작되었다. 광해군은 서충대에서 친림하여 관무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유생을 대상으로 시험하기 시작하였다.¹³⁾ 이때까지만 해도 관무재 응시 대상은 장관 장교들이고, 시예 과목도 기사(騎射)나 마상재, 격구 같은 마상기예가 중심이었다.¹⁴⁾

그런데 인조 대부터 관무재의 무예 종목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625년(인조3)에 시행한 관무재의 고시과목으로 철전·편전·기사·기추·삼갑사(三甲射)·편곤수·쌍검수·검수(劍手) 등의 기예가 등장하고 있다.¹⁵⁾ 마상기예 중심에서 보군들의 무예도 포함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관무재의 영역이 더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⁶⁾ 한편 인조 18년(1640)부터 관무재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6품으로 올려 변장을 제수하기 시작하였다.¹⁷⁾

관무재에 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다. 『승정원일기』는 왕이 친림한 자리에서 시행되는 관무재에 관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으로 광해군 이전의 기록은 모두 불에 타버려 남아 있지 않다.¹⁸⁾

효종은 북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군주였다. 그래서 무사와 무예에 관한

11) 『명종실록』 명종 29권, 18년(1563 계해) 9월 16일(신묘).

12) 『선조실록』 선조 18권, 17년(1584 갑신) 3월 20일(정유).

13) 『광해군일기』 광해 34권, 2년(1610 경술) 10월 15일(병술).

14) 『광해군일기』 광해 144권, 11년(1619 기미) 9월 19일(무술).

15) 『인조실록』 인조 9권, 3년(1625 을축) 4월 20일(정유).

16) 이전에는 군영의 장교급 이상이 관무재에 참여했으나 이때부터 훈련도감의 일반 병사들도 관무재에 참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7) 『인조실록』 인조 41권, 18년(1640 경진) 9월 16일(갑오).

18) 박홍갑 외, 2009, 『승정원일기-소통의 정치를 논하다』, 산치림, 20~26쪽.

관심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청의 감시와 위협 때문인지 무예와 관련된 특별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에는 효종을 도와 북벌을 추진했던 이완, 구인후, 유희연 같은 뛰어난 무장들이 활약하며 무풍을 일으키고 무예가 크게 발전하였다. 효종 때에는 춘당대 관무재를 시행할 때 문신 정시를 함께 보았다.¹⁹⁾ 이것이 효종 자신의 의지인지, 사림들의 요구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무겸전의 전통은 정조대까지 착실하게 이어져 갔다. 특히 효종은 춘당대 관무재의 입격자에게 자급을 더해 주거나 또는 곧장 과거의 2차 시험인 회시나 최종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直赴)’라는 특혜를 주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였다.²⁰⁾

현종은 우리에게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임금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 무예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군주였다. 현종은 관무재에서 군영 장관들을 대상으로 유업전·편전과 기추·편추 등의 기예를 시험 보는데, 훈련도감 초관이 말 달리는 솜씨가 익숙하지 못하고 허수아비도 맞추지 못하자, 당장 잡아들여 곤장을 치도록 할 만큼 군사 교육에 열성이었다.²¹⁾

숙종은 ‘환국(換局)’이라는 방식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다. 물론 환국은 군대를 장악한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숙종이 즉위하기 직전 청나라에서 삼번의 난이 일어나 조선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군비확장에 전력하던 1679년(숙종5년)에는 노량사장에서 대규모로 열무(閱武)를 실시하고, 관무재를 거행하였다.²²⁾ 창검무예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숙종은 훈련대장 유희연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체건을 왜관에 밀파하여 왜검술을 익혀 오도록 했으며,²³⁾ 1707년에는 기창 교전을 관무재 고시 과목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신하가 “무사들이 창을 쓰는 기술에 익숙하지도 못하여 창날에 다칠 수 있다”며 안전 대책을 건의하자, “창날을 빼고 끝에 천을 묶어 한 사람을 흰 옷을, 한 사람을 검은 옷을 입게 하여 말을 타고 교전한 뒤 흑백으로 승부를 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²⁴⁾ 이 무렵이면 관무재가 무사들에게 발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확실하게

19) 『효종실록』 효종 11권, 4년(1653 계사) 9월 17일(기유).

20) 『효종실록』 효종 20권, 9년(1658 무술) 4월 18일(갑신), 『현종실록』현종 16권, 10년(1669 기유) 3월 7일(경자).

21) 『현종실록』 현종 8권, 5년(1664 갑진) 4월 11일(계묘), 『숙종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3월 18일(병진).

22) 『숙종실록』 숙종 8권, 5년(1679 기미) 8월 25일(정해).

23) 『무예도보통지』, 『승정원일기』, 『숙종실록』, 『환국등록』 등에 기록이 흩어져 있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컨대 무사들이 관무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받은 속중은 눈이 어두워 사물을 볼 수 없는 병환 중에도 관무재를 열어 주었다.²⁵⁾

이처럼 관무재는 왕권 강화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경종이 재임한 기간은 4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역시 관무재를 열었다. 몸이 매우 허약했음에도 춘당대에서 무려 닷새 동안이나 관무재를 주관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이때 경종은 왕세제 연잉군 [영조]을 불러 곁에 앉아 참관하도록 하였다.²⁶⁾ 영조는 자신의 왕통을 부정하는 반란을 평정한 직후반군 진압에 참전한 무사들을 위로하는 관무재를 열었다. 이후 영조는 1734년(영조10)과 1744년(영조20)에도 관무재를 열었다. 이때 영의정이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어 있고 재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경비가 드는 행사를 강행하려고 하느냐”며 가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입을 막고 관무재를 강행했다.

“이번의 이 관무재는 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위문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가 겹쳐 있는 것이 금년 같은 해가 없는데 경과의 정시를 전례에 따라 초시로 실행한다면 어찌 기쁨을 기록하고 경사를 함께하는 뜻이 되겠는가? 관무재는 단지 첫날 친림하여 시장을 개설하고 겸하여 문신의 정시를 실행하게 하며, 시험을 마친 뒤에 경과는 초시를 제외하고 전시에 친림하여 관무재에서 직 부한 사람과 일체로 같이 전시에 붙이게 하면 경사를 함께 하여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뜻과 옛날의 규례를 따라 비용을 줄이는 방도 등 하나를 거행하여 세 가지를 함께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그리고 장교와 군병 가운데 무신년에 출정하여 정탐한 군공이 있는 자와 군공이 있는 무사는 모두 초시를 면제시켜 주었다.²⁷⁾ 이처럼 영조는 관무재를 통해 자신에게 충성한 군사들 모두에게 특혜를 주어 무사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려 하였던 것이다.

24) 『숙종실록』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 2월 13일(병신).

25) 『숙종실록』 숙종 64권, 45년(1719 기해) 8월 26일(병인).

26) 『경종실록』 경종 13권, 3년(1723 계묘) 9월 2일(무인).

27) 『영조실록』 영조 20년(1744 갑자) 3월 17일(을미).

2. 정조2년(1778)에 실시한 관무재

조선시대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는 관무재가 시행된 사실을 대략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승정원일기』에는 관무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앞으로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을 대본으로 삼아 1778년에 치러진 관무재의 운영과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정조의 명을 받은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가 1790년 4월에 장용영에서 펴낸 『무예도보통지』의 24기를 어떤 군영의 무사가 익혔으며,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많이 응시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²⁸⁾ 마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금위영등록』에는 1778년에 실시한 관무재 고시과목과 입상자, 성적, 부상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이 실려 있다.

1778년은 정조에게 어떠한 해였을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서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어렵사리 왕위에 올랐다. 즉위 초인 1777년 7월과 8월에는 자객들이 두 차례나 궁궐을 침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조는 이를 기회로 숙위소를 설치하고, 심복 홍국영에게 숙위대장을 맡겼다. 이처럼 1778년은 정조 스스로가 생명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위태로운 시기였다.²⁹⁾

숙위소는 정조 초기 권력의 심장부였다. 이러한 사실은 관무재를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료를 세밀히 살펴보면, 관무재를 시행할 때 숙위대장이 병조판서보다 먼저 활을 쏘도록 지시했을 만큼 정조가 홍국영에게 절대권한을 주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융정[군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관무재를 통해 펼쳐 보였다. 정조는 관무재를 열기 직전인 1778년 6월에 대고(大誥)를 선포하며 자신의 개혁 정책의 방향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하나가 융정(戎政)이다. 융정은 같은 해 총융청과 수어청을 통합하려 하는 강력한 의지로 그 일단이 표현되었다. 1778년 9월 2일 노량에서 대열을 한 뒤 이튿날인 3일 세마대에서 호궐을 베푼 뒤 금군을 시켜 총융청과 수어청을 공격하게 했

28) 정해은, 2006, 「18세기 무예 보급에 대한 새로운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제9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 논문은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24기가 조선후기에 군영에서 얼마나 익히고 시험을 보았는지에 대해 ‘어영청중순등록’을 꼼꼼하게 분석한 흥미로운 결과를 신고 있다.

29) 김준혁, 2007, 「정조초 정국동향과 친위군영 강화」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데 금군이 두 영을 격파하였다. 이때 정조는 두 군영의 지휘관인 중군을 불러 꾸짖는데, 이것은 두 군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정조는 장용청과 수어청의 무능함을 공개리에 알린 뒤 두 군영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785년 7월, 정조는 50명의 정예 병력을 선발하여 숙위를 전담하는 장용위를 설치하였다. 장용위는 단순히 숙위를 책임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난다. 장용위는 1787년에 장용청으로 확대되었고, 1788년에는 독립된 군영인 장용영으로 출범하였다. 1792년에는 서울에 장용영 내영을 두고, 수원에 외영을 두어 양영 체제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장용영은 창설한 지 5년도 채 안되어 오군영의 핵심이었던 훈련도감을 압도하는 최고의 군영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장용영에 소속된 상당수 군액은 오군영의 군액을 감축하여 옮긴 것이었다. 정조가 장용영의 창설과 운영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조는 군제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용영 창설과 더불어 무예, 진법의 정리와 이를 표준화한 병서를 편찬하였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782년에 금군의 교련서인 <예진총방>을, 1785년에는 『병학통(兵學通)』을, 1790년에는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여 전 군영에 반포하였다. 아울러 1792년에 『이충무공전서』와 『임충민공실기』, 『김덕령유사』 같은 무장들의 전기를 편찬하였다. 국왕이 직접 무장들의 전기를 편찬하도록 했던 일은 조선이 개국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조가 1794년부터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것 역시 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화성의 장용영 외영을 통해 농병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 하였다. 1798년에 장용영 외영의 제도를 국초의 병제인 오위제로 회복한 것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장용영을 통해 대유평과 서둔 같은 둔전을 개간하고 만석거, 축만제 같은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군사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군영의 운영 경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관무재를 적극 활용하였던 사실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78년에 관무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정립한 『무예신보』 18기의 명칭을 통일하였다. 둘째, 1789년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산 현릉원으로 이장한 뒤에 수고한 무사들을 대상으로 ‘영가 배종무사관무재’를 열었다. 셋째, 1778년 관무재에서 『무예신보』의 18기를 시험 보게 하여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룩한 공적을 널리 알렸다. 뿐만 아니라 18기를 1785년에 반포한 법전 『대전통편』 『병전』에 관무재의 정식 고시과목으로 삼았다.

3. 관무재의 실재 내용

지금부터는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금위영등록』을 바탕으로 관무재를 준비하는 8월 13일부터 정조가 관무재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는 9월 25일까지 날짜별로 정리한 도표를 통해 관무재의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표 2〉 1778년 관무재

| 일 자 논의장소 | 논의 대상 | 지시 / 논의내용 | 출전 |
|---------------|-----------------|--|-------|
| 8월 13일 성정각 | 좌승지 정민시 | 정조는 병조를 담당하는 행좌승지 정민시에게 숙종 임신년(1692) 7월 · 기미년(1679) 9월, 영조 을묘년(1735) 2월에 시행한 『대열일기(大閱日記)』를 살펴서 절차와 비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 승정원일기 |
| 8월 13일 성정각 | 호조 판서 구윤옥 | 정조 : “대열한 후에는 으레 관무재를 행하는데, 호조에 남아 있는 목면이 지출 비용으로 충분하겠는가?” 호판 : “현재 남아 있는 수량은 필요한 비용에 충분하겠지만, 올해 목면 농사가 흉작이므로, 현재 남아 있는 목면을 이번에 다 써버리면, 비용을 계속 지출할 방도가 없습니다.” 정조 : “기미년(1679) 대열 때 사상에 목면 700동(同)을 썼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 2~3백 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호판 : “사방(射放, 활과 조총)의 성격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으나 기예에 이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예를 겸하여 응시하기 때문에 많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정조 : “먼저 초시를 통해 선발한 뒤에 친림하여 무예를 시험하면 반드시 질서도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승정원일기 |
| 8월 14일 성정각 | 도승지 홍국영 | 정조 : “기묘년(1699) 관무재 때 상으로 지급한 무명이 700동이었는데 지금 그만큼 마련하기에 호조의 재정이 크게 부족하니 상으로 무명 2~3백동(同)이면 좋을 것 같다.” 홍국영 : “2~3동이면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400동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조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 승정원일기 |

| | | | |
|---------------|-----------|--|-------|
| 8월 16일 영화당 | | 영화당에 나아가 서종대에서 시사(試射)를 거행. | 정조실록 |
| 8월 24일 | | 전 훈련대장 장지항 등을 역모혐의로 국문함. | 정조실록 |
| 8월 29일 춘당대 | | 숙묘조[숙종]의 고사를 따라 춘당대에 나아가 대열의 연습을 친히 행함. | 정조실록 |
| 9월 1일 | | 숙위대장 홍국영을 중영대장으로 삼음. ³⁰⁾ | 정조실록 |
| 9월 2일 노량 | 병조 오군영 | 노량에서 대열. 병조판서와 중영대장이 지휘하고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 참여함. | 정조실록 |
| 9월 3일 세마대 | 오군영 | 세마대에서 오영의 장수와 군사들에게 호쾌함. 장신부터 군병에 이르기까지 각각 1상씩을 하사했는데 상마다 각각 다섯 그릇씩, 임금의 상부터 군병의 상에 놓인 음식이 똑같았음. 식사하는 동안 음악을 연주. 식사 후 모두가 일시에 일어났다가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만세를 부름. 각 군영의 군졸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우(旗羽)나 창자루를 잡고 춤을 추며 환호하는 소리가 산천을 진동시킴. | 정조실록 |
| 9월 4일 | | 대열 후의 관무재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니 병조판서가 품지하여 거행하라고 명함. | 승정원일기 |
| 9월 5일 | 승지 | 20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고, 열성조부터 대열(大閱) 후에 관무재를 설행하는 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규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시, 비용에 대해 상의함. | 승정원일기 |
| 9월 5일 | 병조 서유방 | 병조가 관상감 일관(日官)에게 길흉을 점쳐 관무재를 시행할 날짜를 보게 함. 9월9일 평길, 11일, 17일은 대길로 나왔음을 알리자, 관무재 초시를 이달 9일로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명함. | 승정원일기 |
| 9월 5일 | 금위영 | [금위영] 기사, 별무사, 별기위, 군병 등 각 기에 초시 규구단자 ○ 조총 3자루[柄] 1순(巡) 2중 ○ 유엽전 1순(巡) 5발[矢] 3중 ○ 편전 1순(巡) 3발[矢] 2중 - 용검 ○ 쌍검 상상 ○ 언월도 상상 ○ 제독검 상상 | 금위영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검 ○교전 상상 ○예도 상상 ○기창 상상 - 봉 - 협도 - 등패 - 량선 - 죽장창 - 당파 - 보편곤 - 권법 기병기에 ○기추 1차 2중 - 편추 차 중 ○마상언월도 상상 ○기창교전 3합(삼) 1차 상상 | | | | | | | | | | | | | | | | | |
| 9월 6일 | 병조 | 관무재 때에 <u>숙위소 소관의 별초</u> 이하는 모두 <u>초시의 응사</u> 를 면제하라고 명하고, <u>관무재의 각 기예 명색(名色)</u> 을 <u>병조</u> 와 <u>각 군문</u> 이 서로 의논하여 <u>바로잡도록</u> 함. | 승정원일기 | | | | | | | | | | | | | | | | |
| 9월 7일 | 병판 및 각 군영 대장 | <p>각 군영대장이 <u>군문의 기예 명칭을 통일함</u>.³¹⁾</p> <p>[단자(單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이전</td> <td style="padding: 2px;">검 劍</td> <td style="padding: 2px;">단창 短槍</td> <td style="padding: 2px;">낭선 狼筈</td> <td style="padding: 2px;">장창 長槍</td> <td style="padding: 2px;">협도곤 挾刀棍</td> <td style="padding: 2px;">편곤 便棍</td> <td style="padding: 2px;">모검 牟劍</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개정</td> <td style="padding: 2px;">용검 用劍</td> <td style="padding: 2px;">기창 旗槍</td> <td style="padding: 2px;">낭선 狼筈</td> <td style="padding: 2px;">죽장 竹長槍</td> <td style="padding: 2px;">협도 挾刀</td> <td style="padding: 2px;">보편곤 步鞭棍</td> <td style="padding: 2px;">교전 交戰</td> </tr> </table> | 이전 | 검 劍 | 단창 短槍 | 낭선 狼筈 | 장창 長槍 | 협도곤 挾刀棍 | 편곤 便棍 | 모검 牟劍 | 개정 | 용검 用劍 | 기창 旗槍 | 낭선 狼筈 | 죽장 竹長槍 | 협도 挾刀 | 보편곤 步鞭棍 | 교전 交戰 | 정조실록 금위영등록 |
| 이전 | 검 劍 | 단창 短槍 | 낭선 狼筈 | 장창 長槍 | 협도곤 挾刀棍 | 편곤 便棍 | 모검 牟劍 | | | | | | | | | | | | |
| 개정 | 용검 用劍 | 기창 旗槍 | 낭선 狼筈 | 죽장 竹長槍 | 협도 挾刀 | 보편곤 步鞭棍 | 교전 交戰 | | | | | | | | | | | | |
| 9월 7일 | 병조 | 어명대로 초시를 면제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시행하지 않았다고 병조판서를 추고하자 승정원에서 병조판서가 《속대전》에 실린 대로 하였기 때문에 감히 자의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미처 품재하지 못한 채 지레 써서 올렸던 것이라고 변호. ³²⁾ | 승정원일기 | | | | | | | | | | | | | | | | |
| 9월 7일 | 병조 | 병조가 관무재 때에 무신으로 가선대부 이상과 오위장과 호위 별장은 초시를 면제하고 전시에 응시하게 하는 《속대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번에는 어떡할 지를 물었을 때, 규례대로 할 것을 명함. | 승정원일기 | | | | | | | | | | | | | | | | |

| | | | |
|---------------|------------|---|-------|
| 9월 7일 | 병조 | 수어영과 총융영은 규례대로 초시를 시취하라고 명함. 병조에서 금군과 훈련도감 표하군의 초시를 훈련도감 북영에서 시험 보게 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음. | 승정원일기 |
| 9월 8일 | 병조 | 병조 : “친림 관무재 전시 길일을 일관에게 알아보게 했더니 9월15일 은보통[平吉]이고 17일은 아주 좋다[大吉]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정조 : “17일로 정하여 시행하라.” | 승정원일기 |
| 9월 8일 | 병조 | 정조 : “명관(命官)으로 행하는 전시를 11일부터 모화관에서 설행하되, 초시 2소가 만일 시험을 끝마치지 못한다면 2소를 옮겨 설행하라고 본조에서 초기하여 거행하라. 전시 때의 장전과 명관소(命官所)에서 응시자를 나누는 명색은 각 군문의 병조초시에 입격한 사람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다시 하교할 것이니, 그리 알게 하라.” | 승정원일기 |
| 9월 10일 | 각 군영 | 관무재에서 초시를 면제한 인원의 응사 순서를 숙위대장, 병조판서, 각영대장 순으로 보게 함. 가장 먼저 유엽전을 보고 편전 · 육량 · 기추 · 마상월도 · 편추 · 기창교전 · 조총 순으로 시험 보는 것을 숙위소와 병조에 규구단자로 써서 올리도록 지시. | 승정원일기 |
| 9월 11일 모화관 | | 관무재를 설행. | 정조실록 |
| 9월 14일 성정각 | 도승지 홍국영 | 정조가 이번 관무재에서 시상할 무명의 양이 매우 많을 것 같고 입격자의 수가 선명한데 배와 무명이 적어 걱정하자 홍국영도 처음에 1000여 동(同)이 있다고 했으나, 입격자의 수를 계산하고 들어 온 것을 조사해 보니 300동 뿐이라 크게 부족할 것이라 대답. | 승정원일기 |
| 9월 14일 | | 친림 관무재 시, 제 초시를 인원 응사 차례를 숙위대장, 병조판서, 각영 대장 순으로 응시하도록 명함. | 승정원일기 |
| 9월 16일 | 도승지 | 승지 : “친림하시는 관무재의 규구 단자를 낙점해 내린 뒤에 각 군문의 거안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조 : “오늘 마땅히 낙점해 내릴 것이다.” | 승정원일기 |
| 9월 16일 | 각 군문 | 관무재 때에 각 군문 종사관은 초시를 면제하고 응사하도록 함. ³³⁾ | 금위영등록 |

| | | | |
|---------------|----------|---|---------------|
| 9월 16일 성정각 | 각 군문 | “내일 관무재 때에 조총은 춘당대 위, 단풍정 모퉁이, 중일청 세 곳으로 나누어 시취하고, 과녁, 징, 북은 설치할 만한 지형을 살펴 미리 정돈하고, 감적 관원도 잘 헤아려 차출하여 균색하게 서두르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즉시 분부하라.” | 승정원일기 |
| 9월 16일 | 숙위소 | 내일 춘당대 관무재 전좌할 때 숙위소에서 관할하는 내외 입직군사들에게 궁성을 호위하도록 명을 내림 : 본소[숙위소]에 입직향군30명, 건양문에 입직향군30명, 금호문에 입직포수70명, 흥화문에 입직포수70명, 서영에 입직향군20명, 광지영에 입직포수25명, 집춘영에 입직포수25명, 동영에 입직향군60명을 제출하여 각기 장관이 영솔하여 청양문 북변과 단풍정 남변을 둘러싸고 호위하도록 함. | 승정원일기 |
| 9월 17일 춘당대 | | 문신 정시와 관무재 시행 문시관(文試官) 7인, 무시관(武試官) 7인 입시함. 시관이 응시자를 이끌고 와 예를 마치자, 응시자에게 활쓰기와 총쓰기를 하도록 명함. 중일청과 단풍정으로 나누어 자격시험을 [試放]하되, 춘당대에는 7개의 과녁을 세우고, 단풍정에는 5개의 과녁을 세우고, 중일청에는 6개의 과녁을 세움. | 승정원일기 |
| 9월 17일 춘당대 | 병방 승지 | 정조 : “오늘 활쓰기와 총쓰기에 반드시 부정행위가 많을 것이니, 여러 시관들은 각별히 신칙하라고 양소에 분부하라.” “동반과 서반의 시위가 일시에 모두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놀랍다. 병조 당상과 오위도총부 당상을 모두 파직하고, 서반의 종재(宗宰)를 엄하게 추고하라.” | 승정원일기 |
| 9월 17일 | 무소 시관 | 정조 : “권무군관의 시취를 25일로 물려 정하라.” 정조 : “세 곳으로 나누었으나, 하루 이틀 안에 시험을 마치는 어려울 것이다.” 시관 : “세 곳으로 나누었으니 내일쯤이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 : “해가 이미 저물어 가니 시관과 응시 군병은 물러갔다 내일 아침에 대령하라. 중일청 시소의 난후군 및 작대(作隊) 앞의 첩역군과 숙위소의 표하군은 조총을 시취하라.” | 승정원일기 |
| 9월 17일 춘당대 | | 관무재 전시와 대거(對擧)인 문신정시를 설행함. 문신 강제 황이 으뜸을 차지했는데 가자하게 하고, 오재소에게는 말을 하사함. |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

| | | | |
|-----------------------|-----------|--|--------------|
| <p>9월 18일 춘당대</p> | | <p>[무소시관] 영의정 김상철, 병조판서 이휘지, 도승지 홍국영, 부호군 이방일, 선전관 이유경 · 신대영 · 최병교 영의정이 내일까지 시험을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 하자 예조판서 김화진, 리조정랑 침풍지를 무소시관으로 추가 임명. 정조 : “어전 전배 · 훈련도감 난후군은 훈련대장이 인솔하여 시취하고, 어영청 난후군은 어영대장이 인솔하여 시취하도록 하라.” 국별장 · 각 군문 별장 · 천총 · 기사장 · 파총 · 초관이 중일청에서 편전을 시취함. 훈련대장 구선복, 도총경력 조승현 · 김노행, 어영대장 이국현, 도총도사 이은보, 훈련부정 홍지호를 시관으로 임명함.</p> | <p>승정원일기</p> |
| <p>9월 18일 춘당대</p> | <p>시관</p> | <p>관무재의 전시를 설행. 시관이 부족하여 시험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관을 더 차출하라는 분부를 내림. “6곳으로 나누어야 내일 안에 시험을 마칠 수 있겠으니, 시관을 6곳으로 분배하여 각별히 활쓰기와 총쓰기를 하라고 분부하라.” “내일은 시험을 마치고 나서 상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훈련도감의 난후군은 훈련대장이 통솔하여 시취하고, 어영청의 난후군은 어영대장이 통솔하여 시취하도록 지시함.</p> | <p>승정원일기</p> |
| <p>9월 18일 춘당대</p> | | <p>국별장, 각 군문의 별장 · 천총 · 기사장 · 파총 · 초관은 중일청에서 편전으로 시취. 훈련대장, 오위도총부 경력, 어영대장, 오위도총부 도사, 훈련원 부정을 시관으로 삼음.</p> | <p>승정원일기</p> |
| <p>9월 19일 춘당대</p> | | <p>관무재를 행함. 시관들이 입시험. 익선관에 곤룡포를 갖추고 여를 타고 협양문을 지나 춘당대로 나아가 어좌에 오름.</p> | <p>정조실록</p> |
| <p>9월 19일 춘당대</p> | <p>시상</p> | <p>4곳으로 나누어 상을 내림. “요연전에서 5발과 4발을 맞힌 자는 직부전시하되, 참하는 승륙(陞六)하고 참상은 가자하라. 관에 3발을 맞히고 변에서 5분(分)을 얻은 자와 관에 3발을 맞히고 변에서 4분을 얻은 자는 직부전시하되, 참하는 승륙하고 참상은 우직(右職)을 내리며, 직책이 없는 자는 변장을 제수하고, 가전과 가후는 변장을 제수하고, 각 군문의 초관은 상당직에 제수하라. 변에 3발을 맞힌 자는 직부회시하되, 출신 이상은 숙마(熟馬)를 사급하라. 관에 2발을 맞힌 자는 반숙마를 사급하고, 관</p> | <p>승정원일기</p> |

| | | | |
|--|-----------|---|--|
| | | <p>변(貫邊)의 변에 2발을 맞힌 자는 아매(兒馬)를 사급하라.”</p> <p>“편전에서 변에 3발을 맞힌 자와 관에 2발을 맞힌 자는 직부전시하되, 참상은 가지하고 참하는 승륙하라. 관변의 변에 2발을 맞힌 자는 직부회시하되, 참상은 우직을 내리고 참하는 승륙하라. 관에 1발을 맞힌 자는 궁시(弓矢)를 사급하고, 변에 1발을 맞힌 자는 상현궁을 사급하라.”</p> <p>“기초에서 5발을 맞힌 자와 4발을 맞힌 자는 직부전시하되, 참상은 가지하고 참하는 승륙하라. 3발을 맞힌 자는 직부전시하되, 출신은 속마를 사급하고, 당하는 가지하고, 당상은 전지를 받들어 우직에 천거하라. 2발을 맞힌 자는 반속마를 사급하고, 1발을 맞힌 자는 아매를 사급하라.”</p> <p>“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힌 자와 변에 2발을 맞힌 자는 직부전시하고, 변에 3발을 맞힌 자는 무명 6필을 내리고, 관에 2발을 맞힌 자는 무명 5필을 내리고, 관과 변에 각각 1발을 맞힌 자는 무명 4필을 내리고, 변에 2발을 맞힌 자는 무명 4필을 내리고, 관에 1발을 맞힌 자는 무명 3필을 내리고, 변에 1발을 맞힌 자는 무명 2필을 내리라.”</p> <p>“마상재 · 마상월도 · 기창교전은, 초등(超等)은 8필을, 상상(上上)은 5필을, 상중(上中)은 4필을, 상하(上下)는 3필을 내리라. 쌍마상재는, 초등은 8필을, 상상은 6필을, 상중은 4필을, 상하는 3필을 내리라. 보군의 각기(各技)는, 초등은 6필을, 상상은 4필을, 상중은 3필을, 상하는 2필을 내리라. 편추는, 육중(六中)은 4필을, 오중(五中)은 3필을 내리라. 청룡도는, 능용(能用)은 속마첩을 사급하고, 운용(運用)은 반속마첩을 사급하고, 능거(能擧)는 아매첩을 사급하고, 반거(半擧)는 상현궁을 사급하라.”</p> <p>“상격(賞格) 때에 호조의 무명 55동 20필, 병조의 무명 10동 14필과 베 1동, 어영청의 무명 10동 19필, 수어청의 무명 22필, 총융청의 무명 1동 29필, 군기시의 상현궁 166장 · 부장궁(不粧弓) 270장 · 장전 21부 · 편전 21부 · 통아 21개 · 전죽 19부, 사복시의 면급마(面給馬) 4필 · 마첩 473장을 가져다 사용하라.”</p> | |
| | <p>시상</p> | <p>시관 : “이번 관무재는 고르게 상을 받았고 특별히 중첩되게 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상격의 수효도 지나치게 많은 데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니다.”</p> <p>정조 : “정말 그렇다. 경들이 연일 수고하였다. 오늘 시험을 다 마쳤으니 물러가 쉬도록 하라.”</p> | |

| | | | |
|---------------|------------|--|-------|
| 9월 19일 | 대거 문신 정시 | 정조 : “관무재의 대거 문신 정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강세황을 가자하고, 지차(之次)인 부사직 이재소에게는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 |
| 9월 20일 | 숙위소 | 관무재에서 수고한 숙위소의 서리들에게 호조에서 시상하도록 지시. | 승정원일기 |
| 9월 21일 | | 경군문(京軍門)의 조련을 정지하게 함. 방금 대열(大閱)을 겪었고 또 한겨울을 만났기 때문임. | 정조실록 |
| 9월 24일 성정각 | 대사간 홍병찬 | 대사간 : “숙위에 난후군을 창설하여 둔 것은 뜻밖의 일에 대처하고 대비를 더욱 엄하게 하고자 함이니, 장신의 도리에 있어서 의당 항상 염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앞서서 품청하지 않았고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곧바로 거행하지 않았으니, 훈련대장과 어영대장을 모두 파직하소서.” 정조 : “일이 매우 놀라우나, 체직 또한 실효가 없으니 윤택하지 않겠다.” | 승정원일기 |
| 9월 24일 | 좌승지 | 춘당대 친림 권무군관 시취를 할 때의 절목은 이번 관무재 전시의 사례에 의거해 마련하기로 함. | 승정원일기 |
| 9월 25일 춘당대 | 도승지 | 권무시사를 행하면서 관무재에 대한 평가를 내림. 정조 : “관무재 때에 매번 난잡했는데, 이번 관무재 때는 난잡하지 않았는가?” 도승지 : “이번 관무재에는 난잡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 승정원일기 |

맺음말

국왕이 친립한 자리에서 대열 후 이루어지는 관무재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국왕은 이를 통해 군사들에게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직접 드러낼 수 있었다. 이처럼 관무재는 국왕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기

30)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금위영등록』 정조 2년(1778 무술) 9월 1일(정해).

31) 『정조실록』 정조 2년(1778 무술) 9월 7일(계사).

32)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무술) 9월 7일(계사).

33) 『금위영등록』 68, 무술 9월 16일 傳曰明日觀武才時各軍門從事官亦而除初試應射事分付.

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주 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관무재를 한 번 치르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으로 지출할 경비를 전대의 국왕들이 시행한 관무재의 관례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조는 병조를 담당하는 좌승지에게 『대열일기』를 살펴서 절차와 비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호조판서, 좌승지, 도승지와 관무재 비용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호조의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호조를 비롯한 병조와 군기시, 각 군영에서 각출하여 전체 비용을 준비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관무재의 초시와 전시를 언제 열 것인지 택일하는 것도 국왕의 몫이었다. 병조에서 관상감 일관에게 지시하여 길일을 두 가지 이상 올리면 국왕이 날짜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등수를 매기는 최종 시험인 전시를 보는 장소는 궁궐 안 후원인 춘당대였다. 이때 궁궐 호위는 숙위소가 담당하였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관무재를 실행하는 1778년 당시 숙위대장이자 도승지인 홍국영의 위상이다. 정조는 대열에서 숙위대장 홍국영을 병조판서와 함께 지휘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관무재를 시작할 때 홍국영이 병조판서보다 먼저 활을 쏘도록 지시하고 있다. 숙위대장이 병조판서보다 지휘체계에서 상위에 두었던 것이다. 덧붙여 훗날 『무예도보통지』 편찬에 적용이 되는 무예의 명칭 통일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해 전인 1777년에 궁궐에 자객이 침입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고, 관무재를 준비하는 중에 전 훈련대장 장지항의 역모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1778년의 정국 역시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러한 난국을 회피하지 않고 대열과 관무재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던 것이다.

정조는 관무재를 통해 1778년 대고에서 밝힌 융정[군제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재위기간 동안 아버지 사도세자의 추송작업을 벌려 나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정조대에 편찬한 다양한 병서와 법전도 관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금위영 고시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예명 | 조총 | 유업전 | 편전 | 응검 | 쌍검 | 연월도 | 제독검 | 본국검 | 교전 | 예도 | 기창 | 봉 | 협도 | 등패 | 낭선 | 죽장창 | 당파 | 보편곤 | 권법 | 기추 | 편추 | 마상연월도 | 기창교전 | 13기 |
| 입격점수 | 3명 1순 2중 | 1순 5시 2중 | 1순 3시 2중 | × | 상상 | 상상 | 상상 | × | 상상 | 상상 | 상상 | × | × | × | × | × | × | × | × | 1차 2중 | 1차 6중 | 상상 | 3합 1차 1상 | |

〈표 4〉 춘당대 친림관무재 금위영 제장교 사에 상격실수³⁴⁾

| 종목 | 응사應射 | 입격자 신상 | 성적 | 시상내용 |
|-----|---|--|---|--|
| 유업전 | 응사27원인 (員人) ³⁵⁾ 입격43원인 | 별장 김해주 교련관 장광욱 기패관 한득희 초관 한처 기사 전익현 등 6원 파총 오재중 등 10원 천총 김정우 등 3원 초관 임희춘 등 19원인 | 변4중 관중 변2중 관중 변2중 변3중 관중 변1중 변2중 관1중 변1중 | 가자 직부 직부 숙마필 각 아마첩 각 아마첩 각 상현궁 각 부장현궁 |
| 편전 | 응사24원인 입격11원인 | 초관 정안세 등 11원인 | 1中 | 각 상현궁 |
| 기추 | 응사20원인 입격21원인 | 별군관 서지민 김학성 등 5원인 초관 정안세 등 15원인 | 3중 2중 1중 | 직부 각 반숙마첩 각 아마첩 |
| 편전 | 응사24원인 입격11원인 | 초관 정안세 등 11원인 | 1중 | 각 상현궁 |

34) 『禁衛營抄謄錄』 v5 [當宁 : 정조] 戊戌9月17日.

35) 원인명(員人名) : 원(員)은 초관, 파총 등 장관급, 인(人)은 별무사, 교련관 등 장교급, 명(名)은 일반군병을 가리키는 용어.

| | | | | |
|------------|------------------|--|--|--------------------------|
| 기추 | 응사20원인 입격21원인 | 기사 오흥두 김학성 등 5원인 초관 정안세 등 15원인 | 5중 2중 1중 | 木3필 각 반숙마첩 각 아마첩 |
| 편추 | 응사53원인 입격1인 | 기사 오흥두 | 5중 | 木3필 |
| 마상 연월도 | 응사47원인 입격20원인 | 별무사 전세욱 초관 강수인 등 19원인 | 上中 上下 | 木4필 각 木3필 |
| 기창 교전 | 응사2인 입격4인 | 별무사 전세욱 기사 배찬유 등 3인 | 上中 上下 | 木4필 木3필 |
| 청룡도 능거인 | | 초관 이양겸 김중옥 별군관 구진 등 4원인 초관 한처중 등 | 초등(超等) 운용(運用) 능거(能擧) | 상당직제수 각 반숙마첩 각 아마첩 |
| 육량 [철전] | 응사4원인 | 초관 이양겸 기사 김중옥 | 1矢148보2矢151보 3矢147보 1矢158보2사151보 3矢147보 | |

〈표 5〉 춘당대 관무재 전시 금위영 각색 표하군 상격 실전단자(實殿單子)

| 종목 | 응사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군109명 | 4명 | 관변1중 | 각 木4필 |
| | | 9명 | 변2중 | 각 木4필 |
| | | 2명 | 관1중 | 각 木4필 |
| | | 38명 | 변1중 | 각 木2필 |
| | | 입격53명 | | 이상 賞木2동34필 ³⁶⁾ |
| 각기예 | 응사군363명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용검 | | 2명 | 上中 | 각 木3필 |
| | | 9명 | 上下 | 각 木2필 |
| 제독검 | | 8명 | 上中 | 각 木3필 |
| | | 57명 | 上下 | 각 木2필 |
| 본국검 | | 5명 | 上下 | 각 木3필 |
| | | 57명 | 上下 | 각 木2필 |

36) 동(同)은 무명[木] 50필(疋)을 나타내는 단위.

| | | | | |
|-----|--|-----------|----------|----------------|
| 쌍검 | | 1명 10명 | 上中 上下 | 木3필 각 木2필 |
| 언월도 | | 1명 13명 | 上中 上下 | 木3필 각 木2필 |
| 기창 | | 13명 | 上下 | 각 木2필 |
| 당파 | | 4명 23명 | 上中 上下 | 각 木3필 각 木2필 |
| 낭선 | | 1명 | 上下 | 木2필 |
| 보편곤 | | 5명 | 上下 | 각 木2필 |
| 교전 | | 1명 | 上下 | 木2필 |
| 예도 | | 1명 13명 | 上中 上下 | 木2필 各木2필 |
| | | 입격174명 | | 이상 賞木7동23필 |

〈표 6〉 춘당대 관무재 전시 금위영 각색 표하군 상격단지(單子)

| 겸내취兼內吹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수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30명 | | | |
| | | 1명 2명 2명 9명 | 변2중 관1중 변2중 변1중 | 木4필 각 木3필 각 木4필 각 木2필 |
| | | 입격13명 | | 이상 賞木32필 |
| 각기에 | 응시군70명 | | | |
| 제독검 | | 12명 | 上下 | 각 木2필 |
| 쌍검 | | 1명 | 上下 | 木2필 |
| 총도 | | 4명 | 上下 | 각 木2필 |
| 교전 | | 3명 | 上下 | 각 木2필 |
| 기창 | | 3명 | 上下 | 각 木2필 |
| | | 입격23명 | | 이상 賞木46필 |

〈표 7〉 춘당대 관무재 전시 금위營 각색 표하군 상격 실전단자

| 초요기수招搖旗手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10명 | 2명 1명 | 변2중 변중 | 각 木4필 木2필 |
| | | 입격3명 | | 이상 賞木10필 |
| 각기에 | 응시군29명 | | | |
| 제독검 | | 2명 | 上下 | 각 木2필 |
| 당파 | | 2명 | 上下 | 각 木2필 |
| 월도 | | 1명 | 上下 | 木2필 |
| 본국검 | | 1명 | 上下 | 木2필 |
| | | 입격6명 | | 이상 賞木12필 |

〈표 8〉 금위영 경(京)표하군

|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69명 | 2명 4명 1명 26명 | 관중변중 변2중 관1중 변1중 | 각 木4필 각 木4필 木3필 각 木2필 |
| | | 입격33명 | | 이상 賞木1동29필 |
| 각기에 | 응시군44명 | | | |
| 제독검 | | 1명 6명 | 上中 上下 | 木3필 각 木2필 |
| 쌍검 | | 3명 | 上下 | 각 木2필 |
| 언월도 | | 2명 | 上下 | 각 木2필 |
| 총도 | | 3명 | 上下 | 각 木2필 |
| 기창 | | 3명 | 上下 | 각 木2필 |
| 교전 | | 2명 | 上下 | 각 木2필 |
| | | 입격20명 | | 이상 賞木41필 |

〈표 9〉 출정미입속군(出征未入屬軍)

| | | | | |
|---------------|------|----------|-----------|---------------|
| 출정 미입속군 조총 | | | | |
| | 응방2명 | 1명 | 변1중 | 木2필 |
| | | 입격1명 | | |
| 금위영 향군 조총 | | | | |
| | 응방6명 | 1명 6명 | 관중 변1중 | 木3필 각 木3필 |
| | | 입격7명 | | 이상 賞木15필 |
| | | | | 합 賞木39동19필 |

〈표 10〉 춘당대 친림관무재 금위영 제(諸)장교 사예상격³⁷⁾

|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유엽전 | 응사27원인 | 별장 김해주 외 입격 42원인 | 변4중 변1중 | 가자 직부 숙마첩 아마첩 상현궁 각 불장현궁 |
| 편전 | 응사24원인 | 입격11원인 | | 각 상현궁 |
| 기추 | 응사20원인 | 입격21원인 별군관 서지민 | 3중 직부 | 불장현궁 각 아마첩 |
| 편추 | 응사53원인 | 입격1인 기사 최흥두 | 5중 | 木3필 |
| 마상언월도 | 응사47원인 | 입격20원인 별무사 김세욱 | 上中 | 木4필 |
| 기창교전 | 응사12인 | 입격4인 별무사 김세욱 | 上中 | 木4필 |
| 청룡도 | 능거인 | 초관2원 4원인 6원인 | 초등 운용 능거 | 상당직제수 각 반숙마첩 각 아마첩 |
| 육량 | 응사4원인 | 초관 이양겸 기사 김중욱 | 1矢148보2矢151 보3사147보 1矢158보2사150 보3사147보 | 가자 |

37) 『금위영등록』68, 戊戌9월19일, 『정조실록』정조 2년(1778 무술) 9월 19일(을사).

〈표 11〉 모화관 금위영 명관전시(慕華館 禁衛營 命官殿試)

| 종목 | 응시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유업전 응사 | 기사 조진원 | 관중변1중 | 상당직제수 |
| | 민덕상 | 변2중 | 아마첩 |
| | 이만주 | 변1중 | 불장궁 |
| 기추 응사 | 기사 성문봉 박춘근 | 2중 | 각 반속마첩 |
| | 이봉채 김몽석 | 1중 | 각 아마첩 |

〈표 12〉 춘당대 관무재 전시 금위영 각색표하군

| 창검군 종목 | 응방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 응방군84명 | | | |
| 조총 | | 1명 | 변3중 관중변1중 변2중 / 관1중변1중 | 賞木 6필 |
| | | 2명 | | 賞木 各 4필 |
| | | 3명 / 5명 | | 賞木 各 3필 |
| | | 35명 | | 賞木 各 2필 |
| | | 입격46명 | | 이상 賞木 2동11필 |
| 각기예 | 응시군184명 | | | |
| 용검 | | 8명 | 上下 | 賞木 各 2필 |
| 제독검 | | 5명 | 上中 | 賞木 各 3필 |
| | | 37명 | 上下 | 賞木 各 2필 |
| 본국검 | | 6명 | 上下 | 賞木 各 2필 |
| 쌍검 | | 2명 | 上下 | 賞木 各 2필 |
| 언월도 | | 3명 | 上下 | 賞木 各 2필 |
| 협도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당파 | | 3명 | 上下 | 賞木 各 2필 |
| 죽장창 | | 4명 | 上下 | 賞木 2필 |
| 보편근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권법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예도 | | 4명 | 上下 | 賞木 各 2필 |
| | | 입격75명 | | 이상 賞木 3동6필 |

〈표 13〉 춘당대관무재 전시 금위영 각색표하군 상격별단

| 표하군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109명 | 4명 | 관1중변1중 | 賞木 각4필 |
| | | 9명 | 변2중 | 賞木 각4필 |
| | | 2명 | 관1중 | 賞木 각3필 |
| | | 38명 | 변1중 | 賞木 각2필 |
| | | 입격53명 | | 이상 賞木2동34필 |
| 각기예 | 응시군363명 | | | |
| 용검 | | 2명 | 上中 | 賞木 각3필 |
| | | 9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제독검 | | 8명 | 上中 | 賞木 각3필 |
| | | 57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본국검 | | 5명 | 上中 | 賞木 각3필 |
| | | 5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쌍검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10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언월도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13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기창 | | 13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당파 | | 4명 | 上中 | 賞木 각3필 |
| | | 23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죽장창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2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낭선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보편곤 | | 5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교전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예도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13명 | 上下 | 賞木 각2필 |
| | | 입격174명 | | 이상 賞木7동23필 |

〈표 14-1〉 겸내취(兼内吹)

|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겸내취 조총 | 응방30명 | 1명 | 변2중 | 賞木 4필 |
| | | 2명 | 관1중 | 賞木 各3필 |
| | | 1명 | 변2중 | 賞木 4필 |
| | | 9명 | 변1중 | 賞木 各2필 |
| | | 입격13명 | | 이상 賞木 32필 |
| 각기예 | 응시군70명 | | | |
| 제독검 | | 12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쌍검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예도 | | 4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교전 | | 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기창 | | 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 | 입격23명 | | 이상 賞木46필 |

| 표하군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109명 | 4명 | 관중변1중 | 賞木 各4필 |
| | | 9명 | 변2중 | 賞木 各4필 |
| | | 2명 | 관1중 | 賞木 各3필 |
| | | 38명 | 변1중 | 賞木 各2필 |
| | | 입격53명 | | 이상 賞木2동34필 |
| 각기예 | 응시군363명 | | | |
| 용검 | | 2명 | 上中 | 賞木 各3필 |
| | | 9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제독검 | | 8명 | 上中 | 賞木 各3필 |
| | | 57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본국검 | | 5명 | 上中 | 賞木 各3필 |
| | | 5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쌍검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10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언월도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1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 | | | |
|-----|--|--------|----|---------------|
| 기창 | | 1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당파 | | 4명 | 上中 | 賞木 各3필 |
| | | 2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죽장창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2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낭선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보편곤 | | 5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교전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예도 | | 1명 | 上中 | 賞木 3필 |
| | | 1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 | 입격174명 | | 이상 賞木7동23필 |

〈표 14-2〉 초요기수(招搖旗手)

| 초요기수 조종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 응방10명 | 2명 1명 | 변2중 변1중 | 賞木 各4필 賞木 2필 |
| | | 입격3명 | | 이상 賞木 10필 |
| 각기예 | 응시군29명 | | | |
| 제독검 | | 2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당파 | | 2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월도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본국검 | | 1명 | 上下 | 賞木 2필 |
| | | 입격6명 | | 이상 賞木 12필 |

〈표 14-3〉 경(京)표하군

| 경표하군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종 | 응방69명 | | | |
| | | 2명 4명 / 1명 26명 | 관1중변1중 변2중 / 관1중 변1중 | 賞木 各4필 賞木 3필 賞木 各2필 |

| | | | | |
|-----|--------|----------|----------|-----------------|
| | | 입격33명 | | 이상 賞木1동29필 |
| 각기예 | 응시군44명 | | | |
| 제독검 | | 1명 6명 | 上中 上下 | 賞木 3필 賞木 各2필 |
| 쌍검 | | 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언월도 | | 2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예도 | | 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기창 | | 3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교전 | | 2명 | 上下 | 賞木 各2필 |
| | | 입격20명 | | 이상 賞木41필 |

〈표 15〉 출정(出征) 미입속군 조총

|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2명 | | | |
| | | 1명 | 변1중 | 賞木 2필 |
| | | 입격1명 | | |

〈표 16〉 금위영 향군

| 종목 | 응시자 | 입격자 | 성적 | 시상내용 |
|-----|---------------|----------|------------|-----------------|
| 조총 | 응방6명 | | | |
| | | 1명 6명 | 관1중 변1중 | 賞木 3필 賞木 各2필 |
| | | 입격7명 | | 이상 賞木15필 |
| | 수량 | | | |
| 조총상 | 木13동44필 | | | |
| 기예상 | 기예 木21동25필 | | | |
| | *50필=1동(同) | | | 합 賞木 39동19필 |

일반논문

수원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¹⁾

손 호 기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 연구원)

김 은 자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 | |
|-----------------------|---------------------|
| 머리말 | 1) 문화경관과 관광개발 |
| 1. 수원시 여건 및 역사문화자원 현황 | 2) 문화지구 |
| 1) 수원시 여건 | 3. 수원시 문화지구 조성방안 제시 |
| 2) 수원시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 맺음말 |
| 2. 연구사 | |

머리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적, 사회적 축적의 결과물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순환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역성을 강화하고 경제적측면의 우위성을 강조하던 산업에서 국민문화 향수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문화 복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되면서 각각의 지역들은 지역 간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생산성을 위한 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생산에서 문화생산으로 전환하고

1) 본 연구는 2010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후 연수과정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문화란 지역이미지를 고급화시키고 사람들을 단시간에 끌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이며, 속성상 산업, 교육, 관광, 체육 등의 기능과 결합하기 쉬우며 이는 시설의 복합화로 이어져 문화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데 문화적 공간의 개념은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문화도시로 탄생된다(삼성경제연구소, 「문화자원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4쪽, 2004).

있는 실정이다³⁾.

이러한 과제로 인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혹은 지역이벤트 개최, 지역문화의 특성을 보존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지구 지정 등 매우 다양하게 문화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은 지역 축제 개최로 개최시기의 중복, 단발적인 보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자원의 특성을 보존하고, 이를 특성화시켜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비시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전략 사례가 문화지구 조성이다⁴⁾. 우리나라 문화지구조성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문화의 거리’ 사업이 실시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새정부의 100대 정책사업과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1998)」에 문화지구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문화지구 조성전략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종합적인 지역 만들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화 친화적 도시개발 수단이라 볼 수 있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형태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원의 구도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수원화성 내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지구 제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원시 여건 및 역사문화자원 현황

수원시의 도심부 이동에 따른 공간구조 해석⁶⁾에 따르면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폐쇄적 구조를 지닌 채 성장·발달한 수원시는 도시공간의 확장에 따라 화성내부로부터 외부로, 수원역지역으로 분리·이동하고 동수원 지역(영통지구)으로의 도심이동 현상이 수원성 지역의 공간 구조적 침체현상과 맞물려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원시가 근대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성장과 변화를 겪기 시작하면서 수원역으로의

3) 강성원, 「문화지구 지정효과 분석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쪽, 2006.

4) 임서희, 「문화지구의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쪽, 2008.

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1-2쪽, 1999.

6) 신행우,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66쪽, 2002.

선적인 확장, 동수원 지역으로의 면적인 확산과 고밀개발 등에 의해 성장하게 됨에 따라 반대로 구도심은 점차 쇠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원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공간구조가 변화·발전한 반면, 폐쇄구조로 되어 있는 수원성지역의 내부 공간구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수원성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접근로와 주변공간은 인지도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문화 경관, 문화 인프라,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등 문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문화지구를 조성하고자 한다.

1) 수원시 여건⁷⁾

(1)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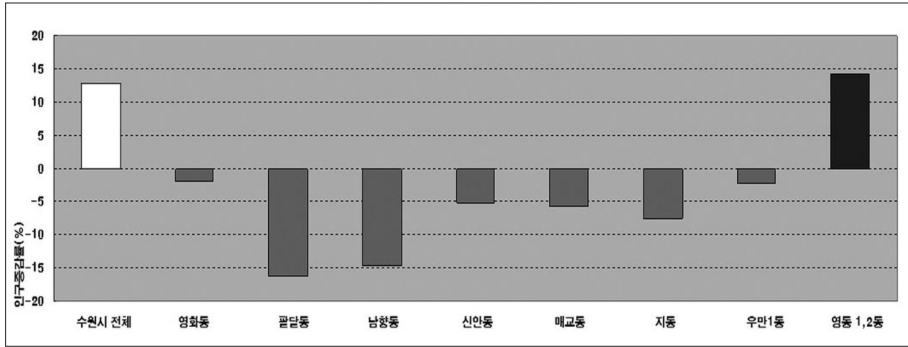
택지공급이 인구이동의 중요한 인자역할을 하면서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구증가율 11.1%)을 보이다가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의 활성화 영향으로 199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율이 둔화현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원동, 구운동, 매탄동, 영통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말 인구기준으로 406,565세대 1,098,364명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고, 면적 121,103km² 인구밀도 9,014인/km²로, 주변 도시 성남 6,763인/km², 화성 685인/km², 용인시 1,406인/km² 등과 비교할 때 수원시의 전체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고밀화 도심지인 반면, 대지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평균 이하로서 건축 규제에 따른 저밀도의 주거와 팔달로 주변 상업지역의 야간 공동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구조적으로 볼 때 35~44세 인구가 전체의 19.8%로 가장 많으며, 노령화 인구인 65세 이상이 1999년 4.1%, 2004년 5.2%, 2009년 6.7%로 나타남으로 점차 선진국형 인구구조의 모습을 형성하면서 수원시가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원화성 내 인구는 2000년도 대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1. 참조)⁸⁾

7) 수원시, 「2010 수원 시정백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을 참조하여 작성함.

8) 수원시, 「역사문화도시 최종보고서」참조, 2007.

〈그림 1〉 2000년대비 2005년 인구증감율



(2) 토지이용계획 현황

수원시의 총면적은 121,01km²로 토지이용 지목별 분포사항을 보면 임야가 30,355km² (25.1%)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지가 26,206km²(21.61%), 전·답 등 농지가 27,556km²(22.8%), 그리고 기타 36,936km²(30.5%)을 제외한 도로, 학교용지, 공장용지, 하천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수원에는 큰 강이 없고 대부분이 광고산 줄기에서 발원한 작은 하천이 여러 줄기로 흐르고 있는데, 호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수원천은 원천천과 서호천이 합류된 호목천과 대항교 어간에서 만나 황구지천으로 흘러 들어가며, 황구지천은 다시 흘러 안성천에서 합류되어 아산호에 유입한다. 수원에는 광고산을 비롯하여 광고산맥 각처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하광고소류지, 광고저수지, 원천저수지, 일월저수지 등 수원시 일원에 여러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광고저수지가 수원천의 원천이다.

도시계획법제상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정이다. 2010년 수원도시계획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르면 녹지지역이 전체 계획구역 면적의 약 57.1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시가화 구역면적은 주거지역이 41.925km² (34.62%), 상업지역 5.470km²(4.52%), 공업지역 4.063km²(3.36%)로 구성되어 있다.

용도지구⁹⁾현황은 11.62km²가 지정되어 있으며, 수원에서 용도지구제가 도입된 것은 1944년 결정된 수원시가지계획에서의 풍치지구(風致地區)가 최초였다. 당시 풍치지구

의 지정목적은 우량한 임야의 훼손방지와 풍치의 보존에 있었다. 광복이후 도시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수원시도 점차 체계적인 용도지구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원시는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2003년 6월 17일 목표 2006년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1종, 2종, 3종, 4종, 5종)를 일반 미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조정하였다. 또한 역사경관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신설하고 개발 완료된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는 등 용도지구를 재정비하였다. 2020년 수원기본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르면 성균관대 일원 등에 기존 방화지구를 확장, 신설하고 폭 25m 이상의 도로에 일반 미관지구를 신설 및 정비할 계획이다.

〈표 1〉 용도지구 현황(2008. 5월 기준)

| 구분 | | 개소 | 면적(㎡) | 비고 |
|--------|----------|-----|------------|------------------------|
| 합계 | | 129 | 13,893,001 |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1 | 33,360 | |
| 미관지구 | 소계 | 71 | 4,886,463 | |
| | 중심지미관지구 | 1 | 27,170 | • 연장:1,811m, 폭원:15~50m |
| | 역사문화미관지구 | 1 | 416,580 | |
| | 일반미관지구 | 69 | 4,442,713 | • 연장:180,104m, 폭원:15m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19 | 2,379,190 | |
| 방화지구 | - | 19 | 4,346,625 |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2 | 76,250 |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3 | 1,806,121 |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14 | 64,992 | |

수원화성의 토지이용 현황은 주거지역 1,194,500㎡, 상업지역 85,300㎡, 팔달산공원 522,280㎡, 동공원 142,520㎡, 기타 하천, 도로 등 50,400㎡로 일반주거 및 일반상업이 주거·상업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화성을 건립할 당시인 정조 때에 인공적

9)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으로 산림을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때 식재된 수목은 단풍나무, 소나무, 탕자나무, 뽕나무와 밤나무, 자두, 복숭아, 살구 등을 파종으로 조립한 것으로 보아 기록상으로는 군사방어와 심리적인 목적 모두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오늘날 녹지 및 식생은 빈약한 편으로 화성 내 녹지체계 조성에도 옛 문헌을 참조하여 복원·보존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표 2〉 수원화성 토지이용 현황

| 구분 | 계 | 일반거주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원 | 기타 |
|---------------------|--------|--------|--------|-------|-----|
| 면적(m ²) | 20,050 | 12,045 | 853 | 6,648 | 504 |
| 구성비(%) | 100.0 | 60.0 | 4.3 | 33.2 | 2.5 |

(3) 공공시설 현황

수원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32m²로 법적으로 명시된 3m²에 상회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9개소, 박물관2개소, 영화관 9개소, 자동차극장 2개소, 전통시장 20개소 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2006년 말 총 23개소로 아동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여성복지시설 2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용인시(24개소)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공연시설은 영화상영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시시설의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원화성 구도심의 경우 화성을 중심으로 도서관, 시민회관, 문화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화성박물관 조성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3〉 공공시설 현황

| 계 | 공연시설 | | 전시시설 | | | 도서 시설 | 지역문화 복지시설 | | 문화보급 전수시설 | | 공원 시설 | |
|-----|------|-----------|------|-----|----|----------|--------------|-----------|--------------|----------|----------|-----|
| | 공연장 | 영화 상영관 | 박물관 | 미술관 | 화랑 | 도서관 | 시민 회관 | 청소년 회관 | 문화원 | 전수 회관 | 공원 | 유원지 |
| 425 | 10 | 49 | 2 | 1 | 6 | 9 | 2 | 1 | 1 | 1 | 342 | 1 |

자료 : 수원시 통계자료(홈페이지 참조)



원천 유원지



수원화성 박물관



장안 공원

2) 수원시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수원시의 창성사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는 보물 제14조로 창성사에서 입적한 진각국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우왕 11년(1385)에 만들어졌으며, 원래 광고산 기슭의 창성사 폐사지에 있던 것을 1965년도에 현재 이곳 매향동으로 이전하고 보호각을 설치하였다. 비(총 높이215cm)의 형태는 장방형 대석 위에 비신(높이150cm, 폭83cm, 두께13cm)을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을 얹어 고려 말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팔달문은 1796년 축성된 화성의 4대문 가운데 남문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하부에 육축을 쌓아 가운데에 홍예문을 설치하고 상부에 중층 누각을 올렸으며, 이 앞으로 반원형의 옹성을 돌렸다. 옹성의 홍예문 상부에는 방화시설인 오성지를 만들어 적의 화공시 물을 이용해 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으로, 화서문, 박유명초상화, 영조어필 등 보물(6점)과 화성, 화령전, 화성행궁은 사적(3점)으로, 수원광주이씨 월곡택은 중요민속자료 1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도당국과 석장은 중요무형문화재(2점)로 지정되어 있다.

수원시내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12개소이며, 도지정문화재는 22점, 향토유적은 23개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에서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화성은 '97. 12. 4. 이태리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경주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판전, 종묘, 창덕궁에 이어 우리나라 5번째(세계적으로 380번째)로 등록되었다. 수원화성은 성곽의 축조에 석재와 벽돌을 병용한 것, 화살과 창검을 방어하는 구조와 총포를 방어하는 근대적 성곽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용재를 규격화하여 거중기 등의 기계장치를 활용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 성곽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현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청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 전 화성의 골격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화성 내에는 성곽시설물 이외에도 행궁, 고가, 사찰 등 31개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¹⁰⁾.

〈표 4〉 수원시 문화재 현황

| 총계 | 구분 | 국가지정문화재 | | | | 도지정문화재 | | | 수원시 향토유적 |
|----|----|---------|----|---------|----------|----------|------|---------|----------|
| | 종별 | 보물 | 사적 | 중요민속 자료 | 중요무형 문화재 | 도유무형 문화재 | 도기념물 | 도문화재 자료 | |
| 57 | 갯수 | 6 | 3 | 1 | 2 | 8 | 7 | 7 | 23 |

자료 : 수원시 통계자료(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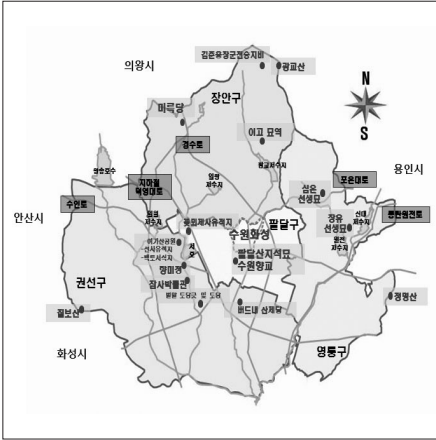
〈표 5〉 화성내 시설물 현황

| 구분 | 종류 | 구분 | 종류 |
|----|--------------------------|--------|----------------------------|
| 성문 |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 | 공심돈 | 동북공심돈, 서북공심돈, 남공심돈 |
| 암문 | 북암문, 동암문, 서암문, 서남암문, 남암문 | 적대 | 북동적대, 북서적대, 남서동적대 |
| 수문 | 북수문, 남수문 | 노대 | 동북노대, 서노대 |
| 장대 | 동장대, 서장대 | 포루(砲臺) | 북동포루, 동포루, 북서포루, 서포루, 남포루 |
| 각루 | 동북각루, 서북각루, 서남각루, 동남각루 | 포루(鋪樓) | 동북포루, 북포루, 서포루, 동1포루, 동2포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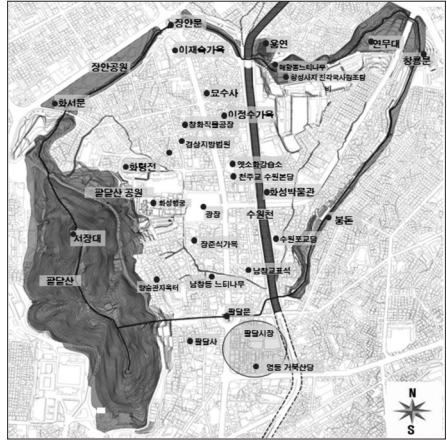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수원화성 역사도시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36쪽, 2005.

1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수원화성 역사도시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35-38쪽, 2005.

〈그림 2〉 수원시 자원분포도



〈그림 3〉 화성내 자원분포도



2. 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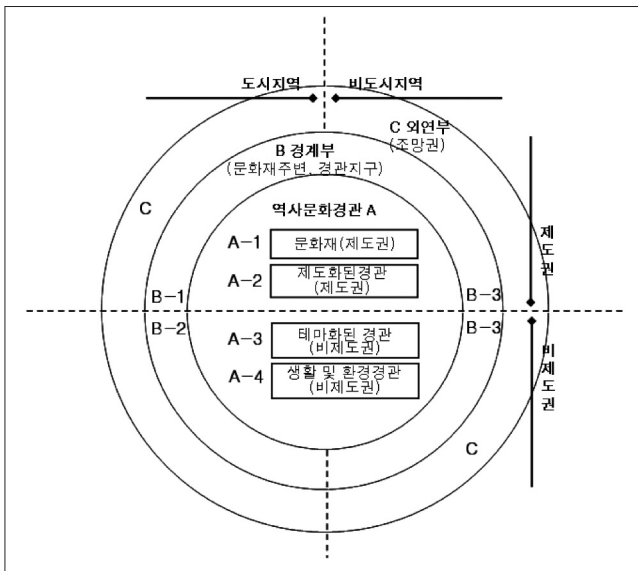
1) 문화경관과 관광개발

유네스코가 제정, 운영하는 세계유산제도에서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¹¹⁾은 문화재로서 협약의 제1조에 명시된 ‘자연과 사람의 합작적 소산’을 대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제1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조약 이행에 관한 작업지침’을 개정하고, 정식으로 문화경관을 세계문화유산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국제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은 1884년 이후 문화경관에 대하여 논의의 시작, 인식의 개선과 제도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얻어진 것인데, 제도화될 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1995년에 필리핀 코르테일라의 다락논(terrace field)이 세계 최초의 문화경관으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개소가 등록되었다.

11) 문화관광부, 「역사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2005: 근대 지리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은 최초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경관을 역사적 경관이라고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는 문화경관이란 인간의 거주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상황의 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전제로 한 독특한 토지이용형태를 보여주는 유산으로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사회는 전통적인 농림어업 방법에 따라 문화경관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미래의 확실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그래서 매우 취약한 대상이기도 하다. 일본 문화청은 문화경관을 농산어촌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의 독특한 지형 또는 고유 풍토를 지닌 경관이라고 정의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¹²⁾

〈그림 4〉 문화경관의 유형



문화관광부(2005)에 의하면, 문화경관의 구성을 3가지¹³⁾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관리를 위해 유형별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경

12) 손호기, '문화경관 유형에 따른 관광영향과 보전의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쪽, 2008.
 13) 문화경관(A-1)은 문화재(제도권)로 원형(문화재)의 지속적 마멸과 훼손, 전통 복원·수리기술의 지속적 계승, 역사문화경관의 발굴과 발견을 통한 양적 확대, 정주형(定住型) 역사문화경관(전통역사마을 등)의 합리·효율적 관리가 내포된 공간. (A-2)는 제도화된 경관(제도권)으로 역사문화경관이자 생활공간으로서의 종합적 관리 문제, 행위규제 등에 따른 다양한 보상 및 지원책 개발, 옥외광고물, 색채 등과 관련된 경관 부조화의 문제가 내포된 공간. (A-3)은 테마화된 경관(비제도권)으로 주변 일반경관들과의 경관적 혼재, 지나친 상업화와 장소마케팅과 관련된 프로그램 부재,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한 대응책

관의 유형은 크게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하였다. 문화경관(A)은 문화재, 사적지, 생활·환경 경관을 포함한 공간, 경계부(B)는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외연부(C)는 조망부로 중경과 원경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으로 유형화 시켰다.

문화경관은 지역별로 개성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적 요소로 지역활성화에 반영될 경우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관광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포스트모더니즘적 관광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관광개발의 방향을 Nuryanti(1996)가 제시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역사문화에 대한 해설은 그 중요성이 방문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현재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문화에 대한 재구성과 창의성을 통해 역사적 사실 규명과 확신 이상으로 과거와 교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문화에 대한 해설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시장과 상호작용 하에 상품의 포장과 생산을 하고, 경험을 전달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거래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마케팅전략에서는 다른 관광자원과 분리해서는 안 되며, 관광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요소 중 한 요소로 보아 부지관리, 이용자의 이용형태 및 시장성, 계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역사문화에 대한 계획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conservation), 고급화(gen-trification), 개선(rehabilitation), 보수(renovation), 복원(restoration), 재건(recon-

부재가 내포된 공간, (A-4)는 생활 및 환경경관(비제도권)으로, 인식(공공과 시민 모두)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 파괴와 소멸, 해당 지역의 정체성 약화와 전체 도시(지역)의 획일성이 내포된 공간, 경계부(B-1)는 도시지역+제도권으로, 주변부의 과도한 시각장애물(광고물, 가로장치물 등)로 인한 역사적 문화환경과의 맥락 파괴, 조망(역사문화경관 내부 ⇒ 외부, 주변 자연환경 및 가로 ⇒ 내부) 장애물(건축물 등)들로 인한 조망권 훼손이 내포된 공간, (B-2)는 도시지역+비제도권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 수요에 대한 대응책 부재, 과도한 위락시설들로 인한 분위기 오염과 정체성 약화가 내포된 공간, (B-3) 비도시지역+제도권/비제도권은 고유한 향토성의 급격한 소멸, 표피적 대응(지역축제 위주 등)에 그치고 있는 지역의 노력이 내포된 공간, 외연부(C)는 조망(중, 원경)권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수요와의 갈등, 부족하고 비체계적인 안내체계 및 정보관리, 물적계획(도시계획, 지역계획, 농어촌발전계획 등)의 합리적 적용과 배려가 내포된 공간이다(그림 4. 참조, 문화관광부, 앞의 책, 109-111쪽).

14) 손호기, 앞 논문, 8-9쪽, 2008.

struction), 등과 같은 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끝으로 역사문화유적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 문제, 생활양식과 전통에 대한 변화, 재산권의 문제, 관광객과 주민들과의 갈등, 보존을 위한 주민생활공간의 파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의존적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원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지구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지구

(1) 문화지구의 개념

문화지구의 도입은 도시 공간 내 문화 활동의 집적을 유도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문화공간으로 보호·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 또한 문화지구 조성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지구제도(incentive zoning)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지구가 문화예술 활동의 집적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다.

문화지구는 일반적으로 도시 내의 문화 인프라,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문화경관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 문화 활동을 수용하는 문화시설 및 공간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연, 전시 및 문화정보제공시설, 박물관, 문화 복지시설, 야외무대, 조각공원, 문화재 등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과 문화자원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이벤트, 공연 및 전시활동, 문화예술 감상·관람 및 창작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경관은 문화지구의 거리환경, 건축물, 조경, 디자인, 색상, 스카이라인 등과 같은 경관적 요소가 아름답고 예술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을 문화지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마다 개성 있는 문화 예술적 특성¹⁷⁾을 보호·발전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김규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5(1), 257-258쪽, 2001.

16)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8-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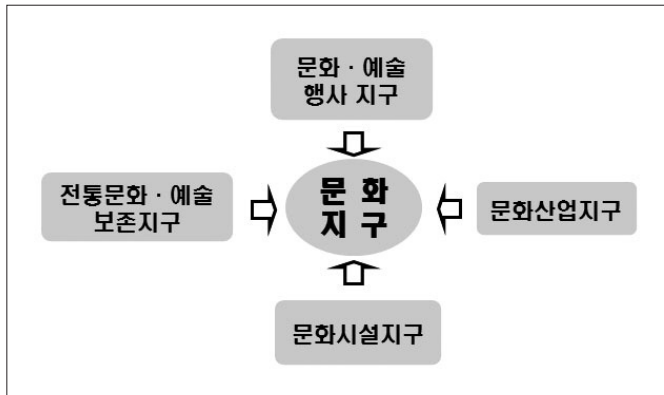
(2) 문화지구의 내용 및 유형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구성요소는 지구조성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과,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 확보,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를 들 수 있다.

문화지구의 유형은 보호·발전시키고자하는 문화예술의 성격에 따라 전통문화예술보존지구, 문화시설지구, 문화산업지구, 문화예술행사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통문화예술보존지구는 역사 및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의미한다(그림5. 참조).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도서관, 작가의 집 등과 같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시설지구가 있다. 또한 문화 관련 업종 및 문화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산업지구,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지구, 유·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환경의 보존이 필요하고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기타 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⁸⁾.

〈그림 5〉 문화지구의 유형



17) 지역마다 개성 있는 문화예술적 특성이라 함은 예컨대 인사동지역의 경우에는 고미술품점, 화랑 등 문화업종이 자발적으로 밀집되어 왔고, 오랫동안 그 특성이 유지되면서 전통문화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관광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강성원, 7쪽, 2006 참조).

18)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8-12쪽.

이상과 같은 문화지구의 개념 및 구성요소, 유형 등을 토대로 선정 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된 곳으로 자원의 집적성으로 인해 관광 및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 창출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 지구는 전통적 역사문화자원, 문화업소,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 지구내의 선정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자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정체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문화 지구 선정에는 일정한 공간 범위와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제도와 관계설정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및 업종 등에 대한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문화 지구 조성에는 내부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적 특성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맥락적 접근체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문화지구의 지정절차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¹⁹⁾과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문화지구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의 승인 하에 지정할 수 있다(그림6. 참조)²⁰⁾.

시·도지사가 동법 제8조 제1항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문화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에 관련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시·도지사에 의해 문화지구로 승인되었을 경

19)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 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 김규호, 앞의 논문, 266-267쪽.

우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 지정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²¹⁾, 관리계획이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공보에 공고를 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승인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7. 참조)²²⁾.

또한 문화지구 관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²³⁾에 의해 당해 문화지구 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영업시설의 종류 및 조세·부담금의 내용의 제시가 필요한데, 여기서 문화지구 내에 설치 및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은 공연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등 공연장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과 비상설 상영장을 포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및 화랑, 조각공원 등의 전시시설과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

21) 제6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내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면 해당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보(公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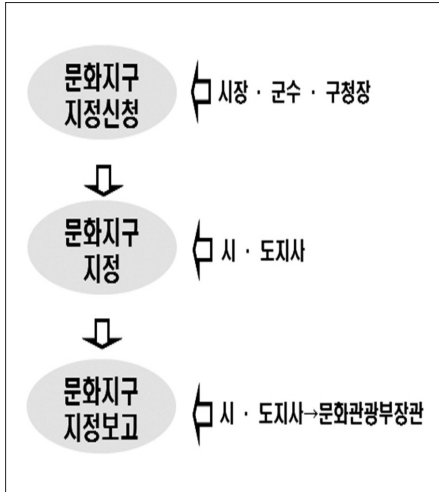
22) 김규호, 앞의 논문, 266-267쪽.

23) 제8조(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등)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내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을 말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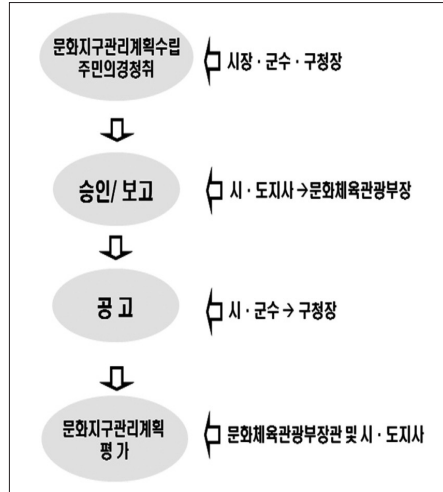
화보급전수시설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권장되는 영업시설은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5조의 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민속공예품점 등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영업시설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조성될 수 있는 문화지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화성 내 지구를 중심으로 화성행궁과 광장, 수원천, 화성박물관 일원을 문화예술의 문화지구로 선정하고, 특화거리로서 “성곽의 거리(가칭)” 등 성곽과 같은 건축예술과 현대적 예술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시설물/Street furniture 등과 같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6〉 문화지구 지정절차



〈그림 7〉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절차



(4) 유치가능 시설 및 업종

문화지구 내에 유치 가능한 업종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과 업종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 공연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과 업종을 유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사적지가 산재해 있는 수원화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1, 2,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수리업자의 종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종을 문화지구 내에 유치할 경

우 문화재 수리 및 보수에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고, 이러한 것 중 표구, 칠공, 도금, 모사업자 등은 지역의 전통공예 및 기념품의 제작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지구로 지정할 경우 지구 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문화재 및 사적지, 문화시설과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단체와 유치 및 육성업종은 <표 6>와 같은데, 문화지구지정 대상 공간에는 현재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공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를 위한 공간 시설 확보에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문화지구는 젊은 층의 이용에 의해 활기를 찾을 수 있고, 지역에 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연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적지 주변의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젊은 층의 공연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6> 문화지구에 유치가능 한 시설과 업종

| 구분 | 내용 및 유치대상 업종 |
|-----------------|--|
| 문화재 및 사적지 | 화성행궁, 팔달문, 화령전, 장안문, 여민각 등 |
| 문화시설 | 수원화성박물관, 무형문화재전수관, 관광안내소 등 |
|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단체 | 연극, 국악, 무용 등의 공연시설 및 공간, 전시시설, 문화예술 관련학원 및 사무실 등 |
| 유치 및 육성업종 | 표구점, 골동품점, 화실 및 서도원, 화랑, 필방, 전통가구 및 공예, 공방, 전통복식점(한복점), 사진, 전문서점(예술 및 고서점), 전통 차의 보급 및 판매, 전통주 제조 및 판매, 전통음식 및 제과의 제조 및 판매,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등 |

3. 수원시 문화지구 조성 방안 제시

문화지구의 도입은 도시공간 내 문화 활동의 집적을 유도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산업과 연계시키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사료된다.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

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문화도시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등 문화적 기반이 구비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원시 문화지구 조성의 전략적 방안으로 지역문화 개발의 새로운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문화전달 플랫폼, 문화터미널, 문화클러스터²⁴⁾의 개념을 구분하여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지구에서의 문화콘텐츠는 지역공간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 이외 주변의 영향권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화성문화제, 국제연극제, 음식문화축제, 여름음악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축제를 문화산업으로 연계·재해석하여 문화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 산업화 하는 재해석이 필요하다.

문화 플랫폼은 문화적 필수인 인프라 기능으로서 전달 플랫폼으로 이해 할 때 문화자원의 가치 극대화가 가능하다. 즉, 문화콘텐츠의 산업분야에서 콘텐츠를 연결하고 전송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가가치의 향상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필수 인프라 문화시설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전달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접근공간이 개발되는 전달 플랫폼일 경우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원 문화자원의 전달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문화거점의 대표적 역할로 수원화성박물관, 무형문화제 전수관, 나혜석 거리, 화성열차승차장, 관광안내소 등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공공 교통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 및 아름다운 인공 환경 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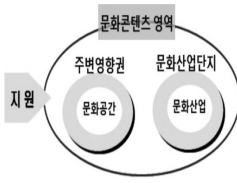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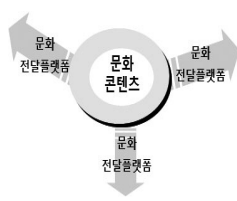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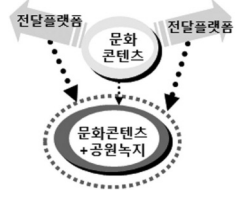

문화터미널은 문화자원과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도심부의 공간을 말한다. 터미널이란 종착역을 의미하는 단어로 도시전체에 흩어져 있는 전달플랫폼의 선 형태 보다 핵심공간인 도심부의 문화 공간 집적지, 즉 면형태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제1야외음악당, 화성행궁 광장/야외공연장 등은 효원공원, 예술공원, 팔달공원, 장안공원과 결합하여 방문객들이 문화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화클러스터는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서비스 기업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일정지역을 의미한다. 수

24) 삼성경제연구소, 앞의 책, 6-10쪽, 2004.

원의 문화클러스터를 형성 할 때에는 관련 문화산업 뿐 아니라 동질의 문화자원들이 모여 있는, 즉 수원화성과 같은 지역을 포함한 일정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원의 문화 클러스터는 지역 문화산업 관련기업 및 문화단체(수원화성운영재단, 수원문화원, 대학 부설연구기관 등)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원 화성 뿐 아니라 주변에 동질의 문화자원을 연계할 때 광역적인 문화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수립을 도모할 수 있다.

〈표 7〉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새로운 개념 관계

| 용어 | 개념 | 대상 | 예상테마 |
|---------|---|---|---|
| 문화 콘텐츠 |  <p>활용가치를 전제로 한 문화 자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무형의 문화 자원 • 문화 공간과 주변 영향권 • 문화 산업과 주변 단지 <p>⇒ 수원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 국제연극제, 음식문화축제, 여름음악축제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축제를 통해 음식문화산업단지화 조성 : 수원갈비, 궁중요리, 장류 등 • 가구건축문화콘텐츠 개발(성곽의 거리특화) |
| 문화 플랫폼 |  <p>문화콘텐츠의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화시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공원 등 • 공공의 교통 인프라 • 쾌적한 자연 및 인공 환경 <p>⇒ 수원화성박물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나혜석 거리, 화성열차승차장, 관광안내소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센터 조성 (체험교육장, 캐릭터 상품특산물 판매 등) • 수원화성박물관거리조성:성곽 미니어 처소재로 환경시설 물로 유도 |
| 문화 터미널 |  <p>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능을 복합시킨 문화 공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Complex • 공원 소품물과 결합된 문화공간 • 문화전달플랫폼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일단의 지역 <p>⇒ 문화의 전당, 야외음악당, 화성행궁 광장/야외공연장 등은 효원공원, 예술공원, 팔달공원, 장안공원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촌 조성 : 화성성내 저장거리와 같은 숙박과 아케이트 형태의 소품물 조성 • 문화 클러스터 |
| 문화 클러스터 |  <p>동질의 문화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넓은 범위의 지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간의 결합 <p>⇒ 예정지 : 수원시 화성문화지구·영화문화관광지구, 파주시 헤이리문화지구, 성남·고양시 문화산업진흥지구 등</p> |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4)「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4-10쪽의 내용 재작성

맺음말

문화지구 조성 목적을 수원 지역특성에 맞게 명확하게 설정하고, 보존·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목적과 정책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지역 문화지구 지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문화지구를 조성할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실천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은 정책적으로 보호 및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에서 특정지역의 문화지구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조성목적과 그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이 지원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수원 특화지구 및 문화지구 조성 조례(가칭)”을 조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지구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분석·개발해야 하는데, 문화지구 조성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실제로 적용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을 문화지구로 조성하는데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은 문화지구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 및 제도에서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수원화성지구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도 재정지원, 공간환경 개선, 행사추진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축규제 및 완화 관련사항도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지역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일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개보수 및 문화업종의 보호 정책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지역특성이나 조성목적 및 대상에 따라 그 범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수단을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자원을 특징적으로 유형화하여 문화지구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으로 특정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이 문화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문화지구 조성 틀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지구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법안 및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지구의 유형으로는 문화시설지구(박물관, 공연장, 화랑 등), 문화업종 및 문화산업지구(영상산업단지, 출판문화산업단지 등), 전통문화예술보존지구(한옥가

육, 역사적 문화재 등), 문화예술행사지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특히 전통문화예술 보존지구와 같은 경우 관련 법률 및 제도, 예컨대 문화재보호법 등과의 연계 하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개발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협상과정을 바탕으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지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규제와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이해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적 규제나 인센티브제도만으로는 원래 의도한 문화지구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지구 조성 지역의 주민, 이용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은 협의체나 대표모임 등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여 문화지구라는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 주체간의 횡적 조정 과정 절차와 같은 바람직한 운영 장치 확보를 통해 주민과 공공간의 관계, 공공과 공공간의 역할관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지구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문화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은 정책적 방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지구 조성과 지속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능한 주민자치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문화 환경 조성 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애정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수단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수단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추진전략도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성 목적에 적합한 시설 및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문화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센티브수단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인센티브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입장에

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원, 「문화지구 지정효과 분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규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25(1), 2001.
- 문화관광부, 「역사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2005.
-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자원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2004.
- 손호기, 「문화경관 유형에 따른 관광영향과 보전의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수원시, 「2010 수원 시정백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 수원시, 「수원 역사문화도시」 최종보고서, 2007.
- 신행우,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임서희, 「문화지구의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수원화성 역사도시조성, 어떻게 할 것 인가」, 2005.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999.

영동시장과 수원¹⁾

– 수원지역 토박이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

최자운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 연구원)

김상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 | |
|--------------------------------------|-------------------------|
| 머리말 | 2) 나무시장 |
| 1. 1960년대 영동시장 내 주요 판매 품목 과 주변 상황 | 3) 수원갈비 |
| 1) 영동시장의 전체적 상황 | 4) 영동시장 부근의 대중교통 맺음말 |

머리말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원은 경기도의 여느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의 소읍이었다. 사람들의 생업은 대부분 농업이었고 중심지도 남문을 중심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종로사거리까지의 구간과 수원역 부근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1964년 경기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도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1969년 선경직물이 정자동으로, 1970년대 초 삼성전자가 매탄동으로, 그리고 1976년 한일합섬이 조원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성장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 각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박업, 음식점 등 다른 부분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도시 발전과 함께 수원사람들의

1) 본 연구는 2010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일상생활 역시 조금씩 향상되어 갔다.

수원지역 근·현대의 흐름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먼저, 수원문화원에서는 수원지역 정치, 종교 및 문화 분야에서 의미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증언을 기록하였다.²⁾ 이 작업은 수원의 문화 및 종교계의 흐름을 관련 인물들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창식은 미시사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수원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신문 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³⁾ 그리고 수원박물관에서는 근대 수원 100년이라는 주제로 개관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근현대 수원의 사진, 엽서, 근대 유물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⁴⁾

수원문화원에서는 관련 전공자들에게 의뢰하여 수원지역 토박이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수원사람들의 일생의례, 근대 수원의 역사적 흐름을 그들의 소장한 사진과 함께 정리하였다.⁵⁾ 앞의 수원지역 근현대사 증언자료집이 정치, 문화계 일선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에 대한 증언록이라면, 이 작업은 수원 토박이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도시 발달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⁶⁾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들은 주로 근·현대 시기 수원의 공간 및 일상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로 관련 인물들의 증언 및 문헌자료, 관련 유물들을 주요 논거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시기 수원지역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전체적 상황, 그리고 이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나무시장, 수원갈비 및 대중교통 등을 수원 토박이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을 통해 해방 이후 수원 도시발달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수원문화원 편, 『수원지역 근현대사 증언자료집』1, 수원시, 2001.

수원문화원 편, 『수원지역 근현대사 증언자료집』2, 수원시, 2002.

수원문화원 편, 『수원지역 근현대사 증언자료집』3, 수원시, 2005.

3)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4) 수원박물관, 『근대수원 100년』, 수원시, 2008.

5) 최자은 외,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화』, 수원문화원, 2008.

6) 근대수원의 도시 발달과 관련된 주제들로, 일제하 수원의 철도교통,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 도시의 형성 과정, 그리고 경제 성장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수원학연구소, 『수원학연구』2집, 풍광, 2005.

1. 1960년대 영동시장내 주요 판매 품목과 주변 상황

1) 영동시장의 전체적 상황

일제강점기 당시 수원군내에는 문안시장, 문박시장, 오산시장, 반월시장, 남양시장, 신기시장, 발안시장 등 모두 7개의 시장이 있었다.⁷⁾ 이 중에서 현재 행정구역상 수원에 소재하는 곳은 북수동 수원천변에 위치한 문안시장과 현재 영동시장에 해당하는 문박시장이다. 문안과 문박의 구분은 팔달문이 기준이 되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팔달문 안까지가 팔달로 2가이고, 문박부터 팔달로 3가이다. 현재는 팔달문 양 옆으로 성곽이 없는 관계로 문박과 문 안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문안시장은 북수동 매향교를 중심으로 천변에 자연스럽게 생필품을 파는 노점(혹은 포장)들이 형성된 것인데, 그곳에서는 쟁기, 호미 등의 여러 가지 농기구와 함께 장약, 솔가지 등의 땀감, 그리고 일용잡화 등을 팔았다.

문박시장으로도 불렸던 영동시장은 처음에는 문안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그러다가 6.25 전쟁 이후에 영동시장의 상권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북에서 온 피난민을 중심으로 수원 천변에서 군복 같은 것을 염색하기도 하고, 고약이나, 연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종로사거리에서 중동사거리까지의 중심가에 위치한 상점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의 소유였다. 그 시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유한 가게들 중 큰 것으로는 종로사거리에서 북문 방향에 위치한 만복상점이 있었다. 만복상점은 안거복씨의 소유로, 잡화를 팔았다. 그리고 중동사거리 쪽으로는 물산상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간장, 된장 등의 먹거리를 주로 팔았다.

해방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원지역의 상권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수원에서 가장 전통 있는 변화가를 고르라면 팔달문 로터리 일대를 꼽을 수 있다. 이 일대에는 영동시장을 비롯하여 여러 음식점, 극장, 다방, 문화 및 공공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컨대, 1960년대 극장의 경우 현재 KTF 대리점, 중앙레코드 총판 부근에 있었던 중앙극장, 우리은행 건너편의 국제극장, 그리고 현재 동남서적 부근의 수원극장

7) 이창식, 앞의 책, 226쪽.

등이 있었고, 다방으로는 중앙극장 지하에 있던 중앙다방, 솔잎다방 등이 있었다. 당시 솔잎다방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중앙다방은 주로 데이트하는 청년남녀들이 주로 찾았다. 그리고 역전에 있던 아카데미다방은 음악 부츠에서 디제이가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다방이었다. 당시에는 다방에서는 카테일과 비슷한 주류도 팔았다.⁸⁾

현재 팔달문 보건약국 길 건너편으로는 평창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은 1960년대까지 수원에서 유일하게 빵을 파는 곳이었다. 당시 중·고등학생들은 먼 길을 마다하고 그곳을 찾아와 소보로빵이나 단팥빵 등을 사먹곤 했다.

1919년에 개설된 영동시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영동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영동시장 개략적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⁹⁾ 1919년 1월 17일에 건립된 영동시장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하기에 이르기까지 수원의 중심 장터로 역할을 해오다 1950년 6.25 동란으로 인해 파괴된다. 수복되고 난 이후 1951년 4월 4일에 복구를 했으나 그 해 12월에 화재로 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듬 해 2월에 구천동 쪽으로 이전했다가 그 해 12월 19일에 목조건물이 복구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 뒤 1969년 9월 29일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10월 6일에 법인으로登記필하고, 12월 26일 시설시장 설립 허가를 받게 된다. 1970년 3월 21일에 화재로 인하여 31개 점포가 전소 되는 등 건물이 목조로 지어지다 보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72년 3월 20일에 신축공사에 들어갔고, 11월 16일에 완공되어 점포들이 입주하게 된다. 이 해에 1972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준공필을 받는데, 당시 시장의 규모는 지하 210평, 탑 70평, 1층 1765평, 2층 1765평이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77년에 증축 기공식을 가지고 1979년 12월 10일에 크로바백화점 개장식을 가졌다. 그 뒤인 1980년에는 다시 한 번 증축공사를 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과 4층을 올렸다.

2000년대에 들어 영동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2002년 5월에 외벽공사를 하면서 한복전시관을 설치하였다. 그 해 10월에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개보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8)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자문위원 김석일 제보, 2009년 7월 13일, 7월 21일 노영근 현지조사.

9)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자문위원 최홍식 제보, 2009년 8월 4일 김영진 현지조사.

1960년대 초반 영동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가게들이 있었는데, 그 중 그릇을 파는 가게들로는 갑신상회, 창신상회, 이화유기 등이 있었다. 이화유기와 창신상회는 가게가 마주보고 있었다. 영동시장 갑신상회의 주인인 조재갑씨의 아들이 1970년대 중반에 시내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을 시작하였다. 과일가게는 용인상회의 규모가 가장 컸다. 용인상회는 로터리 쪽에 있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 도매상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영동시장은 1970년대 초반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면서,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수원백화점이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 나무시장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반 가정집에 연탄보일러가 보급되기 전까지 수원시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땀감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난방을 하였다. 그런 이유로 영동시장 옆 수원천변, 북문 로터리 부근, 창룡문 부근 등지에 나무시장이 형성되었다. 각각의 나무 시장은 나무를 해오는 산과 가까운 곳에 섰는데, 예를 들면 광교산 방면에서 오는 나무들은 북수동 쪽에서, 용인이나 수지 방면에서 오는 나무들은 창룡문 쪽에서 소비가 되었다.

영동시장 옆 수원천변의 나무시장은 용인에서부터 수원으로 지게나 우마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해 왔다. 영동시장 쪽으로 나무시장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화성학원 운동장이 큰 역할을 했다. 팔달문 부근 구관수 옆에는 홍사운씨가 설립한 화성학원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가 수원고등학교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학교에 운동장은 공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나무를 가져다 놓고 팔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곳을 중심으로 나무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보통 나무 한 짐 정도를 하려면 아침밥을 일찍 먹고 나서야 했다. 사계절 중 가을 같은 때는 나무가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나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봄이 되면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밤이 늦어서야 돌아와야 했다. 광교산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형제봉이나, 시루봉, 문암골 등지에서 나무를 하였는데, 산 주인이 있는 곳과 산림감시원이 있는 팔달산에서는 나무를 할 수 없었다.

나무시장에는 소나무 낙엽이나 장작을 주로 팔았다. 나무를 한 짐씩 해 와서 있으면 근처의 주부들이 나무를 사러왔다. 나무 한 짐은 20원이나 30원을 받았는데, 당시 쌀 한

말이 15원이었다. 흥정을 통해 나무가 팔리게 되면 땀값을 지게에 지고 구매자의 집까지 운반해 주었다. 나무를 팔아서 번 돈으로는 영동시장에 가서 생필품 등을 사기도 하고, 조금씩 저축하여 자녀들의 학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수원갈비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수원 및 서울사람들의 대표적 나들이 코스는 서둔동의 푸른지대에서 딸기를 먹고 영동시장으로 와서 갈비를 먹는 것이었다. 수원갈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푸른지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푸른지대를 개업한 개성 출신의 피난민 박철준은 1958년에 탑동 505번지로 이사를 와서 당시 집주인 할머니에게 삼천 평 정도의 땅을 빌려 호박, 묘목 등을 가꾸어 장에 가서 장사를 하였다.

1960년대 초반 서울농대의 한 교수가 일본에서 대학 1호라는 딸기 품종을 들여왔는데, 그 품종은 토종 딸기에 비해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았다. 그 교수는 박철준 씨와 이웃이었던 관계로, 그에게 호박이나 묘목보다는 딸기가 부가가치가 높으니, 딸기 농사를 해보길 권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푸른지대의 딸기 농사는 재래종에 비해 월등히 맛이 뛰어나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 곧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수원역에서 농대로 들어오는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올 경우 수원역에서 내려 푸른지대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푸른지대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주위 사람들도 모두 딸기 농사를 시작하여 서둔동, 탑동, 구운동 일대는 온통 딸기밭이 되었다. 당시 딸기 한 관에 쌀 서 말 정도의 값이었는데, 논농사 삼천 평 지어도 순수익으로 20가마도 남기도 힘든 상황에서 딸기 농사는 쌀 100가마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다음으로, 수원 나들이의 두 번째 코스인 영동시장 내 수원갈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80년대 초반까지 영동시장 내에는 화춘옥, 암소갈비집, 사미정, 갈비센터 등 네 군데의 갈비집이 갈비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⁰⁾ 화춘옥은 현재 팔달문 보건약국 골목

10) 화춘옥이 영동시장 내 미곡(米穀) 등을 파는 싸전거리에 위치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당시 싸전거리는 영동시장의 천변 쪽에 위치하였고 갈비거리는 그보다 팔달문 방향으로 위치하였다. 따라서 화춘옥을 비롯한 4군데의 갈비집은 싸전거리에 있었다는 정보는 수정되어야 한다.

으로 조금 들어간 골목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동사거리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암소갈비집, 갈비센터, 사미정이 위치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생긴 코끼리만두 집도 화춘옥 근처에 있었다.

수원갈비의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화춘옥이 생긴 때부터 1980년대 초반 앞의 네 가게가 영업을 할 때까지이고¹¹⁾, 두 번째 시기는 갈비집이 모여 있던 곳에 수원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네 가게가 자리를 옮기거나 폐업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현재 수원 시내에는 300여개가 넘는 갈비집이 영업을 하고 있다.

영동시장 네 군데의 갈비집 중 가장 먼저 개업한 곳은 화춘옥으로, 해방 되던 해에 문을 열었는데, 주인인 이귀성씨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였다. 당시 갈비 종류로는 생갈비와 양념갈비가 있었다. 갈비를 양념하는 방법으로는 육수를 만들어 간장과 함께 갖은 양념으로 갈비를 버무리는 방법과 소금과 설탕을 6:1 비율로 섞어 참깨, 참기름, 마늘 등으로 양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¹²⁾ 간장 양념 갈비의 경우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고 육수가 바닥으로 많이 떨어져서 먹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수원갈비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수원에 전국 최고 규모의 우시장 중 하나인 수원 우시장(쇠전)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수원 우시장은 북수동 삼일학교 맞은편에 있다가 1960년경에 영화동 북중학교 맞은편으로, 1970년대 후반에 다시 곡반정동 이전하였다. 그런 점에서 영화동 소재 우시장의 존재와 영동시장에서의 갈비거리의 전성기는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우시장은 5일장이었는데, 당시 우시장이 있을 때 소몰이꾼들이 대여섯 마리의 소를 몰고 왔다. 영화동에 있을 우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오산 쪽에서 오는 소들을 맡기는 마방(馬房)이 있었다. 그리고 근처에 소 말뚝이 있어서 소를 매어 놓았다. 거래는 소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소 주인을 개인적으로 알 경우 소 주인에게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개인(농협직원)을 통해서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매매 중개인은 대략 20명 정도 되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를 기르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소를 사가는

11) 2010년 10월 1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삼부자집 김정애할머니 조사.

12) 수원갈비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 이재규는 수원 양념갈비의 특징은 간장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 양념을 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영동시장에서 갈비집을 운영해온 김정애할머니는 간장양념갈비가 소금양념에 비해 더 오래된 것이라 하였다.

이재규, 「수원갈비의 역사성 탐구에 관한 소고」, 『외식경영연구』6(1), 한국외식경영학회, 2003, 173쪽.

장사꾼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팔면 수수로 때문에 직접 파는 것보다 손해였다.

영동시장 내 갈비거리에서 갈비를 먹는 방식은 지금과 조금 달랐다. 지금은 각각의 상 위에 불판이 있고 거기서 구워진 고기들을 먹기 편하도록 가위로 잘라서 먹지만, 당시에는 손님 수에 따라 3인분이나 4인분씩 전표를 구입하면 그 전표에 따라서 주인이 갈비를 구워서 손님상에 올려주었다.

가게 주인은 가게 가운데 있는 커다란 화덕에 갈비를 4, 50대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어느 정도 구워지면 먼저 올린 갈비부터 차례대로 뒤집었다. 거기서 나는 연기가 엄청 나서 어떤 때는 시장에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고기를 잘라서 먹지 않고 손님이 갈비를 손으로 잡고 뜯어서 먹었다. 반찬도 물김치, 콩나물, 마늘, 고추장 등이 전부였다. 그리고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으로 지금을 사용하지만 그때는 마분지라고 부르는 누르스름한 색깔의 종이에 입이나 손을 닦았다.

지금도 갈비를 만들 때 한우의 경우 육질이 질기기 때문에 얇게 고기를 떠야 한다. 반면, 수입갈비는 육질이 부드러운 관계로 두껍게 고기를 떠도 관계가 없다. 한우의 경우 초식을 하고 방목으로 키우기 때문에 육질이 질기고,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난다. 그러나 수입육의 경우 아무리 잘 구워도 한우 특유의 구수한 맛이 나지 않는다.

우시장에서 매매된 소들 중 도축될 소들은 현재 수원고등학교 맞은편의 소 도축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졌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고기들은 각 갈비집으로 배달되었다. 당시에는 수원 갈비의 인기가 너무 좋아 수원에서 도축되는 고기의 양이 많기는 하였지만, 수원에서 도축하는 고기만으로 장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울 마장동이나 충청도 등의 도축업자들이 영동시장 내 갈비집에 고기를 납품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소 도축은 물론이고 소고기 판매까지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졌다.¹³⁾ 그 이후에 쇠고기 판매는 자유화 되었고, 소 도축은 그 후에도 정해진 곳에서만 이루어졌다.

수원갈비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67년 박정희대통령이 충청지역 순시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화춘옥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가면서이다. 그 이후에 영동시장에 있던 수원갈비는 198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13) 일제강점기에는 수원 유일의 쇠고기 판매점은 중동사거리 현재 신한은행 자리에 있었다. 수원 역사사랑 방 네트워크 자문위원 김순태 제보. 2008년 7월 5일 최자운 현지조사.

1979년 영동시장에 수원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현격히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동차로 갈비집을 방문한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지다 보니 점차 손님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네 곳의 갈비집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화춘옥은 인근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영업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았고, 사미정의 경우 가게 주인이 돌아가신 뒤 아들이 이어서 하다가 역시 영업을 중단하였다. 암소갈비집은 주인이 가게를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970년대 초반 갈비센터를 인수하여 10년째 운영을 해오던 갈비센터의 경우 당시로서는 외곽에 해당하는 원천으로 이전하여 삼부자갈비로 이름을 바꾸고 확장 이전을 하였다. 이름을 삼부자갈비로 한 것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가게 일을 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게 앞으로는 수여선 기차길이 있고 도로는 2차선이었으며 주변으로는 대부분 논과 밭이었다.

현재 수원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갈비집은 현재 인계동에서 3대째 내려오고 있는 화춘옥이다. 그리고 갈비 가게를 한 경력으로 치면, 1970년 영동시장 내 갈비센터를 인수하면서 영업을 시작한 원천 소재 삼부자갈비가 가장 오래되었다.

4) 영동시장 주변의 대중교통

영동시장 주변은 수원 제일의 중심가이다 보니 대중교통 역시 이곳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수원에서는 자동차보다 기차가 먼저 보급되었다. 일제는 1931년에 경기만 일대의 어패류, 소금 등을 약탈하기 위해 수여선을, 그리고 1937년에 경기지역의 미곡을 약탈하기 위해 수인선을 개통하였다. 1971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지타산 등의 이유로 인해 수여선은 1972년에, 수인선 역시 승객이 줄어들면서 1990년대 중반 운행이 각각 운행이 중단되었다.

수여선은 수원에서 출발하여 원천, 용인,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어졌다. 원천이나 용인 등의 정식 역 외에 덕곡, 마평, 오목네, 야목 등의 임시역도 있었다. 임시역의 경우에도 승객들이 많이 사용하였으나, 역을 지으려고 하니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사가 없이 역을 표시하는 푯말만 만들어 놓았었다. 임시역에서 승객이 타면 객차 안에서 차장이 표를 끊어주었다.

수여선 승객 중에는 용인이나 이천 등지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

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밖에 농산물이나 가축 등을 거래하기 위해 수원을 오가는 사람들도 수여선 기차를 많이 이용하였다.

당시 수여선을 타고 수원에서 출발하여 여주까지 운행시각이 3시간 반 이상 걸렸다. 거리상으로는 5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석탄으로 증기를 만들어 움직이는 기차이다 보니 평지를 갈 때에도 그리 빠른 속도는 아니었고, 언덕을 올라갈 때는 동력이 부족해서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기차의 동력은 디젤기관이 나오기 전까지 증기기관이 사용되었다. 증기기관의 경우 기관차에 두 평정도 크기의 가마가 있었다. 그 가마에 삼으로 석탄을 퍼 넣어서 열기를 만들었고, 가마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이프를 통해 물이 데워지면 증기가 만들어져 기차 바퀴를 움직였다.

당시에는 지금의 KTX 열차에 해당하는 급행열차도 있었는데, 증기기관차처럼 정차역이 많지 않았다. 급행열차가 증기기관차보다 빨랐던 것은 석탄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좋은 유해탄을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외버스 운행은 1948년 이후에 이루어졌다.¹⁴⁾ 초창기 수원 교통을 책임진 회사는 용남여객버스회사와 서울승합버스회사 등이었다. 용남여객은 용인 출신의 수원사람이 설립한 회사이고, 서울승합은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 규모의 버스회사였다.

해방 이후 운행된 시외버스는 지금과 같이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목탄을 연료로 운행되었다. 버스 중간 부분에 둥그란 통을 두고 그 안에 목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다. 서울로 가는 목탄 버스는 과천 지지대고개와 같은 고개를 올라갈 때면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경우에 따라 시동이 꺼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되면 시동을 다시 걸기 위하여 스까짱이라고 부르는 도구를 사용하여 운전수와 조수, 그리고 젊은 승객들이 스까짱을 열심히 돌려 시동을 걸었다. 스까짱은 경운기의 시동을 걸기 위해 돌리는 도구와 같은 형태이다. 당시에는 목탄 연료 버스 외에 카바이트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도 다수 있었다.

14) 1928년 12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수원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80대 이상 수원토박이들은 공통적으로 해방 이후에 시외버스부터 운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다.

동아일보 기사는 아래 책을 참조하였다.

이창식, 앞의 책, 366쪽.

목탄을 연료로 가는 시외버스는 6.25전쟁 이후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여 5·16 군사혁명 및 새마을 운동을 지나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목탄 연료 버스가 있던 자리에는 미군 군용차 등을 개조한 버스나 2층 버스인 그레이하운드버스가 대신하였다.

당시 시외버스회사 중에는 유신고속버스회사도 있었다. 이 회사의 사무실은 교동사거리의 이춘택 정형외과 옆에 있는 작은 공원이 있는 곳에 있었다. 이후에 유신고속이 없어지고 그 사무실은 1950년대 이후에 설립된 경남여객버스회사가 사용하였다.

당시 시외버스 노선은 서울 방면, 평택 안중 방면, 화성 서신 방면, 그리고 용인 방면 등이 있었다. 서울 노선의 경우 수원 팔달문 로터리에서 출발하여 수원향교 앞의 구길을 거쳐 안양, 시흥, 노량진, 영등포를 경유, 용산까지 갔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수원 제일의 중심가라 할 수 있는 팔달문 주변에 신호등, 도로에 중앙선 등의 차선도 없었다. 버스는 운행을 하다가 길 가에서 손님이 손을 들면 세워서 손님을 태웠다. 이 시기에 시외버스 영업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마이크로버스도 생겨났다. 이 버스는 15인승 승합차의 형태였다.

수원에서 두 번째로 생긴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이다. 1960년대 초반에 중동사거리 조흥은행 맞은편의 상가에 택시회사 사무실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지프형태의 시발택시 3대가 운행을 시작하였고, 그 뒤 1960년대 중반 무렵에 새나라라고 부르는 승용차 형태의 택시가 등장하였다.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을 오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합승택시의 경우 서울역과 팔달문 영동시장 앞에 정류소가 있었다. 합승택시는 1960년대에 특히 인기가 있었다.

시내버스는 택시가 운행 된지 10여년이 지난, 1973년경부터 운행을 시작하였다. 당시 조재갑씨는 60여대의 버스로 수원여객을 만든 뒤 시내 운행을 시작하였다. 얼마 후 경남여객이 시내버스를 운행하였고, 1975년에는 시외버스만 운행하던 신원여객도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시내버스가 생긴 초창기까지만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팔달문을 중심으로 노선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다. 그 때는 시내버스에 번호가 없고, 행선지만 표시하였다. 행선지 표지판은 교체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한 대의 버스가 행선지를 바꿔가면서 운행했다.

시내버스에는 차장도 있고 조수도 있었는데, 앞문에서 차장이 돈을 받고 뒷문은 조수

가 관리했다. 보통 차장은 여자였고 조수는 남자들이 했다. 차장들은 대개 교복처럼 생긴 검은색 유니폼을 입었다.

초창기 시내버스 회사 중 하나인 신원여객의 사장은 충청도 출신의 안영낙씨였는데, 처음에는 현재 영화동의 LG 인재니움 건물 자리에 있던 차고에서 차량 여섯 대로 시작했다. 영업이 잘 되어서 차량 수가 100대가 넘을 정도로 늘어나자, 장안구청 뒤편으로 차고를 이전했다.

초기에 신원여객의 노선은 수원대학, 정남, 발안, 안산, 안양 정도가 있었다. 당시에는 수원역에서 배차를 받고, 차고지에서 출발을 했다. 수원여객, 신원여객, 경남여객의 노선이 비슷했기 때문에 3개 회사에서 배차 시간을 조절해서 운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고정 배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기사가 배차를 받는 대로 발안, 오산, 안양 등지로 운행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운행 방식은 운전기사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배차시간 문제로 인해 사고 및 기사 간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고정배차로 시스템을 바꾸고, 급여도 동일하게 책정하면서 경쟁에 의한 여러 가지 다툼이나 접촉사고도 줄어들게 되었다.

맺음말

수원은 1949년에 시로 승격된 이래 엄청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대한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져 이에 대한 기록이나 정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수원지역의 전통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 및 상황에 대해 수원 토박이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팔달문을 중심으로 현재의 팔달로 2가까지를 문안이라고 하고, 팔달로 3가부터 문밖이라고 하였다. 문밖에 위치하는 영동시장은 1919년 1월 17일에 건립되어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하기에 이르기까지 수원의 중심 장터로 역할을 해하였다. 영동시장 역사에 있어 1970년대 초반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면서,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백화점이 들어온 것 등이 큰 변화였다.

영동시장 옆 수원천변의 나무시장은 용인에서부터 수원으로 지게나 우마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해 왔다. 영동시장 쪽으로 나무시장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화성학원 운

동장이 큰 역할을 했다. 팔달문 부근 구관수 옆에는 홍사윤씨가 설립한 화성학원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가 당시 수원고등학교 자리로 이사를 가면서 그 학교에 운동장은 공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나무를 가져다 놓고 팔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곳을 중심으로 천변으로 나무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영동시장 수원갈비는 80년대 초반까지 영동시장 내에는 화춘옥, 암소갈비집, 사미정, 갈비센터 등 네 군데의 갈비집이 갈비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동시장 네 군데의 갈비집 중 가장 먼저 개업한 곳은 화춘옥으로, 해방 되던 해에 문을 열었는데, 주인인 이귀성씨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였다. 당시 갈비를 양념하는 방법으로 간장으로 양념을 하는 방법과 소금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수원갈비의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화춘옥이 생긴 때부터 1980년대 초반 앞의 네 가게가 영업을 할 때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갈비집이 모여 있던 곳에 수원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네 가게가 자리를 옮기거나 폐업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현재 수원 시내에는 300여개가 넘는 갈비집이 영업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귀옥, 「한국 구술사 연구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 역사』71집, 한국사회사학회, 2006.
- 김인호, 「근대 수원 경제의 특징과 진로」, 『수원학연구』제2호, 수원학연구소, 2005.
- 나승만, 「민중생애담 조사법」, 『역사민속학』9호, 역사민속학회, 1999.
- 수원문화원 편, 『수원지역 근현대사 증언자료집』1, 수원시, 2001.
- 수원문화원 편, 『수원지역 근현대사 증언자료집』2, 수원시, 2002.
- 수원문화원 편, 『수원지역 근현대사 증언자료집』3, 수원시, 2005.
- 수원학연구소, 『수원학연구』2집, 풍광, 2005.
- 이용기, 「역사학, 구술사와 만나다」, 『역사와 현실』71, 2009.
-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 이재규, 「수원갈비의 역사성 탐구에 관한 소고」, 『외식경영연구』Vol.6 No.1, 한국외식경영학회, 2003.

오석민, 「인류학과 지방의 역사: 서산 사람들의 삶과 역사의식」, 『한국문화인류학』38-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

염미경, 「지방사 연구에서 구술사 활용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98, 역사교육학회, 2006.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정형호, 「개인 생애사를 통한 도시민속학의 접근방법의 모색」, 『실천민속학』9호, 실천민속학회, 2007.

최자은 외,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화』, 풍광, 2008.

수원지역 음악사 연구

—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

김은혜 (수원대학교 작곡과 교수)

-
- | | |
|--|---|
| <p>머리말</p> <p>1. 한국전쟁 이전(1910년 이전~1953년)</p> <p>2. 1953년 이후(1953~1980)</p> | <p>3. 1980년대 이후(1980~현재)</p> <p>맺음말</p> |
|--|---|
-

머리말

일제강점기 초기에 수원지역에 유입된 양악은 2010년 한 세기가 지났다. 그동안의 수원지역의 음악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는 한국 예총 경기도 연합회에서 발간한 『경기에총 40년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조사는 문헌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현장방문과 인터뷰를 통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양악은 국악과 대조되는 용어로서 서양음악을 일컫는다. 조선시대에 대중 속에 뿌리 내렸던 판소리와 민요는 소위 ‘개화기’ 바람을 타고 창가로 발전을 하면서 국악과 양악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창가는 동요, 가곡, 대중가요로 나눌 수 있으며, 수원지역 작곡가인 홍난파는 대중가요를 제외한 동요와 가곡을 창작한다. 일제 강점기때 작곡한 그의 ‘봉선화’는 당시 전 국민의 애창곡이었으나 한동안 금지곡이 되기도 하였다. 수원지역의 음악회에 관한 자료에는 ‘봉선화’의 독창과, ‘무궁화 삼천리 내사랑’의 합창 외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1980년 광주항쟁 이전까지의 시기를 현대의 한국음악 1기로 보고 있는데, 수원지역의 양악 또한 수원문화원의 개원과 경기음악협회 발족으로 음악가들의 활동 근거지를 토대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시기에 경기도청이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전되면서 수원지역의 음악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합창단이 창단되었다. 현대의 한국음악 2기라고 볼 수 있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지역의 양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음악활동은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연주단체와 문화재단의 창단, 공연장의 건립, 음악제 및 마을 음악회, 각종 경연대회, 전문음악단체와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창단 그리고 음악교육기관 개교 등을 통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음악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 한국전쟁 이전(1910년 이전 ~ 1953년)

1) 1910년 이전 수원지역의 양악

1876년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서구 문물이 들어왔으며, 이 시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된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부부가 제물포 항구를 통해 내한한 후 뒤를 이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복음과 찬송가를 전파하였다. 그 중 스크렌턴 선교사는 서울이남 선교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에 선교기지를 계획하였고, 1900년 스웨어러 선교사 부부에 의해 수원지역의 선교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원지역에 찬송가를 통한 양악이 유입되었다.

이 시기는 여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1902년 스크렌턴 선교사의 어머니인 스크렌턴 대부인이 수원에 최초의 여학교를 세움으로써 본격적인 여성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여성도 교회에 나가 남성과 함께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다. 이 여학교가 현재의 대향여자중학교와 대향여자 정보 고등학교이다. 1903년엔 교회 내에 사숙을 세웠는데, 현재의 삼일학교이다. 1904년 이후 선교사 버덕이 수원선교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듬해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인해 교통의 중심지가 된 수원에서의 선교는 더욱 활발

해져 교인수도 꽤 많아졌다.

이와 같이 찬송가는 기독교의 전파 목적으로 유입되었지만, 수원지역에서 처음 경험하는 서양음악이었다. 또한 단지 기독교를 찬양하는 목적에 머무르지 않고 ‘애국가’, ‘독립군가’, ‘항일투쟁가’, ‘창가’ 등의 탄생과, 수원출신 음악가이자 한국근대음악을 대표하는 홍난파와 같은 작곡가들의 창작 음악 모델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2) 일제 강점기 수원지역의 양악(1911 ~ 1945)

(1) 일제 강점기의 양악

우리나라의 근대음악문화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으며, 서양음악의 수용과 보급은 주로 교회에서의 찬송가와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원지역의 양악 역시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다. 삼일학교와 수원종로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음악회, 자선음악회 성격의 음악회와 여름 납량음악회가 종종 개최되었고, 음악회의 청중이 많았다는 게 그 특징이다.

수원지역 음악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921년 4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수원의 자선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수원 삼일학교에서는 경비부족으로 막대한 곤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4월 7일 오후 7시부터 동 교정에서 동서양음악대회를 개최하며, 악사는 경성의 김영환, 최동준씨와 경성악대 일행 및 당지 34인의 고악사 등 38인의 악사가 출현할 예정이다”¹⁾고 보도하고 있다.

1913년 지어진 수원지역 최초의 예배당인 수원종로교회의 야외 예배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이 시기의 집단가창문화의 뿌리인 찬양대의 합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수원읍 교회 내 유년주일학교에서는 6월 12일에 꽃주일 예배로 3백 5십 명의 남녀학생과 신자 백여 명이 종로예배당에 집합하여 9시 반부터 순풍에 날리는 주일학교 깃발을 선두로 교가를 부르면서 시가를 일주하여 목적지인 연무대로 행하니 울창한 송림에 수다한 신도들은 어연 간에 잔디 위에 꽃발을 이루었나니 기념촬영을 한 후 주일학교장 김병갑씨의 사회 하에 일동의 찬송과 한창섭 목사의 기도 감리사 현석철씨의 열렬한 강도가 있었으며 가화(假花)에 싸인 남녀학생들은 유희와 합창으로 일반 신도들에게 기쁨을

1)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자.

주었으며 이어서 풍금 4현금 독주와 찬양대의 합창이 있을 후 영시 반에 폐회하였는데 오찬을 펼한 후에 다시 재미있는 유희가 있었다더라.”²⁾

이어 1925년 <동아일보>는 ‘수원찬양대 일주기념 음악회’란 제목으로 “수원찬양대에서는 1주년 기념을 자축하기 위하여 지난 21일 오후 8시에 수원종로교회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청중은 무려 3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³⁾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동년 8월 4일자 <조선일보>는 ‘수원에 음악가극회’를, 8월 26일자에는 ‘납량음악회’를, 1925년 12월 21일자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는 ‘삼일교에 성악대 창립’이란 제목으로, 동년 12월 22일자 <시대일보>에서는 ‘시민망년 위안극’을, 1926년 1월 6일자 <동아일보>는 ‘납량학생 음악회’를, 1926년 1월 21일자 <시대일보>는 ‘소년소녀 음악 무용회’를, 그리고 <동아일보>는 ‘수원악극대회, 경인악사출연’이라는 제목으로 “수원공보교동창회 주최의 납량음악극대회는 지난 18일 하오 8시에 동 공보교 대강당내에서 김덕근씨의 사회아래 개최되었는데, 입장객은 오륙백 명에 달하여 대만원을 이룬 중에 수원 미교악우회의 주악(양악)을 비롯하여 멀리서 출연한 인천악우회의 오창환, 홍영복 임중성 3인의 바이올린 합주와 경성의 이준숙양의 ‘봉선화’ 독창은 전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한 이채를 내며 일반에게 감흥을 주었다”⁴⁾고 보도하고 있다.

1927년 <동아일보>는 ‘수원납양음악’이란 제목으로 “수원 삼일학교 동창회는 본보 지국 후원 하에서 지난 18일 저녁 8시 반부터 수원 삼일보통학교 대운동장에서 옥외 납양음악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특히 시민위안이 목적인만큼 개회 전부터 무려 3천여 명의 군중들이 몰려와 수원서는 처음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9명의 코러스의 ‘무궁화 삼천리 내 사랑’이란 합창은 장내가 떠나갈 듯 한 박수소리에 열광적이었으며, 멀리 경성서 출연한 서지순 여사의 독창도 일반인의 가슴을 줄이는 가운데 음악회는 끝을 내렸다”⁵⁾고 보도하고 있다.

1928년 <소년동아일보>는 ‘수원 소년군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수원소년군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침체한 상태에 빠져있던 바, 얼마 전 임원개편이 있는 동시에 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복흥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결의한 바 그 중 5월 5일을 기하

2) 『기독신보』, 1922년 7월 5일자.

3) 『동아일보』, 1925년 2월 24일자.

4) 『동아일보』, 1926년 8월 31일자.

5) 『동아일보』, 1927년 8월 21일자.

여 복흥 기념음악대회를 열게 된다는데 특히 경성으로부터 소녀무도와 음악이 있을 것이며, 수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신구악사 전부가 출연케 된다”⁶⁾고 보도하고 있다. 1930년 5월 23일자 <중외일보>는 ‘수원소년군 본부, 초하음악회’를, 1930년 8월 7일 <중외일보>는 ‘수원학생 친목회 창립 13주년 기념음악회’를, 1932년 9월 18일자 <동아일보>는 ‘수원서 처음들을 조선음악의 밤’이란 제목으로, “본보 수원지국 주최로 오는 19, 20일 이틀 동안 본보 수원지국에서는 독자의 하룻밤 위안과 겸하여 경비의 곤란을 받고 있는 수원 종로 유치원을 위하여 경성에 있는 조선 악현회의 찬조를 얻어 동회 정악부의 총출연을 받게 되는 동시에 조선의 일류명기 명창의 조연까지 있게 되어 수원으로서는 전무후무한 호화로운 음악의 대전당을 이루리라는 바 우리의 정서를 노래하여 줄 우리의 전통악을 듣기 위해 수원인사는 빠짐없이 이 음악의 밤으로 모일 줄 안다”⁷⁾고 보도하고 있다.

1934년 8월 17일자 <조선일보>는 ‘수원학생회 주최 수해 음악 성황’이란 제목의 기사를, 1935년 11월 21일자 <동아일보>와 20일자 <조선중앙일보>는 ‘오케 연주회’란 제목으로, “오케 - 레코드 애청자로서만 망라된 오케 - 연주회 후원회에서는 본보 수원지국 후원 하에 오는 21, 22일 양일간 수원극장에서 오케 - 대연주회를 개최 한다는바 본보 애독자제씨에게 관람료 할인권을 배부하리라 한다”⁸⁾고 보도하고 있다. 1936년 8월 23일자 <동아일보>는 ‘수원 음악과 극의 밤’이란 제목으로, “수원학생회 창립 19주년 기념사업인 음악과 극의 밤은 예정과 같이, 본보 수원지국 후원 하에 지난 18일 오후 8시 당지극장에서 개최한바 정각 전부터 대만원을 이루어 입추의 여지도 없었다”⁹⁾고 보도하고 있다. 1939년 12월 12일자 <조선일보>는 ‘공사립학교 교원 연합 음악과연구회가 개최되어 수원 신평소학교에서 창가과 지도연구 발표회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1940년 이후 5년간은 일제의 강제 폐간으로 수원지역의 양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6) 『소년동아일보』, 1928년 5월 5일자.

7) 『동아일보』, 1932년 9월 18일자.

8) 『조선중앙일보』, 1935년 11월 20일자.

9) 『동아일보』, 1936년 8월 23일자.

(2) 흥난파

흥난파는 1898년 3월 19일(양력 4월 9일)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에 있는 한 농가에서 대대로 이 집에서 살아온 남양 홍씨 23세손 홍순의 2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난파는 어린 시절 고향에 있는 글방에서 한학을 배우다 7세 경 서울로 이주를 하였다. 13세 때 중앙기독교청년회 청년학관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15세에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 성악과에 입학 후 이듬해 졸업 후 17세에 기악과를 졸업한다. 18세 때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 교사로 임명되었으나, 2년 후인 1917년 사임하고, 일본 동경음악학교(일명 우에노음악학교)를 2년간 다닌다. 귀국 후 1919년 한국 최초의 음악잡지 <삼광>을 창간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일보대학에서 음악 강의를 했다. 24세 때 제1창작집 <처녀혼>을 발표했고, 1922년 연악회를 설립하였으며, 27세 때 제1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1925년 음악잡지 <음악계>를 창간하고, 1926년 29세 나이에 일본 동경고등음악학원(현재 구니다치음악대학) 바이올린 전공으로 졸업한 후, 동경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하여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하였다. 1929년 조선동요백곡집을 발행하였고, 이듬해 바이올린 독주곡 <로망스>, <애수의 조선>, <동양풍의 무곡>, <하야의 성군>등을 출간하였다. 1931년 미국 시카고 Sherwood 음악학교에 입학 후 이듬해 음악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에서 귀국 후 1933년, 경성보육학교 음악 주임교수로 취임하였으나 이듬해 사임하고 이화여자 전문학교 음악과 강사로 취임하였다. 1936년 '코리아 음악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937년 경성중앙방송국 방송관현악단 지휘자로 취임하였다. 1941년 조선음악협회 결성식에서 평의원으로, 국립총력조선연맹문화부 문화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같은 해 8월 30일 오전 11시 경성요양원(현재 위생병원)에서 녹막염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흥난파의 음악경력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로부터 시작되었다. 1915년 18세의 나이에 중앙기독교청년회 회관에서 경성찬양회 주최로 열린 예수탄생 축하 대음악회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시작으로 1919년 이후 매년 수차례의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1920년 작곡한 흥난파의 첫 작품 역시 바이올린 작품이다 - <애수>, 가곡 <봉선화>의 원곡이기도 하다. 그 밖의 바이올린 독주곡은 <애수의 조선>(1927), <동양풍의 무곡>(1927), <로망스>(1931), <하야의 성군>(1931), <라단조 가보테>(1931)가 있다.

흥난파의 첫 번째 가곡 <봉선화>(1926)와 - 김형준 작사, 마지막 가곡인 <사공의 노래>(1936) - 함효영 작사 - 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은상 작사에 1933년에 작곡되었으며,

‘조선가요작곡집’에 수록되어있다 : 〈봄〉, 〈봄처녀〉, 〈할미꽃〉, 〈개나리〉, 〈고향생각〉, 〈옛 동산에 올라〉, 〈옛 강물 찾아와〉, 〈입담은 꽃봉우리〉, 〈사랑〉, 〈성불사의 밤〉, 〈관덕정〉, 〈그리움〉, 〈만천교 위에서〉, 〈장안사〉, 〈금강에 살으리랴다〉.

홍난파는 1925년부터 1940년 사이에 100곡이 넘는 동요를 작곡하였다. 1925년에 작곡한 〈자장가〉는 ‘조선문단’ 6월호에 실렸고, 1929년엔 25곡을 ‘조선동요백곡집 제1집’에 발표하였다 : 〈속임〉, 〈도레미파〉, 〈휘파람〉, 〈할미꽃〉, 〈해바라기〉, 〈달마중가자〉, 〈쪼각빛〉, 〈모래성〉, 〈봄편지〉, 〈엄마생각〉, 〈두루마기〉, 〈오빠생각〉, 〈수레〉, 〈고향의 봄〉, 〈아가야 자장자장〉, 〈하모니카〉, 〈은행나무 아래에서〉, 〈시골길〉, 〈감동병아리〉, 〈나뭇잎〉, 〈벚사공〉, 〈짚신짝〉, 〈빨간 가락잎〉, 〈초생달〉, 〈낮에 나온 반달〉. 1930년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에 실린 동요는 다음과 같다 : 〈종이배〉, 〈돌다리〉, 〈가을바람〉, 〈고향 하늘〉, 〈풍당 풍당〉, 〈병정 나팔〉, 〈달〉, 〈무명초〉, 〈어머니 가슴〉, 〈동리 의원〉, 〈작은 별〉, 〈박꽃 아가씨〉, 〈골목대장〉, 〈바닷가에서〉, 〈어머니〉, 〈장미꽃〉, 〈봉시꽃〉, 〈옥토끼〉, 〈푸른 언덕〉, 〈쫓겨난 동생〉, 〈꿀돼지〉, 〈노래를 불러주오〉, 〈가을밤〉, 〈기럭이〉, 〈참새〉, 〈밤 세 톨을 굽다〉. 1933년 ‘조선동요백곡집 하편’에 실린 동요는 다음과 같다 : 〈소곰쟁이〉, 〈꽃밭〉, 〈나팔꽃〉, 〈봄소식〉, 〈댕댕이〉, 〈우슴〉, 〈봄이오면〉, 〈피리〉, 〈개구리〉, 〈제비꽃〉, 〈봄바람〉, 〈무지개〉, 〈봄비〉, 〈진달래〉, 〈꽃밭〉, 〈갈잎배〉, 〈여름〉, 〈구름〉, 〈콩칠팔새삼육〉, 〈가을〉, 〈까막잡기〉, 〈밤 한톨이〉, 〈떡떼굴〉, 〈형제별〉, 〈햇빛은 쨍쨍〉, 〈꼬부랑 할머니〉, 〈누나와 동생〉, 〈이쁜달〉, 〈귀뚜라미〉, 〈형제〉, 〈가을〉, 〈바람〉, 〈돌맹이〉, 〈전화〉, 〈들국화〉, 〈시냇물〉, 〈허재비〉, 〈해지는 저녁〉, 〈자장노래〉, 〈할머니 편지〉, 〈도는것〉, 〈잠자는 방아〉, 〈도적쥐〉, 〈눈,꽃,새〉, 〈까치야〉, 〈비누풍선〉, 〈가을〉, 〈영감님〉, 〈시집간 누나〉, 〈장군석〉, 〈고드름〉.

그 밖에도 〈방아는 색시의 노래〉, 〈녹슨 가락지〉, 〈압록강〉, 〈청공 구만리〉, 〈발랑곡〉과 같은 신민요와 〈그리운 광한루〉, 〈애련송〉과 같은 영화 주제가도 작곡하였으며 〈정의의 개가〉와 〈희망의 아침〉과 같은 친일 가요도 작곡하였다.

(3) 수원지역에서의 홍난파

수원지역에서 홍난파와 관계된 많은 음악적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8월 17일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가 창립되면서 부터이다. 1965년 ‘난파남성중창단’이 창단된 이래로 ‘난파합창단’, ‘난파어린이합창단’, ‘난파어머니합창단’이 연이어 창단되어,

이들 합창단의 음악회를 통하여 난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난파음악제가 개최되어 콩쿠르와 음악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1968년 10월 15일 음악협회 수원지부에서는 난파 탄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 팔달산 중턱에 ‘난파 노래비’를 세웠다. 화강암으로 된 비신은 높이 3미터, 넓이 1.5미터의 크기로 비의 상단 부에 난파의 측면 얼굴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붙이고, 그 밑으로 ‘고향의 봄’ 악보가 그려진 노래판을 새겨 놓았다. 노래비 후면에 새겨 넣은 건립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

수원이 낳은 우리 음악계의 선구자이신 홍난파(1898~1941) 선생이 곡을 지으신 <고향의 봄> 악보를 선생이 태어나신 지 70돌이자 신체시가 생긴 지 60돌인 1968년 가을에, 우리 고장 어린이와 어른들의 정성으로 여기 노래비를 해 세움.

1968. 10. 18. 화홍문화재단
수원노래비 건립위원회

1971년에는 난파 출생지인 남양면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난파회관을 설립하였다. 1972년 9월 28일 음악협회 수원지부는 재능 있는 음악인을 발굴하고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는 제1회 난파어린이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4월 10일에는 홍난파 생가 복원 준공식이 있었다. 2006년 4월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 4인(민정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신도성 - 경기도음악협회 난파연구원, 김도훈 - 국가보훈처 연구관, 이용창 -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음악협회경기도지회와 민족문제연구소 후원으로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를 출판하여, 난파에 관한 기념비적인 음악사적 자료를 남기고 있다.

난파기념 사업회는 1968년부터 해마다 한국의 음악을 빛나게 한 음악인에게 ‘난파음악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원에서 거행되는 난파음악제때 시상식이 이루어지며, 이 상을 받은 음악가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명성을 구가해 오고 있다.

(4) 대중음악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대중가요를 번역하거나 변안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음반이 보급되면서 또한 악극단이 대거 창단되면서 대중가요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해방이 되고나서 대중가요는 이전보다 밝

고 기쁜 특징을 갖게 되었으나 6.25 전쟁과 함께 수많은 전시가요가 탄생하게 된다. 전시가요는 일종의 군가와 대중가요가 합쳐진 형태로서 군가풍의 가요 뿐 아니라 전쟁의 아픔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가요, 가족과의 이별을 노래한 이별가요 등 다양성을 가진 가요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이 애창되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엔 분단의 상황과 이별의 슬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는 곡들이만 들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미국의 팝음악이 유입되면서 미국 팝송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으로 작곡한 ‘한국 팝’이 유행하게 되었다. 1960년대엔 민간방송국이 생겨나면서 대중가요는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1970년대엔 트로트풍의 가요와 한국 팝 음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포크송과 록음악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엔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다양한 대중음악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전의 트로트, 팝, 포크송, 록 풍의 가요 뿐 아니라, 이 모든 장르들이 서로 결합된 댄스뮤직이 등장한다.

3) 해방 후 수원지역의 양악(1945 ~ 1953)

광복의 환희와 함께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지되어왔던 노래들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다. 일본의 창가와 군국가요는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었으며, 흥난파가 작곡한 동요와 가곡 그리고 해방가요도 부를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음악 교과서 대신, 우리가 만든 음악 교과서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민족음악의 수립과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구호아래 해방가요가 등장하고, 민족음악운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수원지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전쟁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각종 음악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수원지역에는 6.25사변이 발발하자 철원 등 북부지방의 사람들이 피난을 왔다가 거주하게 되면서 실향민들의 마을 음악회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2. 1953년 이후(1953 ~ 1980)

1) 수원문화원 개원

수원문화원은 전쟁이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파괴된 국토를 재건하고 새로운 서구문명을 도입하여 향토를 일깨우자’는 취지로, 1956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동년 10월 28일 개원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생긴 문화원으로 초대원장은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김한복이 1960년 10월까지 맡았다. 1958년 8월 초대원장 시기에 문화예술 잡지인 ‘수원문화’를 창간하였다. 2대 수원문화원장은 윤공렬이 맡아 1960년 12월 27일부터 1961년 5월 25일까지 재직하였다. 3대 원장은 현역 장교인 육군 중령 이백일이 1961년 5월 25일부터 1962년 2월 8일까지 맡았으며, 4대 원장은 허철이 1963년 2월 12일부터 1964년 10월 20일까지 맡았다. 5대 원장부터 민간인 수원문화원장으로 김승제가 선출됐다.

김승제는 수원문화원 초창기 운영 위원이자, 이사직을 맡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966년 수원예총 창립을 주도해 수원예총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5대 원장 시기인 1964년 10월 21일 당시 공보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수원문화원의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11월 14일 법인등기를 완료했다. 초창기 수원문화원 사업(1964년 - 1973년) 중 음악관련 행사를 살펴보면, 매년 음악 감상회가 20여 차례 실시되었는데, 그 당시 클래식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가늠케 한다.

수원문화원은 민간운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쳐나간다. 수원문화원 어린이 합창단과 색동극회는 1964년 4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시민회관에서 ‘어린이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창립공연을 갖는다. 수원문화원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문화 예술인과 애호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장원회’라는 모임은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의 소질을 갖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음악 부문에는 전평화, 송철호, 김환규 등이 활동했는데, 전평화(작고)는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송철호는 수원시립합창단 단무장을 역임했으며, 김환규는 베세토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1965년 수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합창단인 ‘난파합창단’을 창단하였다. ‘난파합창단’ 창단연주는 1966년 5월 30일에 있었다. 창단연주 이래 매년 ‘송년음악회’와 ‘신춘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익승 제8대, 제9대 수원문화원장은 1973년 5월 9일에 취임하여 1978년 4월 6일에 퇴임하였다. 안 원장 시절에 가장 의미 있었던 업적은 화흥문화제 때 처음 거행된 ‘정조 화성릉 행차’인데, 1975년 제12회 화흥문화제에 관한 경기신문의 기사를 보면, ‘수원시를 효도의 상징 도시, 그리고 푸른 숲과 사랑에 물씬 문화 고적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22만 수원시민의 축제인 화홍문화제 서막식장에는 3군 군악대와 시내 각 중, 고등학교 연합 밴드의 팡파르가 지축을 흔들었고, 환희에 한 6만여 시민들은 축제의 합성을 울렸다고 한다.

홍사일 제10대 수원문화원장 시절의 중점사업 중 음악관련 사업을 보면, 연주회, 합창발표회, 건전가요대회 등 문화 활동과, 합창동아리와 음악동우회 등의 문화진흥사업이 있다. '난파합창단'이 수원문화원 소속 문예단체로 있었다. 1983년 9월 15일 제11대 수원문화원장으로 이수영이 선출 되었으며, 제12대, 제13대 수원문화원장은 1987년 9월 18일 심재덕이 선출된다. 이때부터 수원문화원을 권선구청으로 이전한다. 심 원장 취임 후 수원문화원 주관으로 처음 열리는 송년음악회가 1987년 12월 21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있었다. 이 연주회에는 수원시립합창단(지휘 이상길)과 난파 합창단이 함께 참가하여 헨델의 <메시아>를 피아노에 김범주와 오르간에 김경희가 맡고 소프라노 호난영, 알토 조옥연, 테너 곽유신, 베이스 정동진이 출연하였다.

1988년 이후 심재덕 원장의 음악관련 주요사업은 월간지 <수원사랑>을 창간하고, 난파소년소녀합창단, 난파합창단 등 회원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여름 밤의 축제와 화홍문화제를 내실화하는 것이었다. 1991년도 수원문화원 사업으로 추가된 행사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와 핀란드의 세계적인 합창단 '타피올라합창단 초청공연'이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행사는 매월 셋째 월요일에 음악 애호가와 오디오 동호인을 위해 마련된 '월요감상회'와 '수원오디오모임'이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심 원장은 제13대 문화원장으로 선임된다.

1992년도 수원문화원 사업 중 음악분야는 더욱 확대되었다. '국내정상의 오페라 초청공연', '국내정상의 합창단 초청연주회',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 '가을맛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제3회 수원사랑 가족 노래잔치', '송년음악회' 등이 그것이다. '92, 세계합창제 참가팀 수원초청연주회'가 8월 26일, 27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5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첫 날은 아르투르 그로스가 지휘하는 독일 칼 오르프 합창단의 합창공연이 있었고, 27일엔 미우라 노리아끼가 지휘하는 일본 기타쿠슈필하모니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11월 26일 수원시민회관에서는 레이디스 오케스트라의 전신인 주부합주단(단장 손순이)인 '수원사랑합주단' 창단 연주회가 열렸다. 또한 12월 17일 오후 6시 '수원사랑합주단 작은 음악회'를 수원문화원 큰사랑에서 개최하였다. 12월 18일 오후1시 팔달문에 있는 '황태자의 첫사랑'이

란 장소에서 ‘만도린반 발표회’라는 작은 음악회를 가졌으며, 12월 19일 오후4시에는 수원시민회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3회 수원사랑노래잔치’가 열렸다. 1993년도에도 월요 음악 감상회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며, 12월 4일 오후4시 수원시민회관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제4회 수원사랑 큰잔치’가 열렸다. 난파합창단, 난파소년소녀합창단, 대한어머니합창단, 수원사랑합주단 등의 특별출연과 가족 노래 경연대회가 열렸다. 1994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원여름음악축제, 수원사랑 가족노래잔치 등이 있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제14대, 제15대 수원문화원장은 김종기가 선출되었다. 이 시기에는 심재택 전 원장이 다져놓은 사업을 바탕으로 규모가 방대해졌다. 2000년도부터 수원문화원은 수원시민회관으로 이전한다. 2002년도 문화행사는 수원 월드컵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6월 3일, 12일, 15일에는 연무대특설무대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수원국제음악제가,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만석공원에서 수원월드컵 빌리지 행사가, 6월 5일, 11일, 13일, 16일,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장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2003년 유병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수원문화원의 문화 사업은 변화를 가져온다. 유병현 원장의 첫 공식 문화행사인 제16회 수원여름음악축제는 기존의 공연방식인 ‘국악의 밤’, ‘교향악의 밤’, ‘팝의 밤’, ‘합창의 밤’ 등으로 진행 되어오던 축제가 ‘樂!樂!Music!’으로 새롭게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40회 수원 화성문화제’ 또한 이전과는 색다르게 수원시립합창단의 경축합창과 함께 2천여발의 불꽃축제가 열렸다. 수원이 행복한 도시임을 상징하는 “Happy Suwon”이라는 도시브랜드 선포식과 함께 ‘정조대왕 맛이’ 축하공연이 최영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베이비박스, 이선희, 설운도 등이 출연하였다.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수원레이디스 오케스트라(단장 강영옥)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12월 15일 오후 5시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제14회 수원사랑 큰잔치 및 수원문화원장이 취임식’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초청성악가 공연(소프라노 김수기, 테너에 변광석, 피아노 박근혜)과 대한여성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2004년도엔 수원지역 중심의 학술연구단체인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가 창립되었고, 문화학교의 새로운 강좌들이 신설되었다. 2004년도 수원여름음악축제에는 처음으로 수원지역 고교생 밴드들에게도 무대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2005년도 수원여

름음악축제는 처음으로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졌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펼쳐진 제42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전에 없던 “수원의 북소리”라는 행사가 시민퍼레이드에 신설되었다. 수원의 북소리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서 각각 수원을 상징하는 퍼레이드카를 만들고 500명씩의 참가자가 북을 치며 행진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시민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줄을 장식하며 웅장한 행진을 하였다. 음악은 음악협회 경기도지회장인 오현규가 맡았다.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수원문화원 주관으로 국제지휘콩쿠르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려, 수원시를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8월 4일, 5일 애경백화점 이벤트 홀과 수원 밀리오레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9회 수원여름음악축제 프린지 공연’은 수원여름음악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8월 14일 오후 8시 제2야외음악당에서는 수원시 주최, 수원문화원 주관으로 “The Best of Musical” 기획공연이 있었다.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남성 팀의 남성팍페라 그룹과 스페란자가 출연하여 ‘돈키호테’,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영화 ‘텔미 씬씬’, ‘변지점프를 하다’의 삽입곡 등을 연주하였고, 여성 팀으로는 뮤지컬 여성 그룹인 엘 디바가 출연하여 ‘맘마미아’, ‘명성황후’, ‘singing in the rain’, ‘블루사이공’ 등을 연주하였다. 여성솔로에는 이해경, 남성솔로는 류정환이 출연하고,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았다. ‘2006, 전국대학생 음악경연대회’와 ‘제19회 수원여름음악축제’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오후 8시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7회 수원사랑 큰잔치’가 열렸는데, 대한여성합창단과 수원레이디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다.

2)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 창립

‘전쟁’은 한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였지만, 전쟁으로 인해 근거를 비롯한 일종의 전시기야와 전시동요가 보급되었고, 서구문물의 급격한 수용으로 인해 세계음악의 동향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음악활동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결과 음악가들은 자신의 활동을 위한 근거지가 될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한국의 음악단체로는 전쟁 직후 '대한음악가협회'가 있었고, 1956년 5월에는 7개 단체 - 한국작곡가협회, 한국연주가협회,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한국교육음악협회, 한국관악연맹, 고려교향악단, 한국교향악협회 - 를 하나로 묶어 '한국음악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 1961년, 이원화된 두 단체 - 대한음악가협회와 한국음악단체연합회 - 를 통합하여 '한국음악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1962년에는 이 단체가 사단법인이 되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음악협의회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음악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같이 음악계의 행정기능을 갖춘 단체의 역할을 하게 된 한국음악협회는 각 시, 도의 협의회를 갖게 된다.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협의회는 1962년 2월 문협, 미협, 음협, 국악, 사진 등 5개 단체 대표가 인천문화회관에서 예총 경기도지부 발기총회를 갖고, 그해 3월 이 시기 경기도의 중심부였던 인천에 창립하게 된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64년 8월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가 창립되면서 1960년 초까지 주도해왔던 경기도 음악예술은 이제 수원으로 그 무대가 옮겨지게 된다. '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로부터 1966년 1월 8일 정식인준을 받는다.

1981년, 경기도 행정 관할구역 안에 있었던 인천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그동안 인천 중심이었던 음악적 조직과 활동이 수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같은 해 7월 15일 '음악협회 수원 지부'는 '음악협회 경기도 지부'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되어 인준을 받는다. 결국 1964년에 창립한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와 1981년 설치된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지부'는 명칭만 다를 뿐 수원지역의 음악가들의 권익과 활동 여건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단체였다. 1990년대에 들어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악협회 경기도지부'는 수원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범도민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1991년 12월 10일 발기인 총회가 열리고 수원에 수원지부가 새로이 발족하고, 부천, 성남, 송탄, 광명, 시흥, 평택 등의 지부가 생겨나게 된다.

3) 그 밖의 음악활동

2006년 12월에 발간된 <경기예총40년사>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수원지역에서의 음악활동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으며, 1967년 경기도청이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전되면서부터 수원지역의 음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

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수원지역에서 개최된 첫 번째 기록된 음악회는 1958년 7월 19일 '수원의 노래'를 작곡한 이흥렬의 연주회이다. 1959년 10월 31일, 제일극장에서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가 개최되었는데 지휘에 임원식, 소프라노 민강자, 테너 이동식 등이 출연하였다.

1961년 3월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 '보헤미안 Clee'가 지휘 조성지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서울 농대 강당에서는 부산오페라단장 이강열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을 연주하였다. 1962년 4월 14일엔 정부 초청으로 내한한 안익태 귀국 연주회가 있었다. 전국 순회연주회로 수원에서는 서울농대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한국환상곡〉은 안익태가 고국에서 갖는 마지막 연주회였다. 1964년 3월 1일 '색동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고, 6월 20일 수원시민회관에서는 YFC 주최로 첫 외국인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미국의 에스케이 켄터키합창단은 마드리갈, 미국민요, 독일영가 등을 연주하였다. 1965년 7월 21일 난파합창단 창단 지휘자의 창작곡인 오페레타 '꽃마을 아이들'이 공연되었다.

1964년 음악협회 수원지부의 창립 이후 수원지역에는 많은 합창단이 창단되었다. 1965년 9월 이종원 회장을 비롯한 장원회를 중심으로 '난파남성중창단'이 창단된 후 1966년 9월 혼성으로 재편성되어 오늘날까지 수원음악계를 대표하는 음악단체로 성장한 '난파 합창단'이 있다. 난파합창단은 1967년 홍성열 지휘의 '난파어린이합창단'과 조성지 지휘의 '난파어머니합창단'을 낳는다. 그밖에도 수원시민의 음악향유기회와 음악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합창단이 생겨났다 - 솔람미여성합창단(지휘 이상길), 경기도청합창단, 선경합섬선영회(지휘 오현규), 한전수원지사합창단(지휘 배용재) 등.

이 시기에 제12회 전국관악제가 경기도관악협회(회장 김형익, 상임부회장 오현규) 주관으로 수원실내체육관과 수원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면서 관악부문에서의 전국규모 대단위 행사가 수원지역에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 수원농고 관악동문회 '향음회'는 10여회의 연주회와 파월장병 가족위안공연 등을 가졌으며, 수원고등학교, 삼일상고, 수성고교 등의 관악동문연주회도 있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여자 고적대인 영복여고 고적대를 시작으로 수원지역의 중, 고교 관악대가 활성화되었으며, 재 창단된 수원공고의 남성 마칭퍼레이드단이 수원지역의 대단위 행사에 참여하였다.

3. 1980년대 이후(1980 ~ 현재)

1) 수원지역 연주단체의 창단

(1) 수원시립교향악단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예술단체들도 행정적인 이관 절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지부가 인천에서 도청 소재지인 수원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경기음악은 흥남파의 고향 수원이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 지부의 창립과 더불어 1982년 4월 17일 단원 48명으로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다. 초대 상임지휘자는 수원음악의 산 증인인 송태옥이 맡았다. 2년 후인 1984년 2관 편성에 이어 현재는 9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정두영, 김몽필, 금난새 등의 상임지휘자를 거쳐, 2001년 박은성이 5대 지휘자로 부임해 2007년까지 재직하였다. 2008년 5월부터 신임 상임지휘자로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김대진을 영입하였다.

1995년 3월에는 창단된 이래 최초로 미국 순회공연을 가졌으며, 같은 해 10~11월에는 영국과 스페인 공연도 하였다. 이밖에도 1998년엔 타이와 2001년엔 일본, 인도네시아, 타이완 순회공연을 가졌으며, 2003년 10월에는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오사카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2004년 5월에는 독일의 에케스하우젠 음악제에 초빙되어 순회공연을 개최하였다. 2004년부터 브루크너 교향곡 연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2) 수원시립 합창단

'세계 정상의 하모니', 그리고 '최고의 합창음악'을 지향하는 수원시립합창단은 1983년에 창단되어 수많은 연주회를 가졌다. 세계합창 심포지엄과 오리건 바흐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였고 문화예술의 도시 수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문화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2001년 5월에는 미국, 멕시코 지역을, 그리고 2002년 3월에는 중국 순회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03년 8월에는 영국합창지휘자협회의 초청으로 버밍햄 심포니 홀 연주와 민인기 상임지휘자의 강의로 '한국합창음악'을 주제로 영국합창 지휘자협회 회원들에게 워크숍을 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성 어거스틴 초청

연주회와 체코 프라하에서 프라하 실포니에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하는 등 성공적인 유럽 순회연주를 마친바 있다. 음악회에 참석한 전 관객의 환호는 물론 합창지휘자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등 세계 속의 합창단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2008년 8월엔 두 번째로 영국 합창 지휘자협회의 초청과, 영국, 루마니아,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음악회에 참석한 세계정상의 음악가들로부터 “세계 정상의 합창단 그리고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연주는 독특하고 실험적인 무대구성으로 많은 음악인들과 합창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발레와 합창의 만남, 현대무용과의 만남을 통해 합창무대에 동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항상 학구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한국합창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3)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1997년 10월에 창단된 국내 최초의 도립 오케스트라이다. 단원 70명으로 시작된 경기필하모닉은 2007년 90명의 대규모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확대 되었다. 낭만 시대 이후의 말러, 부르크너,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등 대편성 교향악을 주 레퍼토리로 연간 14회의 정기연주회와 60회 이상의 기획연주 및 초청연주를 소화해내고 있다. 초창기에는 발레와 오페라 중심의 활동으로 국내외 오페라단 발레단들과 공연하며 “노래하기에 최상의 오케스트라”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이후 팝스 오케스트라 편성을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확대하면서 명칭도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그램 중, ‘모차르트 음악 시리즈’와 ‘베토벤 음악시리즈’,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청소년 여름예술 여행’등이 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연주들로 꼽힌다. 2003년부터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 참가하며, 국내 메이저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2003년부터 국내외 우수한 연주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연주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챔버 및 앙상블 연주에서도 매년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 2005년 ‘세계의 명지휘자 초청 연주회’는 Luke Dollman, Robert Handerson, Imant Kotsinsh 등 중진급 지휘자들이 초청되어 내실 있는 연주를 펼친 것으로 언론의 호평을

듣기도 했다. 2006년 9월 예술 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금난새를 영입하여 경기필하모닉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경기필하모닉은 금난새 예술 감독의 취임과 함께 경기도 음악 페스티벌, 소외지역과 학교방문 연주, 유스 오케스트라 육성, 음반의 활발한 제작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2) 전문공연장 건립

(1) 경기도 문화의 전당

《연혁》

- 1984년 지방문화시설 확충계획 확정 설계공모
- 1988년 경기도 기술자문 위원회 구성
- 1990년 독립극단 창단
- 1991년 준공 및 개관
- 1993년 독립 무용단 창단
- 1996년 독립 국악단 창단
- 1997년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창단
- 2004년 03월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 설립 발기인 대회
- 04월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 설립 등기
- 06월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 출범
- 07월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 국악당 개관
- 지하 주차장 공사완료
- 2007년 12월 ISO 9001 / 14001획득
- 04월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 공연장 리모델링 재개관

《규모》

- 대지면적 : 48000m²(14540평)
-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지하2층 지상3층)
- 건물연면적 : 대공연장 13,295m²(1559석)
- 소공연장 3,157m²(502석)
- 야외공연장 2,000m²(605평)

컨벤션센터 620m2(192석)

대전시장 727m2(220평)

소전시장 311m2(94평)

1991년 6월에 개관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방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코자 건립되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6,657평으로 대·소공연장을 비롯하여, 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 대·소전시장 등 각 시설물마다 완벽한 문화제반사항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항상 끊임없는 최첨단 시설 구축으로 앞서가는 문화, 전문적인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관객에게 최상의 문화와 함께하는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2)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연혁》

- | | |
|---------------|---|
| 1999년 12월 3일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정 / 동 조례시행규칙 제정(2000.2.17) |
| 2000년 1월 26일 | 개관(시직영) |
| 6월 1일 | 공단수탁, 업무개시 |
| 2001년 4월 1일 | 청소년 신문 창간(2003년부터 Teen's eye로 개칭) |
| 2002년 10월 15일 |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지정(2002 - 2호 문화관광부지정) |
| 3월 30일 | 구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개국 |
| 2003년 3월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다문화 이해프로그램 CCAP(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협력기관 협약 |
| 7월 | 일본 우호도시 후쿠이 시와 청소년 교류(주니어대사 파견) 시작 |
| 2005년 5월 | 대학생문화기획단 창단 |
| 8월 | 중국 국제청소년 교류센터(베이징)와 대학생교류 시작 |
| 12월 | 법무부장관상 수상(지역사회범죄예방 및 보호행정 발전기여) |
| 2006년 7월 | 자매도시 아사히카와, 韓, 中, 日 관광장관회의 청소년대표 참여 |
| 8월 | 청소년 뮤지컬제작사업 ‘흔들자 느끼자 우리세상!’ |
| 12월 | 〈제55호〉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획득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역사 탐방〉 |
| 2007년 8월 | 호주 타운즈빌 시와 홈스테이 어학연수 시작 |

2008년 1월 <374호> 청소년수련 활동 국제교류 프로그램 최초 인증 획득
<일본 시가 현 요트캠프>

《규모》

- 온누리아트홀 : 519석(장애인 5석 별도)
- 은하수홀 : 130석
- 체육관 : 691석(3,170m²)
- 전시실 : 311m²
- 야외 공연장 : 600명 수용

(3) KBS 아트홀

《연혁》

2008년 7월 4일 개관

《규모》 연극, 뮤지컬, 무용, 콘서트, 기타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공연전문 소극장

- 무대 : 168.25m²
- 객석 : 190석
- 위치 : KBS수원센터 편의동 동관 1, 2층(1,080m²)
- 층별 구성 : 1층) 무대, 객석, 조정실, 매표소, 로비, 스낵코너 등
: 2층) 연습실, 회의실, 사무실, 분장실, 의상소품보관실, 대기실 등

(4)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연혁》

- 2009년 11월 화성시문화재단 및 대표이사 명칭변경
- 06월 홈페이지개편 및 회원관리시스템 연동
- 05월 화성문화재단 BI 개발완료
- 05월 회원관리시스템 개발완료
- 03월 여성비전센터 문화강좌 제1기 개강식
- 03월 청소년수련관 교육강좌 제1기 개강식
- 03월 화성아트홀 기획공연 시작
- 02월 유엔아이센터 제1기 스포츠회원 모집

- 2008년 12월 개관식
 - 10월 유앤아이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체결
 - 06월 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05월 유앤아이센터 BI 개발 완료
 - 03월 유앤아이센터(You & I Center) 상표등록 의뢰
- 2007년 10월 운영 조례 입법 예고
 - 08월 건설기술심의(실시설계 적격심의)
 - 07월 “You & I Center”(유앤아이센터) 명칭 공모작 당선
 - 04월 공사착공
 - 03월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설명회 개최
- 2006년 10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발주
 - 09월 도시관리계획 시정결정
 - 06월 건립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05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
 - 05월 재정투융자심사(자체)
- 200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12월 정위원회 의결
 - 09월 여성회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병점동 734외)

《규모》

화성아트홀(공연장)

위치 : 지상 1층

700석 규모에 243㎡의 무대와 오케스트라박스(Orchestra Pit)를 갖춘 실내공연장으로서 우드후로링 바닥 시공 및 자연무늬목 벽체, 곡선형 천정 설계로 고품격 분위기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흡음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음향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전송 손실이 적고 오디오 채널의 증가가 가능한 광케이블 디지털 전송방식을 구축하였다. 전자음향과 건축음향을 상호 보완 조화시켜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연출할 수 있는 다목적 예술공간. 각종 세트를 설치하고 상/하 전환시킬 수 있는 15세트의 전동식 가변 세트 바텐, 하우스 커튼, 조명 파노라마, 오케스트라 리프트, 웨곤 등으로 구성된 하부 무대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5) 삼호아트센터

2007년 6월 23일 개관한 삼호아트센터는 DSD삼호 창업자인 김언식 회장이 기업을 성장하게 해준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문화 사업으로 환원하고자 설립 하였다. 당초 경기은행 건물이었던 아트센터 건물을 삼호건설이 인수하면서 회의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공연공간으로 좋은 시설과 입지를 갖춘 데 착안해 이곳을 리모델링하여 아트센터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퓨전 국악, 챔버 오케스트라, 작은 오페라, 성악 앙상블 등, 한 달에 2회의 정기 무료 공연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공연단체를 위해 공연장을 개방, 무료대관을 통해 지역 문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실버오케스트라, 장애인 공연단체 등 아마추어 공연단 등 전문화 된 공연무대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체들도 많아 이들이 음악으로 시민과 소통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연혁》

2007년 06월 디에스디 삼호아트센터 개관

《규모》

규모 : 공연장, 조정실, 로비, 주차장 등 부대면적 포함 약 3636m²

객석 : 일반석 332석, 장애우석 5석, 총 337석

무대 : 72m² - 가로12m, 깊이6m / 남자분장실 2석 락카 6개, 여자 분장실 4석 락카 8개

3) 음악제 및 마을 음악회

건전한 음악문화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음악협회 경기도 지회와 수원지부가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을음악회는 지역 예술단체 및 지역가수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1)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시가 1964년부터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문화관광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조의 효심과 개혁의 상징인 화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자 시작한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종합 축제이다.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여 경기도청 신축 기공식날인 1964년 10월 15일을 수원시민의 날로 제정하고 ‘화홍문

화제'를 만들었다. 제36회째인 1999년부터 명칭을 '화흥문화제'에서 '수원화성문화제'로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 구성은 전야제와 개막식,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혜경궁 홍씨 회갑연 및 양로연, 정조시대 야간 군사훈련, 장용영 수위의식, 화성축성 체험, 화성행궁 궁중문화체험, 음식축제,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민속경기 등 다양하다.

제25회 화흥문화제(1988년 9월 13일~15일)의 마지막 날 시민회관과 화랑, 수원문화원 등에서 경축음악회가 열렸으며, 제26회(1989년 10월 9일~15일)때는 첫날 시민회관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경축연주회가 열렸고, 11일에는 어린이동요대회, KBS 시민위안공연, 국악의 밤 등의 공연이 있었다. 제27회(1990년 10월 12일~15일)때 경축식 후에 열린 시민위안공연에서 인기가수들이 출연하여 축제의 열기를 더하였다. 제28회(1991년 10월 12일~16일)때는 15일 오후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공연과 시민회관에서 연합합창제가 열렸으며, 16일에는 수원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제29회(1992년 10월 14일~18일) 전야제 행사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있었고, 15일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수원시립합창단의 공연이, 16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경축합창제가 열렸다. 제30회(1993년 10월 14일~22일)는 17일 창작가요제, 22일 국립국악원 초청연주회가 시민회관에서 있었다. 제31회(1994년 10월 13일~16일) 둘째 날인 14일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경축합창제 공연이 있었다. 제32회는 1995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졌으며, 제33회(1996년 10월 8일~15일), 제34회(1997년 10월 8일~15일), 제35회(1998년 10월 8일~14일)때는 경기도문화회관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제36회(1999년 10월 7일~13일)부터는 '화흥문화제'를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되었다. 제37회(2000년 10월 7일~13일), 제38회(2001년 10월 6일~10일), 제39회(2002년 10월 9일~13일)와 제40회(2003년 10월 9일~12일)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원시립예술단의 경축음악회 등이 있었다. 제41회(2004년 10월 7일~10일), 제42회(2005년 10월 7일~10일), 제43회(2006년 10월 13일~16일)때는 정조대왕의 생애와 18세기 시대상을 그린 뮤지컬 <정조대왕>이 매년 공연되었다.

제44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수원화성행궁 등에서 열렸다. 수원화성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였고, '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해 '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110만 수원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문화 관광축

제로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11일 팔달산에서 경축타종을 시작으로 전야제 행사가 열렸으며, 개막축하공연은 비보이공연과 록, 발라드, 트로트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12일에는 화서문 광장에서 뮤지컬 <정조대왕>이 공연되었다. 그 밖에 해피수원 마칭밴드 축제가 있었다.

제45회(2008년 10월 8일~12일)에는 두 개의 뮤지컬, <정조대왕>과 <다산 정약용>이 극단 '성'에 의해 화서문 앞 광장에서 공연되었고, 11일 오후 3시30분 "마칭밴드 축제"가 화성행궁 앞 광장에서 펼쳐졌으며, 저녁에는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예총 수원지부 주최로 가요, 국악, 타악, 무용, 합창, 중창 등의 공연이 있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2일 밤 8시부터 화성행궁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는 가수 축하공연과 퓨전 재즈밴드 공연이 어우러진 폐막공연 행사가 있었다.

제46회(2009년 10월 7일~12일) 전야제는 여민각에서 경축합창이 열렸고, 화서문 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뮤지컬, <정조대왕>과 <다산 정약용>이 이틀간 공연되었다. 8일에는 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에서 인순이, 전영록, VOS, 소명, 뮤지컬 팝스오케스트라, 최소리 아리랑파티, 뮤지컬 Top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9일 팔달문 시장에서는 해피수원 대학가요제가 열렸다. 12일 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에서 거행된 폐막행사에는 윤도현밴드, 이용식, 김민교, 미쓰고밴드, 퓨전타악그룹 ART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2) 수원여름음악축제

수원여름음악축제에 관해서는 <수원문화원50년사>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수원문화원' 주최로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작한 '수원여름음악축제'는 음악회가 실내가 아닌 야외음악당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타 축제와 구별된다. 축제는 매일 장르별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는 게 특징이다. 1999년 제12회 축제 때는 수원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고, 제13회(2000년)는 광복 55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제20회(2007년) 축제는 수원문화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제21회(2008년)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또한 수원시 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제22회(2009년) 축제가 거행되었다.

수원여름음악축제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라는 명칭으로 개최되다가, 음악축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1993년부터 공식명칭을 <수원여름음악축제>

로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2010년 8월, 수원여름음악축제는 23회째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3) 수원사랑 큰잔치

수원문화원이 주최하고 수원사랑 어머니회가 주관하는 수원사랑 큰잔치는 1990년 시민들의 음악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시작 되었다. 1992년까지는 ‘수원사랑 노래잔치’로 이루어지다가 1993년도부터 ‘수원사랑 큰잔치’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0년 12월 2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반 시민이 가족 팀별로 참여하는 가족음악경연대회의 성격이었는데, 점차 수원문화원 문화가족 송년의 밤 행사로 그 성격이 바뀌어 현재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2002년(제13회)부터 행사규모가 확대되어 식전행사로 댄스스포츠공연(2002년), 수원 레이디스 오케스트라 공연(2004년), 사물놀이 동아리 공연(2005, 2006년) 그리고 주부 난타반 공연(2008년)이 있었다.

(4) 난파 음악제

‘난파음악제’는 우리나라 근현대음악사의 상징인 난파 홍영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예총 경기도지회 주최로 1969년 8월 30일 난파 추모일에 맞춰 시작하였으나 제17회부터는 난파 탄신일인 4월 10일에 개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현 경기도 지부)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난파기념 사업회, 경인일보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있다. 1969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0년 제42회를 맞이하였다.

난파음악제는 크게 두 가지 행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행사는 전국규모의 난파음악콩쿠르이다. 초창기에는 중등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시행되다가, 작곡부문에 대통령상이 수상된 1983년부터 일반부(대학) 위주로 개최된다. 경연은 다섯 개의 각기 다른 장르로 구분되며 - 작곡, 현악, 합창, 관악합주, 성악 - 난파콩쿠르 입상자들은 한국음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난파음악제의 두 번째 행사는 국내의 수준 높은 연주단체나 개인을 초청하여 연주하는 초청공연이다. 교향악, 합창, 성악, 기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969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는 난파음악제는 난파가 친일시비에 연루되면서부터 2004년 이래로 ‘기전음악제’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어 개최되고 있다.

제1회 난파음악제, 1969년 8월 30일, 국제극장

제2회 ~ 제35회 난파음악제, 1970년~2003년

제1회 기전음악제, 2004년 9월 4일(토), 19:30,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난파콩쿠르 입상자 초청음악회〉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최승한)

바리톤 : 정승기(제36회 난파콩쿠르 성악1등)

바이올린 : 나윤아 (제36회 난파콩쿠르 바이올린 1등)

피아노 : 이옥규 (제36회 난파콩쿠르 대상)

〈관악합주콩쿠르 부문〉

대상 - 안산경일고등학교

최우수상 - 양평양일고등학교, 서울동양공업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영상고등학교, 장호원고등학교

제2회 기전음악제, 2005년 5월 11일(수), 9월 10일(토) 19:30, 경기도문화의전당 대

공연장

〈국외 우수연주인 초청〉

“봄, 사랑 그리고 아리아”, 러시아블쇼이 오페라주역가수 초청

메조소프라노 : 이리나 아가네소바

소프라노 : 안나 아글라토바

바리톤 : 세르게이 모스칼코프

테너 : 손성래

특별출연 :남성 중창단 아로싱어즈,

〈국내 우수신인음악인 초청〉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RP하는 “순수와 열정”

소프라노 : 오주영(제37회 난파콩쿠르 성악2등)

바리톤 : 이동환(제37회 난파콩쿠르 성악2등)

피아노 : 김유경(제37회 난파콩쿠르 피아노 2등)

제3회 기전음악제, 2006년 9월 2일(토) 19:00,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경기도립오케스트라〉

바리톤 : 이승원(제38회 난파콩쿠르 2등)
바이올린 : 이윤의(제38회 난파콩쿠르 1등)
소프라노 : 이윤정(제38회 난파콩쿠르 연주대상)
피아노 : 강한솔(제38회 난파콩쿠르 1등)

〈러시아볼쇼이오페라 주역가수〉

소프라노 : 보이코갈리나
테너 : 찰리니코프 안드레이, 손성래
바리톤 : 오시포프

제4회 기전음악제, 2007년 9월 1일(토) 19:30,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순수와 열정”〉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 유광

Opera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 G. verdi

– Opera “운명의 힘” 서곡

Violin. 정경아 Zigeunerweisen Op.20 P. Sarasate

Sop. 윤성희 사랑 흥난파

Der Ho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 W. A. Mozart

– Opera Die Zauberflote 中(밤의 여왕 아리아)

Piano. 박창규 Concerto No.3 Op.30 1st. mov. S. Rachmaninoff

– INTERMISSION –

Flute. 김희숙 Carmen Fantasie F. Borne

Sop. 오은경 그리움 흥난파

Summertime – Opera Forgy and Bess 中 G. Gershwin

Una voce poco fa(방금 들린 그대 음성) G. Rossini

– Opera Il Barbiere di Siviglia 中

Ten. 임정근 사공의 노래 흥난파

Una Furtiva Lagrima(남몰래 흐르는 눈물) G. Donizetti

– Opera L'Elisir d'amore 中

O sole mio (오 나의 태양) E. D. Capua

Sop. 오은경 / Ten. 임정근 Libiamo n'lieti calici(축배의 노래) G. verdi

- Opera La Traviata 中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 유광·Opera Die Fledermaus Overture J. Strauss

제5회 기전음악제, 2008

제6회 기전음악제, 2009년 9월 5일(토) 19:30,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금난새와 함께하는 2009 기전음악제〉

오케스트라 / Polonaise from Opera 〈Eugene Onegin〉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피아노 김상진 / 라흐마니노프 Piano Concerto No.2, 1st mov. /

소프라노 서활란 / 사랑 ----- 흥난파

Opera La Rondine 中 - ‘Ch’il bel sogno di Doretta’(도렛따의 꿈)

테너 나승서 / 금강에 살으리랴다 ----- 흥난파

‘Opera La Boheme 中’ - ‘Che gelida manina’(그대의 찬 손)

- G.Puccini

듀엣 (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나승서)

/ ‘Opera La Boheme 中’ - ‘O soave fanciulla’(오 사랑하는 아가씨)

- intermission -

피아노 김정원 / Piano Concerto No.5 in E flat major, Op. 73 “Emperor”

/ L.v.Beethoven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

오케스트라 / Overture Solenelle “1812” Op. 49 / P. Tchaikovsky

차이코프스키 장엄서곡 “1812”

(5) 그 밖의 음악제 및 경연대회

향토 음악제 : 수원이 배출한 우수한 음악인재와 수원을 빛낸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향토음악제는 1999년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와 수원지부 주최로 시작되었으며, 음악과 예술의 도시 수원의 음악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문화적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음악인을 배출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음악제가 될 것이다.

수원 예술인 축제 : 사단법인 수원예총이 주최하고 미술, 음악, 사진, 문인, 연예 등 8

개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축제로 2005년부터 매년 가을에 약 한 달간 개최된다.

제1회 2005년 9월

제2회 2006년 9월 5일~10월 15일, 수원미술전시관, 장안구민회관, 연무대 특설무대
9월 9일 오후5시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벨소리 음악회’, 수원기타앙상블, 한음챔버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김명신, 소프라노 원영순 출연

제3회 2007년 9월 4일~21일, 수원미술전시관,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9월 21일 경기문화의전당 소공연장, ‘홍난파의 삶, 그리고 가곡과 동요’

제4회 2008년 9월 2일~27일, 수원미술전시관, 장안구민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9월 1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가을이 오는 소리’

9월 24일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수원향토가요콘서트’

수원합창제 : 합창의 의미인 화합을 구현하고자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원합창제는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지회와 수원지부 주최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2 - 3일간 개최된다. 수원합창제의 프로그램은 수원시 음악협회 산하단체와 지역 합창단의 연주로 구성되며, 지역 음악단체의 음악활동을 향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음악 발전을 도모하는 합창제이다.

경기 합창제 : 제1회 경기음악제는 독창, 합창 등을 내용으로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2회부터 음악제는 경기합창제로 탈바꿈하여 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기합창제는 점차 초청음악회 형식으로 바뀌어갔다. 12회 때인 1991년부터는 음악협회 경기도지회가 협의체로 재발족함에 따라 음악협회 각 지부에서 추천하고 예선 심의를 거친 순수 경기 출신 음악인을 중심으로 공연자가 구성되었다. 26개 도시를 순회하며 펼쳐진 연주회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악제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2회 경기합창제, 1981년 10월 31일, 수원시민회관, 도내 우수합창단 초청, 난파콩쿠르대회 수상팀

프로그램 : 수원여고합창단 - 1981년 고등부 우수상(지휘, 김학란)

안성 산내들 합창단 - 1981년 일반부 최우수상(지휘, 이병직)

소프라노 솔로 - 홍광희 (1971년도 최우수상)

난파어린이합창단 - 특별출연(지휘, 최오락)

의정부 어머니합창단 - 1981년 어머니부 우수상 수상(지휘, 김성식)

바이올린 솔로 - 송경자(1975년도 현악부 우수상)

안양 쌍투스합창단 - 1981년 일반부 우수상 수상(지휘, 전평화)

2중창 - 소프라노 김미자, 바리톤 한규용

선경합섬합창단 - 1981년도 새마을부 최우수팀(지휘, 오현규) v

초록 동요제 : 수원 YWCA 주최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초록 동요제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노래 부르기를 전파하고자하는 목적과, 어울림의 문화, 화목한 가족문화를 일깨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수원팔달산 실버가요제 : '해피수원 완성을 위한 어르신들의 축제'로 한국연예예술단이 주최하고 효기획굿디자인이 주관하며 수원시와 수원신문, 티브로드 수원방송 등이 후원한 이 가요제는 수원사랑운동의 하나로서 효 사랑과 어르신들만의 숨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만든 축제이다.

청소년 음악회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주회의 올바른 감상법을 전하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지회와 수원지부가 주최하는 음악회이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인음악회 : 수원출신 음악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음악대학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의 우수한 기량을 발굴하여 전문음악으로 사회에 입문시키고자 1994년부터 시작한 신인음악회는 애향심을 고취시킬 음악인들의 열정을 모아 수원의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수원을 만드는 데에 일조한다.

전국 마칭밴드 경연대회 :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문화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음악과 율동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2003년 시작한 전국마칭밴드 경연대회는 화성문화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음악단체와 교육기관

수원지역의 음악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수원문화원이 개원하고,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지회가 창립하면서부터였다. 60년대에 들어 문화예술인들의 봉사

로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지도하는 범시민 행사위주의 활동을 하는 단체인 장원회 안에 음악부가 있었는데, 단체의 주체는 주로 학생들이었으며 기성문화예술인들이 학생들의 지도를 맡았다. 1970년대에 들어 이 음악부는 난파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난파어린이합창단, 난파어머니합창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80년대엔 수원지역 최대의 전문 음악단체인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수원시립 합창단이 창단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합창단과 연주단, 봉사 동아리 등이 탄생하였다.

경기문화재단에서 2006년도 9월에 실시한 “경기도내 아마추어 음악단체 모집단 및 표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1,252개의 아마추어 음악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성인단체는 317개인데, 합창, 중창단이 137개에 달하며, 연주단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아마추어 단체들의 대회활동은 대부분 경연대회나 예술제와 같은 음악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도 있다. 아마추어를 위한 음악교육은 경기도 중 수원지역이 가장 활발하다.

(1) 전문 음악단체

난파 합창단 : 1965년 9월 12일 수원출신 음악가 홍영후(난파)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명칭을 난파합창단이라 하여 창단했다. 당시 수원시에는 학교, 교회 합창단을 제외하고는 사립합창단은 없었다. 수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되어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수백 명의 단원, 수십 명의 지휘자가 거쳐 갔으며 또한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1965년 9월 17일 초대지휘자 김용한 선생과 함께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4회에 이르며 방송국과 전국 각 지역의 초청공연 등 수많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1967년 난파어린이 합창단과 난파어머니합창단, 1983년 수원시립합창단 창단 시 본 합창단이 수원시립난파합창단으로 지휘자와 단원이 그대로 편성됨으로써 그 창단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1988년엔 난파를 거쳐 간 남성들로 발기하여 현재의 수원남성합창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42년간을 한 해도 거르지 않은 합창단의 활동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생 시립합창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간 수많은 활동 중에서도 화성시 남양동 활초리 난파 생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그의 후손과 지역 주민과 함께 생가 음악회를 가진 것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재도 창단멤버들이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면서도 노래가 좋아 계속 단원으로 남아 활동하고 있는 것도 타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모습이다.

난파 소년, 소녀 합창단 : 1981년 이 세상을 어린이들의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채색하기 위해 탄생된 난파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역음악문화의 활성화와 미국, 일본, 동유럽 등을 비롯한 해외순회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왔다. 국내 대, 소도시 지방과 교회 순회공연 등 500여회 이상의 연주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음악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보급과 음악예술 발전에 크게 힘쓰고 있다.

경기 창작악회 : 1998년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의 작곡전공 이미혜 교수가 만든 작곡단체이다.

성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1999년 재단법인 성정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창단한 성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경기지역 최초의 상설 오케스트라이다. 2003년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음악영재 및 청소년 유망주들의 협연의 기회도 제공하여 지역사회 예술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성정 청소년 교향악단 : 1991년 수원지역의 초, 중, 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정 청소년 교향악단은 1994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도서벽지 학교에 문화예술 보급을 위해 난파(중, 고교 순회) 청소년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적인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음악학회 : 수원 및 경기지역 음악인들의 음악 연구 활동의 보다 나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 및 경기지역 음악인들이 2002년 결성한 음악단체인 수원음악학회(SMS: Suwon Music Society)는 작곡가와 연주가, 음악학자 그리고 무대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지역과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지역 음악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2002년 창립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5월에는 창작 실내악연주회를, 11월에는 창작관현악연주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고전이나 낭만음악에 익숙해져 있는 음악애호가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음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다양한 음악의 향수층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수원 오페라단 : 2005년 창단한 수원오페라단은 사람의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는 클래식을 대중 속에 자리 잡기 위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오페라를 꾸며나가고 있다. 수원출신인 남지은 단장을 포함해서 단원 대부분이 성악전공 출신이다.

(2) 아마추어 음악단체

수원 여성 합창단 : 1983년에 창단된 수원여성합창단은 순수 음악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그동안 13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소프라노 7명, 메조소프라노 17명, 알토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회원 40여명의 후원회가 있다. 지휘는 송홍섭, 반주는 김혜라가 맡고 있다.

수원 남성 합창단 : 1988년에 창립하여 16회의 정기연주회와 위문봉사공연 그리고 각종합창제에 출연하였다. 테너 13명과 베이스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휘는 박정수, 반주는 박혜정이 맡고 있다.

수원 사계 앙상블 : 2003년에 창단하여 두 차례의 정기연주회, 자선음악회, 각종초청연주를 하였다. 단원구성은 만돌린 23명, 만돌라 6명, 만도첼로 4명, 콘트라베이스 2명, 기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휘는 김정환이 맡았다.

수원 기독교 남성합창단 : 1986년에 창단하여 18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수원기독교 남성 합창단은 테너1이 13명, 테너2가 14명, 베이스1이 9명, 베이스2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휘자 김창석, 반주 고은숙이 맡고 있다.

대한 여성 합창단 : 1983년 노래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모여 만든 아마추어 단체로 대 한어머니회 합창부로 창단하여 수원문화원에 1994년 3월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사회복지시설 노래 봉사, 수원시 마을 음악회 등을 통해 활동해왔다.

수원 레이디스 오케스트라 : 수원문화원의 클래식 기타, 만도린, 크로마하프반 수강생들로 구성되어 1990년 4월 결성되었다. 초기 수원사랑 합주단으로 활동하다 수원 레이디스 오케스트라로 명칭이 바뀌었다. 창단 이래 현재까지 15회의 정기연주회와 하와이 등 해외공연, 지역사회 문화행사인 수원여름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버드내노인복지관 위문공연, 두레자연고등학교 공연 등 많은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아페투오조(Affettuoso)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모금 공연, 수원시립전문요양원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동아리다. 2007년 9월에는 중국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정기연주회도 계획하고 있다. 아페투오조는 장르의 벽을 넘어 학습하고 연주하며, 사랑을 쌓아가는 동아리다.

수원 윈드 앙상블 : 이 앙상블은 수원 인근지역 음악연주자와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모여 만든 음악을 사랑하며 즐기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2001년 말부터 단원을 모으기 시작하여 2002년 2월부터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개인연습과 합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단원들은 음악과 관련된 전문 직업인은 물론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연령대도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트롬본 연주자인 김연근이 지휘를 맡고 있고, 공무원인 김정훈 단장 등 40여명의 단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금관과 목관 등으로 편성된 수원 윈드 앙상블은 관악기 특유의 웅장함과 색깔 있는 음악 감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2년 5월 17일 오후 7시30분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고, 테마가 있는 연주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수원 시민들에게 선 보여 왔다.

수원 나누미 오케스트라 : 수원 YWCA 나누미 오케스트라는 60여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음악을 통해 단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갖춘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 1983년에 창단하여 19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위문공연과 해외초청공연을 하였다. 소프라노 15명, 메조소프라노 11명, 알토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휘는 김귀철, 반주는 유승희가 맡고 있다.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은 22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합창단으로 그동안 거쳐 간 국내 굴지의 지휘자들을 통해 쌓아온 실력으로 각종 콩쿠르를 석권함으로써 국내 어머니합창단의 독보적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 각종연주와 해외 초청 연주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소화해냄으로써 명실 공히 수원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다. 제10회 전국 의림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제2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난치병 환자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기도 하였다. 수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위해 노력하며 음악을 통하여 평범한 삶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삼성 블루 보이스 : 1993년 합창동호회로 창단한 삼성 블루보이스는 1994년 10월 근로자문화제 중창부분 금상을 수상한 후, 1999년 KBS 주관 건국 근로자가요제 금상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이다. 오현규 지휘와 박순정이 피아노반주를 맡고 있다.

수원 유스콰이어 : “합창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모토아래 20, 30대의 대

학생 및 직장인등 모두 젊은 단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아마추어 혼성 합창단이다. 르네상스에서 20세기 현대합창에 이르는 폭넓은 합창문헌 레퍼토리와 대중적인 합창음악까지 매우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으며 2001년 창단연주부터 매년 정기연주회를 기획하여(2001, 2002년 - 소년소녀 가장 돕기, 2003, 2004년 - 백혈병 어린이 돕기, 2005년 - 소년소녀 가장 돕기,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음악을 통한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수원 음악이 있는 마을 : 수원 음악이 있는 마을은 2004년 5월 3일에 창단된 합창단이다. 이성애 상임지휘자와 서경숙 피아니스트를 비롯하여, 3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전문예술단과 달리 학력과 전공의 제한이 없고 합창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한 합창단이다. 또한, 다른 예술분야와 연계한 자기표현의 극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며 창작음악의 시도 등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합창단이다.

메딕 체임버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메딕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1990년 창단연주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대학문화와 지역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포에버 : 7080 직장인 밴드 '포에버'는 기타와 드럼, 건반 등으로 이루어진 8인조 직장인 밴드이다. 밴드 창단자인 김재현은 공인중개사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2005년 뜻이 맞는 고등학교 친구 몇몇이 규합해 만든 밴드이다. 자선봉사 음악회와 같은 의미 있는 음악회를 해오고 있다.

에라토 : 2004년 4월 창단해 천상의 하모니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여성 합창단 '에라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기를 연주하는 여신의 하나로 사랑과 서정을 맡고 있는 여신의 이름이다. 지휘자 고정곤 외 에라토 단원의 구성원 40명 단원 모두가 수원시 학원 연합회의 음악분과에 가입된 음악학원 원장들이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게 대중음악이나 팝음악을 포함하는 공연으로 자선 음악회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주로 하고 있다.

영통청소년오케스트라 : 영통 복지관 영통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원시 초, 중, 고등학생들로 40여명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2003년 영통 부근에서 음악을 좋아해 악기를 배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정보교환 차원에서 친분을 쌓다가 같은 아파트,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까지 합류하게 되었다.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자선음악회와 결식

아동 돕기 음악회 뿐 아니라, 영통단오 축제를 비롯한 지자체 행사와 복지관의 송년 후원회의 밤, 수원역 앞에서 길거리 음악회 등 많은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심우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 1990년 수원문화원에서 만들어진 문화강좌를 듣던 주부 18명이 참여해 시작한 주부 아마추어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이다. 이석기 지휘자를 비롯해 60~70대인 창단멤버가 5명이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진 배운 단원들이 유입되어 현재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양로원, 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다과를 마련하고 공연을 하는 사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권선사랑 여성 합창단 : 2008년 5월에 창단한 권선사랑 여성합창단은 소프라노 11명, 메조소프라노 13명, 알토 7명 등 31명의 합창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단원들은 지역 여성들이 음악을 통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단하게 되었으며, 병원, 공장, 고아원, 양로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시, 구, 동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장안구 여성합창단 : 2009년 8월에 창단하여 8월 29일 음악동호인 발표회에서 첫 공연을 한 장안구 여성합창단은 박종복 단장의 지휘아래 25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마을음악회 참여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주민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구와 동 문화 행사 참여로 여성의 자기 계발은 물론 지역 문화 부흥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수원 투게더밴드 : 2004년 7월에 창립된 수원투게더밴드(회장 조장환)는 수원시내에서 활동하는 밴드 중 가장 오래 활동한 5개의 밴드가 연합해 한 팀으로 구성되었다. 리필, 오렌지 리퍼블릭, 듀티프리, 블루진, 즐거운 인생 등 여러 팀이 모여 총 25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유치원 교사, 프로그래머, 홍보대행사 직원, 디자이너 등 멤버들의 직종도 다양하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만큼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다.

파란 밴드 : 2007년 1월 창립한 파란밴드는 삼성전자 로지텍 사원들로 구성되었다. 회장 임용관을 비롯하여 기타, 하모니카, 보컬, 드럼, 베이스기타, 키보드 등 다양한 악기를 20~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멤버 8명이 연주하고 있다. 주로 김광석의 노래를 위주로 포크 록이나 7080음악 등의 장르를 추구하고 있으며, 회사 행사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웬즈데이 밴드 : 2005년 8월에 결성하여 매주 수요일 아주대 라이브클럽에서 연주를

해은 웬즈데이 밴드는 기타, 베이스, 드럼으로 이루어진 수원시 3인조 직장인 밴드이다. 주로 60~70년대 유행하던 블루스 록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릭 클랩턴 멤버로 활동하던 크림이나 지미 헨드릭스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3) 음악교육기관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육목표》

현대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지닌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음악교육자와 전문 연주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전문 연주자 양성
2. 지역사회의 음악 문화를 선도하는 교육자 양성

《연혁》

| | | |
|------|---------|--|
| 1988 | 12월 9일 | 3개학과 신설인가 (해외선교학과40명, 교회음악과40명, 사회복지학과 40명) |
| 1994 | 9월 1일 | 협성대학교로 명칭변경 인가 |
| | 9월 5일 | 음악학과 신설(야간) 40명(교회음악학과를 음악학과로 명칭변경) |
| 1999 | 3월 1일 | 기숙사(3,658.29㎡) 및 예술관(2,042.56㎡) 공사 착공 |
| | 10월 20일 | 음악학과 주야변경(야간→주간) |
| | 11월 2일 | 특수대학원 증원신설 음악대학원10 |
| 2000 | 7월 18일 | 음악대학원 5명 증원 인가 |
| | 8월 25일 | 단과대학 신설 개편 : 예술대학 |
| | 11월 25일 | 예술관 준공 |
| 2002 | 1월 8일 | 협성대학교음악연구소 설치 |
| 2003 | 2월 7일 | 협성대학교음악연구소를 음악연구소로 명칭 변경 |
| 2007 | 11월 19일 | 신학관, 예술관, 예술대실습관 준공 |

협성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

| | | | | | | | |
|------|--------|-----|--------|-------|--------|------|--------|
| 피아노과 | 김현숙 교수 | 성악과 | 손기동 교수 | 성악과 | 이윤숙 교수 | 관련악과 | 이활 교수 |
| | 이정재 교수 | | 김미미 교수 | 작곡과 | 이미혜 교수 | | 이지영 교수 |
| | 박성미 교수 | | 김구삼 교수 | 합창지휘과 | 김역숙 교수 | | 채윤 교수 |

■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1996년 10월 수원대학교에 단과대학 및 네 개의 학과 -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 - 가 신설되어, 1997년 초 이성재 초대학장과 네 명의 교수(김은혜, 성기훈, 주영목, 임진옥)가 부임하여, 70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야간학부 음악학부에 100명의 정원이 증설되었고, 1999년 주간으로 통합되어 음악대학 정원이 170명으로 증원되었다. 2000년 1학기부터 음악대학 신축 건물로 옮긴 후, 특수대학원인 음악테크놀로지 대학원(음악공학과, 피아노교수학과)이 신설되었다.

매년 춘계, 추계 정기연주회와 아카데미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혁》(1996 ~ 2009)

| | | |
|------|---------|--|
| 1996 | 10월 24일 | 단과대학 및 학과신설 : 음악대학(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 70명 |
| 1997 | 1월 | 이성재 초대학장 부임 |
| | 3월 | 주영목, 김은혜, 성기훈, 임진옥 교수 부임 |
| | 8월 29일 | 음악대학 건물 착공(연면적 : 8814.07m 2,2666.2평) |
| | 11월 5일 | 야간 신설학과 : 음악학부(100명) |
| 1999 | 3월 | 음악대학 정원 170명으로 증원 |
| | 11월 2일 | 테크놀로지대학원 신설(음악공학과, 피아노교수학과 20명) |
| | 12월 24일 | 음악대학 건물 완공 |
| 2000 | 7월 18일 | 음악공학과 10명 증원 |
| 2001 | 2월 22일 | 제1회 학위 수여식(학사55명) |
| | 3월 | 음악대학 학과별 모집 |
| | 3월 | Piotr Borkowski 교수 부임 |
| 2002 | 2월 22일 | 제2회 학위 수여식 |
| | 3월 01일 | 주영목 음테크놀로지 대학원장 부임, 음향 도서실 개관 |
| 2003 | 2월 22일 | 제3회 학위수여식 |
| | 3월 01일 | 주영목 음악대학장 부임, 배종선 교수 부임 |
| | 7월 01일 | Dmitry Kosmachev 교수 부임 |
| | 7월 | Pio tools Training Center와 교육체결 |
| 2004 | 2월 23일 | 제4회 학위수여식 |
| | 9월 | 공원영, 피경선, Alexander Selitser 교수 부임 |
| | 8월 | 모스크바 국립음악원과 교류 협약 |
| | 12월 | 크라쿠프 뮤직 아카데미와 교류 협약 |

| | | |
|------|--------------|--|
| 2005 | 2월 | 제5회 학위 수여식 |
| | 3월 01일 | 김화숙, 윤이나, Vazgen Vartanan, Razyat Klebnikova, Liana Erkvanidze 교수 부임 |
| | 5월 | 5월 10 ~ 12일 아카데미 콘서트(모차르트 홀) |
| | 5월 | 5월 19 ~ 27일 제8회 춘계정기연주회(콘서트 홀) |
| | 9월 4일 | 수원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가족 음악회(수원아외음악당) |
| | 10월 2일 | 개교 23주년 기념 음악회(예술의 전당) |
| 2006 | 2월 | 제6회 학위 수여식 |
| | 2월 1일 | Conservatorio di Musica Francesco Venezia 교류 협약 |
| | 3월 | Alexander Shadrin, Alexander Svyatkin, Elena Abalyan, Maurizio Leoni, Stefano Patarino 교수 부임 |
| | 5월 | 중국 사천음악원과 학술 교류 협약 |
| | 7월 |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교류 협약 |
| | 9월 | Carlo Antonio de Lucia 교수 부임 |
| 2007 | 2월 14일 | 학위 수여식 |
| | 5월 | 제9회 춘계정기연주회(콘서트홀 및 벨칸토 아트센터) |
| | 10월 | 고운학원 30주년 기념 음악회(예술의 전당) |
| 2008 | 2월 13일 | 학위 수여식 |
| | 3월 | 김영은, 박가경, 홍주희, Giovanni Gregnanin 교수 부임 |
| | 5월 | 제10회 춘계정기연주회(콘서트 홀 및 벨칸토아트센터) |
| | 10월 |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연주회(예술의 전당) |
| 2009 | 2월 18일 | 학위 수여식 |
| | 3월 02일 | Unai Urrecho, Alejandro Mendoza 교수 부임 |
| | 5월 12일 | 2009 교수음악회(벨칸토 아트센터) |
| | 6월 | 제12회 춘계정기연주회(음악대학 콘서트홀, 벨칸토 아트센터) |
| | 6월 12일 | 중국임기시범대학과 음악학 전문대과정 공동개설 실행 협의 |
| | 10월 5, 6, 8일 | 제13회 아카데미콘서트(모차르트 홀) |
| | 10월 20일 | 제13회 추계정기연주회(음악대학 콘서트홀) |
| | 10월 21 ~ 24일 | 찾아가는 음악회(벨칸토아트센터, 경기아트홀, 화성아트홀) |

《교육목표》

음악대학은 국제적 감각과 민족적 양식을 겸비한 창조적인 음악인의 육성을 위하여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양심 있는 문화 엘리트의 양성, 전통 문화를 창달하는 진취적인 예술인의 양성,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음악인의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01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과제를 도입하여 복수전공을 가질 수 있는 등 더욱 유연하고

활성화된 교육체제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음악회》

| | | |
|------|-------------------|---------------------------------------|
| 1997 | 11월 12일 | 제1회 정기연주회 |
| | 7월 25일 ~ 30일 | 제1회 라비돌여름음악캠프(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
| 1998 | 1월 19일 ~ 24일 | 제2회 라비돌 - 겨울성악캠프 |
| | 5월 20일 | 제1회 춘계정기연주회 |
| | 7월 31일 ~ 8월 5일 | 제3회 라비돌 여름음악캠프(피아노, 바이올리, 첼로, 플룻) |
| 1999 | 5월 7일 ~ 6월 4일 | 제2회 춘계정기연주회 |
| | 7월 26일 ~ 31일 | 제4회 라비돌 여름음악캠프 |
| | 8월 27일 ~ 31일 | 제1회 전국음악경연대회 |
| | 10월 6일 ~ 11월 4일 | 개관기념음악 페스티벌 |
| 2000 | 5월 2 ~ 10일 | 제3회 춘계정기연주회 |
| | 5월 4일 | 평택시민을 위한 관악합주 연주 |
| | 7월 27일 ~ 8월 1일 | 제5회 수원대학교 주최 여름 음악캠프 |
| | 9월 26일 ~ 10월 2일 | 제1회 졸업연주회 |
| | 10월 1, 3일 | 제1회 교수음악회 |
| | 10월 22일 | 동두천 시민을 위한 관악합주 연주회 |
| | 10월 24일 ~ 11월 6일 | 제4회 추계정기연주회 |
| | 11월 17일 | 군포시민을 위한 초청 연주회 |
| 2001 | 8월 7 ~ 12일 | 제2회 전국음악경연대회 |
| | 5월 2 ~ 22일 | 제4회 춘계정기연주회 |
| | 7월 25 ~ 30일 | 제6회 수원대학교 주최 여름 음악캠프 |
| | 8월 1 ~ 3일 | 제3회 전국음악경연대회 |
| | 9월 24일 ~ 10월 10일 | 제2회 졸업연주회 |
| | 10월 12일 ~ 11월 15일 | 제5회 추계정기연주회 |
| | 10월 21일 | 동두천시민을 위한 관악합주 연주회 |
| | 10월 29일 | 2001 가을 아카데미 콘서트 |
| 2002 | 11월 10일 | 제2회 교수음악회 |
| | 5월 1 ~ 6일 | 제5회 춘계정기연주회 |
| | 5월 23일 | 음악과 시가 있는 오후 |
| | 7월 24 ~ 26일 | 제4회 전국 음악 경연대회 |
| | 7월 29일 ~ 8월 7일 | 제7회 여름음악캠프 |
| 2003 | 9월 28일 | 개교20주년 기념음악회 |
| | 4월 20일 ~ 5월22일 | 제6회 춘계정기연주회 |

| | | |
|------|-------------------|--|
| 2003 | 8월 4 ~ 6일 | 제5회 전국음악경연대회 |
| | 8월 7일 ~ 12일 | 제8회 여름음악캠프 |
| | 10월 22일 | 경기도민을 위한 음악회 |
| | 11월 3 ~ 14일 | 제7회 추계정기연주회 |
| | 12월 3일 | 모차르트 레퀴엠 |
| | 4월 16일 | 사순절 음악회 |
| 2004 | 5월 4 ~ 25일 | 제7회 춘계정기연주회 |
| | 8월 2일 | 제6회 전국음악경연대회 |
| | 8월 9 ~ 14일 | 제9회 여름음악캠프 |
| | 9월 30일 |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음악회 |
| | 10월 19일 ~ 11월 10일 | 제8회 추계정기연주회 |
| 2005 | 6월 2일 | 피아노와 함께하는 오후 |
| | 7월 25 ~ 30일 | 제10회 수원대학교 주최 여름음악캠프 |
| | 6월 4, 11일 | 피아노 페다고지 세미나 및 마스터 클래스 |
| | 10월 2일 | 수원대학교 개교23주년 기념음악회 |
| | 10월 17일 |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음악회 |
| | 11월 9일 | 4인의 가을이야기 |
| | 10월 18 ~ 11월 3일 | 제9회 추계정기연주회 : 10월 18 ~ 25일 아카데미 콘서트 11월 1, 3일 추계정기연주회 |
| | 11월 10일 | 제9회 국악 정기연주회 |
| | 11월 19일 | 제2회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 |
| | 11월 12일 | 제7회 전국음악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
| | 11월 24일 | 수원대학교 성악연구회 제6회 기획연주회 오페라갈라콘서트 |
| | 10월 21 ~ 23일 | 제7회 전국음악 콩쿠르 |
| | 5월 | 제8회 춘계정기연주회 : 5월 10 ~ 19일 아카데미 콘서트 5월 24일 춘계정기연주회 5월 26일 협주곡의 밤 5월 27일 콘서트콰이어 연주회 |
| | 9월 4, 6일 | 수원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가족음악회 |
| | 9월 29일 | 2005 경기도민을 위한 음악회 |
| 2006 | 5월 13일 | 제3회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 미 마스터 클래스 |
| | 5월 1 ~ 25일 | 제9회 춘계정기연주회 |
| | 5월 11 ~ 12일 | 교수음악회 |
| | 5월 10일 | 벨칸토 아트센터 개관기념음악회 (수원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
| | 5월 18일 | 제1회 한국음악연주회 |

| | | |
|---------|--------------|---|
| 2006 | 4월 19일 | Afternoon Concert with Orchestra |
| | 3월 30일 | 제3회 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베토벤의 밤' |
| | 4월 11일 | 제4회 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인상주의' |
| | 4월 27일 | 제5회 피아노 학회 정기연주회 |
| | 5월 29일 | 제2회 작곡발표회 [소리모임] |
| | 5월 20, 29일 | Dido and Aeneas by Henry Purcell |
| | 7월 24 ~ 29일 | 제11회 수원대학교 주최 여름 음악캠프 |
| | 10월 20 ~ 21일 | 제8회 전국음악 콩쿠르 |
| | 9월 14일 | 제10회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Wind Orchestra 정기연주회 |
| | 10월 24 ~ 26일 | 사랑의 묘약 |
| | 11월 3일 | 제10회 국악 정기연주회 |
| | 11월 4일 | 제4회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 |
| | 11월 7, 9일 | 제10회 추계정기연주회 |
| | 10월 31일 | 제3회 소리모임 작곡발표회 |
| | 11월 23일 | Cello & Guitar Ensemble |
| 11월 28일 | 제2회 한국음악 연주회 | |
| 2007 | 5월 2일 | 화성시민을 위한 팝스콘서트 |
| | 5월 19일 | 제5회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 |
| | 6월 1일 | 제3회 한국음악연주회 |
| | 5월 29일 | 오페라의 기원 |
| | 5월 | 제10회 춘계정기연주회 : 아카데미 5월 7 ~ 10일 춘계정기연주회 5월 16일 협주곡의 밤 5월 17일 |
| 2008 | 5월 | 제11회 춘계정기연주회 : 5월 6 ~ 8일 아카데미 콘서트 5월 14일 춘계정기연주회 5월 15일 협주곡의 밤 |
| | 5월 5 ~ 7일 | 중국순회연주 |
| | 5월 19일 | 2008 교수음악회 |
| | 5월 27 ~ 29일 | 피가로의 결혼 |
| | 10월 | 제12회 추계정기연주회 : 10월 1일 관악정기연주회 10월 13 ~ 16일 아카데미콘서트 10월 23일 추계 정기연주회 |
| | 10월 25일 | 2008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연주회 |
| 11월 18일 | 제12회 국악정기연주회 | |
| 2009 | 5월 | 제12회 춘계정기연주회 : 5월 1 ~ 8일 아카데미 콘서트 5월 13일 춘계정기연주회 5월 14일 협주곡의 밤 |

| | | |
|------|-----------------|---|
| 2009 | 5월 12일 | 2009 교수음악회 |
| | 10월 | 제13회 추계정기연주회 : 10월 5 ~ 9일 아카데미 콘서트 10월 20일 추계정기연주회 |
| | 10월 21, 23, 24일 |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찾아가는 음악회> |
| | 11월 4일 | 여자는 다 그래 |
| | 7월 27일 ~ 8월 1일 | 제14회 수원대학교 주최 여름음악캠프 |
| | 11월 4일 | 제13회 국악 정기연주회 |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

| | | | |
|-------|----------------|-------|----------------|
| 작곡과 | 김은혜 교수 | 피아노학과 | 정민경 겸임교수 |
| | 김천욱 겸임교수 | | 권마리 겸임교수 |
| | 김승림 겸임교수 | | 이소은 겸임교수 |
| 성악과 | 김화숙 교수 | 관현악과 | 이성주 겸임교수 |
| | 윤이나 교수 | | 정영하 겸임교수 |
| | 시오반니 그레냐닌 교수 | | 피오토르 보고코프스키 교수 |
| | 이현정 초빙교수 | | 김영은 교수 |
| | 김현정 겸임교수 | | 박가경 교수 |
| 피아노학과 | 이동현 겸임교수 | 국악과 | 우나이 우레초 교수 |
| | 주영목 교수 | | 김유정 초빙교수 |
| | 공원영 교수 | | 임진옥 교수 |
| | 알렉산드로 셀리찌르 교수 | | 홍주희 교수 |
| | 알렉산드로 스비아스킨 교수 | | 조갑용 겸임교수 |
| | 엘레나 아발리안 교수 | | |

■ 수원여자대학 예술학부

《교육목표》

음악과 : 피아노, 성악, CCM, 작곡, 관현악, 오르간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지식을 습득하고 음악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음악 지도자 및 전문연주가 배출

대중음악과 : 1. 생활 속의 음악인으로서 지역사회 및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음악인 양성

2.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적 소양과 인성을 지닌 전문 음악인 양성

3.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기 기능을 갖춘 전문 음악인 양성

《연혁》

| | | |
|------|---------|---|
| 1993 | 9월 16일 | 생활음악과 야간 40명(신설) |
| | 12월 30일 | 생활음악과 주간 40명(신설) |
| 1996 | 2월 2일 | 제21회 졸업(생활음악과 제1회) |
| 1997 | 1월 29일 | 제22회 졸업(생활음악과 제2회) |
| 1998 | 5월 1일 | “수원여자전문대학”을 “수원여자대학”으로 교명 변경 |
| 2002 | 5월 31일 | 교육부 선정 유아미술, 음악, 놀이치료 및 기각 - 운동 학습 교육정보센터구축 |
| 2003 | 3월 1일 | 순수음악과 음악과로 명칭변경 |
| 2004 | 11월 14일 | 대중음악과 “2004 MBC 대학가요제” SCAT대상수상 |

수원여자대학 음악과 교수진

| | | | |
|---------------|--------|------------|--------|
| 피아노 및 피아노 교수법 | 임효선 교수 | 피아노 및 음악교육 | 백희숙 교수 |
| 바이올린 및 관현악문헌 | 윤혜경 교수 | 성악 및 음악교육 | 차문수 교수 |

《학과행사》

- 음악과 : 1. 정기연주회 및 춘계음악회
 2. 전공별 master-class 및 특강
 3. 졸업연주회

- 대중음악과 : 신입생 음악회 (4월)
 기말 연주회 (6월)
 정기공연 (9월)
 졸업 작품 발표회 (11월)

■ 수원과학대학 음악계열

《교육목표》

뮤지컬전공 : 20세기에 등장해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며 국내외 공연예술계의 중심장르의 하나로 자리 잡은 뮤지컬 분야로 진출할 감성과 실력을 갖춘 전문

공연예술인 양성

실용음악전공 : 20세기 후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21세기에 들어서 가능성과 효
 용성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실용 / 대중음악 분야로 진출할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음악인 양성

순수음악전공 :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순수음악인 양성

《연혁》

| | | |
|------|---------|--------------------------------|
| 1995 | 10월 12일 | 학과 증설 인가 (치위생과, 생활음악과, 방송 연예과) |
| 1998 | 11월 19일 | 학과명칭 변경 인가 (생활음악과를 음악과) |
| 2006 | 8월 14일 | 학과명칭 변경 (음악과 → 음악계열) |

수원과학대학 교수진

| | | | | | |
|----------------|-----------|----------|----------------|-----|----------|
| 실용 음악 전공 | 음악학, 음악이론 | 정교철 교수 | 실용 음악 전공 | | 서현수 외래교수 |
| | 작곡 | 하지양 교수 | | | 유미란 외래교수 |
| | | 서문탁 외래교수 | | | 전소영 외래교수 |
| | | 손정환 외래교수 | | | 양은정 외래교수 |
| | | 안건식 외래교수 | | | 김지혜 외래교수 |
| | | 최진경 외래교수 | | | 이찬용 외래교수 |
| | | 정재호 외래교수 | | | 김인국 외래교수 |
| | | 장수진 외래교수 | | | 전해일 외래교수 |
| | | 윤정주 외래교수 | 순수 음악 전공 | 성악 | 방숙희 교수 |
| | | 장연우 외래교수 | | 성악 | 함정덕 교수 |
| | | 마현권 외래교수 | | 피아노 | 최진숙 초빙교수 |

맺음말

이제까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수원지역 양악에 관해 살펴보았다. 양악의 수원 지역 유입 시기는 일제 강점기 초기로 보고 있으며, 그 이전의 양악은 미국 선교사들이 기독교 전파 목적으로 보급한 찬송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수원지역의 양악에 관한 자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기독교신문 등과 같은 신문기사의 기

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음악활동은 삼일학교와 수원종로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선음악회와 여름 납량음악회 성격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원지역 출신 음악가이자 한국 근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홍난파의 〈봉선화〉를 비롯한 수많은 가곡과 〈풍당풍당〉을 비롯한 100여곡의 동요가 모두 일제강점기에 작곡되었다. 1930년대에 음반이 보급되면서 일본의 대중가요가 대중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였고, 악극단이 속속 생겨나면서 우리의 애환이 담긴 대중가요 또한 불리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일제하에서의 금지곡들, 이를테면 홍난파가 작곡한 가곡과 동요, 그리고 해방 가요 또한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다. 광복 후 한국전쟁시기에는 수원지역 뿐 아니라 온 나라의 음악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시대의 출발은 비극적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음악의 동향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가요와 전시동요도 보급되었다. 경기음악협회의 발족과 수원문화원의 개원을 통해, 음악가들은 이제 수원지역에서의 음악활동을 위한 근거지가 마련된 셈이다. 수원문화원에서는 이 시기에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음악 감상회를 실시하였고, 향토문화잡지 〈수원문화〉를 창간하였다. 1964년 한국음악협회 수원지부가 창립되면서 난파합창단 등 많은 합창단이 창단되어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게 된다.

1980년 광주항쟁이후 수원지역의 음악계는 일대 전환기에 접어든다. 이듬해 인천시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지부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옮겨져 문화예술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문음악단체인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수원시립합창단’, 그리고 ‘경기도립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성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같은 민간음악단체도 창단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전문 음악단체와 아마추어 음악단체가 탄생하였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같은 전문공연장이 건립되어 국내외 다양한 공연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KBS 아트홀’,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과 ‘삼호아트센터’ 그리고 ‘벨칸토아트센터’ 등의 공연장이 건립되었다.

수원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수원문화원 주최로 ‘수원여름음악축제’와 같은 음악제와,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부 주최로 ‘난파음악제(기전음악제)’가 매년 개최되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매년 ‘마을음악회’를 실시하여 지역가수와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음악문화를 선도하는 음악

교육기관으로는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수원여자대학교 예술학부, 수원과학대학 음악계열이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수원지역 출신 음악가 뿐 아니라 수원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지역음악 발전에 기여한 많은 음악가들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에서부터, 수원지역의 음악학원 원장 및 음악 강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음악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수원지역 음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의 음악관련 교수 및 강사, 교향악단과 합창단 단원, 그리고 전문단체나 아마추어 단체의 모든 회원을 포함해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음악관련 종사자들은 수원 음악계에 동참해서 수원지역의 음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본 조사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수원지역의 양악은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이제 앞만 보고 달려오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수원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향후 보강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음악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즉, 양악만의 재생과 재연이 아닌 국악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전통은 유지하고 계승하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창작음악 공연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창작음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의 유산이다. 따라서 음악제때 창작품 공모와 같은 창작품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어린이를 위한 창작교육이 확대 돼야 할 것이다.

넷째, 수원지역을 세계의 도시로 주목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흥난과 축제를 국제적 규모로 확대 실시하여, 음악회 뿐 아니라 작곡과 기악부문의 세계콩쿠르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창식, 『경기예총 40년사』, 한국예총경기도 연합회, 2007.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 한길사, 1995.

민경찬, 『흥난과 자료집』, 한국 예술연구소, 1995.

-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 예술연구소, 1997.
-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두리미디어, 2006.
- 서우석, 『서양음악의 수용과 발전』, 나남, 1988.
-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
- 수원시,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화』, 수원문화원, 2008.
- 이강숙, 『한국음악학』, 민음사, 1990.
- 이유선, 『한국양악 100년사』, 음악춘추사, 1985.
- 김창욱, 『홍난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음악사학보』, 제92집, 2002.
- 김창욱, 『홍난파 음악연구』, 『음악과 민족』, 30호, 2005.
- 민경찬, 『한국의 서양음악 1 - 10』, 『음악동아』, 1986년 4월호~1987년 5월호.
- 민경찬, 『홍난파의 '통속창가집』, 『낭만음악』, 10권 2호, 1998.
- 홍정수, 『한국음악 20세기』, 『음악과 민족』, 27호.

수원 역사·문화 창조도시 제안

최 호 운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장)

| | |
|---------------------|-------------------------|
| I. 서론 | IV. 역사·문화도시 재창조 여건과 잠재력 |
| II. 창조도시 개념과 이론적 고찰 | V. 수원 역사·문화도시 재창조 방안 |
| III. 국내외 창조도시 사례 | VI. 결론 |

I. 서론

최근 들어 창조도시(Creative City)는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창조, 창의 등의 도시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행정, 상업, 공업, 무역도시 등 도시가 갖는 기존의 중심기능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첨단산업, 생태, 환경, 정보, 문화도시, 유비쿼터스(ubiquitous), 가상(virtual), 건강(healthy), 살기 좋은 도시(livable)등 도시의 기능보다는 장래의 목표, 이른바 비전을 나타낸 용어가 수식어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면에는 도시들이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하고 있다. 과거 수백 년을 이어 왔던 산업시대에서 탈산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 이른바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창조도시(Creative City)도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제시된 가설의 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맨유(Manchester United)라는 축구단과 박지성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 서북부지역의 맨체스터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축구보다 훨

씬 전부터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미 주목받아 왔던 도시이다. 산업혁명이 세계 최초로 시작된 영국 안에서도 가장 먼저 산업화를 착수했고, 이를 선도했던 도시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연유로 이 도시는 19세기 세계무역·세계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과거를 가진 도시가 1960년대 이래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도시경제를 지탱 해주었던 재래섬유산업 등이 새로운 기술, 설비,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한 후발국가 기업의 거센 도전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맨체스터 인근에 있으면서 한때 세계무역의 40%를 처리 했던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였던 리버풀, 독일 산업의 핵심지대였던 루르(Ruhr)지역이 대표적이다. 이들 도시·지역은 과거영광을 되찾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첨단 기업과 다양한 인재, 그리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시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를테면 맨체스터는 영국 최고의 고속 성장도시이자 금융, 생활과학, 전문서비스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리버풀, 루르지방 역시 문화, 관광, 유통, 공공행정 등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경제성장기인 1970~80년대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일합섬, 선경, 금강(KCC), 연초제조창(KT&G) 등 일류 대기업 및 공기업 공장들이 입지하면서 수원의 경제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섬유산업의 쇠락과 고부가가치 산업시대 전환으로 한일합섬이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이전을 시작으로 선경, 금강, 연초제조창(KT&G) 등이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대기업 공장들의 이전은 관련 납품 중소기업 공장들의 연쇄적인 이전 또는 폐업하는 사태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대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 공장의 종사자들 또한 대부분이 이직하거나 실직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장 이전 부지들 대부분이 고층아파트부지로 전환되면서 교통 환경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2003년 6월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수원도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 적지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이전 부지를 LH공사에 매각하여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을 하는 구상이다. 또한 25개의 민간 제안의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또한 수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주

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공장이전 부지와 민간제안의 재개발, 재건축 부지가 주택지로 개발될 경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어 도시가 기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산업 경제를 이끌어 왔던 일류기업들의 이전으로 산업 활동이 쇠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마저 이전되고 이전 적지에 고밀도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수원의 경제는 더욱더 나빠져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럽 등 선진 도시들을 걸어온 경험을 거울삼아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일어날 공공기관·대기업 공장 이전 부지 활용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에 대해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통한 수원을 재창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호자는 그 동안 연구된 창조도시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선진 도시의 경험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수원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와 역사·문화적 특성,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공장,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도시 재창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창조도시 개념과 이론적 고찰

1. 창조도시 등장과 개념 정의

「창조도시」의 등장은 과거 수백 년을 이어왔던 산업시대에서 탈산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탈산업화와 탈물질적 가치체계의 확산과, 그 대안으로 창조성에 바탕을 둔 산업 및 가치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른바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면에는 도시의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다.

사사키 마사유키(佐々木雅幸, 2008)는 21세기 글로벌 사회는 “민족국가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며, “도시의 세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적 기능을 독점하고 세계의 도시 계층구조의 최상부에 있는 이른바 “글로벌 도시”에 해당하는 「창조도시」가 대도시(urban center) 뿐만

아니라, 창의적 예술문화를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경제 기반을 육성하는 「창조도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21세기의 도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The Creative City」의 저자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의 예를 들면 오늘날 세계의 100여개 이상의 도시가 ‘창조도시’라 자칭하거나 혹은 ‘창조도시’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

「창조도시」라는 단어는 미국의 도시경제 학자인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도시와 국가의 부’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후 영국의 찰스 랜드리(C. Landry), 일본의 사사키(佐々木雅幸), 미국의 플로리다(R. Florida) 등이 1980대 이후 인간에게 좋은 도시(Good city)가 무엇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창조도시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개념 정의에 대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론적, 경험적인 고찰을 통해 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사키 마사유키(2001)는 창조도시를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을 풍부하게 하며, 동시에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 했다. 또한 이탈리아의 볼로냐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이 ‘시민의 활발한 창조 활동에 의해 첨단적인 예술과 풍부한 생활문화가 길러지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하는 「창조적 장소」가 풍부한 도시로서 글로벌적인 환경문제·평화문제와 함께 실업이나 불안정한 취업 등 지역의 여러 문제를 민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힘이 가득 찬 도시’로 정의하였다. 제이콥스(Jacobs, 1984)는 탈 대량생산 시대에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혁신적인 ‘경제적 자기 수정능력’을 갖춘 도시라고 정의하였고 게데스(P. Geddes)와 뎀포드(L. Mumford)는 인간의 소비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한 도시재구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를 문화적 개체화 단위로서 지역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마사유키(2008)는 「창조도시」를 “예술문화에서 새로운 사조를 육성하고 다양한 창의적 환경과 혁신적 환경을 마련하여 예술가, 창작자, 일반시민의 활발한 창의적 활동과

1) 마사유키(佐々木雅幸, 2006)는 최근 창조도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지구사회는 「국민국가에서 도시로」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여 「도시의 세계」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화의 큰 흐름 속에서, 많은 도시가 산업의 공동화를 경험하고 기업도산 및 실업자 증대, 범죄 및 자살의 증가 등 사회 불안이 퍼지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부족에 의한 재정위기에 대해 유효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나 산업,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힘, 창조적인 시민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도시의 장래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과 시민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라고 정의하면서 6가지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예술가, 과학자, 근로자, 공예가 등이 창의적 활동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시민의 일상이 예술적이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고품질의 소비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 문화 예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학, 연구소, 극장, 도서관 등이 도시 내에서 창조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시민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이 높아 질수 있도록 역사유산과 도시환경을 보전해야한다. 다섯째,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경제기반을 갖추어야한다. 여섯째, 산업 및 환경정책과 연계된 창조도시 정책을 공공행정의 관점에서 마련해야한다.

전병태(2008)는 「창조도시」를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도시로서 창조적인 인재들이 활동하면서 이들의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 및 거주 환경이 혁신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2. 창조도시의 이론적 논의

현대의 「창조도시론」의 대표적인 논자는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와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²⁾다. 「창조도시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다. 1990대 초반 유럽창조도시연구그룹(1995) 찰스 랜드리 (Charles Landry)와 피터 홀(Peter Hall)등이 「창조도시론」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고, 그 성과는 2002년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교수가 쓴 「창조계급의 등장」(The Rise of Creative Class, 2002년)을 통해 21세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론으로 발표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2) Richard Florida : 카네기멜론대학의 경제개발학과 교수로서, 동 대학의 소프트웨어산업연구소의 설립 자이자 공동소장이다. MIT와 하버드대학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워싱턴DC의 브루킹스연구소에 가입해 있다. 또한 기업 등의 컨설턴트 및 고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고위급 정치, 기업, 도시 지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랜드리에 의한 「창조도시」는 도시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결을 위한 「창조적 환경=창조의 장소(creative milieu)」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속시켜 가는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구상자」를 제공하는 개념적인 「창조도시 정책론」이다. 랜드리는 산업공동화와 재정파탄 속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자립하여 어떻게 새로운 도시의 발전방향을 발견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1985년부터 EU가 개시한 「유럽문화도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가운데, 예술문화가 가지는 「창조적인 파워」를 살려 사회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도시의 시도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영향을 받아 「창조성」을 공상이나 상상보다 실천적이며, 지식(intelligence)과 혁신(Innovation)의 중간에 있는 것, 즉 「예술문화와 산업경제를 연결하는 매개항」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플로리다는 현대 경제의 새로운 담당자로서의 「창조계급」³⁾의 등장과 발흥에 주목하여 그들의 에토스(ethos)와 일 및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커뮤니티의 특징을 분석하고, 창조계급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야말로 경제적 퍼포먼스(성과, 공적)가 우수한 곳을 알기 쉬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밝혀냈다. 공장 노동자가 모이는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태어난 그는 연달아 대형 공장이 철퇴하고 실업자가 체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산업의 입지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이 두드러진 하이테크 산업의 입지요인이 창조적 인재임을 밝혀내고, 지역 재생의 열쇠는 공장의 유치가 아니라 어떻게 창조적인 인재를 그 지역으로 유인해 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플로리다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창조적 커뮤니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의 사회적 구조」, 특히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milieu)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로버트디 퍼트남(Robert D. Putnam)이 주창하는 사회관계자본 (social capital)보다 「창조

3) 「창조적 계급」이란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 그 밖에 창조성을 중요한 업무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이들을 칭하는 개념으로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고, 억압과 속박에서 저항하며, 고액의 보수 보다 삶의 질을 더 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그의 책 「The Rise Creative Class」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분류를 기초로 창조적 활동을 하는 직업을 묶어 창조적 계급을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창조적 계급은 '초(超) 창조적 핵심'과 '창조적 전문직'의 두 가지로부터 완성된다. 전자는 컴퓨터·수학, 건축·엔지니어링, 생명·자연광학 및 사회과학, 교육·훈련·도서관, 예술·디자인·엔터테인먼트·스포츠·미디어의 각 전문 직종, 후자는 매니지먼트의 각 전문 각 전문 직종의 해 구상된다.

자본'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창조계급」이라고 부르는 사회계층은「초超창조적 핵심」과「창조적전문직」의 두 가지로 완성되며,「창조계급」의 중심이 되는「초창조적 핵심」은 IT 및 바이오 등의 자연 과학계의 연구개발 R&D나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관련되는 직업뿐만 아니라, 영상·음악·무대예술·미디어 아트 등 예술계의 직업집단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새롭다. 또한(사사키 마사유키, 2006) 플로리다 교수는「창조도시」가 되려면 3T로 대변되는 포용정신(Tolerance), 창조적 인재(Talent), 첨단기술(Technology)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Ⅲ. 국내외 창조도시 사례

1. 유럽의 창조도시

1) 유럽 창조도시 배경과 창조성

유럽의 복지국가 시스템은 1980년대에 들어 제조업의 쇠퇴와 실업률 증가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창조도시에 관한 시도들은 국가의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독립한 도시들이 어떻게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창조도시 연구 그룹들은 문화 예술이 지닌 창의적인 힘을 활용하여 사회 잠재력과 경쟁력을 이끌어 내려는 유럽 도시들의 노력에 주목하여 문화와 예술 활동이 갖는 창의성을 착안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야말로 혁신이 요구된 기술·지식 집약산업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창조도시가 기존의 문화도시와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창의성을 매개로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 문화적인 사고와 문화적인 계획은 신경제(New Economy)시대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 예술은 주 자원으로, 창의성은 주요한 방법론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은 산업경제에서 창조적경제로 사회변화를 겪고 있으며, 창조적 경제는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유럽의 진보된 산업국가에서 25~30%의 노동자가 과학

기술, 문화예술, 건강관리, 금융, 법과 같은 지식기반 전문 분야와 창조적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변화는 인간의 지성, 지식, 창의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 경쟁력의 주요 이슈는 더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의 흐름이 아니라 창조적 인재와 지역의 창조적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Florida & Tinagli 2004).

Demos의 대표이자 영국 행정부 자문관인 벤틀리(Tom Bentley)는 유럽의 창조도시에 대한 시도는 유럽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비교우위(Sustainable Comparative Advantage)'를 점하려는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생산성과 경제성장에서 독보적인 미국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지닌 문화의 다양성과 장소의 매력을 통해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럽의 도시들이 지닌 '다양성', '진정성', '유연성' 등은 창조계층을 유지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2) 유럽의 창조계층과 창조성

현재 유럽 경쟁력의 중심은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전통적인 강국에서 점차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 국가들로 옮겨 가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개방적이며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인류 평등의식, 시민문화 발달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민정책을 자유화하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면,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들은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이들이 빠르게 변모하는 지식산업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못함으로써 미국, 캐나다는 물론 유럽 내 국가들의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플로리다와 티나클리(Florida & Tinagli 2004)의 '유럽 창조계층에 관한 보고서'⁵⁾를 보면 14개 유럽국가 중 7개 국가에서 창조계층이 노동력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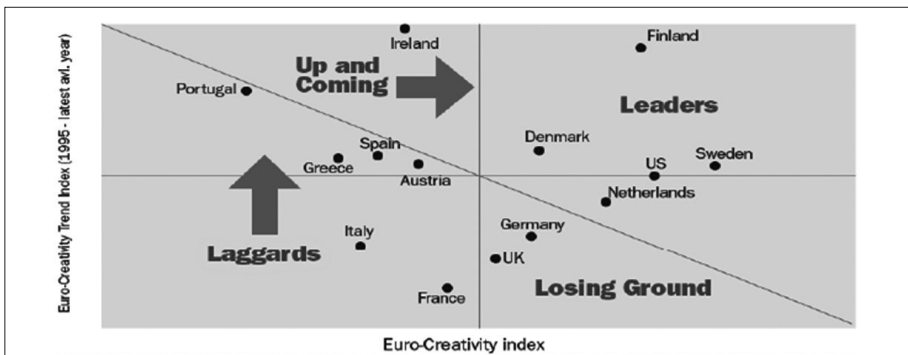
4) 라도삼외3, 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에 소개된 개념과 지표들을 유럽의 상황으로 확장시킴. 유럽 14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경제 성장과 창조성의 흐름을 조사. 국가의 창조적 계급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각의 3T의 척도를 제공.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성 수행에 대한 혼합 척도인 Euro-Creativity Index를 제공. 그리고 이 유럽 국가들의 수행을 미국과 비교하였음.

에서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3개국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 합하면 이들 6개국의 창조 계층은 육체노동자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창조계층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창조계층의 성장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전체 노동력에서 창조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프의 횡축이 현 시점에서의 창조성을 의미한다면, 조축은 시계역적인 성장세를 의미하는 데 우하향하는 대각선의 위에 위치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창조성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아래 위치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창조적 경제와 고용구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현재 창조성 지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 창조성의 성장세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일랜드는 창조성 지수는 아직 부족하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독일, 영국 등은 평균 이상의 창조성 지수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과 잠재성에서는 동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더그룹인 북유럽 국가들에게도 당면한 과제는 남아 있다. ‘점점 다양해지는 문화와 인종의 통합’, ‘제한된 개념의 포용성과 관에서 벗어나 개방된 사회의 신뢰를 구축’, ‘총 경제 성장에서 다양한 산업 기반 확보’, ‘인재유치를 넘어서 인재양성’, ‘도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상승’ 등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림 1> 유럽의 창조도시 매트릭스



출처 : Florida and Tinagli(2004)

위와 같은 결과는 ACRE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플로리다의 연구가 국가비교 연구였다면 ACRE프로젝트는 유럽 13개 도시에 관한 ‘창조·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다소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조·지식산업’에서의 고용률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 특히,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더블린, 툴루즈, 뮌헨 등이 기대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고, 밀라노 버밍햄, 헬싱키, 소피아, 리가 등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어떤 도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이론과 역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평가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그 외 북미와 유럽도시들의 창조도시 육성에 관한 보고서(Evans & Foord et, 2006)에서도 다양한 유럽 창조 도시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라도삼외, 2008)

3) 유럽의 창조도시 유형

창조도시의 개념과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쓰이며, 연구자나 컨설팅 그룹들의 의견도 제각기여서 명확한 유형 구분이 쉽지 않다. 제이콥스(J. Jacobs)와 홀(P. Hall)의 혁신성, 즉흥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창조도시는 랜드리(C. Landry)의 주장처럼 창조성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요구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이 지닌 창의성은 공상과 상상보다 실천적이면서 지식과 혁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창의적인(Being Creative) 것은 결과나 상태가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창조도시 모델도 목표와 전략,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창조도시의 유형은 창조성의 속성과 도시창조산업의 유형, 주체들의 참여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창조도시가 지닌 특성 및 속성은 지역사회의 다양성 순환성, 독창성을 기초로 한다. 다양성이란 사회적 관용과 포용을 의미하며, 순환성이란 환경, 경제, 산업구조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흥성이란 유연한 조직과 수평적 네트워크, 즉흥적이고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사회를 말한다. 독창성이란 독특하고 진정성 있는 자원을 말한다. 기구치(Kikuchi, 1983)에 의하면 창조성이란 ‘비약형 창조성’과 ‘적응형 창조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약형 창조성’이란 획기적 비약을 이루고 새로운 기술적 프레임을 창조하는데 적합한 창조성을 말하며, ‘적응형 창조성’이란 이미 존재하는 기술적 프레임 내에서 성공하는 뜻을 말한다. ‘비약형 창조성’과 ‘적응형 창조성’의 절충형이 ‘발전적 창조성’의 형태이다. 이를 다시 도시

「창조산업」⁶⁾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산업추구형’, ‘통합적 환경 조성형’, ‘전통 산업 발전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창조도시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여부에 따라 ‘산·관·학 협력모델’, ‘시민참여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표 1>과 같다.⁷⁾

<표 1> 창조도시 유형 구분 및 유입사례

| 유형 | 도시 | 정책 및 전략 | 프로그램 |
|--|-------------|--|--|
| 비약형 창조성 지식산업 추구형 산관학협력모델 (대학+기업+정부) | 아일랜드 더블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T 전략(인재, 관용, 기술) • 선도적인 기업의 유치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지역 법인 설립 • 인재유치에 적극적 전략(교육시스템, 인센티브) • 역사에 근거한 문화지구 조성으로 보헤미안의 근거지 마련(템플바 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스터(Lotus),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S)유치 • 창조적 인재 세금 감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벤 모리슨, 리안니스 유치 • 제임스 조이스, 브램 스토커, 사무엘 베케트의 주점 복구 - 더블린의 혁신적 건축가 - 템플바를 기반으로 술집, 카페 등의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문화지구,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
| | 헬싱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키아 등 정보기술산업의 발달 •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 문화 예술교육 시스템 • 다양성을 존중하는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 케이블 팩토리 등 지역 공간의 문화 예술 공간변화 • MUSEX(Music Export Organization)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테크 클러스터의 조성 •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시스템과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 • 정보기술의 결합으로 창의적 지역 문화 창출 • 케이블 팩토리의 창의적 실험과 유희 공간의 재생 • 음악 비즈니스의 수출을 돕기 위한 조직 결성 |

6) 이진희 ‘용어풀이’ : 「창조산업」이란 문화유산과 소프트웨어·패션·디자인·출판·음악·게임·애니메이션·축제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에 바탕을 둔 산업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문화 미디어스포츠성에서는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조성, 스킬, 재능을 원천으로 하여 지적 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부와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을 간진 산업으로 정의 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하여 예술 문화산업을 재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 무대예술, 영상·영화, 디자이너·패션, 디자인, 수공예품, 미술품·엔터테인먼트, 건축 텔레비전·라디오, 출판, 광고, 그리고 게임소프트(쌍방향의 여가 소프트)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각 산업이 창조산업으로 분류하였다.

7) 라도삼외3, 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 | | | |
|------------------------------------|--------|--|---|
| 발전적 창조성 통합적 환경형 지역개발조직 모델 | 엠셔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셔파크 IBA 근대문화 유산지구 • 에센지역의 2010 유럽문화도시 유치 • 신민, 기업, 자치조합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 산업 공간들의 창의적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지역의 모습이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 • 다양한 인종의 연합지구에서 유럽문화의 중심이 됨. • 환경생태 등의 지속가능한 산업의 유치와 확산 |
| | 프라이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에너지 산업, 솔라패널 산업·기업의 직접화 • 지속가능한 교통 및 환경, 에너지 정책 • 친환경유기농 가공 산업과 기업의 발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화로 내발적 발전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추구하여 관련 기술과 산업발달 • 지역재료를 활용한 친환경적 식품·공예품 산업 발달 |
| 적응형 창조성 전통산업발전형 시민참여모델 | 에든버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스코틀랜드의 전통과 문학, 연극, 오페라 등 • 전통적인 문학과 책에 관한 모든 자원 직접 • 에든버러 축제의 집중 육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문학) • 인터내셔널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 • 책 박물관, 도서관 등 |
| | 볼로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로냐 예능위원회 구성: 문화서비스의 현대화 • '역사적 시기지 보전과 재생'이라는 '볼로냐 방식'의 도심 재생 전략 수립 • 소규모 공방형 중소기업 양성 • CNA라는 네트워크 공동기획, 마케팅 • '팔라초 디 렌초' 중세 귀족의 컨벤션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문화 수도 '보로냐 2000프로젝트'는 도심 건축물의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첨단 문화공간으로 바꿈 • 세계적인 컨벤션과 이벤트를 개최하는 박람회도시 성장 • 1945년 창설된 볼로냐 시의 CNA에는 현재 2만1000명의 기능인 가입 • CNA산하 예술기능인 직업학교(ECI-PAR)운영 |

출처 : 라도삼외3, 도시정보지 2008

4) 유럽의 창조도시 사례

(1) 핀란드 헬싱키 창조도시 사례

핀란드는 1990년대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에 의해 많은 시장을 잃고 1994년에는 실업률 16%를 넘는 등의 큰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긴 경제침체를 겪은 핀란드는 1995년 이후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기적적인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다. 특히 헬

싱키는 EU 지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지난 10년 간 1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1년까지 7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제 정보산업은 헬싱키 메트로폴리탄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적 성장엔진이다. 그중에서도 노키아가 주도한 ICT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 발전의 요소이며, 이 지역은 비즈니스와 금융, 무역, 문화산업, 레저 서비스, R&D, 하이테크 제조업과 서비스 등이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헬싱키의 기적적인 경제 회복의 배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R&D분야 투자, 도시개발에 관련된 예산 증액과 더불어 문화와 교육에 관한 예산증대,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증진에 힘을 기울인 까닭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도시 거주자들은 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였다. 또한 교육이나 복지, 문화 등 생활의 여러 방면에 IT기술을 결합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키아의 공장 부지를 재이용한 케이블 팩토리나 1930년대의 건축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한 사례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 팩토리는 문화 인큐베이션 시설로 유럽 최대 규모이며 경영관리 방식도 민간에 의한 기업, 예술가 협력방식으로 매우 흥미롭다.⁸⁾

(2) 하이테크 클러스터, 헬싱키 메트로폴리탄 플랜 사례

1995년, 헬싱키 지역 내 대학, 폴리 테크닉,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과학 공원, 헬싱키 시 지역 의회들이 참여한 Culminatium 사가 설립되었다. Culminatium사는 지방 정부, 대학, 기업들의 재원을 연합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헬싱키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혁신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Culminatium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과학 공원과 연계한 '지역 클러스터 프로그램(Regional Cluster Programs)'을 시행한다. 둘째, '지역의 지식포텐셜(Knowledge Potential)' 및 혁신환경 강화를 이루어낸다.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은 1994년 중앙정부에 의해 개설된 CoE(Centre of Experties / Programmes)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창조적 경제의 중요성 인식,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업증대, 민간영역에서의 이니셔티브와 펀딩, 도시정책에서 창조적 경제에 대한 계획 등을 골자로 한다. OECD 헬싱키 지역현황보고서

8) 라도삼외3, 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에서는 헬싱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ICT 클러스터 범위를 벗어나는 임업, 생명공학, 은행업, 뉴미디어 분야의 사업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헬싱키 공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차원의 혁신 체계, 지역 간 협력 제고 등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헬싱키는 유럽 창조도시 실험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⁹⁾

(3) 이탈리아 볼로냐 창조도시 사례

세계 최고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역사도시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과 사상, 그리고 산업을 창조하는 힘으로 가득 찬 「창조도시」로서 제이콥스가 칭찬한 세계적인 선구도시이다.

산업면에서는 식품·음료·담배·약품 등의 자동포장 기계부터 페라리(Ferrari)나 듀카티(Ducati)로 대표되는 고품질의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폭넓은 분야의 기계공업과 그것을 지지하는 고품질의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장인기업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脫대량생산의 독특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하이테크기업이나 예술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마이크로기업을 육성하여 「멀티미디어 산업지구」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산업과 함께 볼로냐는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과 재생에 있어 세계적인 선구도시로서, 2000년에는 「유럽문화도시」의 문화이벤트인 「볼로냐2000」을 행정, 상공회의소, 대학 그리고 시민이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객은 23% 증가하였으며, GNP는 2,000억 리라(약 140억 엔), 고용은 1,600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볼로냐 2000」의 종합적인 목표는 시민의 「문화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젊은 세대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소비 레벨의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의 생산과 창조적 발전」, 그리고 문화적 관광도시로서의 볼로냐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에 있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도심에 「2000년의 창조적인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볼로냐 시가 1,700억 리라의 자금을 투입해서, 300여개의 콘서트, 230여개의 전람회, 260여개의 컨벤션, 125여개의 연구실(laboratory) 등 총 2,000시간에 이르는 이벤트와 문화시설의

9) 라도삼외3, 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비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문화시설 정비를 위해서 낡은 건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는 새로운 기능을 더하고 외관과 구조는 전통적 거리풍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수복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전통장인의 일을 만들어 내는 한편, 「과거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시의 중심부인 마조레 광장(Piazza Maggiore)에 인접하는 舊주식거래소는 보존수복공사에 의해, 천정의 프레스코화 및 외관은 그대로 두면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링크된 900여개 이상의 좌석을 가지는 이탈리아 최대의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장시설의 재이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舊담배공장적지(跡地)의 시각 예술과 연극을 위한 예술센터이다. 이 구역에는 공장 외에도 낡은 운하와 항구 및 소금 저장고, 舊제빵소 등의 근대산업유산이 위치해 있으며, 개수공사를 통해 당시의 건축양식으로서의 복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립 필름 도서관이 신설되며 교육 강좌 및 영화 관계 자료를 복원한 자료관도 병설된다. 또한 저명한 철학자인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교수가 지도하는 볼로냐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의 新교사(校舍), 예술성이 높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시립 영화관, 시각예술 및 연극 자료관, 음악 및 연극학과의 학생을 위한 음악·연극·영화·비디오용 연구실(laboratory), 그리고 신진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가 개설된다. 물론 도심에 탄생한 이러한 「창조의 장소」가 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공헌하여, 새로운 문화산업을 부화하는 「그릇」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및 창조집단과 행정의 협동 작업이 필수적이다.

볼로냐 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무너져가는 낡은 극장이나 폐허가 된 궁전을 개장함으로써 전통장인의 일을 창출하는 한편, 젊은 무대예술 집단에게 「창조의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성금을 통해서 문화 창조 지원을 시도해 왔다. 현재는 약 20여개의 문화협동조합(조합원수 약 1,000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연극인 다리오 포(Dario Fo)가 이전에 활약했던 전위극단 누오바 스키키나(Nuova Scena) 및 아동극단 라 바라카(La Baracca)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집단도 등장해왔다. 이러한 연극협동조합과 함께 최근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이 눈부시게 진전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cooperative socials)이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볼로냐에 선구적으로 등장해 공적 복지가 만족시키지 못한 여러 요구에 답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1991년의 법률 381호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 「인간발달 및 시민의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전반적 이익을 추구하는「협동조합이다. 여기에는 사회·보건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A타입과 핸디캡을 가지는 사람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농업·공업·상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B타입이 있다. 보육원이나 노인센터, 의료시설,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시설, 노숙자를 위한 휴식소의 운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자 스스로가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사회협동조합 Piazza Grande(큰 광장)의 독특한 활동사례가 주목받는다.¹⁰⁾

(4) 영국 맨체스터 창조도시 사례

영국 서북부지역에 맨체스터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다. 우리에게는 맨유(Manchester United)라는 축구단과 박지성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다. 그런데 이 도시는 축구보다 훨씬 전부터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미 주목받아 왔던 도시다. 산업혁명이 세계 최초로 시작된 영국에서도 가장 먼저 산업화에 착수 했고, 이를 선도했던 도시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연유로 이 도시는 19세기 초까지도 세계무역과 세계경제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직물산업의 쇠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폭격으로 인한 도시의 파괴, 1996년 도심의 폭탄테러 등으로 인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도시경제를 지탱해주었던 재래섬유산업 등이 새로운 기술, 설비,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한 후발국가 기업의 거센 도전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20세기 후반 아일랜드 공화당 군대에 의한 심각한 테러는 도심의 물리적 손상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그 결과, 곧바로 침체된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이후 정부와 맨체스터 시는 민간과 공공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 팀인 '맨체스터 밀레니엄 회사'를 설립하고 도시 재건 전략을 작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였다. 1996년 11월 상업시설의 재보수, 경제 활성화, 통합된 교통시설, 21세기를 위한 도심환경 조성, 살아 있는 도시, 특징 있는 공공 공간 조성을 목표로 도시마스터 플랜이 작성되어 2002년, 6년 동안 진행된 도심재건을 완료했다. 테러로 피해를 입은 콘익스체인지(Corn Exchange)와 로열 익스체인지(Royal Exchange) 등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과 안테일센터

10) 사사키 마사유키, 2006, '창조도시의 세기와 아시아' 「창조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공간적 문화 정책의 방향 토론회.

(Arndale Center)와 같은 새로운 현대식 상업 건축물들이 있는 익스체인지 광장(Exchange Square)과 함께 도심의 물리적·기능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현재, 맨체스터의 도심은 문화, 상업, 레저, 관광이 함께 공존하는 인기 있는 영국의 북부도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맨체스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흙(Humle)과 노스모어(Northmore), 그리고 셸퍼드 독(Salford Dock), 캐슬 필드(Castlefield)는 맨체스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해가는 도시를 살린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이다. 흙은 1980년 초 페스트 확산, 높은 범죄율, 경제의 쇠퇴를 겪은 슬럼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회구조를 재편성 새로운 커뮤니티지역으로 변모 시켰다.

노스모어는 맨체스터 남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된 인구 감소, 실업률, 범죄증가와 위협, 빈집증가, 낙후된 물리환경, 지역 상업의 쇠퇴, 주차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거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커뮤니티 주거지가로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한 홈존(Home Zone)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어 여러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셸퍼드 독은 버려진 산업 유희지를 도심과 연계하여 맨체스터를 창조적인 문화 도시로 만든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상업지구인 셸퍼드 독은 경전철을 통해 도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산업기능이 다한 산업유희지(독)를 약 25년간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단계적 개발을 통해 맨체스터 문화중심지구로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문화르네상스의 일환으로 1,730석과 466석의 두개의 오디오리움과 함께 갤러리, 바, 카페, 컨퍼런스, 접대실로 구성된 로리빌딩, 세계박물관을 구축해 상업적 재생사업 성공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 재생사업을 성공으로 끌어낸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예술가의 이름으로 명명되어 2000년에 오픈된 로리빌딩은 첫째만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였다. 셸퍼드 독의 재생사업은 도심만이 아니라 광역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연간 5백만 명이 방문한 지역이며, 2002년 1만개의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문화와 연계된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맨체스터 도심의 남쪽에 위치한 캐슬필드(Castlefield)는 과거 산업 혁명의 모세혈관이었던 운하지역을 새로운 주거 중심의 커뮤니티로 조성한 사례이다. 1970~1980년 물리적·심리적 침체를 겪은 이 지역은 도심 가까이에 새로운 주거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인기 있는 도심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다. 운하를 따라 조성된 공공 공간과 공공아트 그리

고 카페, 레스토랑과 같은 인기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다. 또한, 새로운 건물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산업유적과 창고를 재보수하여 지역의 역사적인 전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지속된 노력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첨단 기업과 다양한 인재, 그리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맨체스터는 영국 북부의 상업, 은행, 보험, 레저,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¹¹⁾

(5) 독일 뒤셀도르프 창조도시 사례

뒤셀도르프(Dusseldorf)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이다. 국제 컨설팅 전문 업체인 Mercer Human Research Consulting(MHRC)에서 발표한 2007년도 생활의 질 평가에서 뒤셀도르프는 취리히, 제네바, 밴쿠버, 빈에 이어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하였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등 독일의 다른 대도시는 물론이고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쟁쟁한 도시보다도 생활의 질이 더 좋게 평가된 것은 쾌적한 라인 강 수변공간과 도시녹지,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인프라, 풍부한 문화역사자원 때문이다.

뒤셀도르프는 세계의 기업인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시민들에게는 살고 싶은 도시로 각광 받고 있다. 뒤셀도르프는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건물 50%가 파괴되고 90%가 손상되었다. 전후에 뒤셀도르프에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지만, 기업 관리 기능이 더 많이 입지하였다. 1950년대의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경제 부흥과 함께 뒤셀도르프 역시 경제가 발전하여 1960대초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루르지역의 석탄 및 철강이 쇠퇴하면서 뒤셀도르프 경제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뒤셀도르프는 박람회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대학도시, 국제도시로 발전하였다.

뒤셀도르프는 쇠퇴기 이후 1974년에 항구 일부를 축소하여 미래 지향적인 재생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단계는 1970년대 말 라인탑(234m), 의회 의사당, 서부독일방송(WDR) 스튜디오 건설이 추진되었다. 1980년에 2단계사업으로 방송시설, 소규모 사무실(창조적 직업), 문화시설, 화실, 수공예 작업실 유치하였으며 주로 개별 건축물이 들어섰다. 3단계 및 4단계는 1990대초

11) 양도식, 2009. '맨체스터, 산업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거듭나다.' 국토연구원.

에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슈타트토어(Stadttor)에 주수상실 청사를 이주하였다. 슈타트토어(Stadttor) 건축물은 75m의 유리로 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항만 남쪽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일련의 항만 재생사업을 통해 방송, 광고, 유행, 예술, 유럽 언론연구소, 주영화진흥소, 건축사조합 등 창조적 영역에 5,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뒤셀도르프 항구 일부를 현대식 업무 및 주거 공간으로 개발한 것은 도시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광고, 예술 및 방송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든 중요한 도시 계획적 사업이다. 특히, 뒤셀도르프항구는 창조적인 분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전면 토지재생 대신에 개인별 부지 단위로 계획을 세워 미래의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발로 이루어져 획일화 된 건축물 대신 변화무쌍한 건축물이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는 414개의 광고 관련회사, 4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사 사무실들 그리고 160개의 출판사들이 입지하고 있어 창조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¹²⁾

(6) 스페인 바르셀로나 창조도시 사례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주의 주도(州都)로서, 스페인 최대의 경제도시이며 지중해에 임하는 항만도시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는 유럽 대륙에서도 가장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 중의 하나이다. 19세기 중엽에는 방직과 기계생산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방직 이외에 화학, 의약, 자동차, 전자 및 인쇄 관련 산업이 중요한 도시산업들이다. 3차 산업에서는 산업 디자인, 출판, 전자통신, 컴퓨터 등 지식산업기반산업이 증대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새로운 예술양식인 모테르니즘(Modernismo)¹³⁾의 중심도시로, 피카소, 미로 등의 화가 및 음악가 파블로 카자르스(Pablo Casals) 등의 세계적인 예술가를 다수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다. 건축분야에서는 가우디

12) 이용우, 2007, '창조도시로 도약하는 녹색항구, 뒤셀도르프', 국토연구원.

13) 모테르니즘(Modernismo), 카탈루냐 모테르니즘(Modernismo Catalana), 모테르니슴(영어 Modernism) 등은 모두 같은 용어로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카탈루냐 지방에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유행한 예술양식을 말한다. 종래의 건축·공예가 그 모티브로 그리스양식과 로마고딕에서 찾은 것에 반하여, 이들은 모든 역사적인 양식을 부정하고 자연 형태에서 모티브를 빌려 새로운 표현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아르누보와 유사한 예술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 공원 등 7개의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창조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과 장소, 그리고 인적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창조적 개발전략은 창조적인 도시개발(창조적 공간 창출), 창조적 이벤트 개최(창조적 시간 창출), 창조적 산업진흥(창조적 인재 양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우선 창조적인 도시개발로는 라발지구를 들을 수 있다. 라발지구는 바르셀로나 도심부 구시가지의 변화가인 람브란스 거리의 서측지역으로서 바르셀로나 현대 문화센터와 현대 미술관 등 새로운 대형문화시설 이외에도 역사적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은 1970년대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되어 많은 이민자들의 삶의 터전이며, 현재 약 70여 개 국의 이민자 2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에서도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마저도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 행정당국은 1985년 라발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지 재생특별계획(Plan Especial Reforma Interior: PERI)을 책정하여 재개발을 착수하였다.

라발지구의 PERI 계획의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병원, 양로원, 공장 등 '사회시설의 정비'이다. 두 번째는 밀집지역을 없애고 공원이나 통로등을 만들어 오픈스페이스를 정비하는 '공공공간의 창출 및 확대'이다. 세 번째는 치안이 나빠져 시민을 불편하게 했던 라발지구를 주거 및 다양한 문화시설을 도입해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 결과, 바르셀로나 현대 문화센터는 다양한 전시회, 공연, 문화관련 세미나 등 25건의 문화 활동을 개최하여 40만 명(2006년)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22@지구 재개발이다. 이 지구는 종래 공업지역(22a)을 주거 및 리서치센터, 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발전시킨 사례이다. 22@지구 형성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1860~1960년)의 Sant Martí는 방직공장과 산업이 발달한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값싸고 풍부한 토지덕분에 바르셀로나시의 표백관련 사업이 대항으로 이전해왔다. 이로 인하여 방직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1855년 57개에 불과하던 공장이 1888년에는 243개로 증가 했다. 2단계(1960~1986년) 전통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든 시기가

다. 1960대 중반이후 Sant Marti의 포블레노우 산업 단지역시 탈산업화가 시작되었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 1,300여 개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노후화되고 쇠퇴하게 되었다. 3단계(1987~2000년)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맞는 시기이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포블레노우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포블레노우의 재개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재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 7월 ‘22@ Plan(Amended Metropolitan Master Plan for Refurbishment of Industrial Areas of Poblenou)’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4단계(2001년~현재)는 카탈루냐 주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전통적 제조업 공장과 업체들이 밀집된 포블레노우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등 지식산업집약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22@Barcelon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2@Barcelona 프로젝트는 포블레노우 전통제조업 산업단지를 양질의 주거와 문화, 과학과 교육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지역의 신 개념의 도시 커뮤니티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2@Barcelona는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사회통합들 3개 분야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사업 추진 전략으로는 주택, 거리, 공공 및 녹지 공간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과 생산, 교육 및 훈련, 연구 등의 새로운 지식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다원화되어 있으면서도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콤팩트시티(Compact City)¹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 접근방식보다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2@Barcelona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2007년 6월 기준으로 925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3만2,478명(지식 및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 1만 3,315명, 미디어·메드테크·에너지 : 8,202명 기타: 1만 1,14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건축물을 활용하여 업무 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관광객유치에도 기여하고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지역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¹⁵⁾

14) 여기서 콤팩트 시티는 교외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성시까지 중심부의 고밀도 개발, 도심내의 대중교통 활용, 커뮤니티 활성화, 녹지 공간 창출 등을 추구하는 기존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진보된 인프라구축, 산업 유산 보존, 공공주거단지 조성,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 공공시설 및 공간의 개선을 통해 바르셀로나가 처해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윤준도, 2008, '바르셀로나의 창조도시 전략과 시사점'.

2. 일본의 창조도시

1) 일본의 창조도시 경향

최근 일본에서도 창조적인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도시들이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창의적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창의적 환경”을 마련하고 도시와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2년부터 일본 경제 전체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외중에, 지자체 파산으로 상징되던 많은 문제로 인해 자력으로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지역과 순조롭게 발전하는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빈곤층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간의 격차는 지역 간 격차에 따라 벌어지고 있으며,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지역·도시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를 찾아나가고 있다. 문화자원이나 근대산업을 활용하여 「창조의 장소」를 만들어 내고, 현대 아트를 핵으로 새로운 창조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도시나 지역을 재생시키는 「창조적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창조도시에 관한 논의는 가나자와 시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가나자와 시의 창조도시 모테는 가나자와의 역사적 환경을 지키기 위한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1968년 전통 환경보전 자주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조망경관보전조례, 코마찌나미 보전조례 등 도시의 다양한 주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들을 차례차례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창조도시의 특징 중 하나인 ‘제도의 창의적 설계 및 운용’에 해당된다. 한편,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요코하마 시에서는 2002년부터 문화예술, 관광에 의한 창조도시 논의가 전개되어 일본 국내외에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에 열린 아이치(愛知) 만국박람회 때 ‘생활문화 창조도시’를 목표로 Creative Japan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가나자와 시, 교토 시, 요코하마 시 오사카시 등 일본 내 15개 도시로 구성되었다. 2007년에는 오사카에서 세계창조도시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¹⁶⁾

2) 가나자와(金沢) 창조도시 사례

16) 라도삼외3, 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가나자와는 호쿠리쿠(北陸)의 작은 교토(京都), 혹은 동해의 역사적 관광도시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볼로냐와 대등한 「내발적 창조도시」로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내발적 발전을 경험한 가나자와의 도시경제의 특징은 거대기업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중견·중소기업이 다수 집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장인기질이 풍부하고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자랑으로 삼으며 독자기술을 가지고 “틈새시장”에서의 Top Share(Niche Top)를 유지하는 기업이 많으며, 상호 자극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자율성 높은 도시경제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소비재산업인 섬유공업과 거기에 생산재를 공급하는 섬유 기계공업이 두개의 이출(移出)공업으로서 지역 내에서 상호 연관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최근에는 공작기계 및 식품관련기계, 출판·인쇄공업, 컴퓨터관련 산업이 전개되고 있다. 지방 도시로서는 다채로운 산업연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의 질」을 풍부하게 지지하는 전통산업 및 식품공업, 패션산업 등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경제의 내발적 발전력이 결과적으로 외래형의 대규모 공업개발 및 콤비나트(kombinat) 등의 유치를 억제하여, 산업구조 및 도시구조의 급격한 전환을 피해 왔기 때문에, 에도시대 이래의 독특한 전통산업과 함께 전통적인 거리풍경이나 주변의 자연환경, 아메니티(amenity)가 풍부하게 보존된 도시미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내발적 발전이 가져온 독자적인 도시경제구조가 지역 내에서 여러 연관성을 가진 우회 생산에 의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내에서 발생된 소득의 지역 밖으로의 「누출」을 막음으로써, 중견기업의 끊임없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및 문화적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글로벌화 속에서 가나자와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담당해왔던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가나자와 시는 1996년 9월 방적공장적지(跡地)와 창고군(倉庫群)을 활용한 「가나자와지 민예술촌」을 오픈하였다.

가나자와 시장(市長)은 주간에 일하는 시민이 심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1일 24시간, 1년 365일」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단장하였다. 4개동의 창고는 드라마공방, 뮤직공방, 에코라이프공방, 아트공방으로 모습을 바꾸어 연습뿐만 아니라 공연도 가능한 시설로서 수복되었다. 각공방의 운영은 일반시민에서 선택된 2명씩, 총 8명의 디렉터들에 의해, 시설이용의 활성화, 독자사업의 기획입안, 그리고 이용자 사이의 조정 등을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시민 참가형 문화

시설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트공방에서는 현지 예술가의 작품전시 및 가족도예교실 등이 열리는 등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뮤직공방은 록밴드나 학생의 이용이 많고, 에코라이프공방은 리사이클 페어 등의 행사장으로 활기차게 사용되고 있으며, 5년 동안 총 100만 명의 시민이 방문해 예술·문화·환경의 행사를 「생산과 소비」의 양면으로부터 즐기고 있다. 자칫하면 전통문화나 전통예능으로 기울 수 있었던 가나자와의 예술문화에 전환기가 찾아왔다.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근대산업의 유산」이 「문화 창조의 장소」로, 새로운 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예술의 창조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10월 9일 현(縣)청사의 교외이전에 의한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가나자와시의 도심부에, 동근 원반과 같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출현했다. 시민이 「마루비(マルビ -)」라고 부르는 이 미술관은 1980년 이후의 Contemporary Art를 중심으로 세계의 예술작품을 수집·전시하고 저명한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작품을 공개 제작 하도록 하여, 현지의 전통공예·전통예능과 창조도시의 세기와 아시아현대아트의 융합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예술은 창조성 넘치는 장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에의 투자」라는 蕘豊관장의 생각에 의해 시작된 시내의 초·중·고등학교 전원을 초대하는 「박물관 크루즈」사업의 효과도 더해져서, 개관한지 1년 만에 시내 인구를 웃도는 158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가나자와 시는 이 미술관을 핵으로 하여 새로운 산업창조의 시도로서, 패션산업 및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창조지원을 담당하는 패션산업 창조기구를 시작으로, 현대아트로부터 지역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도 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문화자본의 질을 높이고, 창조성이 넘치는 인재를 양성, 집적시킴으로써, 도시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방식을 「문화적 집적을 살리는 도시의 문화적 생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나자와에서의 「문화적 생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도시대에 시작된 장인적 생산의 부활과 재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인적 생산(craft production) → 포디즘(mass production) → 문화적생산(새로운 craft production)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개 안에 평가된다고 생각된다.¹⁷⁾

17) 사사키 마사유키, 2006, 「창조도시의 세기와 아시아」 「창조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공간적 문화 정책의 방향 토론회.

3) 요코하마(横浜) 창조도시 사례

요코하마는 교토와 가나자와 같은 고도와 달리 150년 전 항구 개항과 함께 시작된 짧은 역사를 가진 근대도시이다. 요코하마는 거품경제 기간 동안 중공업 중심지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미나토 미라이 (요코하마향 미래 계획)”라는 대규모 수변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거품경제 붕괴와 도쿄 중심의 신규 오피스 빌딩 건설 붐으로 좌초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 2002년 나카다(中田) 시장 집권 초기에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 검토 위원회’를 발족,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2004년 1월 요코하마 회생을 위한 새로운 비전인 “요코하마 창조도시 육성 방안(Toward the Formation of the Creative City of Yokohama)”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에서는 「① artist·creator가 살고 싶어지는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의 실현, ② 창조적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에 의한 경제 활성화, ③ 매력 있는 지역 자원의 활용 ④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라는 4가지 기본적 방향이 작성되었다. 또한 2008년의 목표를 ①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를 3,071명에서 5,000명 ② 창조적 산업클러스터의 고용자수를 15,730명에서 30,000명 ③ 문화·관광 집객 장치를 85개소에서 100개소 ④ 문화감상자를 248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2006년 1월에는 (가칭) National Art Park 구상되었고, 문화예술 창조도시 종합계획(Creative plan)이 제안되어, 창조도시 사업추진본부와 창조도시 추진과를 두어 Creative City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나카다(中田) 요코하마 시장은 같은 해 4월 예술문화 도시개발국을 신설했으며, 요코하마 시 정부가 나서 요코하마를 창조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창조 핵심, 창조권역과 이미지 문화 도시 육성”이라는 프로젝트가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뱅크아트 1929(BankART 1929)”도 포함된다.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방책의 하나로 역사적 건조물 주변에 Artist 및 creator가 창작·발표·체재(거주)하는 창조 핵심(Creative Core)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창조핵심형성 모델지구에 대해서는 역사성·가로골격·풍토가 모두 다른 일본대로(日本大通り)지구, 사쿠라키쵸(桜木町)·노게(野毛)지구, 바사미치(馬車道)지구의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대로(日本大通り)지구는 「코끼리 코(象の鼻)」지구에 근접한 곳으로 현청(縣廳), 재판소 등이 들어서 있는 관청가이다. 일본대로 입구에 있는 옛 관동 재무국·옛 노동기 준국을 2005년에 행해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Triennale station)의 자원 봉사자 및 작가의 활동거점으로 활용하였다. 2006년부터는 트리엔날레(Triennale station) 역할 외에도 artist의 스튜디오로 사용되고 있다.

사쿠라기쵸(櫻木町)·노게(野毛)지구는 저층음식점이 모여 있는 변화가지만, 미나토미 라이선의 개통과 東橫線の 패선으로 사쿠라기쵸(櫻木町)역이 없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다. 2006년 10월에 이 지구 가까이 있는 노게산(野毛山)의 옛 결혼식장을 무대예술 창조활동 거점(急な坂 스튜디오)으로 열고, 요코하마에서 부족한 연습장 확보와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野毛大道芸」라는 특징적인 행사를 20년간 진행되고 있다.

바샤미치(馬車道)지구는 개항시의 외국인거류지(居留地)로 2차 대전까지 변화한 마을이었지만, 근래에는 경제적인 잠재력이 감소해버린 지구이다. 이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 검토위원회」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옛 제일은행과 후지은행(富士銀行)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하는 실험사업인 문화예술사업(BankART사업)을 2년간 추진하였다.<그림2> BankART사업 추진결과 옛 후지은행에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2005년 4월 영상연구과가 개교함으로써 창조도시의 속성 중 하나인 ‘학습’ 기능을 갖는 공간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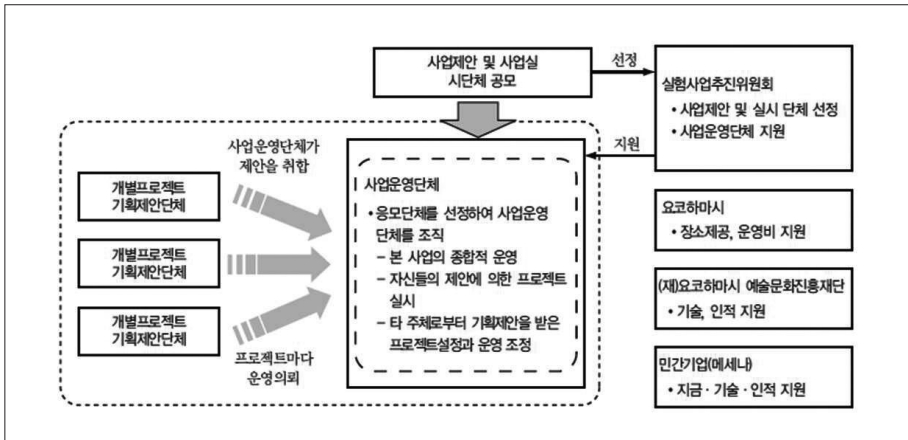
<그림 2> BankART1929 사업의 역사적 건축물 활용 사례(좌 : 옛 제일은행, 우 : 후지은행)



출처 : 라도삼외(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또한, 영상연구과 유치를 통해 요코하마 시에 거주하는 영상관련 종사자와 관심 있는 시민, 학생들이 굳이 동경까지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한편, 두개의 역사적 건조물에 입주하여 문화와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조 언하는 위원회를 월1회 개최하였다. 이러한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BankART1929'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운영은 상근 직원 10명의 'BankART1929'라는 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총 1,300만 엔의 사업비 중 요코하마 시에서 6,500만 엔을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제와 운영특성은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시는 옛 제일은행을 개수·재현한 'BankART1929 Yokohama'와 일본郵船 창고를 개수한 'BankART Studio NYK' 2개의 건물을 무상대여 하고 있다.¹⁸⁾

<그림 3> BankART1929 추진 체제와 운영특성



출처 : 오민근(2010) 해외 창조도시 사례 및 시사점

18) 라도삼외3, 2008, '창조도시의 의미와 사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 국내의 창조도시

1) 국내 창조도시 흐름과 전략

창조도시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창조도시가 기존의 문화도시와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창의성을 매개로 한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있다. 창의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계획은 신경제(New Economy)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 예술은 주요 자원으로, 창의성은 주요한 방법론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을 전후해서 창조도시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화도시정책에서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과 전략은 차별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은실, 2008).

지역개발에 문화전략이 본격적으로 결합된 계기는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비롯되었다. 지자체별로 축제를 비롯해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는 등 지자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문화적인 도시정체성 구축을 위한 방향과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전이행정적인 정책이 만연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문화예산을 1%를 달성하였다. 더불어 문화 복지의 실현,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 2003년 ‘문화 환경 가꾸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문화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통한 문화 분권화 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정책이 제시되었다. 2008년 4월 서울은, 켈처노믹스를 표방하며 ‘창의 문화도시’를 선언하고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각 지자체들이 표방하는 문화·창조도시 정책들을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¹⁹⁾

<표 2> 지방정부 문화도시 추진정책 및 계획

| 도시 | 문화시정 계획 | 개요 | 사업내용 | 비고 |
|----|---------------------------------|--|---------------------------------------|-----------|
| 서울 |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008~2010) | • 3개 분야 10대 과제 • 서울문화지도, 켈처노믹스 • 2010년까지 1조 8,500억 원 | • 유휴공간의 문화시설 • 한강르네상스 • 디자인중심도시 | • 창의 문화도시 |

19) 박은실, 2008, ‘국내 창조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 | | | | |
|-----|--|--|--|---|
| 경기도 | 문화콘텐츠비전 2020전략 (200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목표 6대 정책 로드맵 • 기업하기 좋은 환경 • 국제경쟁력 증진 • 창의적 콘텐츠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1천억 원 경기콘텐츠진흥기금조성 : 투자펀드형식 •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문화 비전 2020 • 5대 분야 30대 역점 사업 |
| 부산 |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 7대 프로젝트 (2006~2020) (문화도시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문화, 생태 종합 • 아시아안 게이트웨이 • 서 부산 프로젝트 • 도시재창조 프로젝트 •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게이트웨이 •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 부산 예술의 전당 건립 • 부산영상센터, 영화박물관 • 국립해양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도시 • 영상문화산업도시 • 혁신도시 • 부산진해경제특구 |
| 인천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 첨단지식의 국제 도시 • 영종 : 항공항만의 물류 도시 • 청라 : 레저스포츠 관광 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 컨벤션, 문화센터 • 영종 : 관광, 복합레저단지 • 청라 : 걸쳐, 아쿠아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
| 대구 | 대구문화중장기 발전계획 (2006~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1조 9천억 원 (민자 1조 5천억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문화재단 설립 • 도심문화활성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창조도시 • 혁신도시 |
| 대전 |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전략영역과 비전, 10개 아젠다 및 38개 중점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인재양성 • 과학기술과문화예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도시 • 과학도시 • 유네스코 창조 도시 추진 |
| 광주 | 광주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종합계획 (2004~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까지 4조 8천억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문화지구 조성 • 아시아문화의 전당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도시 • 과학도시 • 유네스코 창조 도시 추진 (예술, 디자인, 판소리) |
| 전주 |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2006~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2조 원 • 전통생활문화도시 등 3대 지향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핵심전략사업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전통문화 중심도시 • 유네스코 창조 도시 추진 (전통음식) • 전북혁신도시 |

출처 : 박은실, 2008.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문화예술 경영”,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심포지엄, 서울역사박물관

2) 국내 창조도시 사례

(1) 서울 창조도시 사례

우리나라 창조도시 정책추진은 서울이 가장 앞서간다. 서울시는 모든 것을 제로에서 보자는 발상의 전환, 즉 창의적인 시정을 의미하는 ‘창의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중심의 경제문화도시, 도심부활 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개선 등 일련의 계획들을 바탕으로 2008년 ‘창의 문화도시의 해’를 선언한 바 있다. 서울이 2008년에 제시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전략은 ‘문화’의 ‘Culture’가 경제(economics)와 융합한 말로,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핵심적 내용이다. 다시 말해, 문화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도시의 성장기반 자체를 변화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는 한편, 문화산업을 통해 서울을 발전시키는 ‘창의로운 환경 조성’과 ‘창의자본 육성’, ‘창의 산업 개발’을 통해 창조도시 조성에 나선 것이다. 서울 ‘창의도시 문화도시’ 사업계획은 3대 분야에 10대 과제가 발표되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10대 과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적 창의 기반 조성’, ‘도시문화 환경 조성’, ‘도시가치완 경쟁력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예술 창의의 기반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서남권 공장지대 내 낡은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창작공간인 'Art Factory'를 조성하고자 한다. 'Art Factory'란 최근 창의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영국 게이즈 헤드(Gateshead)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방직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시는 서남권에 창의로운 예술가가 모여들고 있으며, 낡은 공장으로 도시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 산업위주로는 더는 성장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창의로운 아이템만이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이 지역을 창의 지역으로 만들고자 'Art Factory'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지하철 터미널 역사 등과 같은 폐 시설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시유지 등에 대규모 창작센터를 건립, 창의성을 원천으로 '창의자본'을 육성할 예정이다.

② 역사보전 차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그 하나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전·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성백제의 역사를 복원, 서울시

역사를 2000년 고도(古都)로 확장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근대역사를 복원, 이야기가 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정부 수반 유적 - 경교장 이화장, 장면,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등 대통령의 생가를 문화공간으로 복원, 새로운 역사적 명물로 만들고자한다. 서울성곽을 복원하는 한편, 도심 한옥지대를 확장, 2015년까지 유네스코 역사문화도시에 등재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예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술 펀드(Art Fund)를 조성하는 한편 Art Seed를 만들고 완성보험제도 등을 도입, 예술 내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둘째, 도시문화환경 조성차원에서 네 가지 주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① 문화 자원이 밀집한 '문화예술 군락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인사동, 대학로, 홍대 등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삼청동 길(화랑, 박물관밀집지역), 평량동(미술관 밀집지역), 청담동(화랑 밀집지역), 신사동(디자인 밀집지역), 삼각지(화방 밀집지역), 예술의 전당 주변(악기상 밀집지역), 답십리(고미술밀집 지역), 문래동(다원예술 밀집지역), 낙원상가(중고 악기상 밀집지역)등 다양한 지역에 밀집 공간, '군락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을 보전하는 한편, 예술네트워크의 문화적 지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② 한강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라고 명명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지금의 한강을 '관리의 한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한강을 '문화의 강'으로 컨셉화 하고 있다. 즉, 앞으로 한강은 서울의 중심축으로서 서울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③ 문화의 샘 조성 즉, 문화의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여러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문화 축은 대학로와 삼청동 등의 도심과 홍대, 강남신사, 청담동 등 3개의 거점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지역 외엔 특별한 문화 활동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문화 취약지대에 문화 시설을 건립하여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④ '생활 속 문화 예술' 정책은 생활공간 내, 즉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공원이나 하천 등 수변 공간, 도로 등 일상공간을 가능한 문화적 콘텐츠로 입히겠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다. 이미 1~3% 내로 떨어진 서울의 성

창물은 이대로 가다간 특별한 발전모델 없이 정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가성장력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을 창의 산업 육성으로 보고 있다. 창의 문화산업 육성차원에서 ① 서울을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전반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디자인 기반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주력할 예정이다. ②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서울 문화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가까우면서도 세계적 기업이 없고 세계적 성과를 체험할만한 지역이나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IT 콘텐츠 산업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e-Festival 개최 등을 통해 IT 콘텐츠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③ 관광객 활성화로 서울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사실 관광은 위의 모든 정책이 성공하면 저절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결과적 개념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유입되더라도 처리할 수 없는 여건, 즉 중저가 호텔의 부재, 외국인이 알아 볼 수 없는 거리 표지판과 디자인 등 기초적인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 이정책의 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은 서울을 친관광적 환경, 다문화가 수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서울의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실천력이 담보되었거나 실행을 통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도삼외, 2008)

〈표 3〉 서울시 창의 문화도시 추진과제

| 영역 | 과제 |
|-----------|---|
| 예술적 창의기반 | ① 유희시설의 문화예술 창의발신지화 ② 역사복원 및 매력 있는 서울 만들기 ③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 |
| 도시문화환경 조성 | ④ 서울상징 문화특화지역 육성 ⑤ 한강을 서울 상징문화공간으로 ⑥ 문화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화의 샘 조성 ⑦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생활 속에 문화 |
| 도시가치와 경쟁력 | ⑧ 서울을 최고 디자인 도시로 ⑨ 문화 창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과 일자리 창출 ⑩ 관광객 1,200만 시대로 서울경제 활력 창출 |

출처 : 라도삼외(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2) 전주 전통 문화 중심도시

전주시의 「창조도시」의 발전 기반은 ‘전주전통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에 기초한다. 전주시는 전주전통 문화도시기본계획(2006), ‘전주 전통문화 육성방안 및 선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연구(2007)’를 수립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창조도시 네트워크 전통음식 분야의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표 4>’에 의하면 전주의 비전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도시의 구상과 지향하는 목표는 ‘전통생활 문화도시’, ‘전통문화 창조도시’, ‘전통문화 체험도시’이다. 이를 위해서 ① 전주전통 문화도시 경관조성 ② 한국문화 체험중심도시 ③ 한브랜드 허브도시 ④ 아·태 무형문화거점도시 ⑤ 전주 한옥마을 브랜드화 등 5대 핵심전략사업을 설정하였다.

전주시는 현재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한스타일의 활성화’, ‘한국 무형 문화 거점’, ‘전통문화 체험교육’, ‘전통문화도시 관광활성화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는 한스타일 사업 6분야 중에서 한옥, 한국음악, 한식, 한지 등 4개 분야의 거점지역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스타일 활성화 사업은 전주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전주시는 한스타일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한스타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제2청사 부지 1만 9,836㎡에 ‘한스타일 진흥원’, ‘전주한지산업 진흥원’, ‘식(食)문화 체험관’, 등을 연차적으로 직접화 시킬 예정이다.

‘한스타일 진흥원’은 ‘한스타일 연구센터’와 ‘전통문화 종합홍보관’을 중심으로 국내 한스타일 산업을 총괄하는 국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전주한지산업진흥원’과 ‘식문화 체험관’은 한지, 한식의 인력 양성, 연구개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거점지역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또한, 한옥마을 경관조성과 전주비빔밥 중국공장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스타일은 한류콘텐츠의 기반이며, 전주는 전통문화와 더불어 영화와 영상 등 디지털 산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하다. 전주는 오랫동안 민·관이 협동으로 하는 전통문화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왔고 87%의 전주 시민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사업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한국 문화 관광연구원, 2006). 또한 전주에는 700여체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어 생활한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주한옥마을’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 창조도시모델은 볼로냐의 ‘문화 창조도시’의 성공사례와 유사하고, 전략은 미국 실리콘벨리의 쇠퇴 이후 재활을 통해 지역을 구사한 지역 혁신 전략의 방식과 유사하다.(박은실, 2008)

〈표 4〉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의 핵심전략사업별 추진과제 및 추진사업

| 핵심전략사업 | 추진과제 | 추진사업 |
|-----------------|---------------------------|---|
| 전통문화도시 경관 조성 | 전통문화도시 경관 기반 조성 | 전통문화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시민참여 전통문화경관 가꾸기, 전주역사문화 가상체험 시스템 |
| | 특성 있고 균형적인 문화지구 및 환경조성 | 전통문화특성화벨트 조성 전통문화경관 테마거리 및 도심 시민문화예술촌 전주생태문화도시 조성 |
| | 천년고도 역사문화 경관복원 정비 | 도심공간의 역사문화 복원, 전주천변 역사생태공간조성 |
| | 특성 있는 전통문화도시 명소 조성 | 전통공원조성, 소리박물관 조성, 주제별 특성화된 명소조성 |
| 한국문화체험 중심도시 | 한민족 세계네트워크 구축 | 한민족 문화교육 및 체험 네트워크 구축 전통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
| | 전통문화 생활화 | 전통문화학습사이트 구축, 문화교육시스템 구축 문화정보교류/문화통화시스템, 전통문화전문인력 양성 |
| | 전통문화체험관광을 통한 경제적 가치 제고 | (가칭)Korea Culture Complex(KCC)조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수변영상극장 조성 운영 전통문화관광네트워크,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마케팅 지원 유비쿼터스 기반 관광안내 및 전주문화홍보시스템 |
| 한브랜드 허브도시 | 한브랜드 발전기반 조성 | 한문화진흥원 설립, 전문인력 양성 |
| | 전통문화상품 유통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한지음식의 재료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전통문화상품 활용제도, 전주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가치 제고 |
| | 한식(음식)문화 활성화 | 음식의 재료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음식업체 마케팅 지원, 음식 세계화 |
| | 한지문화 활성화 | 한지의 재료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한지 생산업체 지원, 한지의 고급화 및 산업화, 한지의 세계화 |
| | 전통문화자원 콘텐츠 개발 | 전통문화자원 콘텐츠 개발 |
| | 한브랜드 세계화 | 한브랜드 엑스포 개최, 한브랜드-한류 연계사업 |
| 아태 무형 문화거점도시 |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조성 | 아카이브 조성, 공연장 및 전시장 교육연수 및 전승관, 무형문화재연구원 |
| | 무형문화재 유치 및 명소화 | 무형문화재 유치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 유치, 전통문화공원 조성 |
| | 소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소리산업 육성 | 소리문화원형콘텐츠 개발, 소리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소리축제의 단계적 확대 발전 소리문화공동체 운동 |
| 전주한옥마을 브랜드화 |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 기본설계 및 제도 정비,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환경 정비 한옥마을 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전통문화지원시설지구 조성 한옥 개보수 지원센터(한옥연구원)설립,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 |
| | 한옥체험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 테마형 한옥체험 프로그램 개발, 특성 있는 소로 및 탐방로조성 |
| |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발전 | 한옥마을 공동체성 제고,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

출처 : 국토연구원(2007),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Ⅳ. 역사·문화도시 재창조 여건과 잠재력

1. 수원 「화성」 중심의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사례

수원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화성」이 있는 역사·문화도시이다. 「화성」은 200여 년 전 정조대왕의 기획이 탄생시킨 아름다운 성으로, 1997년에는 그 예술적 우수성과 독창성으로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축성 당시의 기록인 「화성성역의궤」 역시 기록의 정밀성과 우수성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충만한 도시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수원시는 ‘화성 옛 모습 찾기’와 ‘화성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복원과 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는 「화성」을 도시브랜드로 하는 수원시의 역사·문화도시 만들기로 집약되는데, 시민·정치인·전문가·NGO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수원시는 시의 대표적 상징이자 매력적인 자원인 「화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1)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변화

수원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70~80년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 곳곳에 산재된 문화재 훼손을 겪었다. 도심 속의 문화재는 도시개발의 장애 요인, 즉 「화성」 중심의 번성했던 시가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쇠락 등 낙후된 구시가지로의 전락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 중심의 구시가지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많은 정책을 제시했으나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화성」의 문화재적 가치가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개선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러 정책 또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1990년대 초까지 난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로 여건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화성」을 통한 구시가지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문화재 활용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며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발전의 제약조건으로만 여겼던 「화성」을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 창출 자원으로 인지하고 나아가 활용에

대해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문화재의 우수성과 보존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도시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도시정책의 변화이다.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재정립은 물론, 그동안 소홀했던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복원, 활용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단절된 성곽 연결통로 잇기 등 접근 금지의 시설도 전면 개방,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함으로써 친밀감과 관심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훼손된 문화재의 지속적인 복원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화성사업소>를 설치하여 '화성 옛 모습 찾기'와 '화성 성역화사업'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시민 의식의 변화이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 높아진 자긍심과 관심은 시민활동으로 이어졌다. 1998년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화성연구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2008년 총 37개 단체(민간단체, 학교, 기업, 종교단체 등)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문화재 보존 및 복원, 활용에 대한 연구와 홍보, 안내, 모니터링, 화성 문화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편 역사·문화도시 만들기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정치권에서의 정책 변화이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정치인에게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중요한 정책이슈로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가칭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법 제정은 물론 「화성」복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원 화성 복원사업이 선거공약으로 나올 만큼 관심의 폭도 넓어졌다²⁰⁾.

이렇듯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문화재 보존과 복원, 활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수원시의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의 복원 및 보전,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2007.12월: 경기인천공약사항).

2) 수원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추진 사례

세계문화유산「화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잠재력은 오늘날 도시 재 활성화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훼손된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 및 주변정비를 시작으로 수원시의 역사·문화도시 만들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역사·문화도시 만들기는 「화성」복원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이미지 개선, 지역문화 발굴 및 재연,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및 홍보활동, 주민 및 전문가, NGO 등 시민단체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를 올리는 중이다.

(1)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목표

수원시는 「화성」을 이용한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물리적 환경개선 및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한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 기초는 다음과 같다.

- 수원 「화성」역사문화도시는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과거 위에 시간의 층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환경을 지니며, 역사적 유적과 함께 오늘날의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욕구가 조화롭게 충족되어 거주민이 풍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 역사유적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생산하고 향유하며, 도시 자체가 역사의 모습(경관)과 양식(문화)을 이어받는 도시

- 독자적인 예술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내성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외부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과 수용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도시

- 역사와 문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을 위한 도시문화 경영이 시행되는 도시

- 수원 「화성」은 유적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리적·인문적 특성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여기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생활 공간이며 지금도 계속하여 미래의 유산을 생산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도시 정체성 확보 및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계획

수원시가 수립한 도시정책은 1998년에 수립한 비법정계획인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미래복지 수원」, 미래(100년) 구상에서 '역사도시의 전통성 확립과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개발방향이다. 「도시기본계획(목표 2020년)」에서는 지역·역사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통한 활력 있는 전통문화 도시창조를 미래상으로 설정했고,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목표 2006년, 2011년)」에서는 ‘문화재와 연계한 선적·면적인 역사문화 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07년에 수립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중심으로 한 경관자원의 보존 및 육성,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역사·문화도시로서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 등의 계획들을 수립했다. 「화성」 관련 계획에서는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복원,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와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드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표 5>는 그 동안 추진한 정체성 확보 및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주요계획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5>수원의 정체성 확보 및 역사문화관광 도시 만들기 계획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미래구상계획 | • 수원의 미래 제안 | • 목표 1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미래복지수원」 제안(1998) - 역사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개발방향 제시 |
| 도시계획 | • 도시기본계획 | • 목표 2020년의 수원의 미래발전 방향 제시(1998) - 지역역사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통한 활력 있는 전통문화 도시창조 |
| | • 도시재정비계획 | • 목표 2006년의 도시관리계획(1998), 목표 2011년의 도시관리계획(2002) - 문화재보존 발굴과 연계한 선적·면적인 역사문화 공간 정비 |
| | • 도시경관기본계획 | • 목표 2020년 수원의 경관 및 이미지연출 방향제시(2007) - 화성의 보존과 정비를 통한 도시이미지개선 및 차별화된 관광명소화 |
| 화성관련계획 | • 화성 문화재 보존, 복원 및 주변 정비,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 | • 화성주변정비 기본계획(1999년) - 화성의 복원,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도시의 전통성 및 창조성 구축 |
| | | • 화성 관광프로그램 연구(2002년) - 화성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 |
| | | • 화성주변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002년) - 화성 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장기 마스터플랜 제시 |
| | | • 화성주변 1중 지구단위 계획 수립(2003) -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
| | | • 화성관광객 수요조사 연구(2004) - 화성 거점별 방문객 수 조사, 방문 선호도 등 |
| | | • 화성행궁과 주변지역 조경복원 고증 및 실시설계(2004) - 화성 내 문화재주변 조경계획 수립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방안 연구(2005) - 관광루트 개발, 관광기반시설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내 미 복원시설 지표조사 및 고증연구 용역(2005) - 화성 내 미 복원시설 연구, 복원계획 수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관광객수요조사 용역(2006) - 2006년 관광객 수 조사 보완, 거점별 관광객 수 조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행궁 앞 광장 활용방안 및 조성계획수립(2006) - 광장 활성화 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재종 지구단위계획 수립(2006) -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건축물의 층수, 외관,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색채, 광고물 등), 특별계획구역 설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2007) - 특별계획구역 개발 방안 연구 및 화성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2008) - 화성 내 문화재 복원 및 관광활성화 방안, 재원조달 방안, 국책사업 책정방안 모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내 신평동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용역(2008) - 행궁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위한 유입시설 도입, 행궁주변 경관 계획 수립 |

출처 : 수원시 자료 정리

3) 세계문화 유산 「화성」 중심의 관광명소화 추진

(1) 「화성」 복원 및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화성」 중심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문화재의 원형 복원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기 ‘화성 옛 모습 찾기 사업’과 중장기 ‘화성성역화사업(목표 2020년)’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 옛 모습 찾기 사업’은 미복원 문화재의 복원과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녹지 공간 확보, 생태하천 복원, 화성성곽 야간조명 설치 등 역사·문화경관을 창출하였다.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역사박물관 건립과 문화 관광지구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어나가고 있다. ‘화성성역화사업’은 화성축성 당시 109개 시설물중 미복원 38개 시설물을 원형 복원하고,

「화성」성곽 내외의 기반시설 정비와 성곽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1조 9,922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표6>은 화성복원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화성 복원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 구분 | 사업명 | 사업기간 | 비고 |
|------------------|-------------------------------|------------|---|
| 화성 성역화 사업 | • 1단계) 화성 제모습찾기 기틀구축 | 2003~2011년 | • 기반시설 : 옛길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등 24개소 정비 • 미 복원시설 : 행궁복원(분봉상사, 별주, 우화관 장춘각), 종루, 성신사, 남수문, 남지 등 11개 시설물 복원 |
| | • 2단계) 화성 제모습찾기 기반조성 | 2012~2016년 | • 기반시설 : 팔부자길 조성 등 20개소 정비 • 미 복원시설 : 영화역, 이아, 중영 등 8개소 복원 |
| | • 3단계)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華城』 완성 | 2017~2020년 | • 기반시설 : 화성우회도로 개설 등 6개소 정비 • 미 복원시설 : 수문청(4), 팔달문 성곽 등 20개소 복원 |
| 화성 옛 모습 찾기 | • 행궁 앞 광장 조성 | 2004~2008년 | • 문화재보호 및 관광인프라 구축 |
| | • 수원화성박물관 건립 | 2004~2009년 | • 관광인프라 구축(화성관련 자료전시) |
| | • 수원역사박물관 건립 | 2004~2008년 | • 관광인프라 구축(수원역사 관련자료 전시) |
| | • 영화문화 관광 지구 조성 | 2005~2012년 | • 문화공간 확보 및 관광인프라 구축 |
| | •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 | 2002~2004년 | • 중요 문화재 주변정비, 공원 조성 |
| | • 동장대주변 공원 및 주차장 조성 | 2003~2005년 | •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
| | • 장안문 화홍문간 주차장 및 공원 조성 | 2001~2002년 | •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확보 |
| | • 화성행궁 후원 조성 | 2005~2006년 | • 행궁 후원조성으로 경관확보 |
| | • 장안문주변 문화시설 조성 | 2003~2010년 | • 문화공간 확보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 | • 화홍문 앞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 2002~2003년 | •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무형문화재 전수 |
| | •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 2003~2010년 |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 | • 창룡문 공원 및 주차장 조성 | 2001~2003년 | • 관광객을 위한 외부주차장 확보 및 경관 확보 |
| | • 화성아간 경관 조성 | 2005~2006년 | • 문화재 주변 아간경관 연출 |
| | • 종루복원 | 2007~2008년 | • 문화재 원형 복원 |
| | • 동남각루 주변 정비 | 2004~2008년 | • 문화재보호를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 | | |
|-----------------|------------|-----------------------------|
| • 사랑채 건립 | 2007~2008년 | • 체류형 숙박시설 제공 |
| • 화성행궁복원사업(2단계) | 2003~2010년 | • 훼손 문화재 복원 |
| • 화성열차 제작 운영 | 2002~2009년 | • 관광객에게 체험, 즐길 거리 제공 |
| • 장안문 성곽 잇기 사업 | 2004~2007년 | • 훼손 문화재 복원 |
| • 서장대 성곽 잇기 | 2003년 | • 끊어진 성곽 원형복원 |
| • 성신사 복원사업 | 2007~2009년 | • 훼손 문화재 복원 |
| •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 2008~2010년 | • 관광인프라구축, 다양한 음식, 공방 거리 재현 |
| • 수원천 자연생태 복원 | 1995~2003년 | • 화성과 조화된 수원천 옛 모습 복원 |

출처 : 수원시 자료 정리

(2)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시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총 360만 명의 수원 방문객 중 110만 명 정도가「화성」을 방문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화성」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등 관광객들이 즐기며 체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요소 개발과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관광객 유입을 배가하고 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2007년)하는 등 「화성」 관련 자료 개발과 평가, 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보전·발굴을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화성」 축성 당시 거행한 정조시대의 궁중의례 및 군례의식 재연 등 지역문화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원갈비축제를 민속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화성문화제의 ‘정조 대왕 능행차 연시’는 212년 전 사도세자의 원침참배 행차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는 행사로 출연인원 1,500명이 넘는 장엄한 행렬로 장관을 이루며 세계적인 거리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화성열차 운영 등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표7>은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국내, 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 구분 | | 사업내용 |
|------------------------|-------------------|--|
| 전통문화 유산 보존·계승 |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 • 화성성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1997년) |
| | | • 화성성역의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록(2007년) |
| 화성 관광 프로그램 운영 | 정조대 궁중의례 재연 | • 해경궁 흥씨 회갑연 재연(매년 1회) • 200여 년 전 과거시험 재연(매년 1회) • 장한세자해경궁 흥씨 가례 재연(매년1회) • 궁중 전통행사 재연, 궁중 문화 체험(상설) |
| | 정조대 군례의식, 군사훈련 재연 | • 정조대 장용영 수위의식, 등(상설), 정조대 무예24기 공연(상설) • 정조대 야간 군사훈련 재연(매년1회) |
| | 화성행궁 상설 공연 | • 궁중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매주토요일) |
| 지역문화 발굴 및 활용 | 화성문화제 | • 정조 대왕 능행차연시(매년1회), 수원 갈비 축제(매년1회) |
| | 전통 민속 행사 | • 대보름민속놀이, 고색동 코잡이 놀이, 효의 성곽순례, 풍물 대동 놀이 한마당, 수원화성주부 국악제, 화성 백중제, 한가위 국악한 마당, 궁중문화축제, 화성축성체험, 전통시장거리축제, 함께하는 세시풍속 “동지”행사 |
| | 민간문화예술행사 | • 흥재예술제, 한중서 예술교류전, 나혜석 여성미술대전, 시와 음악이 있는 밤, 대한민국 화성서예대전, 수원가요제, 수원여름음악축제, 화성국제연극제, 수원예술인축제, 수원합창제, 광고산축제, 수원시 서예대전, 한가위 국악한마당, 수원화성 사진공모전, 민족예술제, 전국 화성 주부국악제, 효의 성곽순례, 동북아시아 사진교류전, 한중 서예교류전, “동지”행사, 제야 이두 거리축제 |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 및 홍보활동 | 기반조성 | • 수원시홍보관운영 |
| | | • 수원화성 운영 재단 운영 |
| | | • 수원화성홍보관 운영 |
| | | •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48개), 으뜸화장실 CONTES(468개 선정) |
| | | • 수원시티 투어 - 화성 및 주요 관광지 버스투어(1일 2회) |
| | | • 화성열차 운영 - 화성의 주요 시설 관람(상설) |
| | 홍보 활동 | •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2003~2008년) |
| | |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 공중파TV, 인터넷, 공항 리무진 버스, 항공기 홍보지 |
| | | • 화성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 관광, 여행 축제관련 관계자대상(2002~2007년)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드라마 제작지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금, 연계소문, 이산 등 14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모 스포츠 개최를 통한 관광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월드컵 개최, 국제 청소년축구대회 개최, 피스컵 코리아 국제클럽축구대회 개최, FIFA세계청소년월드컵대회 개최, 월드컵종합격투기대회 개최,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수원코리아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세계3쿠션 월드컵 대한민국대회 개최, 피스컵 개최 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세계유산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보존과 관리체계 개선 |

자료 : 수원시 자료 정리

(3) 역사문화관광 도시 이미지 개선

수원은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매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재 주변과 도심중심을 흐르는 4대 하천을 생태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수 경관을 연출하고,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 '3대가 함께 하는 Family Park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녹색도시 조성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어 2008년 「제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나혜석 거리', '향교 테마거리' 등 문화가 있는 특색거리를 조성,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시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및 국제 수준의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엘리트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경제적 재활성화 사업 등 역사적 맥락에서 수원시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우수한 문화재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만들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표 8>은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

| 구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개선 | 녹색도시조성 | • 푸른 도시 조성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2000~2008년) |
| | | • 아름다운 학교 숲 조성사업(60개교 : 2005~2008) |
| | | • 지역입지와 조화된 쾌적한 공원 조성(2000~2007년) - 근린공원 9개소 조성, 3대가 함께하는 Family Park : 3개소 - 쌈지공원 : 신규조성(17개)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16개소 - 생태복원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웰빙공원 추진 19건 |
| | | • 건축물 옥상 및 주변녹화사업 |
| | | • 수원천 생태하천 복원 1차(1995~2003년) |
| | 도심 속 생태하천 가꾸기 | • 수원천 생태하천 복원 2차(2007~2010년) - 북개구간 생태하천 복원 |
| | | • 맑은 물이 흐르는 영화천 만들기(2002~2004년) |
| | | • 원천천 생태하천 복원(2003~2005년) |
| | | •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2003~2005년) |
| | | • 문화거리 조성 |
| 문화거리 조성 | • 나혜석 거리 근대 이미지 조성(1998~2000년) | |
| | • 향교 Theme 거리 조성(2003~2010년) | |
| | • 화성주변 재래시장 주변 특화 거리 조성(2003~2008년) | |
|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주민+사+ 시민단체+전문가) | 영통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 | • 아파트담장, 생태하천 조성, 생태학습 야외 교육장 조성, 야외 전시공간 조성, 생태길 조성 |
| | 장안 푸른 마을 송죽 만들기 | • 주택담장 허기, 옥외광고물 정비, 초록옥상 만들기, 생태호안 정비, 마을축제 |
| | 권선 버드내마을 정체성 살리기 | • 버드내마을 유형 문화유적 정비, 버드내마을 무형 문화 복원, 주민 휴식 공간 확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유적과 수원천의 만남을 통한 역사와 휴식이 교감하는 세류동 건설 |
| | 행궁동 마을 만들기 | • 간판정비사업, 골목 길 문화거리 만들기 |
| | 수원화성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 화성 가꾸기, 화성거리 되찾기, 화성과 하나 되기, 화성 옛 모습 살리기 |
| 시민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공모 | 화성도시건축대전 | • 화성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7회 실시) |
| | 화성행궁 앞 광장 공모전 | • 행궁 앞 조성 및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1회) |

자료 : 수원시 자료 정리

2. 수원 역사·문화도시 만들기의 현주소

「화성」은 세계문화등록과 더불어 수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표현되고, 「화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건조물은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화성」이 세계문화 유산 등록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수원시종합관광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화성방문 목적을 조사한 결과 “조용한 휴식/산책”, “아름다운 경관/문화재 감상”과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기대감” 순으로 조사되었고, 2005년 ‘수원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랜드 마크 의식조사에서도 수원을 대표하는 랜드 마크는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이 1위를 차지하였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2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성이 역사·문화적 가치와 우수한 관광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이 주변의 노후·불량주거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의해 경관이 매우 불량하여 화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수원의 대표 이미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 화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방안 연구’에서 화성사업소 및 관련종사자에 대한 조사결과 화성방문자의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조사되었고, 화성시설물 및 체험활동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 지출비용이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이 또한 수원시가 「화성」 비롯한 매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관광 상품, 프로그램 부족 등 관광지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져 체류형이 아닌 주로 경유형 관광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도 있다. 문화재로 인하여 고도,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해당 주민 및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들은 문화재를 제약요인으로 받아들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크다.

문화유산보존과 활용에 있어서도 세계문화 유산의 등록으로써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인류의 문화자산으로서 후대에게 온전하게 물려 주기위한 보존의 노력과 우수한 문화재 자원을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는 더욱 더 빛나게 될 것이다.

「화성」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는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계기는 제공되었으

나, 세계문화 유산 등록 이후 문화재 보존·복원과 문화자원의 활용하는 창조산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역사유적과 문화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문화재의 보존·복원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역사 유적과 함께 오늘날의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요구가 조화롭게 충족되어 거주민이 풍족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역사유적과 문화적 가치를 통해 외부관광객의 방문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과 수용시설의 프로그램을 개발, 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산업이 창출되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가 갖고 있는 유적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리적·인문적 특성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동시에 여기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공간으로써 지속가능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문화 유산 「화성」을 모티브로 한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역사·문화도시 만들기'에 수원시민은 물론 정치인, 시정부, 전문가, NGO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V. 수원 역사·문화도시 재창조 방안

1. 도시 개발 현황과 문제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축조로부터 기원하고 있는 오늘날의 수원은 2010년 현재 인구 11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수원은 1910년대와 1950년대 두 번의 전란으로 시가지가 폐허가 되었고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경제가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가속되었다. 수도서울의 과밀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등 대규모의 공장들이 수원으로 이전되어 「화성」 주변에 5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의 시가지가 크게 확장되었다.

1980년대는 과거 1960~70년대 고도경제 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난 수도서울의 교통·

환경과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원도 이에 편승하여 도심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매탄지구 외 4개 지구)들이 진행되어 시가지확산과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1990년대 또한 수도권의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수원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화에 의한 개발연대에서는 시가지 및 도시인구 규모 증가 등 외견상의 도시성장이 지속되었다. 반면에 전통문화의 상실, 녹지 훼손 등 역사·문화적 맥락은 도외시되거나 부분적으로만 고려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원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증가와 개발 가용지 부족, 구시가지의 슬럼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광교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구시가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90년대 들어서 나타난 섬유산업의 쇠퇴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한일합심이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으로의 이전을 시작으로 선경, 금강, 연초제조창(KT&G) 등이 이전되거나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 대기 기업의 공장들의 이전은 관련 납품 중소기업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이전 또는 폐업하는 사태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대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 공장의 종사자들이 또한 대부분이 이직하거나 실직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장 이전 부지들 대부분이 고밀도의 고층의 아파트부지로 전환되면서 교통·환경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2003년 6월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에 따라 수원도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 적지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이전 부지를 LH공사에 매각하여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을 하는 구상이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공장이전,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과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수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이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공장이전 부지와 민간제안의 재개발, 재건축 부지가 주택지로 개발될 경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어 도시가 기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산업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들의 이전으로 산업 활동이 쇠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마저

이전되고 이전 적지에 고밀도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수원의 경제는 더욱더 나빠져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럽 등 선진 도시들을 걸어온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진행될 공공기관·대기업 공장 이전 부지 활용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2. 도시 재창조 공간 요소

1)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수원은 2000년 들어서 수도권지역의 개발 가용지 고갈, 아파트 가격상승 등의 개발 붐에 편승하여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사업 20개 지구가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표 9〉, 〈그림 6〉.

그동안 재개발은 서울과 수도권중심으로 대규모의 주택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전면철거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이 전개되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주택정책의 공공성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90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88년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근거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지역의 주건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하, 도로 및 기반시설과 물리적 주거환경에만 중점을 두어 지역거버넌스 참여 부진 등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주거지 재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리적 주거지환경 정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적 정비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내용 모두가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환경개선의 주거환경개선 중심으로 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지고 있어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교통·환경,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세계문화 유산「화성」주변의 고밀의 고층의 재개발사업은 역사적 경관을 크게 저해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영국의 맨체스터 노스모어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 수립한 홈존(Home Zone)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

레와 같이 주거지 커뮤니티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 문화, 경제적 자원 활용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 9〉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 연번 | 구역명 | 위치 | 구역면적(m ²) | 정비구역지정 | | |
|----|--------|-------|-----------------------|--------|-------|-----------|
| | | | | 기존세대수 | 계획세대수 | 고시일 |
| 계 | 20개소 | | | | | 19개소 |
| 1 | 111-1 | 정자동 | 138,582 | 1,660 | 2,144 | 09. 4.21 |
| 2 | 111-2 | 조원동 | 37,304 | 517 | 644 | 09. 5.14 |
| 3 | 111-3 | 영화동 | 28,911 | 395 | 420 | 09. 7. 3 |
| 4 | 111-4 | 조원동 | 35,732 | 485 | 583 | 09. 1.20 |
| 5 | 113-1 | 서둔동 | 45,281 | 460 | 670 | 10.05.20 |
| 6 | 113-2 | 서둔동 | 88,071 | 1,001 | 1,216 | 09. 9.29 |
| 7 | 113-3 | 서둔동 | 74,372 | 538 | 926 | 09. 9.29 |
| 8 | 113-5 | 세류동 | 41,440 | 322 | 650 | 09. 4.14 |
| 9 | 113-6 | 세류동 | 126,830 | 1,819 | 1,877 | 09. 1.12 |
| 10 | 113-8 | 고색동 | 91,850 | 1,146 | 1,461 | 09. 5.25 |
| 11 | 113-10 | 고색동 | 116,090 | 904 | 1,720 | 09. 5.25 |
| 12 | 113-12 | 오목천동 | 44,848 | 275 | 647 | 09. 5.20 |
| 13 | 115-1 | 화서동 | 11,473 | 181 | 177 | 09. 3.13 |
| 14 | 115-3 | 고등동 | 64,243 | 980 | 1,009 | 09. 3.13 |
| 15 | 115-4 | 매산로3가 | 94,896 | 1,247 | - | |
| 16 | 115-6 | 교동 | 139,175 | 1,925 | 1,974 | 09. 5.25 |
| 17 | 115-8 | 매교동 | 220,534 | 2,830 | - | 10.07.26 |
| 18 | 115-9 | 인계동 | 171,537 | 2,488 | 2,450 | 09. 7.10 |
| 19 | 115-10 | 지동 | 87,612 | 1,018 | - | 10.05.31 |
| 20 | 115-11 | 지동 | 97,122 | 1,415 | 1,302 | 09. 5. 14 |

출처 : 수원시

2) 대기업 공장이전

수원은 국도 1, 42, 43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이며, 수도

서울과의 40km 이내 위치한 지리적 여건 등 산업입지로서 최적지였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으로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선경 등의 공장들 입지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진전으로 농업위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성장해온 지역사회 중심도시였던 것을 정부의 농공병진(農工並進) 시책에 따라 이를 탈피하고 지역사회 개발 및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지방행정 중심의 근대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도시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68년 선경(SK)의 모테인 선경합섬 공장이 권선구 평동 일원에 건립을 시작으로 1971년 담배인삼공사(KT&G), 1969년 삼성전자, 금강(KCC), 1975년 한일합섬, 1979년 선경화학(SKC) 등의 공장들이 유치되었다.

이들 대기업 공장들이 운영되면서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도시발전은 물론 수원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섬유산업의 쇠퇴와 노동력 부족, 고임금, 그리고 국가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의한 대기업 공장 증축 규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섬유 산업을 주도하던 한일합섬, 대한방직 등의 공장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선경합섬(평동, 정자동), 금강(KCC)이 이전되었고, 선경화학(SKC) 정자동 공장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 공장들 이전은 관련 납품 중소기업들의 동반 이전 또는 폐업, 관련 종사자들의 실직·이직으로 인해 수원의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장 이전 부지들은 수원의 특성이나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고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되어 교통·환경,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를 유발시켜 서울에 종속된 특성 없는 베드타운의 도시로 전락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대기업 공장들의 앞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수원의 경제 악화, 경쟁력 저하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한 창조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유럽, 일본 등의 선진도시들이 산업의 쇠락, 경제침체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창조한 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 헬싱키 노키아의 공장 부지를 케이블 팩토리나 건축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한 사례, 이탈리아 볼로냐의 구 담배공장 적지의 시각적 예술과 예술센터로 활용한 창조적 사업 유치, 영국맨체스터의 기존 산업유적과 창고를 활용을 통한 문화 창조적 산업 유치사례,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섬유산업 쇠퇴의 산물인 방적공장 적지와 창고를 활용한 문화 예술촌 등의 문화산업 창출, 요코하마시의 창고부지의 문화 창조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등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표 10〉 공장 이전적지 현황

| 구분 | 공장명 | 위치 | 면적(m ²) | 이전 또는 이전 예정시기 | 이전적지 활용 |
|------|-------------------|-----|---------------------|---------------|-----------------|
| 기 개발 | 한일합섬 | 조원동 | 261,553 | 1994년 | 택지(공동주택) |
| | 대한방직 | 매산동 | 75,750 | 1994년 | 택지(공동주택) |
| 개발예정 | 선경직물(SK) | 정자동 | 303,870 | 2008년 | 택지(공동주택) |
| | 금강(KCC) | 평동 | 179,667 | 2009년 | 상업 및 주택지조성 |
| | 선경합섬(SK) | 서둔동 | 112,085 | 2000년 | 상업용지 |
| | 해태유업 (동원대어리후두) | 이목동 | 40,065 | -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 | 연초제조창(KT&G) | 정자동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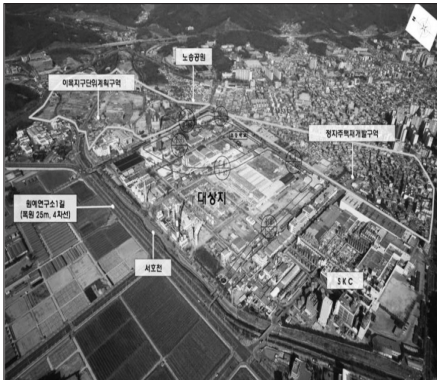
〈그림 7〉 한일합섬 개발 사례



〈그림 8〉 대한방직 개발 사례



〈그림 9〉 정자동 선경(SK) 현황사진



〈그림 10〉 정자동선경(SK) 개발 조감도



〈그림 11〉 금강(KCC) 현황 사진



〈그림 12〉 금강(KCC) 개발 조감도



〈그림 13〉 연초제조창(KT&G) 현황도



〈그림 14〉 연초제조창(KT&G) 현황사진



3) 공공기관 이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2003년 6월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2007년 1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표 11).

이전 대상 중 ‘국세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연수원’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농촌진흥

청의 본청과 산하 연구기관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업근대화의 발상과 농학을 태동시킨 역사 깊은 곳이다. 서둔벌에 자리 잡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농업연구의 본산이다.

조선조 22대 정조대왕은 1794년 수원 「화성」을 건설하면서 자급자족의 계획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화성 신도시건설에는 그 과정부터 농업 기반시설로 대규모 수리시설과 국영농장이 함께 설치되었다. 이는 당시의 농업 기술과 농업 생산력의 발달 추세에 부응하고, 농업 연구의 성과를 적용하여 전국적인 농업 진흥을 선도하려는 정조와 관료학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유봉학, 1999)²¹⁾.

1795년 5월 만석거 저수지를 준공하고 대유둔을 설치 농업생산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이후 만년재(萬年堤 1798년), 축만제(지금의 서호저수지, 1799년)와 축만제둔(지금의 서둔동 농촌진흥청 일대)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수리시설과 둔전의 설치는 당시의 농업 생산력 증대와 농업기술의 발달 성과에 부응하는 것이었다²²⁾.

정조가 수원에서 시행한 수리사업과 기존의 제언을 보수 한일, 대유둔을 비롯한 25곳의 둔전 경영은 200년 전 농업 정책의 선구를 이룬 가장 성공한 빛나는 업적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유로 1905년 12월 설치된 일제(日帝) 통감부(統監府)는 정조 때 만들어진 서둔(西屯), 현 농촌진흥청 부지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만들고자 1906년 4월 26일자로 통감부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官制)을 공포하여 1907년에 권업모범장을 개설하였다.(일제강점기인 1929년 농사시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8·15광복 이후 1947년도(道)에 교도국과 군에 농사교도소가 설립되었으며, 1949년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도의 교도국과 군의 교도소를 통합하였다. 1957년 농사개량원이 발족됨에 따라 도(道) 농사 개량원 및 시·군 농사교도소가 설립되었는데, 1962년 농사 개량원과 농림부 소속의 지역사회국 및 훈련원이 통합되어 농촌진흥청으로 발족하였다. 1994년 농림수산부 소속의 국립종축원·국립농업자재검사소·국립잡사소·국립종자보급소를 흡수하였다.

21) 유봉학, 1999, '농업진흥과 연구의 200년 전통' : 수원의 산업을 진흥시켜 재정 수입을 넉넉히 확보하고 안정시키고자 상업 진흥책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농업 진흥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기에 이른다. 화성성역이 한창 진행 중이던 1795년 5월 만석거 저수지를 준공하고, 대유둔을 설치 농업생산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곳에서 소출을 화성의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는 농업 진흥책 시행하였던 것이다.

22) 유봉학, 1999, '농업진흥과 연구의 200년 전통' : 이시기에는 이앙법(移秧法)과 수도작(水稻作)이 확대되면서 수리기술도 발달하여 국가와 개인은 수리를 위하여 수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농업전서(農業全書) 등 외래 농업지식을 수용하여 그를 연구하고 이에 따라 여러 기술이 활발히 실험되기도 하였다. 만석거, 축만제 등 여러 저수지 시설은 바로 이러한 시기 그 연구 성과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업 역사의 산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가 정부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우리나라 내무 행정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1978년 01월 24일 파장동 일원에 신축 이전하여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1982년이 이전한 국세공무원 교육원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다. 농촌진흥청 및 교육원들은 관련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교육이수를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수원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현재 이전된 서울농생대는 1904년에 수원시 최초의 대학으로 유래와 역사적 보전 가치가 있으며, 조경시설, 수목원, 운동장 등은 지역주민들이 휴식 및 체력단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수원공군비행장의 비행기의 이, 착륙 및 회항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어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4년 서울 본교 캠퍼스로 이전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약 1천억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면적 268,487㎡ 중 152,070㎡를 매각 재산으로 만들어 현재 기획재정부에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표 12〉

우리는 과거 수원교도(우만동), 보훈원(조원동)등 공공 기관들이 이전되면서 수원에 남겨놓은 것은 대규모 고밀, 고층의 공동주택들 뿐 이다. 이 들은 도시의 과밀과 교통·환경을 어지럽히고 세계문화 유산「화성」의 역사경관, 광고산 스카이라인 경관 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국가정책과 관련 법률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 부지의 매각, 이전 토지의 활용·이용계획 등에 대해 수원시가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전무한 실정이다. 자칫하면, 기이 교도소, 보훈원 이전부지 개발에서 경험했던 전처를 받게 될 우려가 크다.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현(縣)청사 이전 건축물을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으로 재창조한 사례와 요코하마 ‘옛 관동재무국’, ‘옛 노동기준국’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Triennale station)」의 아티스트의 활용, 작가의 거점 활동 공간으로 재활용을 통해 창조적 산업을 유치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원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이며, 천혜의 창조적 공간 자원이다. 따라서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해 시민, 정치인, 전문가, 예술가, 시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 수원이 필요한,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전통·산업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창조적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

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 11〉 수원시 관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 구분 | 도면 번호 | 기관명 | 소재지 | 부지면적 (㎡) | 수원시 활용방안 (도시기본계획) | 용도지역 | 부지 처리계획 |
|-----------------|----------------------|-------------|---------|-----------------------------------|--|--------------|--------------------|
| 계 | | 13개 기관 | | 2,394,768 | | | |
| 09년기매각 | 1 | 국립농업과학원 | 망포동 | 4,942 | - | 자연녹지 | 망포도서관 |
| 10년 매각 계획 | 2 | 국세공무원교육원 | 파장동 | 90,559 | • 교육연수기능 • 관광숙박기능 • 문화복지기능 | 일반주거 자연녹지 | 일반매각 |
| | 3 | 농업연수원 | 서둔동 | 40,621 | • 친환경주거단지 • 농업관광관련 국제교류 문화관광숙박 • 농업테마공원 • R&D 기능 | 일반주거 | |
| | 4 | 지방행정연수원 | 파장동 | 50,222 | • 교육연수기능 • 관광숙박기능 • 문화복지기능 | 일반주거 자연녹지 | 경기도와 우선협상 매각 |
| | 5 | 농촌진흥청 | 서둔동 | 356,513 | • 친환경주거단지 • 농업관광관련 국제교류 문화관광숙박 • 농업테마공원 • R&D 기능 | 일반주거 자연녹지 | 투자기관 매각추진 |
| | 6 | 국립식물검역원 | 망포동 | 25,095 | • 주거 및 편익기능 • 문화복지기능 • 근린공원 | 자연녹지 | 투자기관 매각추진 |
| 7 | 국립종자원 | 망포동 | 57,177 | • 주거 및 편익기능 • 문화복지기능 • 근린공원 | 자연녹지 | | |
| 8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 서둔동 | 59,032 | • R&D 기능 • 주거 및 편익기능 • 근린공원 | 일반주거 자연녹지 | | |
| 9 | 국립농업과학원 | 서둔동, 망포동 | 286,697 | | 자연녹지 | | |
| 10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 화서동 | 10,572 | | 자연녹지 | | |

| | | | | | |
|----|-----------|---------|---------|---|--------------|
| 11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이목동, 탑동 | 564,5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편익기능 • 사회복지기능 • 교육시설 • 근린공원 • R&D 기능 | 자연녹지 생산녹지 |
| 12 | 국립축산과학원 | 오목천동 | 425,8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기능 • 주거 및 편익기능 • 근린공원 | 자연녹지 |
| 13 | 국립식량과학원 | 서둔동, 탑동 | 422,9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문화관광 속박기능 • 농업테마공원 • R&D 기능 • 친환경주거단지 | 일반주거 자연녹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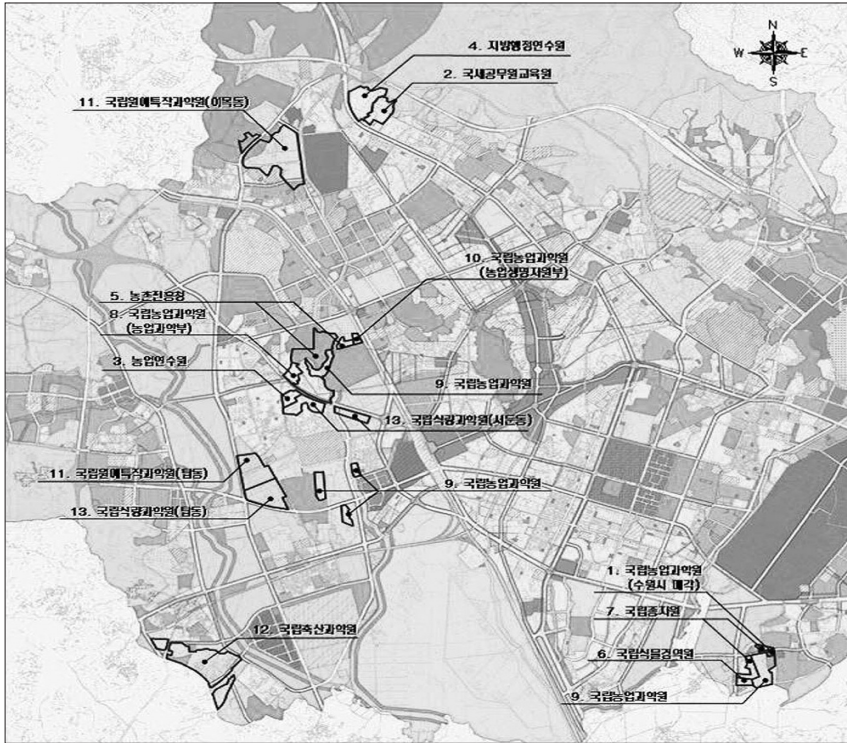
출처 : 수원시 자료 재정리

〈표 12〉 서울 농생대 이전 부지 현황

| 기관명 | 소재지 | 부지면적 (㎡) | 수원시 활용방안 (도시기본계획) | 용도지역 | 부지 처리계획 |
|-------------|-----|-----------|---|------|---------|
| 서울대학교 (농생대) | 서둔동 | 2,394,76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공공기능 • 문화 및 여가 도입 | 자연녹지 | 일반매각 |

출처 : 수원시 자료 재정리

〈그림 15〉 정자동 선경(SK) 현황사진



출처 : 수원시

〈그림 16〉 농촌진흥청 전경사진



출처 : 수원시

〈그림 17〉 국립농업과학원 전경 사진



출처 : 수원시

〈그림 18〉 국립축산과학원 전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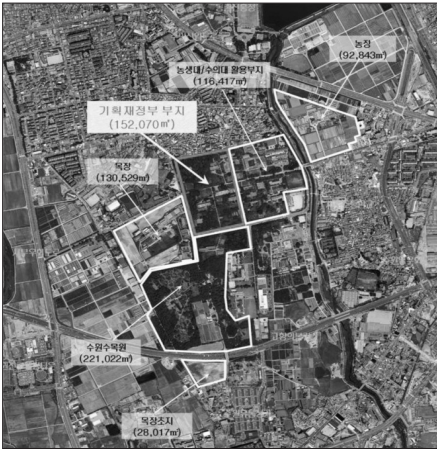
출처 : 수원시

〈그림 1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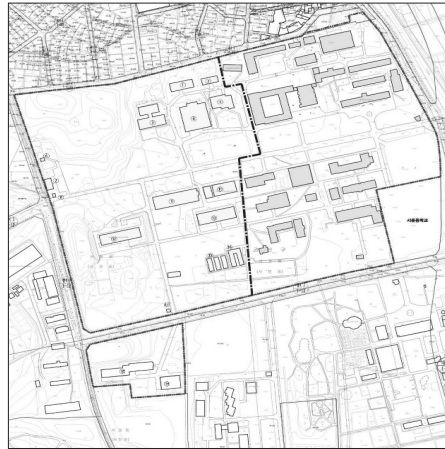
출처 : 수원시

〈그림 20〉 서울농생대 교지 전경 사진



출처 : 수원시

〈그림 21〉 서울농생대 기존건물 현황도



3. 도시재생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도시 재창조 방안

수원은 세계문화 유산인 「華城」과 세계기록유산인 「華城城役儀軌」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충만한 도시이다.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수원 화성은 문화재 및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1997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화성 성역의궤」 역시 기록의 정밀성과 우수성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화성」은 수원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물로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문화재 자원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하는 요소가 되었다. 역사유적과 문화는 그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대변하는 요소이며, 매력적인 창조적 자원이다.

역사·문화도시 만들기의 성공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역사 유적과 함께 오늘날의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요구가 조화롭게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이론과 문헌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도시는 '다양한 계층의 창조적 인재들이 활동 할 수 있는 문화적 개방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이들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관용성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에 의해 독자적인 예술문화와 풍부한 생활문화가 길러져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시 곳곳에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조적 장소(sustainability)가 풍부하여 혁신적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 예정인 '구도심 재생', '대기업 공장 이전 적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수원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귀중한 공간 자원이다. 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공간 속의 당사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창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온 '수원역사·문화 도시 만들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국내외 선진도시들이 경험한 성공적인 창조도시 사례를 참고하여 수원이 앞으로 나아가 할 역사·문화도시 재창조 방안을 제시한다.

1)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구도심 지역에 시행될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가 결합된 문화 창조적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쇠퇴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낙후된 구도심의 도심환경을 정비하는 형태였다면, 현대는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에서 도시공간의 재생과 정비, 친인간적 환경의 조성, 매력적인 도시경관과 산업 구조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문화와 예술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

다(정성구, 2010).

즉, 수원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세계문화유산「화성」으로 화성의 역사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재건축, 재개발이「화성」의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역사 경관 저해 등 세계문화 유산 보존을 위협하고 있다. 화성의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화성」자체는 물론 관련된 문화유산의 보존, 역사적 도시경관의 보존과 화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을 육성·창출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그 밖에 지역도 수원시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문적 특성을 포함한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활용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영국의 맨체스터 노스모어의 경우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 수립한 홈존(Home Zone)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은 주거지 커뮤니티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 문화, 경제적 자원 활용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이 기인하였다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 진행 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거주민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룬 것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수원도 과거의 공동주택위주 재건축, 재개발에서 탈피하여 세계문화 유산「화성」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재창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대기업 공장 이전 적지

대기업 공장이전 부지는 수원의 미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과거 70~90년대 초까지 수원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 공장들이 섬유산업 쇠락과 업종의 전환, 생산비용 절감 등의 연유로 국외 또는 국내 지방 도시로 이전되거나 이전에정해 있다. 오래전에 이전한 대한 방직이나 한일합섬 공장부지는 이미 고밀, 고층의 아파트가 건립되었으며, 최근에 이전된 금강(KCC) 공장부지는 수원역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상업과 주거기능으로 개발 중에 있다. 정자동에 위치한 선경합섬(SKCC)은 고밀의 아파트단지 개발 중이며, 평동 구 선경직물공장 이전부지는 상업기능으로 개발 할 예정이다. 이들 공장 이전 적지 대부분은 수원의 특성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이 기

존의 공장들 모두를 철거하고, 빠른 기간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과밀과 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유발 시키고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 경우는 산업기능이 다해버린 사업유휴지를 약 25년의 장기 전략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그리고 문화시설의 조성해 맨체스터 문화 중심지구로 성장하고, 제국전쟁 박물관 등을 구축해 문화 재생사업을 이끌어온 성공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유럽이나 일본의 창조도시들은 산업기능이 다해 버린 산업유휴지를 오랜 기간을 통해 창조적 산업을 재창출, 도시를 재도약하는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수원도 이러한 선진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공장 이전 적지를 역사·문화도시로 재창조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수원역 주변에 위치한 금강(KCC) 공장 이전적지는 낙후된 서수권의 균형 개발의 기반이 되는 상업기능과 수원역의 이용객을 흡수하는 문화산업 공간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인접한 서둔동 선경합섬(SK) 공장 이전적지는 비행고도 제한, 비행기소음 등 개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상업기능이나 주거기능의 개발보다는 선경(SK)의 탄생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요코하마 사례와 같이 기존의 공장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선경 역사박물관, 문화예술촌 등의 문화산업 창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자동에 위치한 구 담배인삼공사(KT&G)는 수원의 강점인 IT산업과 연계된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 산업공간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예술센터 등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 이전적지

수원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이전적지는 역사·문화도시를 재창조한 공간으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원을 재창조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천혜의 창조적 공간 자원이다. 따라서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수원이 필요한,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전통·산업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창조적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둔동 농촌진흥청 본청은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본산으로 존치보존하고, 역사성과 그동안 연구된 농업관련 자료 등을 세계적인 농업사 박물관으로 재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산하 연구

기관들은 바이오산업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육원 2개소, 서울 농생대는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조적 인재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실험시설과 서울농생대 실험 실습부지, 기획재정부 소유(서울농대 매각토지)는 농업 테마파크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Ⅶ. 결 론

「창조도시」는 21세기의 세계적인 흐름이다. 사사키 마사유키는(2006), 「세계도시」세대가 지나고 「창조도시」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창조도시」는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고, 도시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시민의 활발한 창조 활동에 의해 첨단적인 예술과 풍부한 생활문화가 길러지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하는 「창조적 장소」가 풍부한 도시로서,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힘으로 가득 찬 도시」라 하였다.

라도삼(2010)은 「창조도시」는 어떤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공존시키는 가운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즉, 과거의 것을 축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현 단계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창조도시이다. 쉽게 말해 과거의 것을 활용해 얼마나 창조적으로 재생하고 활성화했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창조도시가 되고 안 되고는 결정된다. 창조도시는 첨단문화 IT, 디자인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복원과 가치제고, 노후지역의 재설계 및 새로운 재활용,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의 문화화 및 창조지역화 등이 창조도시를 위한 첫 번째 길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도심 재생, 대기기업의 공장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일련의 일들은 「창조도시」로 나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수원은 1997년 「화성」의 세계문화 유산 등록과 더불어 화성의 보존·복원 그리고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화성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수한 관광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주변의 경관관리 소홀 등으로 수원의 대표 이미지로서 표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계기는 제공되었으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역사·문화 관광지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공장 이전 문제도 그렇다. 대기업의 공장들의 이전은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흐름인 탈공업시대부터 예견된 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하게 대처하여 공장이전 부지 대부분이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거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기관이전 역시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등에 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 물론, 국가정책이나 관련 법률상 수원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는 하겠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교도소, 보훈원 개발 사례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차 산업의 쇠락 등 수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대기업 공장, 공공기관 이전은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창조도시들이 경험했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시를 재창출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는 크다. 우리도 세계문화유산「화성」과 구도심재생, 공장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세트(Set)화하여 수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들을 활용한 재창조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하여 시민과 시정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수원이 역사·문화도시로서 재창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구자욱, 2010, '농업근대화 발상과 농학의 태동지, 수원서둔별', 수원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학술대회자료집, 수원박물관.
- 김동욱, 2002,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 신도시' 데마한국문화사.
- 라도삼외3, 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라도삼, 2010, '창조도시의 동향과 전략', 산업연구원.
- 박은실, 2008, '국내 창조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 신동호외8, 2009, '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 한울.
- 양도식, 2009, '맨체스터, 산업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거듭나다', 국토연구원.
- 이용우, 2007, '창조도시로 도약하는 녹색항구, 뒤셀도르프', 국토연구원.

- 이희연, 2008, '창조도시, 문화가 도시를 살린다', 국토연구원.
- 이석현, 2010,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 미세움.
- 오민근, 2008, '해외창조도시 사례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 유봉학, 1999, '농업진흥과 연구의 200년 전통', 한국 농업연구 200년 전통과 계승방안 심포지엄.
- 윤준도, 2008, '바르셀로나의 창조도시 전략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 전병태, 2008,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성구, 2008, 'Creative 광주'를 위한 전략과 과제', 광주 발전연구원.
- 정성구, 2010, '창조도시 광주의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광주발전연구원.
- 최병선, 2009, '창조도시 가설' 국토연구원.
- 최호운, 2008, '수원의 성장과 역사·문화적 정체성', EAROPH 일본 히메지 효고대회.
- 쿠니요시 나오유키, 2008, '문화예술 창조도시 요코하마와 산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사사키 마사유키, 2008, '네트워킹을 통한 창조도시 개발', 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 사사키 마사유키, 2006, '창조도시의 세기와 아시아', 「창조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공간적 문화정책의 방향 토론회.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옛 수원군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편집위원 약간 명
5. 상임연구원
6.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1. 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상정,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5. 운영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7.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회지,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위촉)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제20조(권한 및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 및 원고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3. 회지 논문 및 간행물 투고에 관한 규정 작성.

제21조(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4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2월 29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7월 3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휘 보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 직 위 | 성 명 | 자 택 주 소 | 전 화(자 택) | 핸 드 폰 | 현직 | 신/구 |
|-----------|-----|--|-------------------------------|-------------------------|------------------------|-----|
| | | 직 장 주 소 | 전 화(사무실) | 이 메 일 | | |
| 소장 | 은수길 | | | 010-6318-7108 | 수원 문화원 부원장 | 유임 |
| | | | 031-244-2141~3 244-2164(F) | cc440sw@ cholian.com | | |
| 운영 위원장 | 김학웅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매 탄위브하늘채② 133동 1003호 | 031-212-1538 | 011-726-7784 | 풍광대표 | 유임 |
| |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3 백궁빌딩 | 031-211-7784 212-7784(F) | pk7784@ hanmail.net | 수원 문화원 이사 | |
| 운영위원 | 윤한식 | 경기도 권선구 오목천동 375-2 3층 | | 011-264-6524 | 한국알미늄 (주)대표 | 유임 |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8-4 한국알루미늄(주) | 031-291-1932(F) | | 하나로건설 회장 | |
| 운영위원 | 김영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84번지 | | 010-8980-9685 | 가보주방 대표 | 유임 |
| | | | 031-235-9685(F) | | | |
| 운영위원 | 김재홍 | | 031-211-8959 | 010-3305-8805 | 삼부자갈비 대표 | 유임 |
|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6-1 삼부자갈비 | 031-215-1191(F) | | 한국청년 회의소 수원JC 회장 | |
| 운영위원 | 이종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② 155동 1601호 | 031-248-5437 | 010-6235-0777 | (주) 엘메이드 대표 | 유임 |
| | | | 031-248-5439(F) | | | |

| 직 위 | 성 명 | 자 택 주 소 | 전 화(자 택) | 핸 드 폰 | 현직 | 신/구 |
|-----------|-----|---|-----------------------------|-------------------------|---------------------------|-----|
| | | 직 장 주 소 | 전 화(사무실) | 이 메 일 | | |
| 운영위원 | 김종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90 엘디코오롱④ 104-204 35/4 | 031-221-3433 | 011-262-4561 | 엘리제 웨딩홀 대표 | 유입 |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7 엘리제웨딩홀 | 031- 222-6654(F) | | | |
| 연구 위원장 | 김동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35-501 | 02-566-5640 | 010-5015-5640 | 경기대학교 교수 | 유입 |
|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 02-390-5157 | dukim@ kyonggi.ac.kr |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 |
| 연구위원 | 장필기 | | 031-213-6951 | 010-9596-6951 | 국사편찬 위원회 사료편찬 실장 | 유입 |
| |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국사편찬위원회 | 02-500-8346 | jpk@ history.go.kr | | |
| 연구위원 | 박 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2동 232-21 | 02-3477-0731 | 017-268-3569 | 수원 대학교 교수 | 유입 |
| | |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사학과 | 031-220-2346 | hwpark@ suwon.ac.kr | | |
| 연구위원 | 엄서호 | | 02-307-1878 | 011-749-1875 | 경기 대학교 교수 | 유입 |
|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부 | 031-249-9519 | seohoum@ kgu.ac.kr | | |
| 연구위원 | 김은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889-6 CJ나인빌리지 2차 601호 | | 010-3242-5877 | 수원 대학교 교수 | 유입 |
|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 031-220-2574 220-2546(F) | gracek@ suwon.ac.kr | | |
| 연구위원 | 신중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25 방배신삼호 ③ 라동 1004호 | | 010-8834-9241 | 성균관 대학교 교수 | 유입 |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031-290-7562 | jjshin@skku.edu | | |

| 직위 | 성명 | 자택주소 | 전화(자택) | 핸드폰 | 현직 | 신/구 |
|-----------|-----|---|--------------|--------------------------|-------------------------------|-----|
| | | 직장주소 | 전화(사무실) | 이메일 | | |
| 연구위원 | 김병용 | | | 010-4538-0977 | 수원대학교 교수 | 유임 |
|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 031-229-8031 | kimyong@ suwon.ac.kr | | |
| 연구위원 | 김명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3차④ B동 204호 | | 011-267-6030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 대학원 교수 | 유임 |
|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 mkim@ kyonggi.ac.kr | | |
| 연구위원 | 이창근 | | | 010-7297-1130 | 장안대학교 교수 | 유임 |
|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0 장안대학교 생활체육과 | 031-299-3280 | cglee@ jangan.ac.kr | | |
| 연구위원 | 김준혁 | | | 016-309-9847 | 수원화성 박물관 학예팀장 | 유임 |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 수원화성박물관 | 031-228-4411 | jhk1789@ korea.kr | | |
| 편집 위원장 | 강진갑 | | | 017-253-7190 | 경기도 향토사 연구 협의회장 | 신임 |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626 동성빌딩 302호 | 031-251-9751 | kanghis@ unitel.co.kr | | |
| 편집위원 | 한동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07-10 301호 | | 010-3218-8079 | 수원 박물관 학예팀장 | 신임 |
|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폰은대로 265 수원박물관 | 031-228-4140 | kaha21@ korea.kr | | |
| 편집위원 | 정수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05 우만선경APT 102동 1802호 | | 010-3300-3148 | 아주 대학교 강사· 시인 | 신임 |
| | | | | jookbee7@ hanmail.net | | |
| 편집위원 | 최자운 | 수원시 권선구 탑동 843-4 선림빌딩 508호 | | 010-2721-0296 | 농촌 진흥청 농업 과학원 연구원 | 신임 |
| | | | | jauni@ hanmail.net | | |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1〉제목, 목차, 필자명

1. 게재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2〉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3〉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4〉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 101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

수록, 100쪽, 1998.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원문 이용은 “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5〉주의 사항 : 영문 초록, 주제어 첨부

1. 맺음말 뒤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3. 주제어는 5개 이상을 선정하여 맺음말 뒤에 첨부한다.

수원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강진갑(역사문화콘텐츠 연구소장)

위원 : 정수자(시 인)

최자운(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편집간사 : 이성희(수원학연구소 학예연구사)

水原學研究

第七號

인쇄 2010년 12월 15일

발행 2010년 12월 31일

발행인 은 수 길

편집인 유 병 현

발행처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산 2-1

TEL : 031-244-2161~3

제작 풍광 : 031-211-7784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